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에티오피아

2014. 6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전 승 훈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사장

국별연구원

▸ 모잠비크:

이 문 희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용 택 전남대학교 초빙교수

▸ 에티오피아:

이 명 수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김 후 경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콩고민주공화국:

김 장 생 연세대학교 교수
박 선 희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기획관

연구보조원 이 은 샘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본 연구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에 위탁하여 수행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문

본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발주에 의하여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가 수행한 아프리카 중점협력 3개국, 즉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로서, 본 편은 에티오피아에 대한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담은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농업 및 농촌분야 개발협력을 함에 있어서, 아프리카 농업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익숙한 농업,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협력해 온 아시아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식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 우선, 이들 국가들의 농업 문제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이들 국가의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지원과 우리나라의 지원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 끝으로, 위 두 단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바람직한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아프리카 중점협력 3개국의 농업 문제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분석해 볼 때, 이들 국가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의 여건은 한국이나 아시아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이들 지역에 있어서 농업이 국가개발에 갖는 중요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위 3국이 속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세계 최빈 대륙

으로서 높은 빈곤율 및 기아인구를 시현하고 있어 빈곤 극복 또는 개발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당장 농업 이외에는 달리 길이 보이고 있지 않다. 농업 외에 빈곤 극복을 위한 길은 한국처럼 산업화를 하던가, 아니면 부존자원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어서 현재 산업기반이 극히 취약한 여건에서 시장이 개방되어 산업화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후자인 자원 수입의 경우, 자원은 유한하니 영구적으로 의존할 것이 못될뿐더러 국가나 개인이 일하지 않고 자원 수입원에만 의존하여 장기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이들 지역에 있어서 농업은 빈곤 극복과 개발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이들 국가의 빈곤 극복 전략들도, 농업 및 농촌개발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토지, 기후 등 농업의 자연적 조건을 보면 양호한 정도를 넘어서 우리로서는 너무나 부러운 조건이다. 모잠비크의 경우, 인구 2천 5백만 명에 경작가능면적은 3천 6백만ha이나 되며, 그 중 5백만ha가 경작되고 있다. 강우량은 다소 적다고 하지만 충분한 수자원 개발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일조량이 아주 좋고 기후도 경작에 좋은 편이다. 에티오피아는 인구 9천 380만 명에 국토면적이 120만km^2의 대국으로서, 중부 고원지대에서 변방의 저지대(사막)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강우량도 많고 토지도 비옥하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인구 7천 7백만 명에 국토는 한반도의 11배로서 2.3백만km^2, 경작가능면적은 8천만ha이며, 수자원도 풍부하여 아프리카의 저수지로 불린다. 이상과 같은 유리한 자연적 조건 하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을 예로서 보면, 인구의 71%가 절대빈곤에 속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율은 2.5%이나 농산물 증산은 연간 3%에 불과한 실정이니, 우리로서는 기이하게 느껴질 일이기도 하다. 이들 나라들이 지금 빈곤 상태에 있기는 하나 이러한 엄청난 농업발전의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빈곤 극복과 개발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아울러 농업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내지는 이들 3개국에 대한 개발협력은 농업·농촌개발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셋째, 앞서 기술한 농업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에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다수 국민들이 기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람, 제도, 농업 인프라 문제에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의 행태에서부터 농업생산 투입 요소, 가공, 유통체제, 농업 금융 및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에서 절대적 취약 내지는 부족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의 정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깊다고 볼 수 있다.

- 농민 의식: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의식과 행태가 농업발전의 기본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농민들은 오랜 식민지 지배와 내전 그리고 사회주의 물결, 오랜 기간의 외국 원조 등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농민의 의식과 행태가 형성되어 왔다.
- 토지 제도: 이들 국가에 있어서 토지는 국유이며, 나라에 따라서 실제 소유권의 상당 부분을 부족장이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토지 소유 관계가 농민의 영농 의식 및 농업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 농업생산 투입 요소: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금융, 종자, 생산 기자재 등의 투입이 필요하나 빈곤 국가의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이들 투입 요소에 대한 접근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 농가공 및 유통 체제: 농작물은 수확후관리, 가공을 거쳐서 유통 체제를 통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는데, 이러한 가치사슬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 농업 인프라: 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필요한 관개, 전력, 수송 인프라 등이 아주 미비 하다.

여기에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나름대로 천혜의 농업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인프라, 관리 등 인적 조건에 기인하여 농업이 오랜 기간 동안 정체에 머무르고 있고 그에 따라 빈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국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루기에는 역량이 미흡하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취약성 내지는 절대적 결여의 여건 하에서 어느 한 부분에 제약된 개발 역량과 재원을 투입해 보아야 효과를 내기 어렵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어떠한 정부에게도 없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을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적 및 한국의 지원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오랜 원조를 해온 국제기구나 선진 공여국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 지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무엇보다 이들 공여기관 또는 양자 협력국들은 농업분야 협력을 해당 국가의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과 긴밀히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대화 그룹을 형성하고 해당 국가의 농업정책 당국자와 원조 공여자들 간에 자주 긴밀하게 정책적 대화를 통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 사업 규모는 다양하나, 대부분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다년도 사업이 끝나더라도 2차 또는 3차의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현지화를 도모하고 있다. 많은 공여기관들 자신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현지 NGO 또는 적정 기관에 사업수행을 위임하고, 자신들은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후 동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수원국 정책 당국자 및 원조 공여자들 간의 긴밀한 정책 대화에 의하여 원조 조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주요 양자 공여국들의 국별 협력전략과 협력사업 구성을 보면 자신들의 경험이 축적된 분야 또는 우위 역량을 가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 협력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았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를 보면 현지의 문화 또는 관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두드러진 사유였다.
- 선진 공여국들의 원조를 볼 때, 수원국이 농업에 두고 있는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충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국제기구나 선진 공여국들의 국별 협력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MDG 달성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또는 이들 3개국에 대한 농업 및 농촌 분야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들 3개국에 대한 협력 내용을 보면, 이들 국가의

농업 또는 농촌개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이 분야에 대한 사업 비중은 높았지만,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았다. 우선 수원국의 정책 기조 및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를 보다 충실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 사이에 있어서 원조 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단위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도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우리나라의 이들 국가에 대한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이들 국가에 대한 개발협력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비중 문제이다. 수원국의 다양한 빈곤 극복과 개발을 위한 협력 수요 중에서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를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 극복에 있어서는 농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 우리나라의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개발협력에도 이것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빈곤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중점적 원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큰 성과를 볼 수 없었음은 이들 지역 빈곤 극복의 관건인 농업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 한국은 선진 공여국들과는 달리 농업발전 및 농촌개발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이들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개발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농업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 다음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농업의 종자, 수확후관리, 기자재, 가공 등 여러 가치사슬 중에서, 그리고 농업생산, 기술 교육 또는 농촌개발 측면에서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적정 사업 분야가 해당 국가별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협력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우선 해당국 정책 기조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질 것, 타 공여국들과의 원조 조화를 충분히 고려할 것,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정된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제약하는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원조사업이 현지에서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는 초기에는 소홀하기 쉬운데 나중에 이로 인하여 원조효과가 인정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원조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해당 국가 정책 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해당 국가가 동 사업에 대한 확실한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규모가 일정 단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조 분절화로 여러 기관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영세 규모로 사업을 벌이는 일에 우선하는 일은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년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2차 또는 3차의 후속 사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지의 문화, 관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것들과 충돌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주로 PMC가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지에 위탁하는 것과 비교하여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직접 수행할 경우 그 장점을 잘 살리되, 사업 종료로 철수할 경우 현지의 사업관리자를 확실하게 하여 그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개국에 있어서 농업의 문제는 여러 산업 중 하나로서의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빈곤과 개발의 열쇠가 되는 긴요한 유일의 산업이 아닌가 한다. 이들 지역이 지난 반세기 국제사회의 빈곤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중점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가 뚜렷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은 이들 지역에 있어서 농업이 정체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좋은 자연적 조건에 불구하고 농업이 그토록 정체되고 있음은 쉽게 풀릴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좁은 땅에서 농업생산성의 획기적 증대와 세계 농촌개발 역사에 있어서 그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농촌개발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을 계속 증대시켜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농업·농촌개발 협력이 해당지역의 빈곤 극복과 농업발전에 한층 더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목 차

제1장 서론 ---- 7

제2장 국가일반 및 개발현황 ---- 13
제1절 국가일반현황 ---- 15
제2절 국가개발현황과 전략 ---- 29

제3장 농업·농촌 여건과 개발현황 ---- 39
제1절 농업·농촌개발 여건과 현황 ---- 41
제2절 농업·농촌개발 정책과 추진체계 ---- 80
제3절 농업·농촌개발 제약요인 ---- 95

제4장 농업·농촌개발 지원현황 ---- 107
제1절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지원전략과 현황 ---- 109
제2절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 지원전략과 현황 ---- 167

제5장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 ---- 195
제1절 KOICA의 지원적합분야 ---- 197
제2절 KOICA의 사업시행방법 ---- 211
제3절 KOICA의 지원방안 ---- 217
제4절 기대효과 ---- 242

제6장 결론 ---- 243
제1절 농업·농촌개발 현황 ---- 245
제2절 농업·지원방안 지원현황 ---- 247
제3절 농업·지원방안 지원방안 ---- 250

참고문헌 ---------- 255

별첨 ---------- 263

[별첨 1] 최종보고회 발표 자료
[별첨 2] 현지 기관면담 회의록
[별첨 3] 주요기관 연락처
[별첨 4] RED/FS WG 개요
[별첨 4-1] 주요 공여국의 에티오피아 현지 활동개요
[별첨 4-2] 주요 국제기구의 에티오피아 현지 활동개요
[별첨 5] 에티오피아 농업부 조직도
[별첨 6]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농업·농촌개발 분야 개발협력 사업

표 목차

〈표 2-1〉 에티오피아 개황 ---- 16
〈표 2-2〉 에티오피아 현대사 개요 ---- 18
〈표 2-3〉 에티오피아의 주요경제지표 ---- 21
〈표 2-4〉 에티오피아의 인프라 관련 지표 ---- 25
〈표 2-5〉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 품목 및 대상국 ---- 26
〈표 2-6〉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입 품목 ---- 27
〈표 2-7〉 에티오피아의 국제수지 구조 ---- 28
〈표 2-8〉 PASDEP 기간 중 농업부문의 성과 예시 ---- 35
〈표 2-9〉 GTP의 경제성장 시나리오별 목표 ---- 36
〈표 2-10〉 GTP의 부문별 추진목표 ---- 37
〈표 2-11〉 GTP 시행 2년간의 산업구조 변화 ---- 38
〈표 3-1〉 농업생태지구별 영농현황 ---- 44
〈표 3-2〉 에티오피아의 10대 농산물 ---- 48
〈표 3-3〉 에티오피아 재배작물의 종류 ---- 49
〈표 3-4〉 에티오피아 작물부류별 재배현황 ---- 50
〈표 3-5〉 에티오피아 주요작물별 생산현황 ---- 54
〈표 3-6〉 에티오피아 가축사육두수 및 축산물생산량 ---- 56
〈표 3-7〉 에티오피아와 인근국가의 우유생산성 비교 ---- 58
〈표 3-8〉 에티오피아의 농업연구기관 구조 ---- 64
〈표 3-9〉 에티오피아의 주요 농산물수입내역 ---- 70
〈표 3-10〉 에티오피아 MDG 추진상황 ---- 79
〈표 3-11〉 GTP의 주요 농업정책 목표 ---- 82
〈표 3-12〉 PIF의 전략목표와 우선투자분야 ---- 87
〈표 3-13〉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정책(SLMP) 지원내역 ---- 89
〈표 3-14〉 에티오피아 농업부조직도 ---- 92
〈표 3-15〉 농업부 산하 및 관련기관 ---- 92
〈표 3-16〉 에티오피아의 개발협력 파트너(23개) ---- 93
〈표 3-17〉 빈곤 문제 및 농업관련예산 집행실적 ---- 94
〈표 3-18〉 장기 농업개발계획상 예산배분내역 ---- 94
〈표 4-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별 ODA수원 현황 ---- 110
〈표 4-2〉 ODA공여주체별 에티오피아 지원현황 ---- 111

〈표 4-3〉 에티오피아에 대한 양자 ODA의 분야별 구성 ---- 112
〈표 4-4〉 에티오피아 현지의 DAG 구성현황 ---- 113
〈표 4-5〉 ODA 공여주체별 에티오피아 농업·농촌분야지원현황 ---- 116
〈표 4-6〉 에티오피아 농업지원의 세부분야 구성현황 ---- 119
〈표 4-7〉 에티오피아의 농업생태지역별 영농여건 ---- 121
〈표 4-8〉 농업성장을 통한 식량문제해소 프로그램 개요 ---- 123
〈표 4-9〉 USAID의 민간기업을 활용한 PPP 사업 개요 ---- 124
〈표 4-10〉 취약부문을 시장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요 ---- 125
〈표 4-11〉 정책과 추진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요 ---- 126
〈표 4-12〉 USAID의 NGO를 활용한 PPP 사업 개요 ---- 127
〈표 4-13〉 USAID의 사업별 성과관리지표 ---- 128
〈표 4-14〉 일본의 대 에티오피아 ODA 우선순위 ---- 131
〈표 4-15〉 일본의 ODA사업 협력 매트릭스(Matrix) ---- 133
〈표 4-16〉 일본의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지원 사업현황 ---- 135
〈표 4-17〉 JICA 농업·농촌개발 사업 개요(1) ---- 137
〈표 4-18〉 JICA 농업·농촌개발 사업 개요(2) ---- 137
〈표 4-19〉 에티오피아 SLMP 사업 요소와 지원기관 ---- 138
〈표 4-20〉 독일이 에티오피아에서 시행중인 농업분야 주요사업 ---- 140
〈표 4-21〉 GIZ/Ethiopia 농기계 부문 PPP 사업 개요 ---- 142
〈표 4-22〉 World Bank/Ethiopia의 농업분야 ODA사업 ---- 146
〈표 4-23〉 AfDB의 대 에티오피아 ODA사업 현황 ---- 148
〈표 4-24〉 FAO/Ethiopia의 핵심기능과 우선지원 분야 ---- 149
〈표 4-25〉 FAO/Ethiopia의 농업·농촌 ODA사업 ---- 150
〈표 4-26〉 FAO/Ethiopia의 CPF 성과 매트릭스 ---- 151
〈표 4-27〉 WFP/에티오피아의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요소 ---- 153
〈표 4-28〉 WFP의 에티오피아지원 사업 현황 ---- 154
〈표 4-29〉 WFP MERET 사업 개요 ---- 155
〈표 4-30〉 MERET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 157
〈표 4-31〉 CIDA/Ethiopia의 농업분야 주요사업 내용 ---- 159
〈표 4-32〉 우리나라의 ODA 대상국가 ---- 169
〈표 4-33〉 농식품부와 양청의 국제개발협력 예산개요 ---- 171
〈표 4-34〉 농식품부와 양청이 추진 중인 국제개발협력 사업개요 ---- 171
〈표 4-35〉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에티오피아에서 추진 중인 사업 ---- 172
〈표 4-36〉 KAPEX 농정컨설팅사업 대상 분야 ---- 175

〈표 4-37〉 무상원조의 분야별 지역별 배분현황 ---------- 179
〈표 4-38〉 KOICA의 농림수산 분야 지원전략 ---------- 181
〈표 4-39〉 에티오피아 아르시(Arsi) 지역 농촌개발사업 세부내역 ---------- 182
〈표 4-40〉 EDCF 사업 추진절차 ---------- 187
〈표 4-41〉 에티오피아 시범새마을의 활동내역 ---------- 191
〈표 5-1〉 한국,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농업생산 관련지표 ---------- 203
〈표 5-2〉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 선행연구(1) ---------- 205
〈표 5-3〉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 선행연구(2) ---------- 206
〈표 5-4〉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 선행연구(3) ---------- 206
〈표 5-5〉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지원 분야 비교검토 ---------- 210
〈표 5-6〉 Kebele 단계 농민교육 성과와 제약요인 ---------- 220
〈표 5-7〉 행정단계별 농민교육 성과와 제약요인 ---------- 221
〈표 5-8〉 ATVET 단계의 DA교육 성과와 제약요인 ---------- 222
〈표 5-9〉 지역별 쌀 재배현황 ---------- 233

그림 목차

[그림 2-1] 에티오피아 지도 ---- 15
[그림 2-2] 에티오피아 행정지도 ---- 17
[그림 2-3]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률 ---- 19
[그림 2-4] 에티오피아의 경제구조 ---- 20
[그림 2-5] 에티오피아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성장률 ---- 22
[그림 2-6] 에티오피아 제조업 구성 ---- 23
[그림 2-7] 에티오피아의 관광산업 ---- 23
[그림 2-8] SDPRP의 성과지표 예시 ---- 32
[그림 2-9] PASDEP 기간 중 실질 GDP 성장내역 ---- 34
[그림 2-10] GTP 시행 2년간 경제성장 내역 ---- 38
[그림 3-1] 에티오피아 토지자원 현황 ---- 41
[그림 3-2] 지역별 강우량 분포 ---- 42
[그림 3-3] 농업기후대 분포 ---- 43
[그림 3-4] 에티오피아의 주요곡물 재배지역 ---- 50
[그림 3-5] 에티오피아 영농구조 ---- 52
[그림 3-6] 에티오피아의 비료사용량 추이 ---- 61
[그림 3-7] 에티오피아의 농약수입 추이 ---- 62
[그림 3-8] 최근 농촌인구 변화추이 ---- 71
[그림 3-9] 최근 농업생산지수 변화추이 ---- 72
[그림 3-10] 에티오피아의 질소와 인산비료(N+P) 사용량 비교 ---- 100
[그림 3-11] 에티오피아의 곡물단수 비교 ---- 101
[그림 3-12] 에티오피아의 두당 쇠고기와 우유생산량 비교 ---- 102
[그림 4-1] 에티오피아의 최근 ODA수원 추이 ---- 109
[그림 4-2]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농업·농촌개발 지원 사업 분포 ---- 118
[그림 4-3] 에티오피아의 농업생태지도 ---- 120
[그림 4-4] GTP와 World Bank의 에티오피아 CPS ---- 143
[그림 4-5] AfDB의 농업·농촌분야 지원전략 ---- 147
[그림 4-6] 농업·농촌개발지원 추진체계 ---- 168
[그림 4-7] 농림축산식품부 기획협력사업 선정 및 시행절차 ---- 173
[그림 4-8] KOICA의 에티오피아 지원개황 ---- 180
[그림 4-9] EDCF의 연도별 지원 실적 ---- 184
[그림 4-10] EDCF의 분야별 지원 실적 ---- 185

[그림 4-11] EDCF의 지역별 지원 실적 ---------- 185
[그림 4-12] EDCF 사업 운용체계와 기관별 역할 ---------- 186
[그림 4-13]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절차 ---------- 189
[그림 5-1] 주요 개도국의 농민 1만 명당 농촌지도사(DA) 수 ---------- 218

글상자 목차

[글상자 4-1] USAID/Ethiopia ODA 운용체계의 특징 ---------- 122
[글상자 4-2] JICA/Ethiopia의 대 에티오피아 지원 시 고려사항 ---------- 132
[글상자 4-3] World Bank/Ethiopia의 에티오피아 농업에 대한 시각 ---------- 144
[글상자 5-1] KOICA의 에티오피아 농림수산 분야 전략 - 선택과 집중 ---------- 198
[글상자 5-2] Millennium Village Project(MVP) - 코라로 마을 ---------- 214
[글상자 5-3] FTC 시범농장운영 성공사례 ---------- 228

주요약어

ADLI	Agricultural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농업발전주도형 산업화)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 개발은행)
AGP	Agricultural Growth Plan(농업성장 5개년 계획)
AIDB	Agri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Bank/Ethiopia(농공개발은행)
ATA	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cy/Ethiopia(농업구조전환청)
ATVET	Agricultural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ollege (농업기술교육대학)
AU	African Union(아프리카연맹)
CAP	Country Assistance Program/Japan(일본의 국별 지원계획)
CAS	Central Statistical Agency/Ethiopia(에티오피아 통계청)
CBE	Commercial Bank of Ethiopia(상업은행)
CGIAR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국제농업연구그룹)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캐나다국제개발청)
CPF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FAO의 국별 지원계획)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Korea(국가협력전략)
CYMMI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밀·옥수수 품종개량 국제기구)
DA	Development Agents(농촌 지도사)
DAG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Ethiopia(에티오피아 개발협력그룹)
DFID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영국국제개발부)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아프리카 경제위원회)
ECX	Ethiopian Commodity Exchange(상품거래소)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Korea(대외경제협력기금)
EIAR	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농업연구원)

EPRDF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인민혁명민주전선)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식량농업기구)
FRG	Farmers Research Group/Japan(농민연구그룹 사업)
FTC	Farmer Training Centers(농민훈련센터)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국제개발본부)
GTP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성장과 구조전환정책)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농가자산형성지원정책)
HAPCO	HIV/AIDS Prevention and Control Office(HIV/AIDS예방관리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World Bank Group, 국제개발협회)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국제농업개발기금)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국제식량정책연구소)
JICA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일본 국제개발청)
KAFACI	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KAPEX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KOPIA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한국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me(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LALUDEP	Land Administration and Land Use Development Program (토지관리 및 사용개발 전략)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최빈국)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UN 밀레니엄 개발목표)
MERET	Managing Environmental Resources to Enable Transition to more sustainable livelihoods(환경자원관리를 위한 WFP의 식량지원 사업)
MOA	Ministry of Agriculture/Ethiopia(에티오피아 연방 농업부)
MOFED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Ethiopia(재정경제개발부)
MVP	Millennium Village Project(밀레니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 비영리기구)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PASDEP	Plan for Accelerated and Sustained Development to End Poverty (빈곤 퇴치를 위한 개발 가속화 정책)
PIF	Agricultural Sector Policy and Investment Framework(농업개발10년계획)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
PRGSP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Paper(빈곤 감소 및 성장전략)
PSNP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생산적 생계지원정책)
QSPP	Quality Seed Promotion Project for Smallholder Farmers (영세농 대상 우량종자 보급사업)
RED/FS WG	Rural Economic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Working Group (농촌경제개발/식량안보 작업반)
SDPRP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 감축 정책)
SLMP	Sustainable Land Management Program(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정책)
SNNP	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유엔개발계획)
UN/EUE	UN Emergencies Unit for Ethiopia(유엔 에티오피아 비상지원단)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유엔 프로젝트서비스처)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미 국제개발청)
WFP	World Food Programme(세계식량계획)

요 약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 농업·농촌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제약요인은 물 부족과 농민들의 역량부족 문제다. 관개면적이 전체 농경지 면적의 0.5% 수준에 그치고 있어 거의 전 지역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농업뿐 아니라 국민경제가 기상변화에 대단히 민감하며, 가뭄이 계속될 경우 대규모 기근으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농업발전의 전제가 되는 선진 농업기술과 영농자재 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여, 농업생산성이 대단히 낮고 농민들의 기본적인 역량도 그 만큼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티오피아는 농업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면서 최근에는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이처럼 발전과정을 함께해 온 에티오피아 정부와 개발협력 파트너들은 ODA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한 개발의지를 가지고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ODA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사업을 정부정책에 편입시키거나 일치시켜 정부의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ODA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능하면 운영기관이 확실한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기관을 ODA사업 시행주체로 지정하여 사업종료를 전후해서 관리주체의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고려하면서 KOICA 협력 사업으로 적합한 분야를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의 에티오피아 지원 CPS 내용,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구내용, 우리의 비교우위 연구결과,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지원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KOICA 지원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분야는 ① 농업연구와 농민교육, ② 농업용수개발, ③ 그리고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발굴된 분야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 일치, 에티오피아 정부의 책임감과 협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검토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역종합개발사업 형태로 되어 있는 CPS 상의 농민교육기능을 개념상으로 분리해서, 에티오피아 정부의 우선순위가 높은 '농민역량 강화사업'의 일부로 편입하여 추진하고, 둘째 이를 제외한 나머지 CPS 사업은 핵심기능인 '소규모 관개시설사업'으로 외형을 보완하여, 정부의 농업생산 인프라 정

책과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지역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하되 각각 별개인 농민교육 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지역적으로 연계시켜 대상이 중복되도록 추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책임감과 협조 그리고 사업지속성을 확보하면서, CPS가 제시한 시범현장의 성공모델 창출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농민역량 강화 정책은 농촌지도사(DA)와 농민훈련센터(FTC), 그리고 농업기술교육대학(ATVET)으로 이어지는 교육시스템이 기본 축이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분권화된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편차가 크고, 현장에서는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실적 요인들이 많아 외부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FTC기능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민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즉 KOICA의 지원방안을 ① FTC운용 정상화 단계, ② FTC운용 활성화 단계, ③ FTC성공모델 확산단계, 그리고 ④ ATVET를 지원하는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추진내용과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또 CPS대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형태의 종합개발사업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KOICA의 에티오피아 농업지원 경험과 재원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형태의 전략을 제시한다. 즉 제1단계로 “소규모 관개시설 사업”으로 외형을 갖추어 정부의 생산 인프라 사업에 편입하여 출범하고, 제2단계로 농민역량 강화사업과 관개시설사업이 형체를 갖추게 되면 같은 지역 내의 관개시설과 FTC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3단계로 두 사업이 연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대상지역에 생활여건개선사업을 추가하여 “FTC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개발사업”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이다.

이상과 같이 단계적인 활동이 마무리되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모델이 탄생한다. 이 모델의 현장은 잘 정비된 관개시설,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농가, FTC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주민활동,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마을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KOICA가 지원하는 두 개의 사업이 현지정부가 추진하는 ‘농민역량 강화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사업’의 일부로 각각 편입되어 정부사

업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협조를 받으면서 ‘활성화된 FTC의 성공모델’과 ‘FTC를 중심으로 한 농촌 종합개발의 성공모델’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에티오피아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오랜 세월, 인류는 빈곤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촌의 많은 개도국들에게 이 문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빈곤 문제의 속성상 나라마다 근원과 배경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개도국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농업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빈곤과 기아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최빈국들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개발협력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이제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적 기여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미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우리가 아프리카의 농업·농촌개발에 관심을 갖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더하여, 식량순수입국인 우리입장에서 개도국의 농업발전을 지원하여 국제 농산물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의 식량안보 여건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제 KOICA가 아프리카 농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점협력대상국의 하나인 에티오피아의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활동에 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KOICA가 선정한 아프리카의 중점협력대상 3개국(모잠비크, 에티오피아, DR콩고) 중 에티오피아의 농업·농촌분야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발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협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분야를 발굴하여 효과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에티오피아의 농업 및 농촌개발 환경과 정책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의 에티오피아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우리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분야와 구체적인 협력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중점협력대상 3개국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한다. 자연여건 등 에티오피아의 일반현황을 주요 국가발전 전략과 함께 소개하고, 농업·농촌개발 여건과 제약요인,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정책을 문헌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후, 이를 에티오피아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에티오피아 농업·농촌개발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업·농촌분야 지원에 대한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한 후, KOICA 지원에 적합한 분야를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분야별로 중점 추진과제와 KOICA 지원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4. 연구의 구성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일반현황과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친서방 성격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시행된 국가발전전략의 흐름을 소개한다. 다음 제3장에서는 기후여건과 자연자원 등 농업·농촌개발여건과 현재 시행중인 농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떤 성격의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에티오피아의 농업·농촌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교훈들을 정리한다. 제5장에서는 KOICA의 기본전략에 따라 에티오피아 지원 CPS의 내용,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구내용,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그리고 실제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KOICA 지원이 적합한 분야와 시행방법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분야의 현실적인 제약요인과 중점추진과제를 구체화함으로써 에티오피아 농업분야 지원사업의 기본 틀을 제시한다.

5.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책연구로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헌조사, 국내외 유관기관 면담조사, 현장방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조사연구대상으로 에티오피아 농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현지의 정부기관, 농업·농촌분야 원조규

모 및 비중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ODA 공여국 및 국제기구, 그리고 농업·농촌개발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기관 등을 선정하였다.

에티오피아 개발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일차적인 조사는 기존 문헌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농업분야에 대한 원조역사가 일천하여 국내의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 농업의 특성상 해당국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정리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홈페이지 검색, 제3국 문헌조사 등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현지의 정부 및 주요 공여국의 관계기관을 방문 면담하여 문헌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현장방문 등을 통해 문헌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과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별 연구진의 1차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책임자 및 타 국가 연구진과 2차 종합 심층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연구 자문단 및 KOICA의 확인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KOICA의 지원분야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되는 단계에서는, 현지인으로서 농촌개발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반영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아프리카 국가의 특성 상 현지 정부나 관계당국의 공신력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작성한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현지방문면담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정리된 자료라는 본질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지조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류기간 중 최대한 많은 기관과 지역을 방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회 15일 출장은 시간적 제한점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KOICA의 지원방안은 CPS 내용에 현지동향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한 실행전략 차원의 대안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ODA사업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집중적인 조사와 절차가 필요하다.

7. 연구 일정

본 연구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업 단계	시기
1단계. 연구 Kick-Off	2013년 11월
2단계. 국내문헌조사 및 면담조사	2013년 12월~2014년 1,2월
3단계. 국별 현지조사	2014년 2월 17일~2014년 3월 3일
[중간보고]	2014년 4월 18일
4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2014년 4월 19일~2014년 5월 23일
[최종보고]	2014년 5월 26일
5단계. 연구 종료	2014년 6월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에티오피아

제2장
국가일반 및 개발현황

제1절 국가일반현황

1. 자연여건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단, 홍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 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은 동쪽으로 소말리아와 지부티, 서쪽으로 수단, 남쪽으로 케냐, 그리고 북쪽으로는 에리트리아에 둘러싸여 이들과 총 5,30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다. 과거에 에티오피아 영토의 일부로서 홍해연안 지역을 점하고 있던 에리트리아주가 1993년에 분리·독립되면서, 현재 에티오피아는 해안이 없는 내륙국가로 바뀌어 있다.

[그림 2-1] 에티오피아 지도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국토를 가진 에티오피아의 중부지역은 해발 2,000~3,000m의 고원으로 연중 기온변화가 적은(16℃~22℃) Afro-Alpine 기후대에 속하지만, 변방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져 저지대에는 강우량이 적고 고온이 계속되는 사막 또는 초지를 형성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고산지대에서 사막지대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사회여건과 제도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티오피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인구대국이며, 현재 인구는 약 93.8백만 명으로 그 중 83%가 농촌거주 인구이다. 현재의 인구증가율(연평균 증가율 2.9%)이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에티오피아는 절대빈곤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문제까지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표 2-1> 에티오피아 개황

국토면적	1,104천 ㎢(한반도의 약 5배)
기 후	서부(2계절):우기 6-9월, 건기 11-2월, 중부·동부(3계절): 대우기/Kiremt 6-9월, 소우기/Belg 2-5월, 온건기/Bega 10-1월 남부·남동부(4계절): 우기/3-6월, 9-11월, 건기 12-2월, 7-8월
인 구	93.8백만, 농촌인구 83%
평균수명	60세(남자 57.7, 여자 62.3), 2013년 기준
인 종	오로모(Oromo)족 34.5%, 암하라(Amhara)족 26.9%, 소말리(Somali)족 6.2%, 티그레이(Tigray)족 6.1% 등 약 80여 종족, 2007년 기준
종 교	에티오피아 정교 43.5%, 회교 33.9%, 개신교 18.6%, 기타 토착종교
언 어	암하릭(Amharic)어(공용), 영어, 기타 다수의 토착 언어
정부형태	연방제 공화국, 실권총리(Hailemaȁam Desalegn) 중심의 내각책임제, 의전적 대통령(Mulatu Teshome Wirtu)
문맹률	39%, 15세 이상 읽기/쓰기 능력기준
취학률	초등학교 86.5%, 중등학교 37.6%,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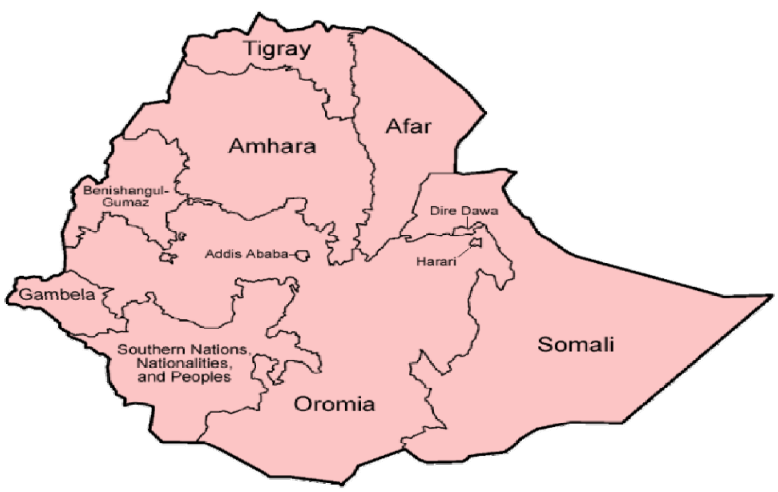
자료) US CIA(The World Factbook),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티오피아개황), World Bank(Data)
자료 중 항목 별로 가능한 최신자료 활용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에티오피아는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오래 동안 겪어 본 역사가 없는 유일한 나라며(1936~41년 이탈리아의 단기점령), 고유문자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과 역사를 가진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 최빈국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빈곤 인구가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 한편, 이 나라는 한국전쟁 중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대대병력(약 6천명)을 파병한 우리나라의 우방국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의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부족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9개의 자치주(Region: 티그레이(Tigray),아파(Afar), 암하라(Amhara), 오로미아(Oromia), 베니산굴-구무즈(Benishangul-Gumuz), SNNP(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 소말리(Somali), 감벨라(Gambela), 하라리(Harari)) 와 2개의 자치도시(City: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디레 디와(Dire Dawa))가 있으며, 행정체계는 Region/City → Zone → Woreda → Kebele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2-2]와 같이 소말리족, 오로모(Oromo)족, 암하라족의 생활터전인 소말리주(29.0%), 오로미아주(26.4%), 암하라주(13.7%)가 각각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가 좋고 부족인원이 많은 오로미아주(37.1%)와 암하라주(21.8%), 그리고 SNNP(20.6%)주가 인구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헌법은 자치주별로 직접선거를 통해 주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적 세입징수권 등 많은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연방정부는 종족연합정책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2] 에티오피아 행정지도



현재 집권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 민주전선(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이하 EPRDF)'은 군부쿠데타로 집권 후 18년간 공산독재를 실시한 멩기슈(Mengistu)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 후 총선승리를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으며, EPRDF를 이끌던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가

4차례에 걸쳐 총리를 역임하다 2012년에 서거하고, 현재는 2012년 9월에 취임한 하일레마냠 데살레그(Hailemaṅam Desalegn) 총리가 정부를 이끌고 있다.

<표 2-2> 에티오피아 현대사 개요

1차 세계 대전 이전	1889	이탈리아가 국왕을 전사시킨 후 에리트리아(Eritrea)지역을 식민지화
	1896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군을 격퇴시키고 독립을 쟁취했으나 에리트리아는 별도로 분리되어 이탈리아 식민지화
셀라시에 황제시대	1935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다시 점령(1935-1941)
	1941	영국이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셀라시(Selassie) 황제 수도입성
	1950	에리트리아를 에티오피아의 연방영토로 편입
	1962	에리트리아를 에티오피아의 주로 강제합병, 분리항쟁 시작
군부 및 과도정부 시대	1974	쿠데타, 셀라시(Selassie)황제 축출: 멩기슈(Mengistu)공산군부 정권장악
	1975	군사정부, 주요재산의 국유화와 사회주의 정권추진
	1987	총선거로 멩기슈 대통령 취임, 인민민주주의공화국선포
	1989	멩기슈 공산독재에 저항하는 연합세력으로 친 서방 성향의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가 이끄는 인민민주전선(EPRDF) 형성
	1991	의회가 EPRDF의 멜레스 제나위를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선출
	1993	에리트리아,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99.8% 찬성), 독립선포
민주 공화국 시대	1995	1차 총선결과 EPRDF 압승으로 연방민주공화국 출범, 멜레스 제나위 과도정부 대통령을 초대 총리로 선출
	1998 ~2000	에리트리아와 국경분쟁 및 전쟁, 임시안전지대 설치 및 UN평화유지군 배치
	2000	2차 총선실시 결과 EPRDF가 압승 멜레스 제나위 총리를 제2대 총리로 재선
	2001	학생시위 발생을 계기로 네가쏘(Negasso) 대통령 사임, 길마 울드 기로기스(Girma Wolde Giorgis) 대통령 취임
	2005	3차 총선실시 결과 집권당인 EPRDF가 과반을 넘는 327석 획득, 야당은 투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반정부 활동 전개, 멜레스 제나위 제3대 총리취임
	2010	4차 총선결과 여당인 EPRDF가 547석 중 499석을 획득, 멜레스 제나위 4대 총리로 취임
	2012	멜레스 제나위 총리 서거, 하일레마냠 데살레그(Hailemaṅam Desalegn) 외교장관이 총리 취임(2012.9)
	2013	12년간 대통령직을 맡았던 길마 울드 기로기스에 이어 무라투 테쇼메 울투(Mulatu Teshome Wirtu) 신임대통령 취임(2013.7)

자료) <표 2-1>과 같음

3. 경제여건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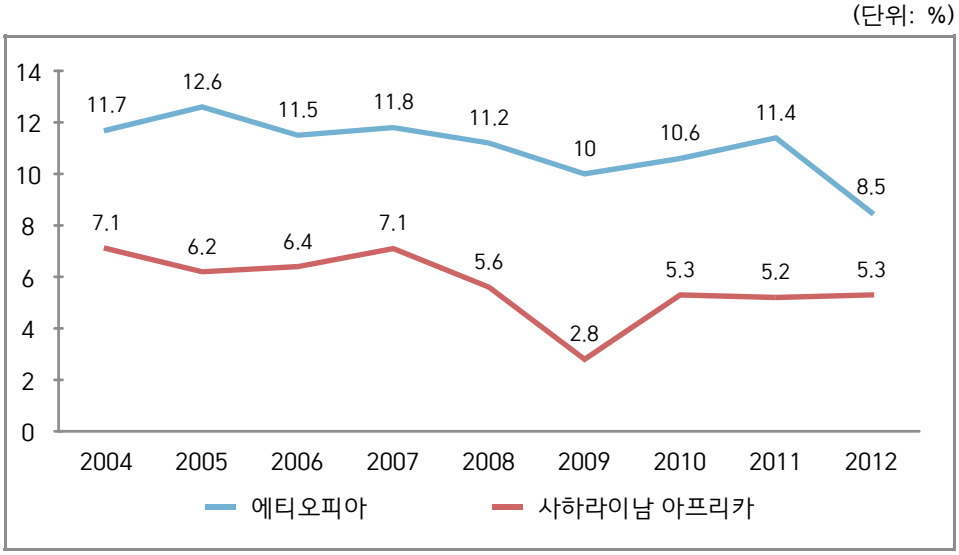
가. 거시경제여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최빈국(LDCs)으로 분류되는 나라지만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고성장 배경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EPRDF를 이끌던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정부가 종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개혁조치(1992년)가 있으며, 그 후의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 사실이 있다.

1980~1990년대의 실질 GDP성장률은 2~3% 수준에 그쳤으나, 2000년대에 들어,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성장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평균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2-3]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nnual Progress Report for FY 2011/12-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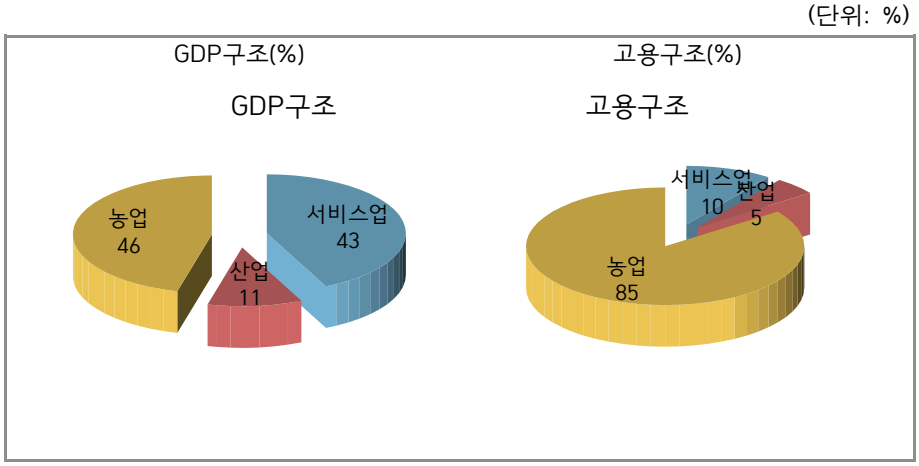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인구와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1인당 GDP는 세계최저 수준인 470달러(2012년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도 빈곤선 이하 인구가 29.6%에 달하는 최빈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경제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노동력의 85%를 수용하고 있는 농업부문은 GDP의 46.4%를 담당하면서 에티오피아 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기상조건 및 국제농산물 가격변동 등 외생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즉, 가뭄 등으로 농업생산이 감소하거나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할 때는 식료품 가격이 치솟아 20~30%를 넘는 인플레이션과 기아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주요 수출농산물인 커피의 국제가격 등락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에티오피아 경제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비스업 부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확대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비농업)도 최근에는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GDP의 10.6%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2-4).

[그림 2-4] 에티오피아의 경제구조

(단위: %)



자료) <표 2-1>과 같음

대외교역 규모는 약 115억 달러 수준이며, 그중 수입이 8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물자는 식량과 석유, 그리고 공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출상품으로는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한편 에티오피아는 금, 동,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2곳의 천연가스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1991년까지 사회주의 방식의 계획경제를 경험한 바 있는 에티오피아는 헌법규정대로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며, 국민들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국민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점유권의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불안요인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지방에서 임차인에게 '토지사용증명서(Land Certificate)'를 발급해줌으로써 배타적인 점유권의 영속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표 2-3> 에티오피아의 주요경제지표

GDP	총규모	공식 환율 기준: 419.1억 달러(2012년) PPP 기준: 1,050억 달러(2012년)
	실질 성장률	7%(2012년), 7.5%(2011), 8%(2010)
	구성	농업 46.4%, 산업(비농업) 10.6%, 서비스업 43%(2011년)
	1인당	공식환율 기준: 470 달러(2012년) PPP기준: 1,200 달러(2012년), 1,200(2011년), 1,100(2010년)
고용	노동인구	43.93 백만 명(2012년)
	취업분야	농업 85%, 제조업 5%, 서비스업 10%(2009년)
	빈곤선 이하	29.2%(FY 2009/2010)
교역	수출 / 수입	2,615백만 달러(2011년) / 8,896백만 달러(2011년)
외채비율		GDP의 45.4%(2012년), 47%(2011)
물가상승률		23.4%(2012년), 33.2%(2011년)
회계연도		7월 8일 – 7월 7일
화폐단위		Ethiopia Birr, 1 달러 = 19.1 ETB(20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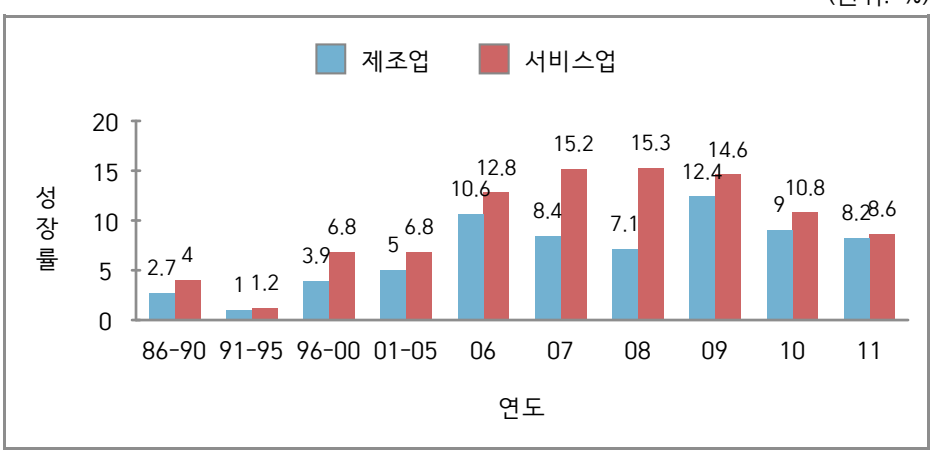
자료) CIA(The World Factbook), World Bank(Data), UN(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나. 국내 산업구조

농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의 성장 지체는 기본적으로 열악한 산업 인프라와 과거 정부의 높은 규제(투자제한 등)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에 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으로 두 부문 모두 과거에 비해 대단히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그림 2-5).

[그림 2-5] 에티오피아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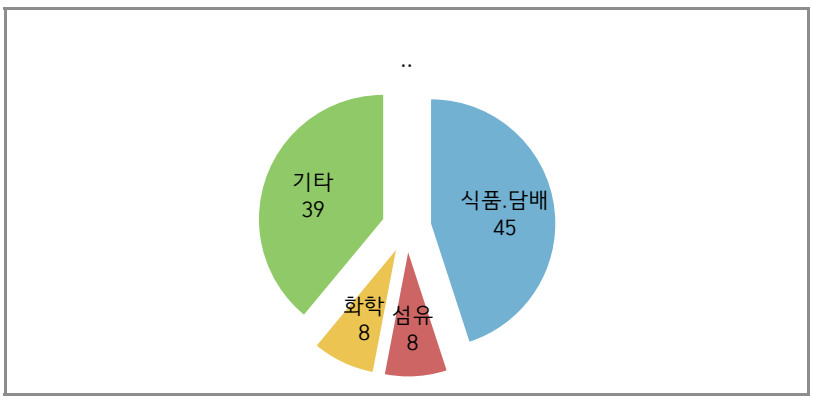


주) 성장률: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기준
자료) World Bank, “Data”재구성: http://data.worldbank.org/country/ethiopia

에티오피아 제조업부문은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가죽 가공업과 담배 및 섬유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은 부가가치나 고용규모가 클 뿐 아니라 후술하는 소위 ‘농업발전 주도형 산업화(Agricultural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 ADLI)’ 전략에 따라 국내의 농업자원과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2-6] 에티오피아 제조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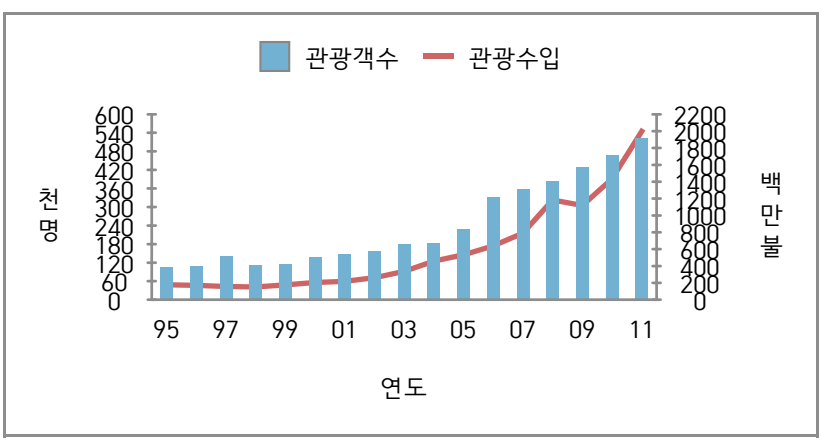
(단위: %)



주) 업종별 구성비: 2009년도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 기준
자료) World Bank, “Data”재구성: http://data.worldbank.org/country/ethiopia

서비스부문에서는 관광과 항공 운송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관광서비스 부문이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의 오랜 가난으로 관광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정치가 안정되고, 고대유적지, 고산지대의 쾌적한 기후와 자연,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AU)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다수 위치해 있어 해외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그림 2-7).

[그림 2-7] 에티오피아의 관광산업



자료) World Bank, “Data”재구성: http://data.worldbank.org/country/ethiopia

다. 주요 인프라 여건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하류(청나일강)에 위치하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여 수력발전 잠재력이 막대하지만, 실제 전력 공급은 다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발전 및 송배전시설 부족에 기인한다. 에티오피아에는 최근에 완공된 타카제(Tekeze)댐과 길길기베Ⅱ(Gilgel-GibeⅡ)댐을 포함하여 11곳의 수력발전소가 51억 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수력발전비율 99%). 그러나 이는 에티오피아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수력발전잠재력의 2.5%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들이 건설 중 또는 계획단계에 있으며 아직은 전체인구의 12%(도시 86%, 농촌 2%)만이 전기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마저도 공급이 불안정해 연간 정전일수가 44.2일에 달하는 실정이다(김민희·전혜린 외, 2011).

교통 인프라와 관련하여 에티오피아는 내륙운송의 대부분을 도로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도로건설 및 유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도로의 총길이가 48.8천 km에 달하며, 이는 1990년대 중반보다 두 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포장도로는 아직 15.3%에 그치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대수는 3대(승용차 1대)에 불과하다.

철도는 2개의 자치도시인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와 디레 디와(Dire Dawa) 그리고 지부티(Djibouti)간 781km를 연결하는 노선 하나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시설노후 및 관리미비로 수송량이 많지 않아 취약한 교통 인프라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육상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물류에서는 항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에 4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에티오피아 항공사가 아프리카 25개 도시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도시를 운항하면서, 연간 6억 7천만 톤의 화물과 5백만 명의 승객을 운송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지리적으로 홍해를 끼고 있어, 과거에는 해운에 문제가 없었지만 에리트리아주가 분리되면서 해안이 없는 내륙국가로 바뀌었다. 에리트리아 독립 당시 아셉(Asseb)항과 마싸와(Massawa)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국경분쟁이 발생하면서 항만접근이 어려워졌다. 현재 에티

오피아는 지부티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항만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통신 인프라와 관련하여 에티오피아의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미미하나, 이동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당 23.7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유선통신 인프라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이동통신이 일반화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용자수는 100명당 1.5명 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표 2-4> 에티오피아의 인프라 관련 지표

지 표		내 용	비 고
전력	전기생산	5,161 백만 kWh	2011 기준
	전기보급률	12%	2010 기준
	정전일수	44.2일/년	2008 기준
도로 철도	도로 총연장	48,793 km	2010 기준
	도로 포장률	15.3%	
	전체자동차 수	3대/1,000명	
	승용차 수	1대/1,000명	
	철도 총연장	781 km	
항만 항공	항공화물	677백만 톤	2012 기준
	항공승객	4.9백만 명	
	항만	에티오피아 영토 내 항만 없음	
통신	유선전화 가입자	0.9명/100명	2012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23.7명/100명	
	인터넷 사용자	1.5명/100명	

자료) 1. World Bank, “Data”재구성: http://data.worldbank.org/country/ethiopia,
2. 김민희 외, “에티오피아의 주요산업”,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2011.12

라. 대외경제여건

에티오피아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식량, 에너지, 그리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UN통계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수출실적은 이전 5년 동안 연평균 19.6%씩 증가하여 2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11.2%씩 늘어나 89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63억 달러의 교역적자를 실현하였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의 핵심품목이 전체 수출의 8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금을 제외한 전품목이 농·식품이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커피는 수출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수출의 1/3을 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전통적으로 독일 등 커피 수요가 많은 국가들이 주요 수출대상국이었으나, 2011년에는 <표 2-5>에서와 같이 식용유 원료인 채유종실(Oilseed)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이 독일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2대 수출대상국으로 급부상, 2012년에는 중국이 에티오피아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인접국가인 소말리아와 수단, 그리고 네덜란드, 양가죽의 주 고객인 이탈리아 등이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표 2-5>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 품목 및 대상국

(단위: 백만 불, %)

10대 수출품목(2011년 기준)			10대 수출 대상국(2011년 기준)		
	수출실적	구성비		수출실적	구성비
전체 수출	2,615	100.0	전체 수출	2,615	100.0
커피	847	32.4	독일	319	12.2
채유종실/대부분 참깨	364	13.9	중국	283	10.8
기타채소류(HS 0709)	238	9.1	소말리아	243	9.3
절화/부케용 꽃	169	6.5	네덜란드	181	6.9
콩과채소류(HS 0713)	139	5.3	수단	178	6.8
생우	138	5.3	사우디	167	6.4
금	125	4.8	스위스	129	4.9
양/염소 고기	68	2.6	이탈리아	111	4.2
양/염소 가죽	65	2.5	미국	98	3.7
기타생축(HS 0106)	37	1.4	UAE	83	3.2
10대 품목 합계	2,190	83.7	10대국 합계	1,792	68.5

자료) U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http://comtrade.un.org/pb/

최근 수년 간 에티오피아 경제가 높은 성장을 시현함에 따라 소비수요 증가와 함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확대되면서, 이에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 식량(밀, 야자유), 기계장비 등이 수입품목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제원유 및 곡물가격의 등락에 영향을 받기 쉬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표 2-6).

<표 2-6>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2011년 수입실적	구성비
전체 수입	8,896	100.0
석 유	1,484	16.7
밀	402	4.5
화물수송 장비	358	4.0
야자유	331	3.7
비료	250	2.8
건설장비	195	2.2
승용차	193	2.2
의약품	111	1.2
유선통신장비	107	1.2

자료) U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http://comtrade.un.org/pb/

2012년 실적을 기준으로 본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는, 중국(13.1%, 건설기자재, 전자제품), 미국(11%, 기계류, 자동차, 곡물), 사우디아라비아(8.2%, 석유), 그리고 인도(5.5%, 전기부품, 고무제품) 등이 있다(CIA, World Factbook, 2012).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도 연간 1억 3천 3백만 달러의 교역을 하고 있으며, 컴퓨터, 플라스틱, 자동차, 의료용품 등을 중심으로 1억 8백만 달러의 한국 상품을 수입하고 2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커피와 원피 등을 수출하여 약 8천 3백만 달러의 대한국 교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12).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가 중국,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한국을 5대 전략적 협력대상국가로 지정함

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김민희·전혜린 외, 2011).

이상과 같이 에티오피아는 무역수지에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안고 있지만 관광과 항공운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무역외 수지에서는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 부문의 흑자가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며, 민간이전거래수지 흑자 즉 해외 거주자의 본국 송금이 적자보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30억 달러를 넘는 대규모의 해외송금을 보태더라도 경상수지 균형달성이 어려워 상당부분을 공적이전수입(해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표 2-7> 에티오피아의 국제수지 구조

(단위: 백만 달러)

	금액	수지 누계	비고
무역수지 (수출) (수입)	- 5,506 (2,747) (8,253)	- 5,506	2010/2011 회계연도 기준
무역외수지(서비스)	+ 688	- 4,818	
민간이전거래수지(해외송금)	+ 3,161	- 1,657	
공적이전수지(해외원조)	+ 1,891	+ 234	
경상수지		+ 234	

자료) National Bank of Ethiopia, “Annual report 2010~2011”, 2012.11

즉, <표 2-7>에 예시된 바와 같이 2010/2011 회계연도에 무역수지 부문에서 발생한 55억 달러의 적자를 서비스수지 흑자 6억 9천만 달러와 민간이전수입 31억 6천만 달러로 메우더라도 16억 5천만 달러의 적자가 불가피하였다. 이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를 18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해외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함으로써 경상수지 균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에티오피아 정부예산 적자의 상당부분을 원조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나라는 국제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다.

제2절 국가개발현황과 전략

1991년 집권한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정부는 기존 사회주의 정책기조를 개혁하여 개방지향적이고 실용적인 발전전략을 도입하였으며, 당면 과제인 빈곤 퇴치 및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성장엔진으로 설정한 '농업발전주도형 산업화(Agricultural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 ADLI)'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그 후 수립·시행된 3차례의 중기발전계획 추진과정에서 보완·발전되면서 지금까지 국가 발전전략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이는 농업부문의 전략적 중시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에티오피아에 관한한 농업·농촌발전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3차례의 중기개발정책으로 ① 2002 회계연도부터 시작된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감축정책(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 SDPRP)', ② 이 계획의 종료에 이어 2005년에 시행된 5개년 계획인 '빈곤 퇴치를 위한 개발가속화정책(Plan for Accelerated and Sustained Development to End Poverty: PASDEP)', ③ 그리고 2010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인 '성장과 구조전환정책(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이 있다. 상기 개발전략들의 관계를 단순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국가개발 기본전략	ADLI(1994 - 현재)				
	⬇		⬇		⬇
국가개발 중기계획	SDPRP (2002~2004)	⇨	PASDEP (2005~2009)	⇨	GTP (2010~2014)

1. 농업발전 주도형 산업화 전략(ADLI)

에티오피아는 노동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GDP의 46.4%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빈곤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빈곤 퇴치 및 경제발전전략 측면에서 농촌부문이 갖는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농업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발전 없이 경제발전과 빈곤 퇴치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을 중시하여 에티오피아는 일찍이 1994년에 ADLI(Agricultural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를 국가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농업·농촌부문에서 먼저 발전을 일으키고, 이 발전을 다른 부문과 연계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산업화를 이루는 것으로 ADLI가 담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에티오피아 농업의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비료, 농약, 종자 등 투입자재 개선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한다.
② 소농과는 별도로 대규모 상업농개발투자를 추진하고 이를 농산물수출확대와 연계한다.
③ 농업과 제조업의 접점에 있는 식품가공업, 피혁가공업, 섬유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여 두 산업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한다.
④ 에티오피아 농촌에 존재하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자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처럼 농업주도로 산업화를 이끌어 내는 ADLI 전략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시각도 있으며, 실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논란의 핵심은 “절대 다수인 영세소농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농업이 스스로의 빈곤을 퇴치하고 산업화를 유도할만한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일부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농업여건이 ADLI 전략대로 노동과 토지자원을 활용,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성장엔진으로써 역할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는 회의적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을 성장엔진으로 하는 산업화전략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도 회의적인 시각의 논거가 되고 있다(Ohno, 2009).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제사회는 ADLI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농업부문에 투자하면서 일관된 ADLI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세 차례의 중기 경제개발정책(SDPRP, PASDEP, GTP)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업투자 10개년계획(PIF)’ 등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2.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 감축 정책(SDPRP)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0여 년이 지난 2002년 에티오피아 정부는 빈곤 감소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SDPRP(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라는 이름의 3개년 종합개발계획(2002～2004)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그 해 7월 에티오피아 재정경제개발부가 SDPRP를 소개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이 기본정책목표이고 빈곤 감축은 경제성장 정책들을 통해 해결되는 부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이와 달리 빈곤 감축을 기본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지만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이처럼 SDPRP는 '빈곤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중기계획이며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는 빈곤 상황을 2002～2004(회계연도) 기간 중 10% 감축하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동시에 SDPRP는 당시의 빈곤 상황을 분석한 내용과 연평균 7%의 경제성장 목표 그리고 부문별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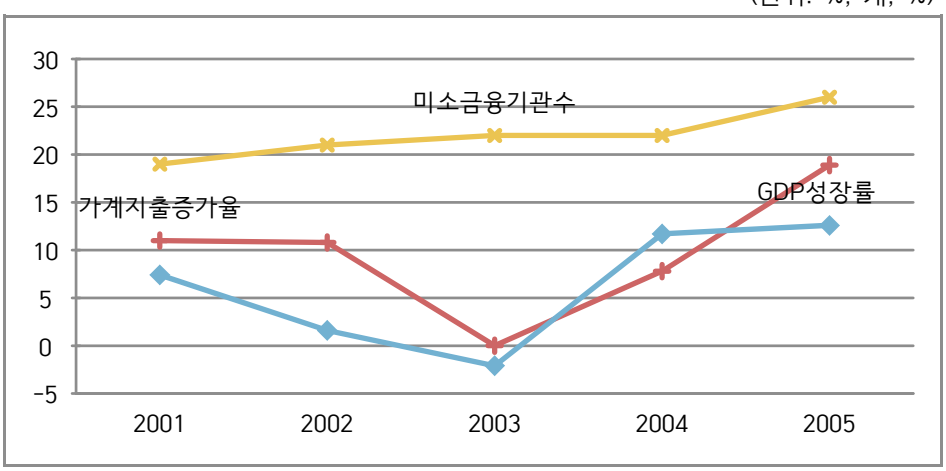
SDPRP는 새로운 전략이 도입된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존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되었으며, 빈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4개의 축으로 ① ADLI의 지속추진, ② 분권화 및 자율권 보장, ③ 사법제도와 공공부문개혁, ④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의 활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DLI 전략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ADLI의 연장선상에서 SDPRP가 농업부문의 경쟁력 확충을 위하여 담고 있는 주요 정책을 요약하면, 농가의 선택폭을 더 넓힌 기술지도, 미소금융확대, 농업자재와 생산 농산물의 시장기능 확대, 영세농과 비농업부문을 연계하기 위한 협동조합 육성, 농업 연구증진 및 소규모 관개시설 확충 등이다.

계획대로 3년간 시행된 SDPRP는 나름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실질 GDP가 감소하여 연평균 7% 성장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다음 해부터 반등하여 11%가 넘는 고성장을 이어가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SDPRP 시행 첫해의 1인당 GDP 123달러는 마지막 해에 151달러로 22.7% 증가하였으며, 2003년을 제외하고 가계의 소비지출도 큰 폭의 증가를 이어 갔다. 미소금융기관의 수도 서서히 증가하여 농가를 상대로 하는 미소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그림2-8).

[그림 2-8] SDPRP의 성과지표 예시

(단위: %, 개, %)



(단위: %, %, 개, US$)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질 GDP 성장률	7.4	1.6	-2.1	11.7	12.6
가계지출 증가율	11.0	10.8	0.0	7.8	18.9
미소금융기관수	19	21	22	22	26
1인당 GDP	132	123	132	151	180

자료) National Bank of Ethiopia, “Annual report 2010~2011”, 2012.11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country/ethiopia

3. 빈곤 퇴치를 위한 개발가속화 및 지속화정책(PASDEP)

2004년까지의 SDPRP 추진경험을 기초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에티오피아는 2005년부터 시작된 'PASDEP(Plan for Accelerated and Sustained Development to End Poverty)'라는 제하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PASDEP의 목표는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경제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2015년까지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여 MDG(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PASDEP는 8가지의 세부전략(Strategic Pillars)과 2가지의 성장 시나리오(Alternative Economic Growth Scenarios)를 제시하였는바 먼저 8가지의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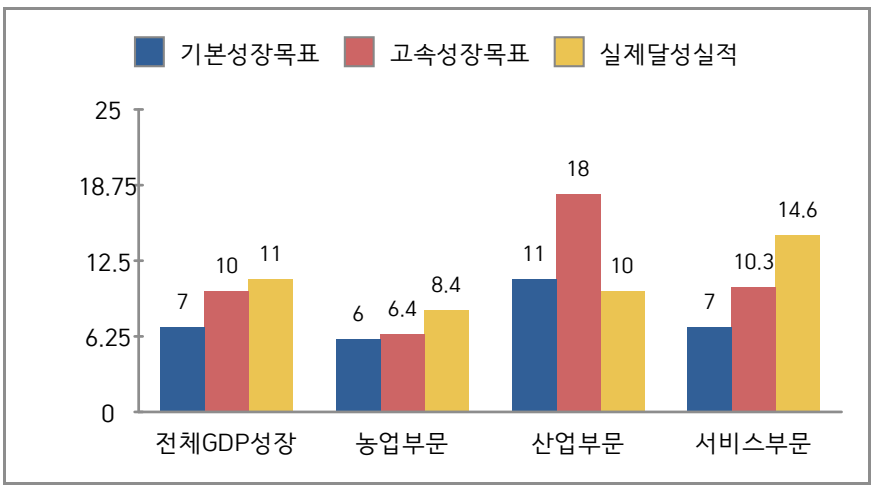
(a) 성장가속화를 위해 모든 역량 투입, (b)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의 균형달성,
(c) 국가의 인프라 시설확충, (d) 인력자원개발 강화, (e) 고용기회 창출,
(f) 구조적 취약요인과 위험관리, (g) 여성 잠재력 활성화, (h) 집행역량 구축

PASDEP가 제시한 '기본성장 시나리오'는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10년 후에 MDG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보다 더 의욕적인 '고속성장 시나리오'는 연평균 10%의 성장을 이루어 국가비전대로 20년 후에 중소득국가로 발전하는 것이다. 한편, 이 계획은 이전의 SDPRP와 같이 농업발전을 성장엔진으로 하는 ADLI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특히 대규모 상업농 육성을 위해 농업분야의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PASDEP에 이어 수립된 3번째의 중기발전계획(GTP) 제1장에서 정부는 2009년까지 5년간 시행된 PASDEP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2010). 5년간 에티오피아 경제는 연평균 11%의 성장을 실현함으로써 PASDEP가 제시한 시나리오에서 책정한 기본성장 목표와 고속성장 목표를 모두 웃도는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그림 2-9).

[그림 2-9] PASDEP 기간 중 실질 GDP 성장내역

(단위: %)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Volume I/Main Text, 2010.11

이는 농업부문과 서비스부문에서 실현한 성장률이 두 가지의 목표치를 모두 웃도는 높은 성과를 이룬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성장은 기본성장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를 구조조정 측면에서 보면 PASDEP가 당초 계획된 방향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계획된 전략대로 그 기간 중에 도로 등 국가의 기초인프라가 많이 확충되었고, 인적자원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바 이는 PASDEP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수출이 연평균 5.4%의 성장을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PASDEP와 함께 진행된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입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여(연평균 26%) 국제수지는 계획과 달리 개선되지 못하였다.

PASDEP에서도 유지된 ADLI와 관련하여 농업부문은 5년 동안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실현하였으며, 특히 3대 주요작물의 경우 2004/05년에 1억 1천9백만 톤이던 생산량이 2009/10년에는 1억 9천1백만 톤까지 증가하여, 무려 60%의 성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진행된 대부분의 세부전략들이 진전된 성과를 보였고, 특히 화학비료 공급, 농업기술지도사 양성, 농지사용증명서 발급 등은 PASDEP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

는 성과를 이루었다. 종자갱신과 원예축산분야 등에서도 성과가 있었지만 계획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표 2-8).

<표 2-8> PASDEP 기간 중 농업부문의 성과 예시

	단 위	계 획	실 적
화학비료 공급량	천톤	820	830
개량종자 공급량	천톤	1,800	528
과일채소 생산량	백만톤	27.2	12.8
육류생산량	천톤	837	605
우유생산량	백만톤	3.4	3.3
동물병원 수	개소	3,600	2,275
농업기술지도사 양성	천명	51	52
농민교육센터	개소	18,000	9,265
농지사용증명서 발급	백만호	6.8	12.6
농가이주를 통한 식량 확보	천호	161	91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Volume I/Main Text, 2010.11

4. 성장과 구조전환 정책(GTP)

2009년에 종료된 PASDEP에 뒤이어 에티오피아는 2010년부터 GTP(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라는 이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GTP가 추구하는 장기목표는 PASDEP와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여 MDG를 달성하고 2020~2023년까지 에티오피아를 중위소득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PASDEP 시행과정에서 경험한 바 있는 물가상승문제, 세수부진 및 ODA감소로 인한 재정문제, 기상재해로 인한 흉작문제 등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수립된 GTP는 다음과 같은 4대 목표(Objectives)를 가지고 있다(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2010).

① 연평균 GDP 성장률 11%를 유지하여 MDG 달성
② 교육과 보건 분야를 확충하여 MDG의 사회부문 목표 달성

③ 안정적, 민주적, 개발지향적인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국가형성 기반조성
④ 이상의 개발목표들을 달성함으로써 성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이와 함께 광범위하고 빠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하여 GTP는 다음과 같이 7개의 전략계획(Strategic Pillars)을 명시하고 있다.

① 농업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
② 빠르고 공평한 경제성장 지속
③ 산업부문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
④ 인프라 개발 확충 및 질 제고
⑤ 사회개발 확대 및 질 제고
⑥ 역량제고와 Good Governance
⑦ 여성과 청년 활동 및 공정성 증진

GTP도 PASDEP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성장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있다. 기본 성장 시나리오는 GTP 시행 5년간(2009～2014) 매년 농업부문 8.6%, 산업부문 20%, 서비스부문 10.6%의 성장을 각각 이룸으로써, 전체적으로 연평균 11.2% 성장하는 것이며, 이는 PASDEP의 실적과 같은 수준이다. 반면 고속성장 시나리오는 이 보다 높은 연평균 14.9% 성장을 전제로 매년 부문별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있다(표 2-9).

<표 2-9> GTP의 경제성장 시나리오별 목표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 평균
실질GDP	기본성장	11.0	11.1	11.3	11.2	11.4	11.2
	고속성장	12.5	14.4	15.3	15.6	16.6	14.9
농업부문	기본성장	8.5	8.5	8.6	8.6	8.7	8.6
	고속성장	9.5	13.5	16.1	17.1	18.4	14.9
산업부문	기본성장	14.0	17.9	21.4	23.0	23.7	20.0
	고속성장	14.8	19.4	20.8	23.7	27.9	21.3
서비스부문	기본성장	12.5	11.5	10.5	9.5	9.0	10.6
	고속성장	14.6	13.8	12.9	11.8	10.9	12.8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Volume I/Main Text, 2010.11

한편 ADLI는 여전히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GTP 7대 전략계획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산업부문의 성장전략은 노동집약적인 농산물을 투입요소로 사용하면서, 수출지향적인 형태로 추진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외에 GTP가 담고 있는 각 부문별 추진지표 중 빈곤 및 농업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요약하면 <표 2-10>과 같다. GTP 시행 이후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GTP 시행 후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하여 2013년 3월에 발표한 연례보고서 내용 중 거시경제 관련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2013).

<표 2-10> GTP의 부문별 추진목표

		단위	기준/2009	목표/2014
거시경제	실질 GDP 성장률	%	10.4	11.4
빈 곤	빈곤 인구 비율		29.2	22.2
	식량빈곤 인구 비율		28.2	21.1
농 업	농업성장률		7.6	8.7
인프라	총 도로연장	천 km	48.8	64.5
	전천후도로까지 접근시간	시간	3.7	1.4
	전천후도로까지 5km이상	%	64	29
	발전용량	MW	2,000	8,000
	유선전화 가입자	백만 명	1.0	3.0
	휴대전화 가입자		6.5	40.0
	인터넷 가입자		0.2	3.7
	농촌인구/5km 내 통신시설	%	62.1	100
	농촌인구/1.5km내 식수원		65.8	98.0
사 회	초등학교(1-8년) 취학률		87.9	100
	5세 이하 사망률	1,000명당	101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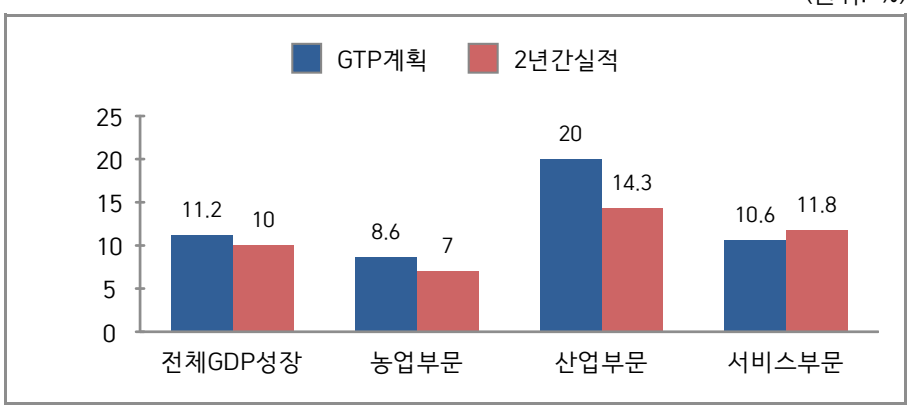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Volume I/Main Text, 2010.11

GTP 시행 최초 2년의 실질 GDP는 각각 11.4%와 8.5% 성장하여 연평균 10% 성장을 달성했다(그림 2-3). 이는 GTP가 목표한 연평균 성장률 11.2% 목표에 약간 못 미

치는 수준이며 내용면에서는 [그림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과 산업부문의 성과가 GTP의 목표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서비스부문에서는 관광, 도소매유통, 건설, 금융 등에서의 성과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11.8%의 성장을 이루었다. 2014년까지 GTP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은 3년 동안 농업과 산업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림 2-10] GTP 시행 2년간 경제성장 내역

(단위: %)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nnual Progress Report for FY 2011/12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3.3

그러나 GTP 시행 2년간의 산업구조변화 실적을 보면, 서비스부문은 이미 GTP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으나 산업부문이 목표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농업부문 또한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표 2-11).

<표 2-11> GTP 시행 2년간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GTP 계획	2년간 실적
농업부문	38.8	44.8
산업부문	15.6	10.9
서비스부문	45.6	45.0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nnual Progress Report for FY 2011/12-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3.3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에티오피아

제3장
농업 · 농촌여건과 개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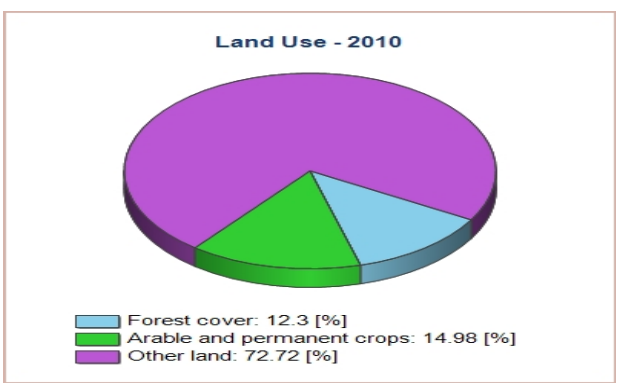
제1절 농업·농촌개발 여건과 현황

1. 천연자원과 토지제도

가. 천연자원

가난과 기아의 땅으로 널리 알려진 에티오피아는 사실 인류가 최초로 발견된 곳이며 식량생산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는 한반도의 약 5배에 달하는 11억 4백만ha의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억 4백만ha의 내수면을 제외한 10억ha가 토지로 되어 있고, 이 중 12.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에티오피아는 풍부한 토지자원과 높은 농업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자원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 경작가능한 면적과 다년생 작물 재배면적을 합해도 전체 토지면적의 15%인 1천 5백만ha에 불과하다(그림 3-1).

[그림 3-1] 에티오피아 토지자원 현황



(단위: 백만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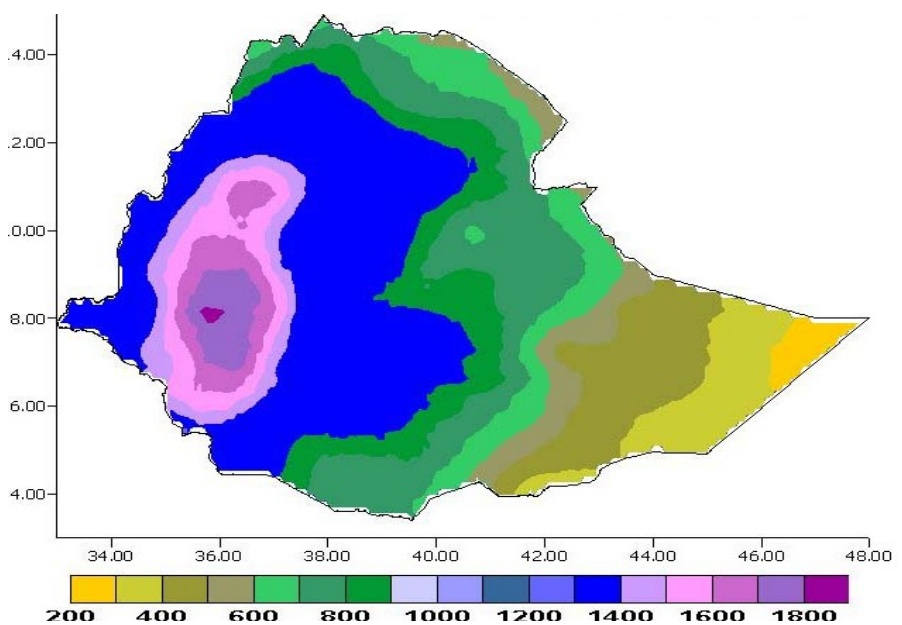
국 토	내수면	토 지	농경지	경작가능/영구작물	초지	산림	기타
110.4	10.4	100.0	35.7	15.0	20.0	12.3	17.0

자료)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country/ethiopia FAOSTAT: http://faostat.fao.org/site/377/DesktopDefault.aspx?PageID=377#ancor

그나마 경작 가능한 농지도 생산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재해에 취약하며 가뭄 등을 겪는 해에는 대규모 기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낮은 수준의 영농기술과 농업 생산성, 그리고 과다한 인구와 높은 인구증가율이 가세하여 풍부한 토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위도 상으로 적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해발 4,620m의 고산지역(Semen 산맥의 Ras Degen산)에서부터 해수면보다 126m 낮은 지역(아파(Afar)주의 Danakil Depression)까지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국가 내 각 지역 간에 극심한 기후 이질성을 보이며,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쪽 고지대에서부터 동쪽 저지대로 내려가면서 강우량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 지역별 강우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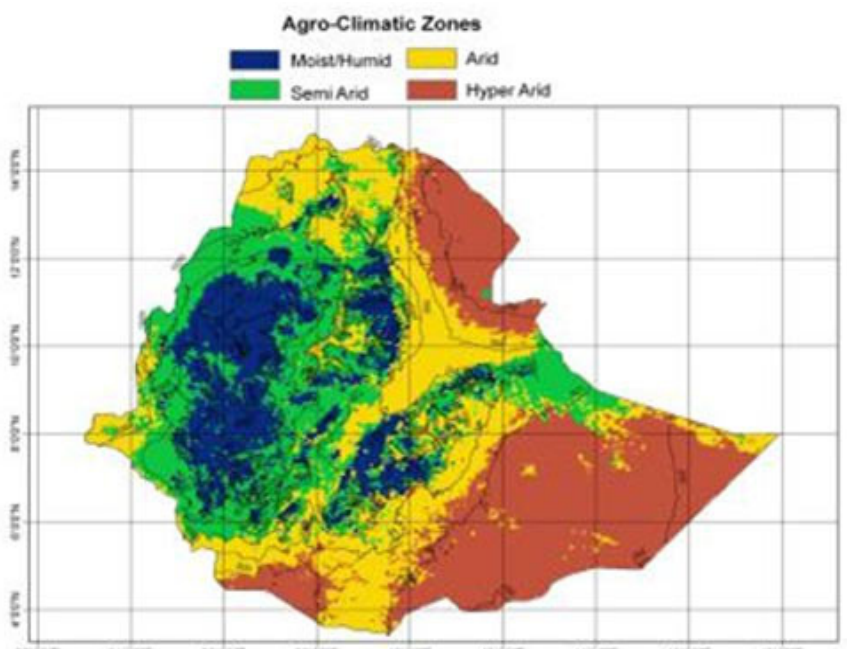


자료) FAO, http://www.fao.org/countryprofiles/index/en/?iso3=ETH

FAO 분석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지역별 강우량은 일반적으로 고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해발 1,500m 이상 중간지대 이상에서는 저지대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 그러나 동남쪽의 해발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소말리(Somali) 주의 경우처럼 비가 간헐적으로 내려 연간 강우량이 600mm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작물재배가 어려운 곳이 많다.

이와 같이 고도에 따라 강우량, 온습도, 일조량 등이 결정되고 그 결과 에티오피아에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기후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쪽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암하라(Amhara)주와 베니산굴-구무즈(Benishangul-umuz)주, 그리고 오로미아(Oromia)와 SNNP의 북부지방은 비교적 습기가 많은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고도가 낮은 소말리주와 아파 북부 그리고 오로미아 남서부 지방은 초건조기후대(Hyper Arid Area)로 분류된다.

[그림 3-3] 농업기후대 분포



자료)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AGWATER Solutions, http://awm-solutions.iwmi.org/ethiopia-1.aspx

고도에 따라 형성된 농업기후대에 의하여 지역별로 영농 적합성이 결정되고 각각의 기후대에 맞는 형태의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농가들은 해발 1,500~3,000m 고지대의 다습 또는 준 건조기후대에 살면서 소규모 영농(평균 1.2ha)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저지대의 초건조기후대에 남아있는 광활한 토지자원은 물 부족, 접근성 부족, 말라리아 모기 같은 해충문제 등이 뒤얽혀 있어, 별도의 관개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한 정착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방목형태의 목축업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동북지방과 남동지방의 오가덴(Ogaden) 사막을 덮고 있는 사막성 토양지대 중 부분적으로나마 풀이 자랄 수 있을 만큼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풀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형태의 목축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도한 방목, 벌목, 경사가 심한 지역의 경작관행 등으로 인한 침식문제가 확대되면서 토양보전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3-1> 농업생태지구별 영농현황

(단위: m, mm)

	해발고도	강우량	작물	축산
고산지대 Alpine	> 3,700	> 1,400	없음	양, 소
준고산지대 Sub-alpine	3,700-3,200	> 1,400	보리	양, 소, 당나귀
		1,400-900		양, 염소, 소, 닭, 말, 꿀벌
고지대 High land	3,200-2,300	> 1,400	보리, 밀, 콩, Neug	
중간지대 Mid altitude	2,300-1,500	> 1,400	옥수수, Enset 보리, Neug, Teff	양, 염소, 소, 닭, 말, 꿀벌, 당나귀
		1,400-900	옥수수, 수수, 밀, 보리, 기장, Teff	
		< 900	밀, Teff	염소, 소, 꿀벌, 당나귀
저지대 Low land	1,500-500	> 1,400	망고, 토란, 커피 사탕수수, 오렌지	
		1,400-900	수수, 기장, 땅콩 Neug	염소, 소, 꿀벌, 당나귀, 닭
		< 900	수수	염소, 소, 낙타, 양, 당나귀, 닭
저지대사막 low land deserts	< 500	< 900	관개시설 지역만 가능	낙타, 염소

자료) FAO, http://www.fao.org/ag/AGP/AGPC/doc/Counprof/Ethiopia/Ethiopia.htm

에티오피아에는 연평균 848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지만, 아파(Afar)주 북부지역의 100mm부터 국토 서남부의 2,000mm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강우량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강우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강 유역이 형성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는 수자원이 풍부하여 개발 잠재력이 대단히 큰 나라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을 현실화한 경험은 미미한 상황이다.

FAO 자료에 의하면, 연간 9대강 유역을 흐르는 수자원의 양은 122km^{3}에 달하며 그 중 약 70%가 6~8월에 집중적으로 흘러드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건기에 흐르는 물은 대부분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물이며, 이는 소규모 관개시설의 원천이 된다. 지하수의 잠재력은 확실하지 않으나, 일부만이 개발되어 식수로 사용되고 있고 건조지대의 유목민들은 전통적으로 샘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집중호우는 홍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제방을 쌓아 피해를 줄이기도 하지만 항구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나일강 유역의 아바이(Abbay)강이 시작되는 타나(Tana)호수를 제외하고 에티오피아 호수는 대부분 리프트 계곡(Rift Valley)에 있으며, 즈와이(Zway)호 등을 제외하고 많은 경우 염분이 있는 짠 호수가 많다(FAO AQUASTAT).

나. 토지제도

셀라시 황제 시대의 에티오피아에서는 실제 영농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지지자들에게 토지소유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부재지주의 토지를 소작하는 형태의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이처럼 교회 및 특수층으로 구성된 지주와 높은 소작료를 부담하는 소작농으로 이루어진 농촌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맞은 1972~1974년의 가뭄과 기아에 대한 정부의 방관적 태도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아사자를 낳았으며, 결국 1974년 공산혁명으로 황제시대는 최후를 맞았다. 1975년에 군부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토지제도를 혁파하고 토지국유화, 토지임대차제도 폐지, 사유농장의 임금노동금지 등을 단행한 이후 1991년까지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였지만, 사회주의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며 농업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1년에 새로 들어선 EPRDF 정부도 토지제도에 관해서는 공평분배에 중점을 둔 기존제도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음으로써 현재까지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토지는 국가의 공동재산으로 매매 대상이 아니며, 농민은 단지 토지의 사용권만을 가진다.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 토지 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야 5,000ha 이상 대규모 농지에 한해 농업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제도가 보완되었다.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사용권의 취득, 양도, 재분배,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1995년 헌법과 연방농지령(456/200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정부로부터 분배(또는 재분배), 주민 이주계획에 의한 배정,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며, 농가단위 배분은 Kebele가, 주민이주에 따른 배분은 주정부가, 그리고 민간의 농업투자를 위한 토지 배분은 Woreda가 각각 시행하고 있다. 관개시설이 되어 있는 농지는 공평성차원에서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재분배 대상이 되며, 농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이 회수되는데, 구체적인 조건은 각 주정부가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Alemu, 2012).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이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농업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술한 에티오피아 토지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군다나 한정된 농지를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에게 배정해 주기 위해 토지사용권을 재배분하는 제도는 개인 농가입장에서는 토지사용의 안정성(Tenure Security)이 보장되지 않고 분배되는 농지를 점점 더 줄여 영농규모를 축소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토지제도와 관련된 공평성과 생산성간의 괴리를 조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농지에 애착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발적 투자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토심이 깊지 않고 농업용수도 충분하지 못한 경사지 등을 집약적으로 경작하면서 가축분뇨나 작물의 부산물 등 유기물을 토양에 환원하기 보다는 토지를 약탈하는 방식의 농업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토양 침식을 유발하고 그렇게 토양의 수분함량이 감소하여 가뭄에 더 취약해지는 측면이 있다.

토지사용권의 안정성을 일정수준 보장해 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토지사용권을 배정 받은 농민은 정부와의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이를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는 정부가 '토지사용증명서(Land Certificate)'를 발급해줌으로써 토지사용권의 안정성을 가시적으로 보장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토지사용증명서 제도는 1998년 티그레이(Tigray)주가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2003년부터 암하라(Amhara), 오로미아(Oromia), SNNP주로 확산되었다. 이 제도는 임차권 상실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 안정적 영농을 가능하게 하고, 토지사용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증명서에 부부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이혼 또는 사별하는 경우 부인도 사용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여성의 토지사용권 소유를 공식화하는 효과가 있다(Deininger et al. 2007).

현행 "토지사용증명서(Land Certificate)제도"는 농민에게 배정받은 토지를 경작, 증여, 임대,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약탈적 토지사용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정부 당국의 설명이나, 여전히 매매대상은 아니며 정부투자로 관개시설이 되어 있는 우량농지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분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토지소유와는 구분되는 제도이다.

2. 품목별 농업생산

가. 작물생산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크게 보아 작물과 축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생산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은 테프(Teff)[1], 인세트(Ensete)[2], 옥수수, 수수, 밀, 커피, 잠두 순이며, 축산물로는 우유, 쇠고기, 양고기 순으로 각각 10대 농산물에 포함되어 있다(표 3-2).

<표 3-2> 에티오피아의 10대 농산물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2011년 생산액 기준)

	농축산물	생산액	생산량
1	우유	1,266	4,058
2	쇠고기	1,200	444
3	테프(Teff)	894	3,483
4	인세트(Ensete)주1)	706	5,094
5	옥수수	682	4,986
6	수수	603	3,959
7	밀	435	2,855
8	커피	398	371
9	양고기	239	88
10	잠두(Horse bean)	235	698

주1) FAO 통계에 "기타 뿌리작물(nes)"로 표기됨. 이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뿌리작물로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토종작물인 인세트(Ensete)로 추정됨.

자료) FAO, http://faostat.fao.org/DesktopDefault.aspx?PageID=339&lang=en&country

1) 에티오피아인의 주식인 인제라(Injera)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곡물로서 영양가가 높고 가뭄에 잘 견디는 특징이 있어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토종작물이다.

2) 인구가 조밀한 에티오피아 남부/서남부지역 주민의 전통적인 주식으로 곡물보다 가뭄에 강한 초본작물이며, 6m까지 자라 모양이 바나나와 유사하지만 가식부분은 뿌리이다.

(a) 작물의 종류와 재배지역

전술한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에는 대단히 다양한 농업생태 환경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약 140여종에 달하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주요 작물을 부류별로 예시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에티오피아 재배작물의 종류

곡물(Cereals)	테프(Teff), 옥수수, 수수, 밀, 보리, 기장, 귀리, 쌀
두류(Pulses)	잠두(Horse bean), 강낭콩, 이집트 콩(Chick-pea), 완두(Peas), 베치(Vetches), 렌즈콩(Lentil)
채유종실(Oilseeds)	참깨, 나이저(Niger seed), 면실, 아마인(Linseed), 피마자, 땅콩, 유채, 대두, 홍화(Safflower seed), 겨자
기호작물(Stimulans)	커피, 차, 채트(Chat), 엽연초
섬유작물(Fibers)	아마(Flax), 목화, 인피섬유(Bast fibres), 사이살 마(Sisal)
과일류(Fruits)	바나나, 망고, 망고스틴, 아보카도, 오렌지, 감귤, 파파야, 포도, 레몬, 파인애플
채소류(Vegetables)	칠리 고추, 양배추, 양파, 마늘, 토마토, 당근, 콩과 채소(Leguminous vegetables), 양상추
뿌리작물 (Root and Tuber)	인세트(Ensete), 감자, 고구마, 얌(Yam)
기타	사탕수수

자료) FAO, http://faostat.fao.org/, 미국 농무부, http://www.fas.usda.gov/

에티오피아 국민의 기본식량으로 작물농업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곡물류는 9.7백만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이는 경작면적 15백만ha의 약 64.7%(2011년 기준)에 달한다. 곡물류 다음으로는 두류, 유지작물, 뿌리작물 순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 곡물 면적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이 네 부류 작물의 재배면적이 전체 경작면적의 85%를 넘고 있다.

<표 3-4> 에티오피아 작물부류별 재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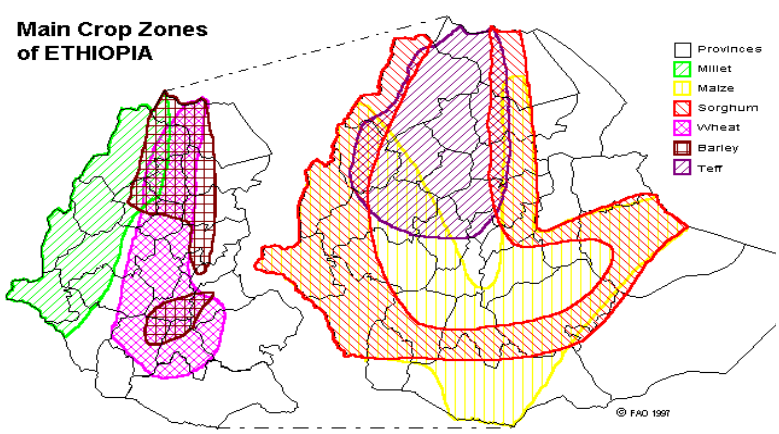
(단위: 천ha, %, 2011년 재배면적 기준)

순위	농 작 물	재배면적	경작가능면적 대비
1	곡물류	9,691	64.7
2	두류	1,360	9.1
3	유지작물	886	6.0
4	뿌리작물	859	5.7
5	기호작물	514	3.4
6	섬유작물	413	2.8
7	채소류	349	2.3
8	과일류	76	0.5
9	사탕수수	23	0.2

자료) FAOSTAT 자료 재구성

주요 곡물로는 고지대의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테프(Teff), 밀, 보리와 그 보다는 낮은 지대의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옥수수, 수수, 기장 등이 있으며, 기장을 제외한 다섯가지 곡물은 5대 곡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후에 따라 암하라주, 오로미아주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는 주요곡물의 재배지역을 도식화 하면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에티오피아의 주요곡물 재배지역



자료)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처, http://www.fas.usda.gov/pecad2/highlights/2002/10/ethiopia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는 기온과 강우량이 다양하여 우기와 건기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작물재배는 우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지며 보통 3~6월에 파종하여 10월부터 지역에 따라 수확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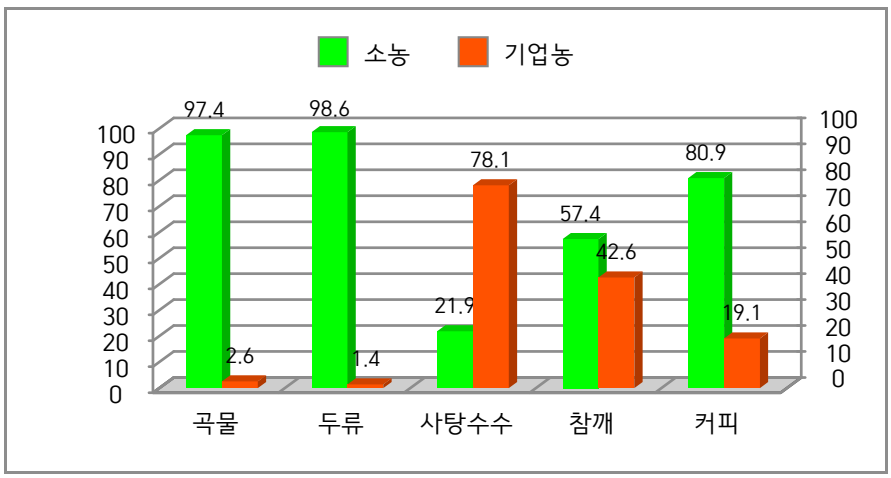
(b) 작물재배 시기와 영농구조

에티오피아 통계청(Central Statistical Agency: CSA)은 농가를 "소농(Small holder Peasant Farms)"과 "대규모 상업농(Large Commercial Farms)"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농은 자가소비 수준의 영농을 하거나 소량의 잉여분을 시장에 출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수적으로는 에티오피아 농업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곡물생산의 97.4%를 담당하고 있다.

소농의 60%는 경작면적이 0.9ha 이하이며, 40%는 0.5ha도 안 되는 면적을 경작하고 있는 실정이다(Taffesse et al. 2011). 반면, 대규모기업농의 평균경작면적은 323ha에 달하며, 이들의 농업생산 기여도는 곡물이나 두류의 경우 1～3% 수준이나 사탕수수, 참깨, 커피 등 주요 수출작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국영농장을 포함한 대규모 기업농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2009년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농업생산은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업농은 영농기계화, 관개시설, 비료, 농약, 종자갱신 등 선진영농을 영위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으나, 반대로 소농은 아직 전통적인 영농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성이 낮고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 에티오피아 영농구조

(단위: %)



주) FY2007/08 생산기준

자료) 김민희 외, "에티오피아의 주요산업",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2011.12

(c) **작물별 생산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 농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은 곡물이다. 2000년대 들어 곡물생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수가 낮으며 가뭄 등 기상변화에 따라 생산이 불안정하고, 수요에 상응하는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식량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곡물의 생산성증대를 위해서는 투입자재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강우량은 결과적으로 개량종자,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는 방식의 집약농업은 큰 손실위험을 감수할 때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곡류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작물은 두류이며, 이 부류에는 잠두, 강낭콩, 이집트콩, 완두, 렌즈 콩 등이 포함된다. 2011년의 경우 136만ha에 두류가 재배되었으며 이는 전체 경작가능면적의 9.1%에 해당한다. 비교적 다양한 고도의 지역에서 많은 소농들이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수뿐 아니라 수출작물로도 개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 정교에서는 동물성 지방 섭취를 금하는 날이 많아, 식물성 유지를 많이 소비하는 식생활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유지작물재배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유지작물로는 참깨, 나이저(Niger seed), 면실, 아마인, 피마자, 땅콩, 유채 등이 다양하게 재배된다. 국내에서는 식용유로 가공되어 유통·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출용 수요가 많은 참깨와 땅콩은 미가공 원료상태로 선적된다. 대부분 비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작물로 경작되고 있어서,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로서 커피 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조건을 가지고 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 남·서부의 고원지대(1,000～2,000m), 특히 오로미아(63.7%)와 SNNP(34.4%)의 소농들에 의해 생산되며, 이점에서 중남미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재배방식과 다르다. 특히 에티오피아 커피는 숲에서 야생커피를 채취한 것이 많아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물론 커피를 재배하는 국영농장도 있지만, 전체생산량의 2-3% 수준에 그치며 품질경쟁력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커피는 소득, 고용, 수출 등에서 에티오피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작목이지만, 재배면적 49.8만ha는(2011년 기준) 전체 경작가능면적의 3.3%에 불과하여 국제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발전 잠재력이 있는 작목이다.

해발이 낮은 저지대에서 주로 생산되는 사탕수수는 최근 증가하는 수출수요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화훼산업은 국내외의 민간투자가 늘면서 새로운 수출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다양한 지형 및 기후 덕분에 다양한 꽃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화훼는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으로써 에티오피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임대료를 노린 인도로부터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을 부류별/순위별로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에티오피아 주요작물별 생산현황

(단위: 천ha, 천 톤, 2011년 수확기준)

농작물		재배면적	생산량
곡물류	테프(Teff)	2,761	3,483
	옥수수	1,963	4,986
	수수	1,897	3,959
	밀	1,553	2,855
	보리	1,046	1,703
	기장	408	634
	귀리	30	47
	쌀	29	90
두류	잠두	459	697
	강낭콩	237	340
	이집트 콩	208	322
	완두	203	257
	야생완두	131	200
	렌즈 콩	77	80
유지작물	참깨	384	327
	나이저(Niger seed)	247	39
	면실(목화)	89	78
	아마인	73	65
	피마자	67	7
	땅콩	49	71
	유채	13	23
	대두	11	15
	홍화(Safflower)	5	50
	겨자	4	30
뿌리작물	인세트(Ensete)	706	5,094
	감자	59	447
	고구마	51	390
	얌(Yam)	0.2	333
기호작물	커피	498	370
	차	9	7
	엽연초	6	3
섬유작물	아마(Flax)	322	20
	목화(솜)	89	22
	인피섬유(Bast fibres)	2	0.5

농작물		재배면적	생산량
	사이살 마(Sisal)	1	0.6
채소류	기타 채소	180	500
	칠리 고추	89	267
	양배추	32	351
	양파	25	270
	마늘	21	128
	토마토	5	56
	당근	2	12
과일류	바나나	32	271
	기타 과일	12	128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8	66
	아보카도	7	57
	오렌지	3	44
	감귤	3	9
	파파야	2	40
	포도	2	5
기타	사탕수수	23	2,500

자료) FAO, http://faostat.fao.org/site/567/DesktopDefault.aspx?PageID=567#ancor

주) 생산량이 많지만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FAO통계에 “기타(nes)”로 표기된 항목 중 에티오피아에서 많이 재배되는 토종작물(Teff, Niger seed, Ensete, Flax 등)이 확인되는 경우 동 작물로 추정·표기하였음.

나. 축산물생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축을 가장 많이 기르는 나라며, 세계적으로도 10대국에 속할 정도의 축산국가로서 거의 모든 농민들이 매일 축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축산은 우유, 고기,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영양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작물재배가 잘 되는 고지대에서는 영농작업과 유기질 비료공급을 돕고, 작물재배가 어려운 저지대에서는 기본 생계수단으로써 가축보유두수가 사회적 신분의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 외에 에티오피아에서 가축은 교통수단, 연료생산 등 다양한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 축종과 사육여건

2011년 기준으로 약 53백만 두의 소가 사육되면서 쇠고기 44천 톤, 우유 4백만 톤, 소가죽 79천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48백만 두의 양과 염소가 고기 156천 톤, 양유(염소유) 111천톤, 그리고 29천 톤의 가죽을 생산하고 있다. 또 49백만 수의 닭이 65천 톤의 닭고기와 40천 톤의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 에티오피아에는 낙타, 당나귀, 말, 노새 등이 수백만 마리씩 사육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고기생산량도 85천 톤에 이른다(표 3-6).

<표 3-6> 에티오피아 가축사육두수 및 축산물생산량

(단위: 천두, 천수, 천개, 천 톤, 2011년 기준)

가축사육두수		축산물생산량	
소	53,382	쇠고기	444
		우유	4,058
		소가죽	79
양	25,509	양고기	88
		양유	58
		양가죽	15
염소	22,786	염소고기	68
		염소유	53
		염소가죽	14
닭	49,287	닭고기	65
		달걀	40
낙타	1,102	낙타고기	20
		낙타유	263
당나귀(Ass)	6,575	-	-
말	2,028	-	-
노새(Mule)	401	-	-
꿀벌 통	5,130	벌꿀	54
돼지	32	돼지고기	1.8
-		야생동물고기	85

자료) FAO, http://faostat.fao.org/site/567/DesktopDefault.aspx?PageID=567#ancor

에티오피아 북부, 북동부, 중앙부에 위치한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는 작물재배와 축산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소위 복합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이 지역의 축산은 주로 영농작업, 유기질 비료공급, 자가 영양공급 그리고 작물농업의 작황이나 시장가격이 좋지 않을 때의 대체적인 현금소득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Netherlands-African Business Council 2010).

반면에 강우량이 적어 작물재배여건이 좋지 않은 저지대(7개주: 소말리(Somali), 아파(Afar), SNNP, 오로미아(Oromia), 디레 다와(Dire Dawa), 감벨라(Gambella), 베니산굴-구무즈(Benishangul-Gumuz)에서는 풀을 찾아 이동하며 방목하는 형태의 이동방목(Nomadic Pastoralism)이 일반화 되어 있다. 약 12～15백만 명의 농민이 이러한 형태의 목축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육하는 가축은 전체의 40%에 이르는데 축종별로는 소 30%, 양과 염소 60~70%, 그리고 모든 낙타가 이러한 형태로 사육된다.

이러한 이동방목 형태의 목축농민들은 대단히 넓은 면적을 사용하며, 에티오피아 농업부는 이들이 사용하는 면적이 국토의 6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에서도 가축은 운송수단, 우유, 고기, 가죽 등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매년 강우량에 따라 그만큼의 초지가 형성되고 또 이에 비례하여 목축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동방목 형태의 목축은 3~5년 간격을 두고 찾아오는 극심한 가뭄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Shitarek 2012).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축산은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발전 잠재력은 있으나, 아직 생산성이 대단히 낮은 저개발상태에 머물러 있다. 양질의 토양과 목초부족, 가축의 영양공급 부족, 가축질병, 가축사육·가공·유통 관련기술 부족, 그리고 물 부족 등이 축산발전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무료백신, 우물파기, 지선도로건설, 목초지개량 사업 등이 국제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b) 소와 우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에티오피아의 농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축은 소(牛)다. 소 사육의 70%는 고지대에서, 나머지 30%는 이동방목형태로 저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성은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대부분이 토종인 에티오피아 소는 전염병과 기생충감염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기에 영양실조와 기아가 겹쳐 상황이 악화되면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기에는 풀이 잘 자라 소 사육에 별 문제가 없지만, 건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 풀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가축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낙농업의 경우, 에티오피아에서는 사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젖소 두당 착유량이 생태환경이 유사한 인근의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생산성이 뒤처져 있다(표 3-7).

<표 3-7> 에티오피아와 인근국가의 우유생산성 비교

(단위: kg/옥수수 환산치, 리터)

	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두당 사료공급량	28	40	94
두당 우유생산량	208	498	480

자료) Netherlands-African Business Council(NABC), “Fact Sheet: Livestock Ethiopia”, 2010.9

에티오피아의 소 사육기술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수준이며, 아디스아바바 지역을 제외하고 개량종이나 외래종 소를 찾아보기 힘들고 사료도 풀과 농가부산물로만 사육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선진 기술이나 배합사료 등 투입자재 사용이 적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 생산성은 현격히 높아진다. 아디스 아바바를 예로 들면, 약 50%의 젖소가 교잡종이거나 외래종이지만 전국평균은 2%이하에 머물고 있다. 그 덕에 이 지역의 젖소 생산성은 전국평균의 2~3배 수준을 상회한다.

쇠고기 증산잠재력은 우유의 경우보다 더 낮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육되는 소의 약 40%는 10년 이상 영농작업에 사용되는 일소(役牛)이다. 이 경우 쇠고기는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화된 사육기술을 사용하는 비율이 젖소보다도 더 낮다. 결국 에티오피아의 소 산업성장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투입자재를 포함하여 선진화된 사육기술이지만 가난한 지역일수록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c) 양과 염소

에티오피아에서 양과 염소는 대부분 소규모 농가들에 의해서 사육되며, 경제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영세농들에게는 고기와 현금소득원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가축이다. 양과 염소의 60~70%는 이동방목 형태의 목축이 일반화 되어 있는 저지대에서 사육되고, 특히 부활절이나 새해와 같은 휴일을 전후하여 도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된다.

이 나라에서 사육되는 양과 염소의 품종은 거의 전부 토종 가축이며, 2011년 기준으로 양은 약 25백만 두, 염소는 약 23백만 두가 사육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 두 가축은 고기 외에 젖과 가죽을 동시에 공급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d) 닭과 달걀

에티오피아의 거의 모든 농가들은 자가소비용 고기와 달걀을 위하여 또는 현금소득원으로 닭을 기른다. 이렇게 사육되는 닭은 49백만 수에 이르며 그 중 96%가 토종닭이고 개량종이나 외래종 닭은 4% 정도이다.

절대다수인 토종닭은 영세농가에 의해 소규모로 사육되고, 대부분의 개량종이나 외래종 닭은 대규모 양계농장에서 사육된다. 대규모 양계산업은 수도 아디스 아바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으며, 이들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개량종이나 외래품종의 닭을 공급받아 사육하고 대도시의 호텔이나 정부기관 등에 납품하는 형태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생산인프라와 투입자재

농업생산에서 관개시설은 기상상황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동시에 현대화된 투입자재 사용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핵심요소 역할을 한다. 에티오피아의 관개면적은 약 20만ha(곡물 60%, 환금 작물 등 40%) 정도로 전체농경지면적의 0.5% 수준이며, 경작가능면적의 2%이하에 머물러 있다. 표본조사에 의하면, 관개농지와 천수답의 단수 차이가 평균 40%에 이르고 있어, 관개시설만으로도 40%의 증산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개면적이 2%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관개시설투자를 통한 증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Diao 2010).

에티오피아는 풍부한 수자원을 발전, 농업, 식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모의 댐을 건설하였으며, 지금도 새로운 댐이 건설되고 있으며, 발전전용, 발전·농업 겸용, 농업전용, 그리고 도시인근 상수원용 댐 등이 있다. 농업용으로 건설된 아주 작은 규모의 댐(Micro-dams)은 암하라(Amhara)주와 티그레이(Tigray)주에 집중되어 있다.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잠재면적은 3.7~4.3백만ha 정도로 추정되나, 실제 관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은 미미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형태의 농업이 일반적이다. 기존의 관개시설은 전통적 방식의 시설이 55%, 현대적인 소규모 시설이 20%, 그리고 나머지 25%는 대규모 기업농장의 규모가 큰 시설이다. 국제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시설의 경우 물 부족, 시설손상, 관리부실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http://awm-solutions.iwmi.org/ethiopia-1.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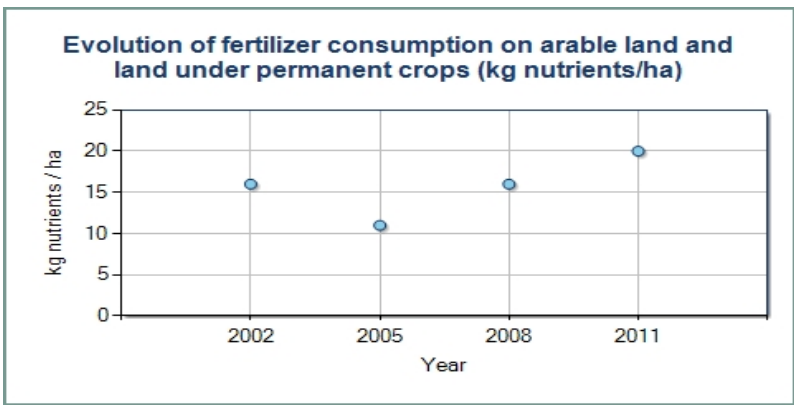
에티오피아에서는 소규모 관개시설이 대규모시설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있으며, 이는 작은 규모의 시설을 여러 지역에 분산투자하는 전략이 효과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관개시설을 관리·운용하는 측면에서도 지역 커뮤니티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관개시설이 대규모시설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지방정부 관계관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용수 개발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관개면적 27.4만ha(곡물 50%, 환금작물 등

50%)를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계획이 성공하는 경우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농지에서 생산된 곡물의 비율은 3%에서 5%로, 환금 작물의 경우는 2%에서 5%로 각각 늘어나도록 되어있다.

농업생산에서 용수만큼이나 중요한 인프라가 전력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농촌인구의 2%(도시인구 포함 12%)만이 전기혜택을 보고 있으며, 그마저 정전이 잦아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증대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앞의 "주요 인프라 여건" 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약한 교통통신 인프라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농촌의 취약한 인프라 외에 작물의 단수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현대화된 자재가 투입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비료가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량 부족과 농민들이 감히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비료가격 때문이다. 또 시비를 하더라도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에 대한 불안, 적기에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부족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하나 희망적인 현상은 에티오피아의 비료사용량이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그림 3-6).

[그림 3-6] 에티오피아의 비료사용량 추이



자료) FAOSTAT, http://faostat.fao.org/site/666/default.aspx

흥미로운 것은 에티오피아 정부조사에 따르면 비료 투입효과만 비교할 때 곡물의 평균단수는 시비하지 않은 경우보다 20% 높은 ha당 1.4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비의 실제효과는 토양 및 물 관리, 적기 파종·제초 등 영농관행, 개량종자 등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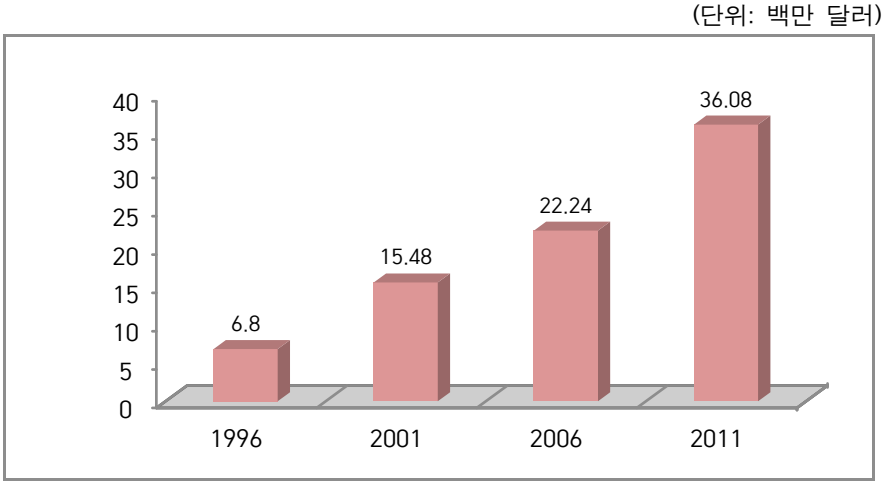
자재투입, 시비관련 기술훈련 등과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복합적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비료와 우량종자가 같이 투입될 경우 곡물의 평균단수는 ha당 2.5톤에 달하며, 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종되는 전체종자의 2%만이 우량종자이고, 나머지는 자가 채종이나 지역에서 생산되어 질병감염이 의심되는 종자가 대부분이다. 곡물의 경우 비료와 개량종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겨우 4%정도에 불과하다. 기술교육을 받지 못한 농민입장에서 보면 전통방법 대신 턱없이 비싼 비료와 종자를 사용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투입자재인 농약에 관해서는 사용통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농약 수입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면 [그림 3-7]과 같다. 에티오피아는 농약을 꾸준히 수입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36백만 달러 상당의 농약을 수입하였다. 이는 미미하지만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3-7] 에티오피아의 농약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FAOSTAT http://faostat.fao.org/site/666/default.aspx

4. 농업기술개발과 보급

가. 농업연구개발

지난 세기 중반 이후 세계는 농업생산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으나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량부족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농업발전은 농민의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농민을 발전된 지식과 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첫 걸음은 연구개발과 농민교육에서 출발한다.

1947년에 설립된 “Ambo and Jimma Colleges of Agriculture”와 1953년에 설립된 “Imperi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Mechanical Arts”에서 처음으로 에티오피아 농업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연구 활동이 시작된 것은 “농업연구원(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이하 EIAR)”이 발족된 1966년 이후의 일이다.

EIAR은 농업부장관이 의장인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장 책임 하에 운영되는 국립연구기관이며, 산하에 품목 또는 지역별로 특화된 15개의 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EIAR과는 별도로 주정부(농정국)의 지휘를 받는 7개의 지방농업연구소가 있으며, 또 일부 대학이 이들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농업연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아직 순수민간 차원의 농업연구 활동은 거의 없으며 현재의 연구기관을 정리하면 <표 3-8>과 같다.

<표 3-8> 에티오피아의 농업연구기관 구조

농업 연구원 (EIAR)	Ambo Plant Protection Research Center
	Assosa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Awassa National Maize Research Center
	Bako National Maize Research Project
	Debrezeit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Forestry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Holetta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지방 농업 연구소	Jimma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Kulumssa Research Center
	Melkassa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대학 농업 연구소	National Fish and Other Aquatic Lives Research Center
	Pawe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Tepi Research Center
	Werer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WondoGenet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Oromia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Amhara Regional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South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Tigray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Somali Region Pastoral &Agro-pastoral Research Institute
	Afar Pastoral and Agro-pastoral Research Institute
	Gambela, Regional Research Institute
	Haramaya University/College of Agriculture
	Hawassa University/College of Fores. & Natural Resources
	Jimma University/College of Agri. & Veterinary Medicine
	Mekelle University/College of Dry land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College of Veterinary
	Ambo University/Colleges of Agri. & Veterinary Sciences

자료) IFPRI, The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ASTI), http://www.asti.cgiar.org/ethiopia/agencies

매년 연방정부 농업연구예산의 97%를 EIAR가, 나머지 3%는 대학연구소들이 사용하지만, 연구 실적이 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Bechere 2007). 농업연구소의 주요연구 분야는 작물, 축산, 그리고 자연자원 관리이다. 에티오피아 농업연구 인력의 72%는 작물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축산과 자연자원 관련 연구 인력은 각각 18%와 7% 수준이다. 최근 들어 연구원에 신규인력이 충원되고 있으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연구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업연구기관들은 연구용 토지 외에도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실과 실험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나, 연구실, 기자재, 온실, 수송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IAR의 연구 활동은 품목중심으로 조직되고 추진되며, 신품종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연구결과는 "품목연구팀 → 연구센터 → EIAR"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기술검토와 농업부의 "품종심사위원회(National Variety Release Committee)"를 거쳐 보급종자로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보급종자는 별도로 설립된 "종자공급소(Ethiopian Seed Enterprise)"가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다.

나. 농민교육

농민교육은 소규모 농가들에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종자, 비료, 농업금융, 영농방법 등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만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에티오피아에서의 농민교육은 한 대학(Imperial Ethiopian College of Agricultural and Mechanical Arts)이 미국의 Land grant colleges처럼 정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53년에 처음 시작하였다. 그 이후 교육 기관과 수혜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화하는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찍이 빈곤 탈출을 위해 농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민교육을 농업부문의 핵심 투자분야의 하나로 정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농업부는 산하기관, 주정부, Woreda와 Kebele 단위의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전국규모의 농민교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의 농민교육은 거의 모두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공공부문의 투자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농업부는 매년 농업 GDP의 2%이상을 여기에 지출하고 있다.

농민교육은 전국 각지에서 분권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의 농민교육시스템 구조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농촌지도사(Development Agents: DA)”와 Kebele와 Woreda에 설치된 “농민훈련센터(Farmer Training Centers: FTC)”, 그리고 농촌지도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농업기술교육대학(Agricultural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olleges: ATVET)”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여, 최근 농촌지도사와 농민훈련센터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약 6만 3천명의 DA가 양성되었고 그 중 4만 5천명이 FTC에서 DA로 활동 중인데 계획대로 모든 Kebele에 FTC가 설치되어 정상가동 되면 6만명의 DA가 활동할 예정이다. 1만개 이상의 FTC가 이미 설치되었으나, 전 Kebele를 대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 조직의 규모로 보면 세계최대의 농민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cy, http://www.ata.gov.et/). 각 훈련센터에 소속된 농촌지도사가 작물, 축산, 자연자원 관리 등의 분야별로 영농지도와 단기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에티오피아의 농민교육 시스템이 모두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양적 팽창 이면에는 문제점도 있다. 농업부는 농민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발전대안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업구조전환청(ATA)까지 가세하여 농민교육 효율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민훈련센터 개소실적이 다소 미진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촌지도사 충원실적과 훈련실적 등 정량적으로 설정된 목표달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 목표인 생산성 증대나 빈곤 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동안 농민교육 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긍정적인 변화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pielman et al. 2011).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 비료나 농업금융을 보급하는 일이 농촌지도사들의 1차적인 임무가 되어 정작 중요한 기술지도 활동을 할 여유가 별로 없고, 이들의 성과도 투입자재의 효율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물리적인 보급량으로만 계측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업무가 주정부나 시·군(Woreda)으로 분권화 되어 있다하지만, 상급기관으로 부터 끊임없이 목표가 하달되고, 지방정부의 능력이 취약하여 수요자 요구에 동태적으로 반응하는 농민훈련시스템 구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문제점이 있다.

긍정적인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곡물에 치중된 농민교육이 다른 작물이나 축산, 수확후관리기술, 자연자원관리 등으로 다양화되고, 에티오피아 소규모 농가들의 다양한 작부체계를 감안하여 전국토를 몇 개의 농업생태지구로 분류하고 각 생태지구에 맞는 기술훈련제도를 개발하였다. 또 투입자재와 금융보급업무가 농민훈련센터에서 협동조합으로 이관되어 이제는 기술지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동안 이론교육에만 치중하던 농촌지도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과과정을 이론과 실습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다양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도개혁을 통해 농민훈련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소규모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빈곤 탈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5. 농산물유통과 교역

가. 농산물유통

에티오피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농정의 초점은 식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유통분야는 주요 투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들도 자가소비용 농업생산에 전념하였으며, 일부 잉여분이 있는 경우 이웃이나 인근시장에 판매하는 형태로 부수적인 농산물유통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국영기업이 수매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규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민간의 유통참여나 창의적인 농가소득 증대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들어 정부의 가격지정제도가 사라지면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민간거래가 부활되는 극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곧 가격불안과 유통비용 상승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통통신 인프라, 그리고 유통시설과 정보시스템 미비에 기인한다.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가 접근 가능한 유통채널은 산지상인이나 인근시장뿐이며 이들이 접할 수 있는 유통정보는 저장시설과 운송수단을 보유한 그러나 신뢰도가 낮은 지역상인들에 의존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보통 나귀나 노새의 등에 실려 인근시장에 출하되며, 시기적으로는 수확기 직후에 부채변제, 공과금납부, 가계지출 등을 위해 출하된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유통정보가 없는 농가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Gebre-Selasie et al. 2012). 이와 같이 농산물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한 가격변동과 지역적인 기근이 잦아지자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는 2008년 4월에 아프리카 최초로 "상품거래소(Ethiopian Commodity Exchange: 이하 ECX)"를 신설하였다.

ECX의 일차적인 목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중앙시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 시장은 판매자의 유통채널을 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농산물의 운송과 지불 등을 보장한다. 또한 농산물의 등급화(Grading)를 통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표준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ECX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가격형성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유통비용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과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농산물가공업은 에티오피아의 가장 오래된 제조업 형태의 하나로 제당, 제분, 제과, 제빵, 식용유 제조, 과일과 야채 가공업 등이 있다. 또 2000년대 이후 이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이 되고 있는 ADLI전략에 따라 농업과 제조업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산업의 접점에 있는 농산물가공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공업은 아직 단순가공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가공된 최종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 품목인 커피의 경우도 전통방식에 따라 로스팅-분쇄-포장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소규모로 국내시장에서 유통되지만, 수출용은 미가공 원료상태 그대로 선적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농산물가공분야에 해외로부터 직접투자를 끌어들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농산물과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산업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장건설을 위한 자본재와 건설자제에 대한 관세면제, 2~5년간의 법인세 면제,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정책을 제시해 놓고 있다.

나. 농산물교역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 문제를 안고 있는 에티오피아 경제에서 수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현재 수출되는 상품은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앞에서 살펴본 <표 2-5>와 같이 에티오피아의 10대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이 농산물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9대 농산물이 전체 수출의 79%를 차지할 만큼 에티오피아 수출은 소수의 핵심농산물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커피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참깨 두 품목이 전체 수출의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가량은 채소와 꽃 그리고 축산물 수출이다. FAO 통계에 의하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1위, 세계 5위의 커피 생산국이다. 이에 걸맞게 에티오피아는 연간 8.5억 달러(2011년 기준)의 커피를 수출하고 있으며 커피산업이 외화수입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수출상품이 소수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국제 커피시장의 가격등락에 에티오피아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 커피는 수확 후 간단한 처리 과정만을 거친 생두를 그대로 수출하고 있어,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커피의 국내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관련하여 건조·저장시설 부족, 커피가공기술 결여, 교통 및 전력 인프라 개선 등이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커피 외에 참깨와 화훼가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참깨는 국제시장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음에 따라 중국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화훼는 장미와 카네이션 등이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 나라의 2대 농산물 수출시장은 중국과 독일이다.

에티오피아는 잘 알려진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식량생산이 9천만이 넘는 인구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연간 1,654천 톤의 밀수입을 위해 615백만 달러의 외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수(53.4천 톤), 밀가루(45.6천 톤), 옥수수가루(21.9천 톤) 등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가공 원료농산물을 수출하는 대신 야자유, 설탕, 마카로니, 곡물가루 등 가공식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도 에티오피아 수입상품구조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에티오피아의 주요 농산물 수입내역을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표 3-9> 에티오피아의 주요 농산물수입내역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2011년 기준)

	수입량	수입금액
밀	1,654.2	615
야자유	231.4	330.7
설탕	233.1	166.9
완두콩	58.7	41
옥수수가루	21.9	30
마카로니	24.2	26.6
맥아	34.5	25.4
수수	53.4	24
밀가루	45.6	21.2
지방산	16.6	18.5

자료) FAOSTAT, http://faostat.fao.org/site/342/default.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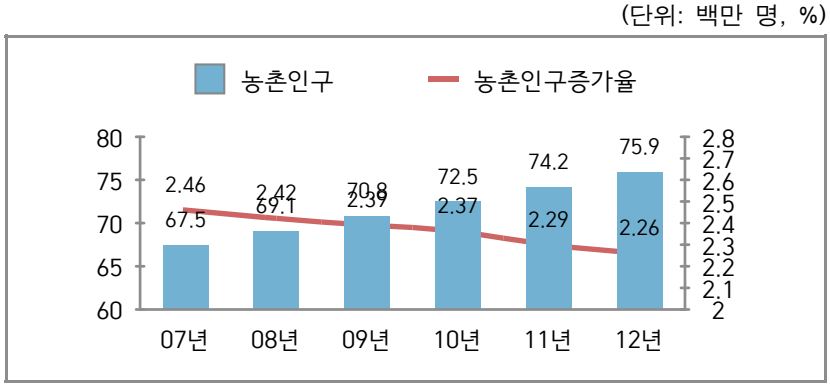
6. 농업·농촌발전 추이와 MDG

가. 농업·농촌 지표의 최근추이

이상과 같이 에티오피아의 농업과 농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여건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동안 발전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들어 완만한 변화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영농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촌인구는 꾸준히 늘어나 이제 76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농촌인구증가 속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 2012년 인구증가율은 5년 전에 비해 0.2% 감소된 2.26%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3-8).

[그림 3-8] 최근 농촌인구 변화추이

(단위: 백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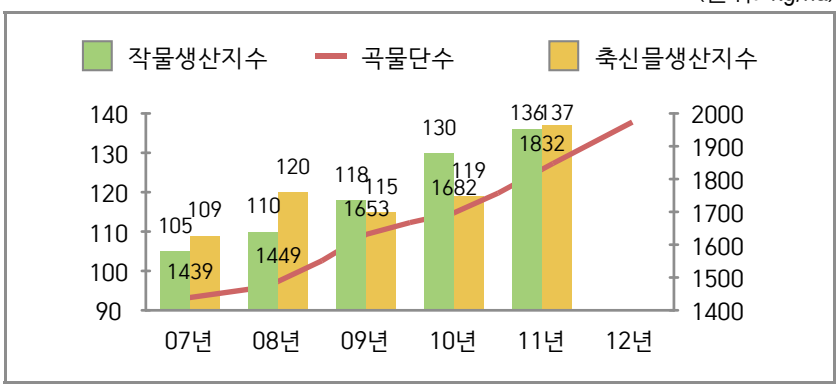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

지금은 토지면적의 15%(농경지의 42%)만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개발을 위해서는 경작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럴 여지도 많지만, 14~15백만ha 내외의 실제 경작면적이 눈에 띠게 확대되는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물과 축산부문 모두 매년 증산을 계속하면서 농업생산이 5% 이상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곡물단수증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작면적 확대보다는 기존 농지를 지키면서 단수를 늘려가고 있어, 그만큼의 농업기술 발전과 생산성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그림 3-9).

[그림 3-9] 최근 농업생산지수 변화추이

(단위: kg/ha)



자료)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

농업용수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관개면적이 전체농경지 면적의 0.5%밖에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식수공급 상황은 느린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농촌의 개선된 식수공급률은 39.3%로 2005년의 28.1%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지만, 도시의 식수공급률(96.6%)과의 현격한 차이는 그대로이다. 그 이외에 농촌개발의 주요지표인 농촌의 빈곤과 기아문제 그리고 교육, 보건, 양성평등 문제 등 농촌생활환경개선 문제는 농촌인구가 83%에 달하는 에티오피아의 특성상 농촌문제라기보다는 에티오피아 전체의 개발과제인 만큼, 이는 MDG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주요 MDG 추진현황

2000년대 들어 에티오피아가 추진해온 농업·농촌개발 정책들은 예외 없이 SDPRP, PASDEP, GTP 등 중기개발계획의 핵심부분으로 포함·추진되어왔다. 그런데, 이 중기개발계획들은 MDG라는 장기목표(1990년~2015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농업·농촌개발계획 또한 MDG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개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MDG 추진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MDG는 8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990~2015년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목표로는 ①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빈곤인구 1/2 감소), ② 보편적 초등교육 실시(모든 아동), ③ 양성평등 실현, ④ 아동사망률 감축(2/3 감축), ⑤ 모성보건 증진(산모사망률 3/4 감축), ⑥ HIV/AIDS 등 질병 퇴치(HIV/AIDS 등 확산정지),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안전한 식수시설에 접근불가인구 1/2 감축) 등이 있다. 통계에 따라 큰 편차가 존재하지만, 에티오피아 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MDG 추진상황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농업·농촌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세부과제의 추진현황을 선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2012).

①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에티오피아는 그동안 빈곤 퇴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MDG 기준이 되는 1990년의 경우 총인구의 48%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2011년까지 이를 29.6%(농촌 30.4%)까지 줄였으며 2012년에는 27.8%까지 감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연평균 2% 이상의 빈곤 감축 실적을 보이면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평균치인 0.5%를 크게 앞지르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빈곤선이하 인구 감축 분야의 MDG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간에 빈곤상태의 큰 편차가 존재하며, 특히 아파(Afar), 소말리(Somali), 감벨라(Gambella), 티그레이(Tigray)주가 다른 지역보다 빈곤 지수가 높다. 도·농간의 빈곤격차 측면에서도 아파, 소말리, 티그레이, 베니산굴-구무즈(Benishangul-Gumuz)주의 농촌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가난하다.

식량부족가구의 비율도 1995년의 49.5%에서 2011년 33.6%로 줄였으며, 2012년에는 이를 32.7%까지 더 감축하여 기아퇴치 목표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으며, IFPRI는 1990~2011기간 중 기아해소에 진전을 이룬 7대 국가에 에티오피아를 포함시킨바 있다. 식량부족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5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은 2000년에 58%이었으나, 11년 만에 이를 44%로 감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도·농간(도시 32% 대 농촌 46%), 그리고 지역 간(암하라주 52% 대 아디스 아바바 22%)에 격차가 존재한다.

첫 번째 MDG인 절대빈곤과 기아퇴치를 위해서는 농업발전이 중요하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생산성 증대, 그리고 농업기술보급과 투입자재 공급, 관개시설 투자확대 등을 통한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보편적 초등교육실시

에티오피아는 1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개발 장기계획(20년)”에 따라 국가예산의 20% 이상을 학교건설과 교원양성 등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취학인원수 확대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32%이던 1990년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2011년에는 95.4%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 이수비율은 아직 64%에 머물러 있어 MDG 100%까지는 아직 더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

2011년도에 실시한 인구보건 통계조사에 따르면, 적령아동의 65%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도시지역 재학률이 84%인 반면 농촌지역은 61%에 그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최하위인 아파(Afar)주의 초등학교 재학률은 아직도 52%로 나타나 교육 분야에서 농촌의 열악한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다.

③ 양성평등 실현

에티오피아는 중앙정부에 “여성청소년부”를 신설하고 지방정부에 유사한 부서를 설치하는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남녀평등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적 관행, 신념, 문화적 가치 등과의 갈등을 동반하는 복잡한 여건과 뒤섞이면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초등학교(1~8학년)와 중등학교(9~10학년) 입학단계에서의 남녀 성비율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초등학교 취학단계에서 남성대비 여성의 비율은 1990년 65.2%에서 2011년 91%로, 그리고 중등학교는 86.7%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학교는 아직도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기혼인과 아동의 가사부담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 경우 평생 더 이상의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위한 최소연령이 법률상으로는 18세로 되어 있지만 여자의 경우 17세 이전에 결혼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다만 최근에 여성의 공직진출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어 양성평등의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990년에 2%이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현재는 27.9%로 증가하였고 사법부 진출도 30%에 달한다. 이처럼 남녀 간의 성차별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민족 국가인 에티오피아의 특성상 지역 간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시와 티그레이(Tigray), 암하라(Amhara)주는 이미 높은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으나 소말리(Somali), 감벨라(Gambella), 베니산굴-구무즈(Benishangul-Gumuz)주는 크게 뒤쳐져 있다. 특히 아파(Afar) 주에서는 아직도 14세 이하 소녀의 60%가 할례를 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어 MDG 세 번째 목표의 존재를 의심케 하고 있다.

④ 아동사망률 감축

신생아 예방접종과 산모를 상대로 한 문자해독 및 보건교육 실시, 기초보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에티오피아는 그동안 아동보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1990년에는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1,000명당 211명에 달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였으나, 2011년에는 이를 71.9명까지 감소시켜 MDG 목표에 가까이 다가갔다. 같은 기간 동안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54명에서 30명으로 감소하였다.

예방접종은 깨끗한 식수와 함께 아동보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World Bank 통계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DPT와 홍역 예방접종률은 1990년의 49%와 38%에서 2011년에는 각각 51%와 57%로 미미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목표기한 내에 MDG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 과제이다.

⑤ 모성보건증진

World Bank 통계에 의하면, 1990년 당시 에티오피아 임산부 사망률은 10만 명당 무려 990명에 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였으며, MDG는 2015년까지 이의 3/4을 감축한 10만 명당 247명까지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GTP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된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분만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임산부의 비율이 아직도 20.4%(World Bank 통계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MDG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전관리와 분만 시 출산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임산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특단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10만 명당 990명이던 1990년의 임산부 사망률이 서서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670명까지 줄었으나, 2011년에는 680명을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대부분의 임산부 사망은 분만 중 또는 분만 후에 발생하고 있어 출산을 전후한 산부인과 서비스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촌에서 출산하는 산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며, 산부인과 서비스 접근가능성 측면에서 도시지역과는 거의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높은 임산부 사망률은 10대 미성년의 출산과도 관계가 있는바 에티오피아에서 임산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10대 미성년의 출산을 줄이고 또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최대한 예방하되 일단 낙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산부 건강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으로는 물과 전기 등 보건관련 기본인프라 부족, 숙련된 산파부족, 보건소진료 단계에서 필요시 환자이송시스템 취약, 의료장비와 재원부족 등을 들 수 있다.

⑥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World Bank 통계에 의하면, 1990년의 HIV/AIDS 감염률은 1.3%이었으나 2005년에는 2.6%까지 증가했다가 2011년에 1.4%로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2011년 에티오피아 인구보건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15~49세 임산부의 HIV/AIDS 감염률은 1.5%이며, 이는 10년 전의 12.4%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아진 수치이나 아직 80여만

명의 환자와 100여만 명의 AIDS 고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HIV/AIDS 감염률이 크게 감소한 요인으로 상담 및 검사소 증가, 산모와 신생아간의 감염예방활동 강화, 보균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확대, 사회적 인식확산과 행태변화 등을 들고 있다.

HIV/AIDS 예방관리소(The HIV/AIDS Prevention and Control Office:haPCO)가 보건부와 함께 HIV/AIDS 예방과 진료에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가 필요한 전체 환자의 72%, 산모와 신생아간의 감염예방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43%,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는 23%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HIV/AIDS 감염률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MDG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에티오피아는 말라리아의 예방과 치료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2009년 기준) 말라리아는 외래환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의 모든 가구에게 취침용 모기장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1년 현재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의 65.6%에 해당하는 가구가 2개의 모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임산부의 42.5%, 그리고 5세 이하 아동의 42.1%가 모기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에는 살충처리가 되고 영구성이 있는 새 모기장 4.2 백만 개가 보급되어 기존 모기장을 교체하였고, 말라리아 신속진단 키트와 약이 공급되었다. 그 결과 말라리아 발생률은 2004년의 25.2%에서 2011년에는 15.1%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망자는 50% 이상 감소하였다.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국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일상이 자연 및 환경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다. 산림자원의 활용에 대하여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상대로 “1인 2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산림면적 감소율이 2000년 12.5%, 2005년 11.9%, 그리고 2010년에는 11.2%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산림면적이 감소하는 추세 자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2011년의 산림면적 비율은 12.2%이며 이는 1990년의 15.2%보다 3%나 줄어든 수치이다.

도시와 농촌에 개선된 식수를 공급하는 에티오피아의 노력은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개선된 식수의 혜택을 보는 가구는 1990년의 13.6%에서 2011년에는 49%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50% 감축하는 MDG 달성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한한 도농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도시지역에는 이미 MDG가 달성되었으나 농촌지역에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3-10> 에티오피아 MDG 추진상황

	단위	1990년 (기준)	MDG (2015 목표)	추진상황	
				2005년	2011년
①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	48	50% 감축	38.7(04년)	29.6 –농촌30.4 –도시25.7
- 식량부족 가구비율	%	49.5(95년)	50% 감축	–	33.6
- 식량부족으로 인한 성장지체(5세 이하)	%	–	–	58(00년)	44 –농촌46 –도시32
② 보편적 초등교육실시					
- 초등교육 취학률	%	32	100%	61.9	86.5
- 초등교육 이수비율	%	23	100%	43.2	64
- 문자해독비율	%	26(95)	-	36	39
③ 양성평등 실현					
- 초등학교 여/남 비율	%	65.2	100%	82.6	91.0
- 중등학교 여/남 비율	%	-	100%	59.6	86.7
- 고등교육 여/남 비율	%	-	100%	24	29(09년)
- 여성 국회의원 비율	%	2	-	-	27.9
④ 아동사망률 감축					
- 5세 이하 아동사망률	명/천명	211	2/3 감축	100	71.9
- 영아 사망률	명/천명	54.2	-	38.9	30.0
- DPT 예방접종률	%	49	-	42	51
- 홍역 예방접종률	%	38	-	38	57
⑤ 모성보건증진					
- 임산부 사망비율	명/10만	990	3/4 감축	670	680
- 출산전문가 도움 비율	%	-	-	16(06년)	20.4
⑥ AIDS/말라리아 퇴치					
- HIV/AIDS 감염율	%	1.3	확산정지	2.6	1.4
- HIV/AIDS 치료율	%	-	치료접근가능	-	56
- 말라리아 발병률	%	-	확산정지	25.2(04년)	15.1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 산림면적 비율	%	15.2	-	13.0	12.2
- 개선된 식수 공급율	%	13.6 –농촌4.0 –도시80.4	–불안전식수 50% 감축	38.1 –농촌28.1 –도시91.4	49.0 –농촌39.3 –도시96.6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ssess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12.12,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 Aidflows, http://www.aidflows.org/,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에티오피아 국가협력전략 2012~2015」, 2012.4

제2절 농업·농촌개발 정책과 추진체계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발전의 부진원인을 다음과 같이 과거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셀라시 황제시대가 공산 군부정권체제로 이어진 과거에도 농업정책이 있었지만 농업발전은 없었으며, 그 결과 빈곤 감소나 식량안보 상황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농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제도처럼 생산성 향상이나 증산을 위한 동기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정책에 있다. 1991년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를 개혁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의 유휴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ADLI를 경제개발전략의 기본으로 삼았다.”(Ministry of Agriculture)[3)]

ADLI는 ① 다수 소농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기술개발과 종자, 비료 등 투입자재 공급을 늘리고, ② 상업농 확대와 농산물수출증대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해 주며, ③ 농업과 제조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식품가공, 섬유, 피혁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ADLI 정책은 그동안 세 차례의 중기개발계획을 거치면서 보완·발전되었으며 현재는 GTP 기본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 국가발전정책의 기본인 GTP 전략은 풍부한 유휴인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업화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점점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다. 먼저 시행 중인 GTP 농업·농촌정책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2010).

3) http://www.moa.gov.et/web/pages/oveerview-of-the-ministry

1. GTP 농업·농촌정책

가. 기본전략

GTP 농업정책의 기본전략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최근의 소득증대 그리고 산업화 진전에 따른 식량과 원료농산물의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농들이 비교적 자본집약도가 낮으면서도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체득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성장의 기본 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국내외의 민간투자자들이 농업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여 상업농을 확장함으로써 농산물수출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세소농의 경우 선도농가의 영농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일반농가의 생산성이 선도농가보다 2~3배 낮은 현실 고려),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위한 자연자원보전과 농업용수개발 확대, 농산물의 부가가치제고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목축지대에서는 생활과 축산겸용 용수개발, 우량종축 발굴 및 보급, 이동 수의사 제도 도입, 가축시장 개설정책 등이 시행중이다. 그리고 민간의 농업투자확대를 위해 정부가 기반시설투자 등을 지원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농업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나. 정책목표

시행중인 GTP는 2014 회계연도까지의 농업정책 목표를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해 놓고 있는 바, 그 중 주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계획수립 당시인 2009년 실적과 비교·예시하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GTP의 주요 농업정책 목표

		단 위	기준(2009년)	목표(2014년)
농업자재	개량종자	백만 톤	0.6	3.6
	화학비료		0.8	1.7
농업생산	곡물생산면적	백만 ha	9.1	9.6
	커피생산량	천톤	341	831
	화훼생산량	백만 송이	2,748	5,859
	과채생산량	천톤	58.4	979.6
축 산	개량종 소	%	10	37
	예방접종률		40	65
	동물백신생산	천 Dose	350	2,000
수 출	커피	백만 달러	528	2,037
	유지종실		358	1,120
	화훼		170	535
	콩류		130	882
	생축/육류		125	1,000
식량안보	지원대상	백만 가구	7.1	1.3
	식량비축	백만 톤	0.4	3.0
기술지도	수혜농가	백만 명	5.1	14.6
협동조합	기초조합	개	33,636	56,904
	조합연맹		212	546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Volume I/Main Text, 2010.11

다. 영세소농정책

영세농가의 생산성을 단기간 내에 향상시키는 방법은 많은 농가들이 발전된 농법이나 기술을 체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노동력과 토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의 “발전된 농법(Best practices)”개념에는 해당농지의 토양에 적합한 작물선택, 밭갈이 등 농장 준비, 적합한 파종시기와 방법, 밑거름 등 투입자재의 양과 질, 잡초제거 및 병충해관리, 그리고 수확후관리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GTP는 발전된 농법이나 기술을 찾아내는 방법의 하나로 그동안 지역별로 농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 선도농가의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기술유형별로 분류하고 전문가 검토와 시험재배 등을 거쳐 확정하는 접근을 제시하여 시행 중이다. 또 이렇게 확정된 농법이나 영농기술을 시범포장 운영 등을 통해 많은 농가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기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GTP는 "발전된 농법"의 범주에 농산물생산에 관한 것뿐 아니라 토양의 비옥도 유지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 또는 증대를 꾀하고 있다. 즉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학비료 사용증대 정책은 토양과 수자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유기질비료 관련 기술도 동시에 소개하여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 비료, 종자, 소형농기계 등 투입자재 관련 기술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농업생산성증대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활용한 농업용수(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용수 겸용)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에 중점을 주고 있다. 강우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우기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가두었다가 다시 농장에 돌려주기 위한 웅덩이를 파는 등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고, 그러한 여건에서도 양축이 가능한 양봉, 양계, 염소 등 토종 소형 가축사육을 장려하고 있다.

또 농업기술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작물, 축산, 자연자원, 농업기계화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굴-시험-생산-보급"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농업생태여건, 토질과 경사도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 목축지대 개발정책

목축지대 주민들의 삶은 축산자원개발과 밀접하게 엮여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초지개량과 축산·생활 겸용 용수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양축농민들이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일반 축산정책분야에서 가축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품종개량을 위한 인공수정기술, 우량토종 선발과 보급 확대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가축위생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목축지대에 축산기술센터를 건립하여 양축기술연구와 보급을 확대하고,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가축시장의 신규개설 또는 시설개선, 가축수송제도와 가격정보 시스템 강화, 농가의 자율적인 축산조합결성, 민간투자자의 도축장 및 가축위생검역소 건설 등을 유도하고 있다.

마. 민간의 농업투자 촉진대책

민간의 농업투자유치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대도시 인근지역에 시설원예기술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태의 원예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초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설치용 자재, 용수용 파이프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원예수출단지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과일, 채소, 양념작물, 향신료 등을 주로 생산하며 인근의 소규모 농가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보급 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민간의 농업투자유치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아직 미개척 농지가 많은 해발이 낮은 지역에 대규모 기업농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농에 적합하면서도 현재 정착민이 없는 지역을 찾아 농업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전문연구를 통해 적합한 지역이 발굴되면 정부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잉여인력이 많은 지역의 노동력을 이주시키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업농은 기본적으로 수출과 국내산업 원료용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면화, 대추야자, 차, 고무 등이다.

바. 농산물유통정책

에티오피아 농민들은 이제 생존농업에서 시장지향적인 농업으로 전환을 시작한 단계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품거래소(Ethiopia Commodity Exchange)를 통한 거래처럼 현대화된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재래시장과 상품거래소의 연계를 강화하고 선도농가의 사례 발굴·확산, 농산물 품질제고, 농산물 유통인프라와 정보시스템 개선, 시장참여자의 역량제고, 협동조합의 유통기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GTP는 주요 수출품목인 원예작물, 생축, 육류 등의 시장이나 물류 등 품목별 유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의 관계자들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사. 농업기술연구와 보급정책

농업기술개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기술보급-영농현장"을 잇는 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중앙과 지역에 전담 협의회를 설치하여 3자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술관련 문제 발굴 및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탐색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작물, 축산, 자원보존, 농업기계화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굴-시험-생산-보급"의 단계적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다.

아. 농정추진 역량구축

토양개량, 영농방법개선, 농업기술확산, 유통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기관과 요원들의 역량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점을 감안하여 대 농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장·단기 훈련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해당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업기술교육대학(Agricultural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ollege)"이 지역의 농업개발, 가축위생, 협동조합 등 분야별로 필요한 훈련을 담당한다. 동시에 선도농가의 경험을 단순히 전수하는 농민기술보급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지역별로 농민훈련센터를 확대 설치해 가고 있다.

2. 기타 농업・농촌정책

에티오피아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가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농촌정책은 상술한 “GTP정책”이지만, 그 외에도 장기계획인 “농업개발 10개년 계획”과 부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세부정책들이 있다. 이 세부정책으로는 “농업성장정책(AGP)”,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정책(SLMP)”, “토지관리 및 사용개발정책(LALUDEP)”, “생산적 생계지원정책(PSNP)”, “농가자산형성지원정책(HABP)” 등이 있는바 개별정책의 개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농업개발 10개년 계획(PIF)

UNDP 지원으로 수립된 “농업개발 10개년 계획(Agricultural Sector Policy and Investment Framework, PIF)”은 ADLI 도입 이후 농업부문은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2004년 이후 평균 8%), 현재 미활용 토지(80%) 등을 감안하면 향후 농업발전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PIF는 ADLI 전략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증거로 빈곤층의 생활여건개선, 식량부족인구 감소(99년/44% → 09/30%), 1인당 곡물생산량 증가(03년/15kg → 07년/213kg)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PIF는 FY 2010년부터 2019까지의 중점과제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그 각각에 대한 우선투자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표 3-12> PIF의 전략목표와 우선투자분야

전략목표	우선투자분야
농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연간 8% 수준의 증산실현	– 농업용수 개발 – 연구기능 및 영농기술개발 – 종자와 비료공급 확대 – 토양의 생산성 관리 – 축산분야의 개발
상업농화 과정을 가속화 시키고 농공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유통 인프라와 제도 확충 – 농업협동조합의 발전 – 농업금융제도 발전 – 민간투자활동 촉진
자연자원의 훼손을 감축하고 생산성 증대	–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 토양과 산림 등의 개발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가구를 보호하고 식량문제의 항구적인 해결	– 생산적인 식량지원제도 구축 – 자연재해에 대비한 식량비축량 확보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gricultural Sector Policy and Investment Framework(PIF)”, 2010. 9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10년간 총 166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그중 26억 달러는 전반기의 정책에 이미 반영하였고, 후반기 소요재원 140억 달러 중 60%에 해당하는 84억 달러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그리고 나머지 56억 달러는 외부 원조로 충당한다는 것이 PIF의 투자계획이다(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10).

나. 농업성장정책(AGP: Agricultural Growth Program)

GTP농정이 시행되는 기간과 같이 2010년부터 5년 동안 농업부가 시행하는 “농업성장정책(AGP: Agricultural Growth Program)”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시장접근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업발전 잠재력이 높은 고지대(Productive Highlands) 4개주(암하라(Amhara), 오로미아(Oromia), SNNP, 티그레이(Tigray))의 83개 Woreda(Productive Highlands의 약 25%)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나라 개발정책의 당초 가정대로 농업성장을 통한 농촌사회의 전환과 농업여건이 더 취약한 인근 지역으로의 혜택확산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World Bank 2010).

AGP는 ① 영농기술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가공유통과정의 민간참여를 통한 상업화 확대, ② 그리고 농업생산성향상 및 유통개선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개발·관리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티오피아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영세농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영농과 가공유통 등의 분야에서 앞서가는 선도 사례 발굴과 확산,
- 영세농이 필요로 하는 기술, 농법, 인프라 투자 지원능력 제고,
- 소규모 용수개발, 농로, 유통시설 등 인프라 관련 투자대책 등

또한 AGP가 담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농민단체나 지역사회가 기획한 안을 중심으로 검토·확정되며, 지역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 있는 분권적인 형태로 추진된다. 또한 AGP는 World Bank가 에티오피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 에티오피아 농업이 생존농업으로부터 상업농으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농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연계를 촉진
- 에티오피아 농업의 다양성에 비추어 지역차원의 의사결정과 결론도출이 중요한 만큼(특히 Kebele나 Woreda 수준) 정부의 분권화 정책을 지원
- 앞으로 농업발전 과정에서는 선진화된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 바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기술 지원
- 소규모 인프라 시설투자가 농업성장에 효과적인 점을 감안하여 작은 규모의 관개시설, 농촌도로, 유통시설 투자지원
- 과거에 기술보급, 금융, 구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요원의 역량 부족이 발전 장애요인이 된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을 보강

AGP의 시행기간이 2014년(FY)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들과 에티오피아 정부는 앞으로도 이 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2015~2020년을 대상으로 하는 AGP 제2단계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AGP 제1단계 정책은 World Bank, USAID, CIDA, 스페인,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고 UNDP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1단계 지원규모는 3억 2천만 달러이다.

다.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정책(SLMP: Sustainable Land Management Program)

이 정책은 생태계 기능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보장하면서 토지사용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다. 이 SLMP는 유역복구를 통하여 토양침식 및 황폐화를 줄이고, 영세소농들에게 토지 관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영농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정책은 World Bank, GIZ, CIDA 등 7개 기관이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별 지원내역을 보면 <표 3-13>과 같다.

<표 3-13>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정책(SLMP) 지원내역

(단위: 개,ha, 백만)

공여국	구분	대상 행정구역	면적	예산
World Bank	자금협력	35	211,000	US$29
KfW	자금협력	23	175,950	€13.3
CIDA	자금/기술협력	18	172,529	CAN$6.272/CAN$13.2
EU	자금협력	34	40,876	€8.5
GIZ	기술협력	76	n.a.	€11.89
IFAD, GEF	자금협력	1	227,500	US$27.23
핀란드	자금협력			€12.8

자료) Melaku Tadesse, “Sustainable Land Management Program in Ethiopia-Linking Local REDD+ Projects to National REDD+Strategies & Initiatives”, 2013.4

라. 토지관리 및 사용개발정책(LALUDEP: Ethiopian Land Administration and Land Use Development Program)

LALUDEP는 효율적인 토지정책과 토지사용증명서 제도 등을 통하여 영세한 규모의 경종농가, 목축농가, 그리고 경종축산 복합농가들의 토지사용 안정성을 강화시켜주는 정책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를 사업시행기간으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은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토지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생산성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추구하고 있으며, World Bank, USAID, 핀란드가 150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 생산적 생계지원정책(PSNP: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PSNP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안보정책”의 핵심요소이며,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안고 있는 농가들이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커뮤니티 차원의 생산적인 자산을 형성하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에게 식량 또는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비상구호 대상농가가 그 수혜대상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관리 성격의 정책이며, 다음의 농가자산형성지원정책(HABP)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PSNP는 300개 Woreda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강우량이 적고 불규칙한 고산지대와 저지대의 중간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고 강우량이 적어 경작이 어려운 동쪽 목축지대의 Woreda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시행중인 PSNP 2단계는 5년 동안(2010~2014)에 18억 달러가 투자되는 대규모 정책이며 World Bank, WFP, USAID, EU, CIDA, DfID, Irish AID, 덴마크, Swiss IDA가 지원하고 있다.

바. 농가자산형성지원정책(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HABP는 PSNP에 이어 에티오피아 농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안보정책”의 두 번째 요소이며, 만성적으로 취약한 농가가 위험관리방법을 체득함으로써, 복원력과 자산을 형성하여 PSNP 수혜대상에서 졸업하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나아가 이 정책은 취약농가들이 기술을 익히고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여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삶을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HABP 정책은 농업부 농촌지도국(Agriculture Extension Directorate)과 연방협동조합청(Federal Cooperative Agency)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까지 PSNP 수혜대상의 80%를 졸업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PSNP와 동일한 300개 Woreda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정책을 위해 World Bank, Irish AID, DfID, CIDA 그리고 USAID가 2010~2014년 기간 동안에 648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3. 농정추진체계

가. 농정추진조직

에티오피아 연방정부는 22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농촌개발 업무는 주무부처인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업·농촌개발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처로는 재정경제개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기반시설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Resource),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등이 있다.

그 외에 여러 부문에 걸쳐 산발적이고 복잡한 형태로 추진되던 농업·농촌정책들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신설된 “농업구조전환청(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cy: ATA)”이 있다. ATA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파트너, 시민사회, 민간부문 대표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부문의 공통과제인 농업·농촌개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구조전환대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TA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구조조정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며 동 위원회 위원에는 농업부, 재정경제개발부, 수자원부 대표와 오로미아(Oromia), SNNP, 티그레이(Tigray)주의 지방농정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에 “농촌개발부”와 통합되어 현재에 이른 “연방 농업부”의 조직은 크게 보아 ① 농업정책부문, ② 축산정책부문, ③ 자원정책부문, 그리고 ④ 식량·재해대책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문을 나누어 지휘하는 네 명의 차관이 있으며, 각 주에는 “지방 농정국”이 있다. 에티오피아 연방 농업부의 개괄적인 구조는 <표 3-14>와 같으며 세부 조직도는 별첨으로 첨부하였다.

<표 3-14> 에티오피아 농업부조직도

<table>
<tr><td colspan="4">농업부장관</td></tr>
<tr><td colspan="4">총무, 인사, 감사, 법무, 공보, 기획, 여성, 부패방지, 농업구조개혁, 특수지역정책, IT센터</td></tr>
<tr><td>농업개발/차관</td><td>축산개발/차관</td><td>천연자원/차관</td><td>식량·재해/차관</td></tr>
<tr><td>농촌지도국
농업투자정책국
영농자재유통국
동식물위생국</td><td>사료정책국
사료개발원</td><td>천연자원국
농지관리국
생물다양성보존원</td><td>식량안보정책국
비축식량관리국
조기경보대응국
재해대책본부</td></tr>
<tr><td colspan="4">지방농정국(9): Regional Bureaus</td></tr>
<tr><td colspan="4">Afar · Amhara · Benishangul · Dire Dawa · Gambella ·harari · Oromiya · SNNP · Somali</td></tr>
</table>

자료) 에티오피아 농업부: http://www.moa.gov.et/web/pages/overview-of-the-ministry

또 농업부 정책 중 전문성이나 현장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농업연구원(EIAR), 연방협동조합청(FCA) 등 별도의 산하조직을 두고 있다(표 3-15).

<표 3-15> 농업부 산하 및 관련기관

<table>
<tr><td rowspan="8">농업부
산하기관</td><td>농업연구원(Ethiopia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EIAR)</td></tr>
<tr><td>육류낙농기술원(Ethiopia Meat and Dairy Technology Institute)</td></tr>
<tr><td>원예원(Horticulture Agency)</td></tr>
<tr><td>커피품질보증센터(Coffee Quality Assurance Center)</td></tr>
<tr><td>국립토양시험센터(National Soil Laboratory Center)</td></tr>
<tr><td>종자공급소(Ethiopia Seed Enterprise)</td></tr>
<tr><td>국립인공수정센터(National Animal Insemination Center)</td></tr>
<tr><td>국립가축보건원(National Animal Health Institute)</td></tr>
<tr><td rowspan="3">농업
관련기관</td><td>재해대비원(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td></tr>
<tr><td>생물다양성보존원(Institut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td></tr>
<tr><td>연방협동조합청(Federal Cooperative Agency: FCA)</td></tr>
</table>

자료) 에티오피아 농업부: http://www.moa.gov.et/web/pages/overview-of-the-ministry

이상과 같은 에티오피아 농정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통하여 이 나라 농업·농촌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 농업·농촌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소위 "개발협력파트너(Development Partners)"는 모두 23개인데 <표 3-16>과 같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 국가와 UNDP, AfDB, FAO, WFP 등 8개의 국제기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표 3-16> 에티오피아의 개발협력 파트너(23개)

개별국가 (15개)	Austria, Canada/CIDA, Finland, France, Germany/GIZ, India, Ireland, Italy, Japan/JICA, Netherlands, Norway, Spain/AECID, Sweden/SID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USAID
국제기구 (8개)	African Development Bank(AfDB), Africa Union(AU), European Union(EU),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IFAD), World Bank, World Food Program(WFP)

자료) 에티오피아 농업부: http://www.moa.gov.et/web/pages/overview-of-the-ministry

나. 농정추진예산

현 단계에서 에티오피아가 추구하는 국가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은 빈곤 탈출이며 농업발전은 이를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이다. 재정경제개발부가 2013년에 발표한 최초 2년간의 GTP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빈곤 문제 관련 재정지출이 전체예산의 70% 수준이며 그 전략의 일부인 교육과 도로부문에 각각 20%가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농업부문은 총예산의 9%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다(표 3-17). 물론 농촌지역의 교육, 도로, 보건위생 등의 예산집행실적이 별도항목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농업·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7> 빈곤 문제 및 농업관련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 ETB, 구성비 %)

집행내역기준		2011/12년 집행실적		2010/11년 집행실적	
정부지출총액		124,124	100.0	93,981	100.0
빈곤문제 관련지출	합 계	87,568	70.4	62,378	66.4
	농 업	11,042	8.9	8,246	8.8
	교 육	29,710	23.9	23,345	24.8
	도 로	28,836	23.2	18,918	20.1
	용 수	10,147	8.2	5,563	5.9
	건 강	7,626	6.2	6,307	6.7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nnual Progress Report for FY 2011/12-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3.3

농업부문 내부의 예산배분 세부내역과 관련해서는 전술한 농업투자 10개년 계획(PIF)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2009년까지의 집행실적 추세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부문별 재원배분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10년간의 투자계획이 작성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농업부문 총예산의 2/3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농가의 식량지원 등에 지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는 한정된 재원이 농업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성격의 농업개발이나 자연자원개발 또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제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표 3-18).

<표 3-18> 장기 농업개발계획상 예산배분내역

(단위: %, 백만 ETB, 백만 US$)

	재원 배분기준	FY 2010~2019 예산합계	
농업부문 예산총액	100.0	195,232	11,832
농업개발	9.5	18,546	1,124
농산물유통	2.4	4,685	284
자연자원개발	15.4	30,066	1,822
자연재해와 식량지원	66.1	129,048	7,821
자연자원보존/연구개발	5.8	11,323	686
기타 지원경비	0.8	1,563	95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gricultural Sector Policy and Investment Framework(PIF)”, 2010. 9

제3절 농업·농촌개발 제약요인

"농업·농촌발전"이란 토지 등 자연자원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산업(농업)의 성장, 그리고 농촌주민의 경제적 후생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농촌사회의 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농업·농촌발전은 내외부로부터 대단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기 마련이다. 에티오피아에서 빈곤 문제의 탈출구로 지목되고 있는 농업·농촌발전도 예외가 아니며, 아직 저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동안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빚어낸 역사적 산물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에티오피아 농업·농촌발전의 제약요인을 몇 가지로 단순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자연여건, 제도와 정책, 국제여건 등 다양한 시각에서 각각 발전저해요인을 찾고 있어 예상대로 농업·농촌발전 문제의 복합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 중 에티오피아에 주재하는 UNDP가 운영하는 "UN Emergencies Unit for Ethiopia(UN/EUE)"는 이 문제를 비교적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UN Emergencies Unit for Ethiopia).[4] 이하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된 에티오피아의 농업·농촌발전 제약요인들을 UN/EUE의 분류체계에 준하여 정리한다.

1. 자원 · 환경적 요인

흔히 아프리카의 저개발요인을 규명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후, 강우량, 지리 등 자연적 조건이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토지와 물 등 부존자원과 높은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경작면적=토지면적의 15%, 관개면적=농경지면적의 0.5%) 농업·농촌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제약요인들이 있다.

4) http://www.africa.upenn.edu/eue_web/agricgrw.htm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의 서쪽 고지대는 강우량이 많은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해발이 낮은 동쪽과 남쪽의 저지대에 위치한 소말리(Somali)주와 아파(Afar)주 북부 그리고 오로미아(Oromia)주 남서부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불규칙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 리스크를 안고 있다.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와 빈약한 지하수가 유일한 농업용수원이며 가뭄이 계속되거나 지하수원이 고갈되는 경우 영농여건은 극한상황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개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관개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도 비효율적인 물 관리와 침수, 염수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물 부족 외에 이 광활한 지역의 농업개발을 저해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접근성 부족, 말라리아 모기 창궐문제 등이 있다.

지리적으로도 에티오피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농업·농촌발전에 몇 가지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악지형이 많고 대부분의 농업지역이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도로·철도 등 운송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해안선과 국내 항만시설이 없어 해운여건이 대단히 열악하다. 따라서 내륙운송비 부담이 커 국내시장뿐 아니라 수출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하라사막을 사이에 두고 주력시장인 유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다.

에티오피아 농민들의 토지활용구조도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우선 기후여건이 양호한 고지대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가 1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상식적인 수준의 농업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은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거나 기존 토지의 활용도를 더 높이는 방법(2모작 또는 3모작) 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는 많은 경우 목초지 감소를 의미하며, 후자는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반대로 고지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농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산림을 파괴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어느 쪽이든 만만치 않은 제약요인이 있는 셈이다(Taffesse et al. 201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구팽창에 따른 식량수요 증가와 국유지 임차제도가 결합하여 토지의 지속가능성을 무시한 약탈적 영농 그리고 산림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대규모의 토양유실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홍수나 가뭄피해를 증폭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Bill & Melinda Gates 재단은 에티오피아의 토양침식이 심각하여 많은 지역에서 작물의 단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FAO 평가를 인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농화 보다는 작은 규모의 토지를 분산 경작하는 현행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동 재단은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토양종합관리를 통하여 기존의 농경지를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농경지를 개간하여 환경파괴효과를 최소화하는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2010).

농업·농촌발전을 제약하는 다른 자원·환경적 요인은 축산이다. 고산지대에서도 축산이 성행하지만 기상여건이 열악한 저지대에서는 풀을 찾아 이동하며 방목하는 형태의 목축이 일반화 되어있다. 지역에 따라 농가 부산물이 사료로 활용되기도 하나 에티오피아에서 사료자원의 대부분은 자연 상태의 야생초지이다. 이 초지는 매년 강우량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가축에게 생존의 마당을 제공한다.

그러데 과다한 수의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토양침식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초지의 가축수용 능력은 점점 더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은 초지를 개량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없는 가운데 가축사육 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토양침식, 목초부족, 가축의 영양부족으로 이어져 축산물의 품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농촌발전의 지속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에티오피아 농민의 절대다수는 영세한 규모의 소농으로 생계형 농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농업발전을 위한 대농민지원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빈곤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지원제도 부재보다 더 근본

적인 요인은 농촌사회 내부에 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에티오피아 농민들이 전통과 관습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화된 영농자재 대신 생산성이 낮고 볼품없는 전통적 자재와 농법을 고집하며,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종교휴일에는 결코 작업을 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고 있어 영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목축지대의 농민도 가축을 식용으로 도축하거나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들에게 가축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부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대로 농민들은 손익과 관계없이 가축 사육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이는 결국 과잉방목과 토양유실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두 번째 사회·경제·문화적 제약요인은 소농들이 위험부담이 수반되는 도전보다는 안전을 선호하는 행태가 뿌리 깊다는 것이다. 높은 생산성이 예견되더라도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 이들은 선택을 회피한다. 실패한 영농기술지도 경험이 있는 농민들은 남의 지도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그로 인한 위험을 자기가 부담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불확실한 기상여건에 대한 불안은 소농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수용에 따른 위험부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목축농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착생활을 하지 않는 그들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정부지원과 토지 등에 대한 투자에 동참하기 보다는 더 좋은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훨씬 더 쉽고 안전한 방식을 선호한다. 물론 모든 농민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선진기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규모 상업농들도 있으며 이들은 영세소농들과 경우가 다르다.

세 번째의 사회·경제·문화적 제약요인은 소농이나 목축농민의 경우 비용과 수익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물교환이 일반화된 오지의 영세농들에게 화폐가치로 표시되는 비용과 수익은 무의미한 개념이다. 이들의 가치체계가 생존자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대가로 식품, 옷, 농기구 등 필요한 생필품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윤동기가 작용할 틈이 없으며, 새로운 토지에 대한 투자나 현대화된 투입자재를 사용하는 일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

윤동기와 무관하게 가축을 부와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목축농민들의 가치체계도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도시인근의 소농들은 오지농민들과 달리 비교적 확실한 비용과 수익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가격의 변동에 반응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비용과 수익 측면에서 대규모 상업농의 경우는 소농들과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에티오피아의 대규모 국영농장들은 또 다른 형태의 발전저해 요인을 가지고 있다. 국영농장들은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개념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그 결과 소농들과 달리 엄청난 규모의 정부보조를 받는 부담스런 존재인 경우가 많다.

네 번째의 사회·경제·문화적 제약요인은 인구폭증이다. 최근 에티오피아의 고도성장과 농업분야에서의 부분적 성과가 대부분 빠른 인구증가에 의해 상쇄되면서 전체적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농가입장에서 보면 늘어나는 식구에 상응하는 만큼의 농업생산이나 소득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빈곤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증가율이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인구가 169백만 명에 달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최대 인구대국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Bechere, 2006). 앞으로 엄격한 인구관리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 가족계획을 정착시키지 못하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한 발전저해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경제부문에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에티오피아는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커피와 참깨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경우가 다르지만 과거 식민지시대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단일작목 경작형 경제구조와 닮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의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에티오피아 경제와 농촌상황은 특정시기의 기상변화 또는 특정 농산물의 국제시세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결과적으로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대외경제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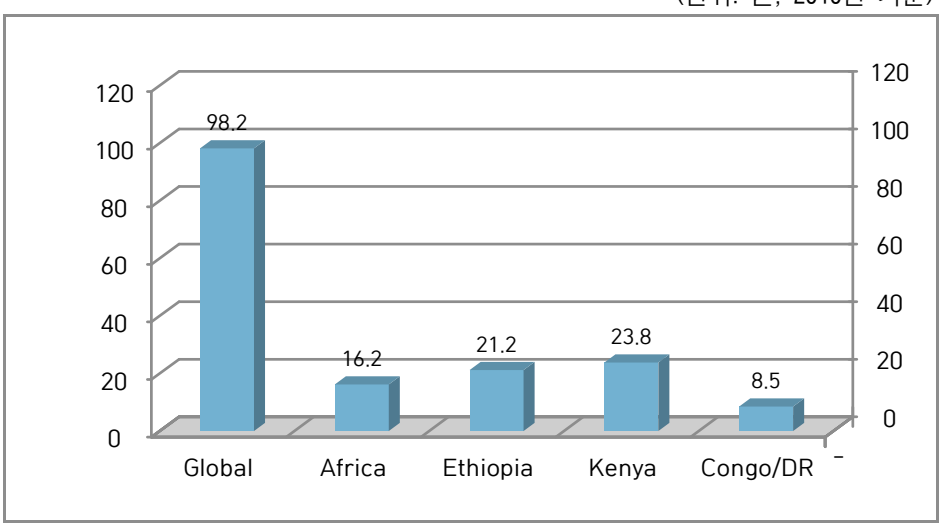
3. 기술적 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에티오피아 농민들은 일소와 쟁기 등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농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비료, 종자, 농기계 등 현대화된 자재와 기술을 적절하게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FAO 통계에 나타난 비료사용실적을 예로 들면, 에티오피아는 1,000ha당 21.23톤(2010년 기준)의 질소와 인산비료(N+P)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도의 아프리카 평균치인 16.24톤 보다는 많으며 인접국 케냐와 비슷한 양이지만 세계평균치 98.20톤과 비교하면 1/4에도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이다(그림 3-10).

[그림 3-10] 에티오피아의 질소와 인산비료(N+P) 사용량 비교

(단위: 톤,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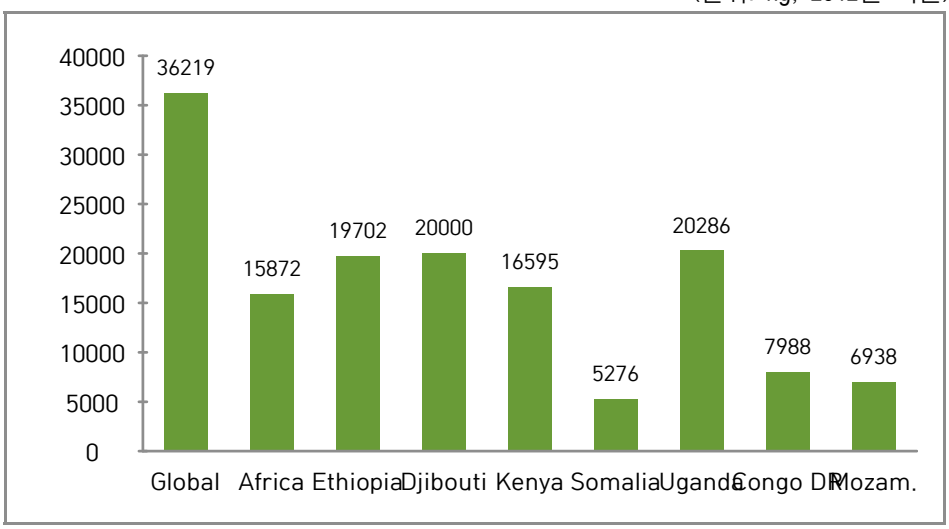
자료) FAOSTAT, http://faostat.fao.org/site/677/DesktopDefault.aspx?PageID=677

그 이유는 너무 높은 비료가격(국내생산이 안되어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과 비싼 비료를 투입한 후 기상변화에 따라 효과를 보지 못할 위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녹색혁명이나 백색혁명과 같은 작물관련 기술혁신이 시도되거나 확산되는 현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와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농업생산성이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나마 최근 연도의 건실한 성장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2012년도의 곡물단수를 예로 들면 에티오피아는 경작면적 ha당 1,970kg의 곡물을 생산하여 아프리카 평균단수를 상회하면서 인접국들에 비해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세계평균단수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그림 3-11).

[그림 3-11] 에티오피아의 곡물단수 비교

(단위: hg, 2012년 기준)



주) 단위: hectogram/hectare(1 hg=0.1 kg)
자료) FAOSTAT, http://faostat.fao.org/site/567/DesktopDefault.aspx?PageID=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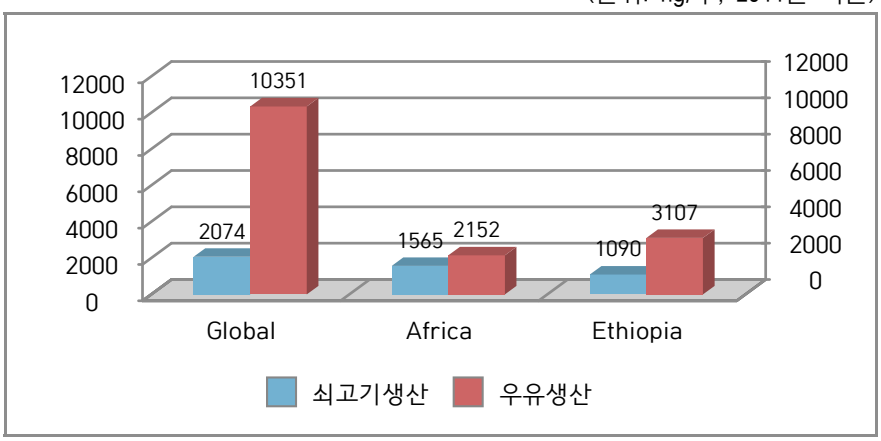
야생초지와 소수의 농가 부산물에 의존하면서 전통적인 방법대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분야도 별다른 기술진보가 없는 상태로 낮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정은 마찬가지다. 생산성 증대를 가로막는 주된 제약요인은 대부분 토종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가축의 능력개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상여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자연초지에 의존하는 빈약한 사료와 관련이 있다. 가축의 영양상태가 부실하여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기생충의 만연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 축산은 생산성이 대단히 낮다. 가축 두당 쇠고기와 우유생산량을 실례로 들면 [그림 3-12]와 같다. 에티오피아의 소 두당 쇠고기 생산량은(2011년, 지육기준) 109kg으로 아프리카 평균치 156.6kg보다 현격하게 낮으며 세계평균치의 절

반수준밖에 안 된다. 2011년 우유생산 실적의 경우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치를 앞지르고 있으나 세계평균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빈약한 수준이다.

[그림 3-12] 에티오피아의 두당 쇠고기와 우유생산량 비교

(단위: hg/두, 2011년 기준)



주) 단위: hectogram/hectare(1 hg=0.1 kg), 쇠고기는 지육기준
자료) FAOSTAT, http://faostat.fao.org/site/569/DesktopDefault.aspx?PageID=569

4. 인프라시설 요인

에티오피아의 농업·농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열악한 인프라 시설이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에티오피아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발표한 "인프라 지수(Bank's Infrastructure Index)"에 의하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53개국 중 52위를 기록하고 있다(African Development Bank 2011).

우선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생산인프라는 물과 전기 공급시설이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관개면적은 약 20만ha로 전체농경지면적의 0.5% 수준에 지나지 않고 농촌인구의 2%만이 전기 혜택을 보고 있으나, 그마저 정전이 잦아 농업생산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생산인프라 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아직도 상태가 열악하여 에티오피아 농업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유통 인프라이다. 산지와 시장을 연결하는 도로망과 교통편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외부접근이 차단된 오지마을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농자재구입이나 농산물판매와 관련하여 시장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해 농산물을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우기에는 종자, 비료 등 농자재 운송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증산을 위해 노력하는 동기부여에 그만큼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지형이 다양하고 지나치게 험한 곳이 많은 데다 농민들이 밀도 높은 집단취락을 이루지 않고 널리 분산거주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운송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산지와 지역시장을 잇는 방법은 동물을 이용하거나 직접 인력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중간단계 형태인 우마차마저도 험악한 지형과 농민들의 경제력 부족으로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뿐만 아니라 트럭 등 운송수단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의 트럭 수입량은 정상적인 교체수요를 충족하기에 급급한 수준이며 운송수단의 확대까지를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디스 아바바와 지부티를 연결하는 에티오피아의 유일한 철도노선은 거의 대부분 수출입화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농산물이나 자재의 국내유통에 기여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유통인프라 미비로 인하여 에티오피아는 수출상품을 산지에서 연안지역까지 운반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종합하면 관개시설과 전기부족 등으로 농업 및 생산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열악한 운송 인프라와 우편·통신 인프라가 결합되어 농자재와 농산물시장정보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제도 · 정책적 요인

풍부한 자연자원과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농업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과거정부에서 시행된 잘못된 농정결과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1990년까지 이

나라 정부는 공산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농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농정은 전체농업생산의 10%도 안 되는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90%이상의 농업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영세소농들은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정책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소외된 악조건 속에서도 영세농들은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있어 자발적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었다.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의 제도적 제약요인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토지제도이다. 이미 앞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나라는 토지의 공평분배를 중시하여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토지국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헌법에 의해 토지의 사적소유가 금지되어 있다. 최근 정부가 토지의 공평분배와 효율적 사용간의 괴리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영농의 안정성,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발적 투자, 그리고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그렇게 아직도 발전 제약요인으로 남아있다.

제도·정책적인 또 다른 요인으로는 생산자재공급, 농업금융서비스, R&D와 기술보급 등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과 배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준 국영기업형태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지연, 열악한 항만과 내륙운송, 보관시스템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매와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료공급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종자공급소(종자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기업 포함)와 정부연구기관, 그리고 국영농장이 새로운 종자의 생산과 보급에 참여하고 있으나, 정보의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종자생산이 영농현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종자공급소가 국영농장을 통하여 신품종 종자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영농장의 비효율적인 판매시스템, 종자생산능력 부족, 조악한 종자품질, 그리고 높은 종자가격 등으로 인하여 신품종 종자보급률이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소규모 영세농들이 에티오피아 농민의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농자재보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제도중의 하나가 농업금융이다. 이 나라에서 농업금융을 담당하는 2대 은행으로 "농공개발은행(Agri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Bank: AIDB)"과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Ethiopia: CBE)"이 있다. 그러나 은행지점의 대부분(AIDB의 94%, CBE의 81%)이 예금수요가 있는 곳 즉 커피 등 환금작물생산지나 곡물생산의 잉여가 발생하는 Woreda에 몰려 있어 실제 농업개발을 위한 금융수요가 많은 가난한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은행점포가 있는 지역도 농자재구입 등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CBE의 경우 대출절차에 무려 50일이 소요되며 AIBD는 이보다 더 긴 60일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R&D기능의 활성화가 핵심이지만 R&D시스템은 이 나라 현대사의 흐름에 함몰되어 영농현장에 성과를 재대로 투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에티오피아의 농업 R&D시스템은 봉건왕국-공산독재-연방공화국을 거치는 동안 새로운 사상에 맞추어 구조조정을 반복하면서,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공산정권하에서는 많은 인텔리 연구원들이 해외로 도피했고, 그 정부가 무너질 때는 R&D시설이 군중의 약탈대상이 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안정을 되찾고 이제 연구에 집중하는 단계다.

에티오피아 농업 R&D의 주축인 농업연구원(EIAR)이 밀, 옥수수, 수수 등의 육종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 축산분야 연구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개발된 신품종의 우수성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거나 실제 영세농들의 작부체계와 맞지 않아, 수년간의 R&D 투자와 노력의 결실이 생산성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예산부족으로 기술보급서비스가 주로 작물잉여가 발생하는 주산지에 한정되어 소외된 지역이 많고, 농업기술보급기관이 있다하더라도 R&D기관과의 연계가 강하지 못하여, 연구결과가 농가까지 재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6. 인적자원 요인

에티오피아 농업·농촌개발의 마지막 저해요인은 인적자원부족 문제이다.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영농현장의 농민들 교육수준과 노동력의 질이 낮은 것은 당

장 어찌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농정관련기관들조차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재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적어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는 농정기획, 토지이용기획, 연구개발, 기술개발·보급, 농업금융, 농업통계 분야 등이다.

농정기관의 전문인력이 수적으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재직 중인 직원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경력이 짧아 기관전체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더군다나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어떤 직원은 능력이상의 일이나 직책을 맡고 재대로 자격을 갖춘 다른 직원은 빈둥거리도록 방치된 사례도 흔하다. 전문 인력부족문제가 중앙정부 기획부서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잘 기획된 정책도 일선기관에 훈련된 인력이 모자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농정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인센티브 부재와 낮은 보수 때문이다. 특히 과거 공산정권 시절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인력들이 공직에 진출하여 농업·농촌발전을 이끄는 대신 해외취업을 위해 나라를 떠났고, 능력 있는 공직자조차도 해외유학, 연수, 출장에서 귀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 수준도 점점 악화되어 결국 농과대학 졸업생이 농업관련 기관에 채용되어도 의미 있는 일을 맡길 수 없고 또한 채용 후 업무수행 준비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되는 문제를 고민하던 상황도 있었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에티오피아

제4장
농업 · 농촌개발 지원현황



제1절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지원전략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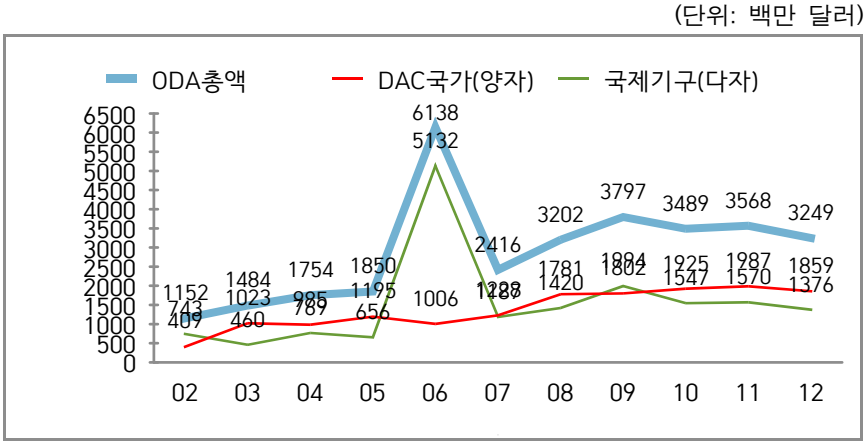
1. 국제사회의 에티오피아 지원개황

가. 에티오피아에 대한 ODA 개황

에티오피아에서 해외원조는 차관과 함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부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국가예산의 약 1/3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리하여 1960년 15백만 달러이던 ODA는 2012년에 200배가 넘는 3,435백만 달러로 확대되었으며[5](그림 4-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는 ODA의 7.5%가 이 나라를 향하고 있다(표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인구로 인하여 1인당 ODA를 기준으로 보면 에티오피아는 아직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림 4-1] 에티오피아의 최근 ODA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06년의 급증: IDA와 AfDF가 다자합의에 따라 부채를 탕감해준 결과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2A#

5) 최근 3년간(2010~2012) 실적의 평균치 기준

<표 4-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별 ODA수원 현황

(단위: Disbursement/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0	2011	2012	3년 평균	
					금액	구성비(%)
1	DR콩고	3,711	5,534	2,950	4,065	8.9
2	에티오피아	3,489	3,568	3,249	3,435	7.5
3	탄자니아	3,149	2,446	2,881	2,825	6.2
4	케냐	1,714	2,482	2,698	2,298	5.0
5	모잠비크	2,081	2,085	2,147	2,104	4.6
6	나이지리아	2,178	1,769	1,938	1,962	4.3
7	가나	1,796	1,810	1,849	1,818	4.0
8	코트뒤브아르	897	1,436	2,762	1,698	3.7
9	우간다	1,827	1,578	1,684	1,696	3.7
10	수단	2,195	1,124	1,010	1,443	3.1
11	남아공	1,078	1,403	1,091	1,191	2.6
12	말리	1,157	1,281	1,021	1,153	2.5
13	부르키나파소	1,134	995	1,196	1,108	2.4
14	르완다	1,097	1,264	900	1,087	2.4
15	세네갈	985	1,060	1,118	1,054	2.3
기타 사하라이남		17,675	15,861	17,162	16,901	36.8
사하라이남 지역합계		46,397	45,667	45,718	45,927	100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2A#
http://www.oecd.org/dac/stats/statisticsonresourceflowstodevelopingcountries.htm

에티오피아에 대한 ODA구조의 첫째 특징은 인도지원과 긴급식량지원의 비중이 전체 ODA의 30~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과 영국이 양자지원액의 약 64%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이 나라에 대한 ODA총액의 35.8%에 해당한다. 이 두 나라 외에도 에티오피아 지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20개국이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규모는 크지 않지만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까지 3년간 연평균 14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15위의 ODA공여 국가가 되었다.

DAC 회원국들 외에 국제기구들도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에티오피아에 대한 ODA의 약 44%를 담당하고 있다. 큰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 다자기구로는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EU, Global Fund, 그리고 AfDF(African Development Fund)가 있다. 2006년의 부채탕감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제외하더라도 이 네 기구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다자

기구 지원총액의 85.7%(ODA 총액의 37.4%)를 이들이 공여하고 있다. 이 기구들을 포함하여 에티오피아에 ODA를 공여하는 국가와 국제다자기구 현황을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ODA공여주체별 에티오피아 지원현황

(단위: Disbursement/백만 달러)

		국가	2010	2011	2012	3년평균
DAC 회원국	1	미국	875.3	706.7	732.6	771.5
	2	영국	407.1	552.3	421.7	460.4
	3	캐나다	140.4	118.6	123,4	127.5
	4	일본	93.9	119.7	108.7	107.4
	5	독일	96.5	101.2	116.8	104.8
	6	네덜란드	54.3	67.9	79.3	67.2
	7	아일랜드	48.8	49.3	42.1	46.7
	8	스웨덴	39.4	40.7	27.6	35.9
	9	노르웨이	32.6	29.1	39.8	33.8
	10	스페인	39.5	38.8	14.7	31.0
	11	핀란드	25.6	23.7	31.1	26.8
	12	이탈리아	18.3	35.0	15.8	23.0
	13	호주	2.3	18.8	29.4	16.8
	14	프랑스	13.7	13.6	21.1	16.1
	15	한국	10.2	11.6	20.4	14.1
	16	덴마크	7.5	21.9	8.4	12.6
	17	오스트리아	9.7	12.1	8.4	10.1
	18	스위스	4.1	11.3	9.6	8.3
	19	벨기에	4.2	8.5	3.3	5.3
	20	체코	-	2.9	3.1	2.0
	기타 DAC 회원국		2.1	2.8	1.9	2.3
	DAC회원국 합계		1,925.5	1,986.5	1,859.2	1,923.7
다자 기구	1	IDA	668.7	716.4	750.7	711.9
	2	EU	237.6	212.1	239.0	229.6
	3	Global Fund	256.7	194.6	93.9	181.7
	4	AfDF	150.2	234.3	99.3	161.3
	5	GAVI	19.9	90.7	94.1	68.2
	6	IMF	122.4	-	-	40.8
	7	UNICEF	43.4	40.8	29.9	38.0
	8	WFP	3.7	28.1	23.4	18.4
	9	UNDP	17.7	16.0	15.5	16.4
	10	OFID	8.5	4.4	8.3	7.1
	기타 다자기구		18.4	32.5	21.8	24.3
	다자기구 합계		1,547.2	1,569.9	1,375.9	1,497.7

국가	2010	2011	2012	3년평균
기타 ODA	15.8	11.1	14.2	13.7
ODA 총액	3,488.5	3,567.5	3,249.3	3,435.1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2A#

이와 같이 양자 또는 다자 채널을 통하여 지원된 ODA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그 중 일부가 농업·농촌개발을 위해 쓰이고 있다. DAC 회원국들로부터 양자채널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원액의 약 27%는 인도적 원조 성격의 지원이며 (국제기구의 인도지원과 긴급식량지원을 포함하면 30~50%) 나머지 약 73%가 공여국과 수원국이 합의하는 분야에 사용되었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양자 ODA의 분야별 배분구성을 보면, 10.7%가 산업생산에 쓰이는데 그 대부분인 10.2%가 농림수산업생산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가 지원받는 양자 ODA의 분야별 구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에티오피아에 대한 양자 ODA의 분야별 구성

(단위: %)

	2010	2011	2012	3년 평균
사회관련 인프라	35.8	38.0	47.1	40.3
(교육)	(6.8)	(10.7)	(14.0)	(10.5)
(식수공급, 위생 등)	(2.6)	(3.9)	(2.1)	(2.9)
경제관련 인프라	2.7	9.0	2.6	4.8
(교통, 통신)	(0.8)	(4.1)	(0.2)	(1.7)
(에너지)	(0.3)	(4.6)	(0.9)	(1.9)
산업생산	10.2	7.0	14.8	10.7
(농림수산)	(9.7)	(6.3)	(14.5)	(10.2)
(광공업, 건설)	(0.4)	(0.7)	(0.2)	(0.4)
(유통, 관광)	(0.2)	(0.1)	(0.1)	(0.1)
여러 분야 관련	6.3	2.8	6.4	5.2
식량원조	15.5	10.3	9.4	11.7
인도적 지원	28.2	32.5	19.0	26.6
기타	1.3	0.4	0.7	0.7
양자 ODA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F_TOTALRECTS

나.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의 현지 동향

에티오피아의 빈곤 퇴치를 돕기 위하여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소위 “개발협력 파트너(Development Partners)”로서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2001년에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 Ethiopia)”라는 이름의 원조기관 협의체를 조직하여 에티오피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 정부와의 대화, 원조 조화(Harmonization) 등을 협의하고 있다. 대정부 대화와 관련하여, DAG의 공식적인 협력창구는 재정경제개발부(원조조화사무국: Harmonization Secretariat)이며 매년 2~3차례 DAG의장과 재정경제개발부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대화(High Level Forum)를 개최하여 GTP의 재정지원과 거시경제전망, GTP와 분야별 프로그램의 관계, 주요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갖는다(Development Assistance Group Ethiopia, 2012).

DAG에는 <표 4-4>와 같이 19개 ODA 기관과 7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DAG 공동의장은 USAID와 World Bank가 맡고 있다. 또 DAG 내에 집행위원회(DAG Executive Committee)가 설치되어 있으며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는 두 공동의장 외에 AfDB, UNDP, EU, DFID, Canada,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독일 ODA의 최신 Logo)이 참여하고 있다.

<표 4-4> 에티오피아 현지의 DAG 구성현황

양자 ODA 기관(19):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Belgium Development Cooperation, CIDA, Denmark Embassy, DFID, Finland Embassy, French Embassy, German Embassy, Indian Embassy, Israel, Embassy of Ireland,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JICA, Netherlands Embassy, Norwegian Embassy, Embassy of Sweden,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AECID), Turk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TICA), USAID
국제기구(7): AfDB, EU, IMF, UNICEF, UNDP, WFP, World Bank

자료)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Ethiopia(DAG): http://www.dagethiop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Itemid=4

DAG는 그 안에 분야별로 세 개의 분과(Thematic Working Group: GTP 분과, Governance 분과, 양성평등 분과)와 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ODA 공여국과 에티오피아정부가 “농촌경제개발 및 식량안보작업반(RED/FS WG: Rural Economic Development/Food Security Working Group)”이라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단히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RED/FS WG은 23개 기관의 농업분야 ODA공여자들이 에티오피아 정부와 한자리에 모여 이 나라의 원조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원조효과성을 높이고 동시에 원조 조화를 논의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된 협의체이다.

그런데 이 RED/FS WG은 4명의 차관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농업부 조직과 동일한 구조로 짜여진 4개의 전문분야 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다. 각 협의회에 농업부의 담당차관이 참여하고 기술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협의회 안에 다시 사안별 Task Force를 구성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정부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강한 정부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ODA사업을 추진하는 장점이 있고 정부와 책임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본 연구진을 만난 RED/FS WG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농업분야의 공조시스템은 에티오피아가 거의 유일하며(르완다 유사제도), 이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농업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ODA공여국과 수혜국간의 원론적인 관계 차원에서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많은 ODA기관과 국제기구가 상주하는 에티오피아는 DAG 또는 RED/FS WG 등을 중심으로 원조 조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RED/FS WG의 개요 및 조직도는 <별첨 4>에 추가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ODA공여기관들의 활동개요를 개별국가와 국제기구로 나누어 정리하면 <별첨 4-1> 및 <별첨 4-2>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목격되는 새로운 현상은 전통적인 ODA공여국가가 아닌 중국, 인도, 터키 3국의 등장이다. 특히 활동이 두드러지는 중국의 경우 공개된 자료가 별로 없어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어렵지만 차관형식의 지원이 대부분이며 무상원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일부 비판적인 연구는 중국이 인구대국 에티오피아의 지정학적·군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Alemayehu et al. 2011).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지도자와 고위공직자들의 왕래가 많은 AU(African Union)와 ECA(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아디스 아바바에 중국이 초현대식 항공화물터미널, 고가도로, AU본부 등의 건물신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다른 아프리카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효과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라고 아디스 아바바 대학의 한 교수는 지적한다. 어쨌든 이와 같이 지원되는 차관은 도로, 댐, 통신시설, 공장 등 인프라 건설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차관조건에 양허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농업・농촌개발지원 사업개요

OECD통계를 기초로 최근 3년간 에티오피아 농업·농촌분야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와 국제기구를 종합·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이 표와 같이 에티오피아에서 농업·농촌분야 지원에 적극적인 나라는 캐나다, 독일, 미국, 네덜란드, 일본 순이며 이 다섯 나라가 DAC회원국 양자농업지원(국제기구지원 제외)의 약 3/4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자국이 지원하는 ODA 127.5백만 달러의 32.4%를 농업·농촌지원에 집중함으로써 이 분야 지원규모와 구성 비율 모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4-5> ODA 공여주체별 에티오피아 농업・농촌분야지원현황

(단위: Disbursement, 백만 달러, 2010~2012 평균)

		국가	농업생산 (AP)	농촌개발 (RD)	농업·농촌소계 (AP+RD=AR)	에티오피아 지원총액(TT)	AR/TT (%)
DAC 회원국	1	캐나다	41.2	0.1	41.3	127.5	32.4
	2	독일	15.6	2.1	17.7	104.8	16.9
	3	미국	15.4	-	15.4	771.5	2.0
	4	네덜란드	12.5	1.0	13.5	67.2	20.1
	5	일본	10.3	-	10.3	107.4	9.6
	6	노르웨이	4.1	2.0	6.1	33.8	18.0
	7	스페인	3.7	1.6	5.3	31.0	17.1
	8	아일랜드	2.5	2.8	5.3	46.7	11.3
	9	호주	2.0	-	2.0	16.8	11.9
	10	스웨덴	1.9	1.0	2.9	35.9	8.1
	11	한국	1.3	1.4	2.7	14.1	19.1
	12	영국	1.2	0.3	1.5	460.4	0.3
	기타 DAC 회원국		3.8	4.6	8.4	106.6	7.9
	DAC회원국 합계		115.5	16.9	132.4	1,923.7	6.8
다자 기구	1	IDA	20.4	207.0	227.4	711.9	31.9
	2	AfDF	17.6	-	17.6	161.3	10.9
	3	EU	1.5	-	1.5	229.6	0.7
	기타 다자기구		0.3	-	0.3	394.9	-
	다자기구 합계		39.8	207.0	246.8	1,497.7	16.5
기타 ODA			-	-	-	13.7	-
ODA 총액			155.3	223.9	379.2	3,435.1	11.0

자료) OECD(재구성):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2A#

반면 771.5백만 달러와 460.4백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ODA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영국은 전체 지원액의 2%와 0.3%만을 농업분야에 배분하여 캐나다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DAC 회원국 전체로 보면 최근 3년간 에티오피아에 지원한 ODA 중 평균 6.8%가 농업·농촌분야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부문을 살펴보면 에티오피아 농업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캐나다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특히 농지와 농업용수 등 농업생산을 위한 기본자원의 개발 및 보존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다. 독일은 농지자원분야에, 그리고 미

국, 네덜란드는 농업개발 분야에 각각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은 농업개발, 농업정책, 농업자재, 농업용수자원 등 비교적 여러 분야를 고루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앞에 언급된 분야에 비하여 ODA공여국가나 국제기구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분야는 영농자재, 수출작물, 농업금융 분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기구의 경우 농업·농촌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기구는 IDA와 AfDB이며 이 두 기구의 지원이 다자 농업지원의 거의 전부(99.3%)에 해당한다. 국제기구의 농업·농촌분야 지원규모는 전체 ODA의 16.5%를 점하고 있어 양자지원보다 이 분야 지원이 더 활발하며 IDA는 농촌개발 분야에 AfDB는 농업생산 분야에 각각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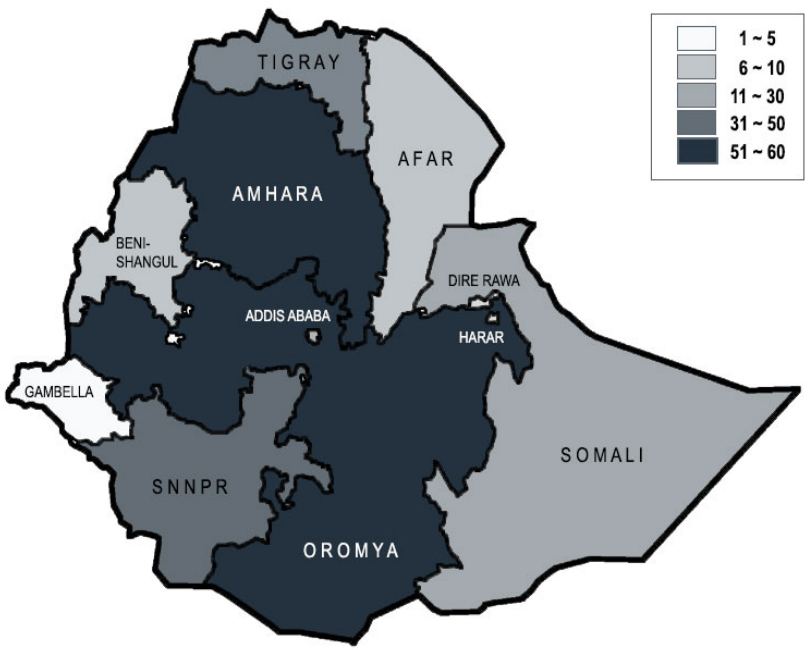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지원된 농업·농촌 ODA 중 농업생산 분야의 지원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에 지원되고 있는 농업·농촌관련 ODA의 36.6%는 농업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지자원, 농업정책과 행정, 그리고 농업용수자원 분야가 차례로 뒤를 잇고 있다. 그 외에 농업연구-기술보급-농민교육으로 연결되는 영농방법과 기술관련 ODA도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은 농업·농촌 분야 개발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약 240여개의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이 에티오피아 전역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그림 4-2). 특히 에티오피아 정부 농업부가 시행 중인 "농업성장정책(Agricultural Growth Program: AGP)" 대상 4개 주인 암하라(Amhara), 오로미아(Oromiya), SNNP, 티그레이(Tigray)주에 전체 사업의 80% 이상이 집중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50개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는 오로미아주와 암하라주로 각각 58개, 51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SNNP주와 티그레이주에 각각 40개 정도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극동에 위치한 소말리(Somali)주에서는 현재는 현재 17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소말리주 사업들은 농업개발 성격의 사업이기 보다 비상구호 대상

농가를 위한 식량지원 사업으로 17개 사업 중 반 이상인 9개의 사업이 “생산적 생계 지원정책(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PSNP)”사업이다 이 외에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 지역 6개, 아파(Afar)주 8개, 베니산굴(Benishangul)주 8개, 디레 디와(Dire Dawa)주 4개, 하라리(Harari)주 4개, 감벨라(Gambela)주 1개의 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

[그림 4-2]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농업·농촌개발 지원 사업 분포



자료) RED/FS WG 면담

<표 4-6> 에티오피아 농업지원의 세부분야 구성현황

(단위: Disbursement/백만 달러, 2010~2012 평균)

		합계	세 부 지 원 분 야												
			농업 정책	농업 개발	농지 자원	농업 용수	영농 자재	식량 작물	수출 작물	축산 개발	기술 보급	농민 교육	농업 연구	농서 비스	농업 금융
1	캐나다	41.2	3.8	4.2	9.1	6.2	1.8	2.2	0.6	0.3	3.8	0.9	3.4	1.6	1.7
2	독일	15.6		0.7	13.8	0.1				0.1		0.7			
3	미국	15.4	2.3	13.1											
4	네덜란드	12.5	1.0	8.8			1.2	0.1						1.4	
5	일본	10.3	3.0	3.1	0.1	1.5	2.5			0.1					
6	노르웨이	4.1	1.3	0.5	0.3					0.9			1.0		
7	스페인	3.7	1.5	0.5		0.2		0.9		0.1			0.2		
8	아일랜드	2.5		1.3							0.5				
9	호주	2.0											1.2		
10	스웨덴	1.9		0.6	1.2										
11	한국	1.3		0.8		0.2									
12	영국	1.2	0.5											0.7	
기타 DAC 회원		3.8	1.0	1.2	0.5	0.1	0.2	1.2	0.1	0.2	0.2	0.5	0.5	1.2	
DAC회원국합계		115.5	14.4	34.8	25.0	8.3	5.7	4.4	0.7	1.7	4.5	2.1	6.3	4.9	1.7
1	IDA	20.4	1.7	8.4	3.2	5.4	-5.0			0.8	2.4		4.0		
2	AfDF	17.6	4.2	13.4											
3	EU Institutions	1.5		0.3		0.2			0.2					0.3	
기타 다자기구		0.3	0.2												
다자기구 합계		39.8		22.1	3.2										
기타 농업지원		-													
농업 ODA 총계 (구성비: %)		155.3 (100.0)	20.5 (13.2)	56.9 (36.6)	28.2 (18.1)	13.8 (8.9)	0.7 (0.5)	4.4 (2.8)	0.9 (0.6)	2.5 (1.6)	6.9 (4.4)	2.1 (1.4)	10.3 (6.6)	5.2 (3.3)	1.7 (1.1)

자료) OECD(재구성):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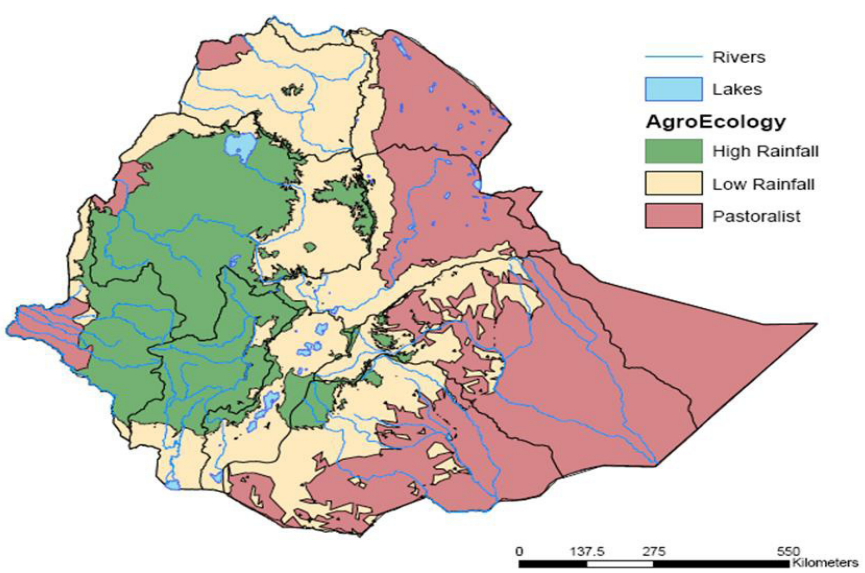
2. 주요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전략

가. USAID/미국

1) USAID/Ethiopia 농업분야 지원 전략

에티오피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3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농업생태지역이 존재하지만, 광의의 농업생태조건과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기준으로 [그림 4-3]과 같이 3구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USAID는 강우량이 많은 서쪽 고산지대를 "Productive Ethiopia," 강우량이 불규칙하고 적은 중간지대를 "Hungry Ethiopia," 그리고 강우량이 적어 경작이 어려운 동쪽의 목축지대를 "Pastoral Ethiopia"로 각각 구분하고,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지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USAID, 2011).

[그림 4-3] 에티오피아의 농업생태지도



자료) USAID, "Ethiopia, Multi-Year Strategy(2011~2015)", Feed the Future, 2011.6

자연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빈농들의 생존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지만, 최근 연구결과는 그보다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한 USAID의 농업발전 시나리오는 <표 4-7>과 같이 서로 다른 농업생태지역 중 영농여건이 가장 좋은 Productive Ethiopia 지역을 집중지원하고, 그 효과를 지역 간에 상호 연계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9개국(국제기구 포함)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AGP 또한 이 전략과 같은 기조에 있다.

<표 4-7> 에티오피아의 농업생태지역별 영농여건

	Productive Ethiopia	Hungry Ethiopia	Pastoral Ethiopia
기상조건	– 예측 가능한 기상 – 강우량 많음	– 불규칙한 기상 – 강우량 적음	– 불규칙한 기상 – 강우량 아주 적음
토양 및 경작규모	– 비교적 비옥한 토양 – 평균 이상 영농규모	– 토양침식이 심함 – 영세규모 영농	– 대단히 넓은 초지 – 작물경작이 어려움
영농 및 식량상황	– 경종축산 복합영농 (역우 등 동물 활용) – 시장접근이 가능	– 경종축산 복합영농 (동물 활용 제한적) – 대부분 자급자족 – 만성적인 식량부족	– 전체 가축의 절반이 사육되는 목축지역 – 만성적인 식량부족
인구 비율	– 56%	– 25%	– 19%
비교우위 분야	– 작물, 채소, 과일, 낙농	– 양, 염소	– 소, 낙타

자료) USAID, “Ethiopia, Multi-Year Strategy: 2011~2015”, Feed the Future, 2011.6,
USAID, “Ethiopia: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2.3

세 지역을 연계하여 에티오피아의 빈곤과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농업생산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USAID는 재해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발전노력을 연계하는 한편 기후변화 효과에 적응하는 정부나 지역사회의 노력도 지원하고 있다.

USAID는 위와 같은 가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 ① 에티오피아 정부가 약속한 수준의 농업개발투자 지속, ②

정부계획대로 민간부문의 활동 확대, ③ 최소한 현 수준의 미국지원과 외부지원 지속, ④ 사업수행지역의 정치사회적인 안정, ⑤ 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인구증가 유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관리 가능한 수준.

[글상자 4-1] USAID/Ethiopia ODA 운용체계의 특징

- USAID/Ethiopia는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상대로 정책형성과 집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추진방식은 대상 ODA사업별로 정부기관, 전문기관, 현지 또는 국제 NGO 등 사업대상지에 기반을 둔 주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 따라서 USAID는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에 전념하며 현장에서 ODA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 이와 같은 추진방식의 발전은 나름대로 오랜 경험을 기초로 한 산물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①지원기간 종료 이후의 사업 지속가능성, ②지원사업의 파급효과, ③사업관리비용 최소화 측면에서 유리하고 ④USAID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원감축도 이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현지 USAID 관계자의 설명이다.

2) USAID/Ethiopia 농업분야 지원 사업

이상과 같은 모델을 전제로 하여 USAID가 에티오피아에서 추진 중인 농업 및 식량안보지원 대책(Feed the Future)은 크게 보아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부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성장을 통한 식량문제해소(Agricultural Growth-Enabled Food Security)를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농업생산성과 상업농화를 촉진하기 위한 AGP사업

취약부문을 시장과 연계하여(Linking the Vulnerable to Markets)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PSNP 등 식량원조와 AGP에 의한 경제활동 을 상호 연계하는 사업(자산형성, 기술, 위험관리 역량 구축)

상기 두 부류의 사업관련 정책과 추진역량을 강화(Policy and Capacity Enabler)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와 교훈을 분석하는 사업

에티오피아에서 USAID가 추진하고 있는 이상의 세 가지 부류 사업 개요와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농업성장을 통한 식량문제해소(Agricultural Growth-Enabled Food Security)

USAID/Ethiopia가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다시 세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많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정부가 추진 중인 AGP 사업이며, 이 사업은 4대 작물의 가치사슬을 다루고 있는 "AGP 가치사슬확대사업(AGP Value Chain Expansion: AGP-VCE)"과 축산분야의 두 가지 가치사슬을 다루는 "AGP 축산성장사업(AGP Livestock Growth Program: AGP-LGP)"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사업은 Productive Ethiopia 지역 내의 지정 Woreda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AGP 전체예산 3.5억 달러의 20% 수준을 점하고 있다.

AGP-VCE와 AGP-LGP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마지막 유형은 "시스템개선기금사업(Systems Change Initiative Fund: SCIF)"이다. 이는 에티오피아 농업관련분야의 바람직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SCIF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성장을 통한 식량문제해소 프로그램의 개별사업과 기간, 예산 등은 <표 4-8>과 같으며 표 이하에서는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4-8> 농업성장을 통한 식량문제해소 프로그램 개요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사업부류	사업기간	사업예산
AGP-VCE(가치사슬확대사업)		AGP	2011~2015	50
AGP-LGP(축산성장사업)		AGP	2011~2015	38
SCIF	농업구조전환청(ATA) 지원	AGP	2011~2015	10
	에티오피아 토지제도 지원	LALUDEP	2012~2016	6.5
	Pepsi Co., USAID, WFP, 에티오피아 정부 간의 PPP사업	AGP	2011~2015	-

자료) USAID, "Ethiopia, Multi-year Strategy/2011~2015", Feed the Future, 2011.6

주목할 만한 것은 시스템개선기금 사업(SCIF) 중 하나인 Pepsi Co., USAID, WFP,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Enterprise EthioPEA'라는 PPP지원 사업이며, 본 사업의 개요는 아래 <표 4-9>와 같다.

<표 4-9> USAID의 민간기업을 활용한 PPP 사업 개요

사업명	Enterprise EthioPEA
사업기간	• 2012년 ~ 2013년(2년)
사업예산	• Pepsi 지원 예산: 3.3백만달러 • USAID 지원 예산: 7백만달러
사업지	• Shewa주, Gonda지역(Chickea 생산 지역)
사업수행 기관	• Pepsi Co, USAID, WFP, 에티오피아 국립농업연구소(EIAR), 농업부 등
사업 목적	• Chickpea 생산량 증대를 통한 소농가소득 증대 및 Chickpea 가공 식품 지원(40,000명 아동에게 지원 예정)
사업 구성 요소	• Chickpea 생산 기술 교육 • 소규모 관개시설 개발 • 고품질 종자 제공 • Chickpea 가공 식품 제공
사업 형성과정	• 에티오피아는 Chickpea 생산에 최적화된 생산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 • WFP가 Pepsi에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USAID등의 협력구도를 만들어 WFP Pakistan의 Chickpea 가공식품인 Acha-mum을 에티오피아에 도입하고자 함 ※ WFP가 농가들에게 생산 기술, 가공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완료된 Chickpea 가공식품을 Pepsi Co.가 구매하여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구조임
기대효과	• 에티오피아 Chickpea 생산량 증대 (약 10,000명의 소농의 Chickpea 생산량 두배 증대 목표) • Chickpea 생산 소농가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40,000명의 빈곤 아동들에게 식량 지원) • 지방 제조업자들의 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

자료) http://www.undp.org/content/dam/undp/library/corporate/Partnerships/Private%20Sector/AFIM cases/UNDP%20GIM%20Case%20Study%20PepsiCo%20Final.pdf

이 사업은 에티오피아 산 병아리 콩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질병치료기능이 있는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Pepsi Co가 현지의 벤처기업과 함께 기초투자자금을 부담하고, USAID는 AGP-VCE 사업을 통하여 병아리 콩 생산과 품질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USAID 입장에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부담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b) 취약부문을 시장과 연계하는 활동(Linking the Vulnerable to Markets)

이 분야의 USAID 활동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PSNP(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등 인도주의적 지원과 보다 능동적인 AGP 농업 경제활동을 연계시키는 의미가 있다. 취약농가가 경제성장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산, 기술, 위험대응, 시장과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USAID/Ethiopia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춤으로써 시장경제활동에 대비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두 가지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는 농가자산형성사업(HABP)과 맥을 같이하는 농촌현장사업으로 PSNP GRAD사업과 PRIME 사업이 그것이다. 이 두 사업은 영농여건이 척박한 Hungry Ethiopia와 Pastoral Ethiopia 지역의 지정 Woreda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 사업은 PSNP와 HABP 등 에티오피아 정부의 식량안보사업(FSP) 관련 기술지원과 역량개발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사업 기간, 예산 등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취약부문을 시장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요

(단위: m$)

사업명		부류	기간	예산
PSNP GRAD(PSNP 졸업지원)		HABP	'11-'15	23
PRIME(목축농민의 복원력개선과 시장 확대)		-	'12-'16	23
정부정책역량 강화	재해위험관리 지원	PSNP, HABP	'11-'15	9
	식량안보관련 기술지원	PSNP, HABP	'12-'16	6

참고) HABP: 농가자산형성사업(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자료) USAID, "Ethiopia, Multi-year Strategy/2011~2015", Feed the Future, 2011.6

(c) 정책과 추진역량 강화활동(Policy and Capacity Enabler)

USAID가 에티오피아에서 추진 중인 식량농업지원 사업 중 마지막 활동인 “정책과 추진역량 강화활동”은 앞의 두 활동 즉 “농업성장을 통한 식량문제해소 활동”과 “취약부문을 시장과 연계하는 활동”의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사업 담당요원들을 훈련시키고 모범지역 견학 등을 추진하는 이 사업은 <표 4-11>과 같이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1> 정책과 추진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요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CIAFS(농업과 식량안보사업 추진역량)	2011~2015	7
ESSP II(에티오피아 전략지원 2단계)	2012~2016	2

자료) USAID, “Ethiopia, Multi-year Strategy/2011~2015”, Feed the Future, 2011.6

‘농업과 식량안보사업 추진역량 강화 사업(Capacity to Improv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ject: CIAFS)’은 식량안보관련 핵심정책 담당자에게 훈련과 함께 외국의 선진사례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사업이며, ‘에티오피아 전략지원 2단계(Ethiopian Strategic Support Program: ESSP II)’은 국내에서 지식제공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학계 인사들에게 최신지식을 접하도록 하여 지식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와 EDRI(Ethiopia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가 총리경제고문실에 사무실을 두고 시행 중인 사업이다. 이렇듯 USAID는 에티오피아 농업 정책의 기조에 맞게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USAID와 “Mercy Corps”라는 이름의 NGO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사업으로 USAID가 NGO를 통해 수행하는 PPP 사업의 실례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표 4-12> USAID의 NGO를 활용한 PPP 사업 개요

사업명	USAID PRIME (Pastoralists' Areas Resilience Improvement through Market Expansion) 사업
사업기간	• 2012.12~2016(5년)
사업예산	• 57백만 불
사업지	• 소말리(Somali)주, 아파(Afar)주, 오로미아(Oromia)주 – 강우량이 적어 작물경작이 어렵고 자연 상태의 초지를 대상으로 한 이동목축 이외의 생산활동이 거의 없어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임
사업수행 기관	• Mercy Corps 선정사유: 수도에서 너무 멀고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USAID 요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NGO들이 기회요인을 가짐
사업의 목적	• 축산물의 가치사슬확장과 시장형성을 위해 지역도축장을 건설하여 인근의 6만 농가들이 정상적인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과거에 성행하던 생축상태의 소말리아 불법 수출을 줄이고 전통적인 방식의 열악한 도축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함
사업 구성 요소	• 지역도축장 건설 • 축산물 시장 형성
사업 형성과정	• Mercy Corps가 사업 개념 제시 후 USAID와 계약 체결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고 사업에 착수
사업 추진 현황	• 주 정부가 토지, 전기, 도로 등 60만 달러 상당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USAID를 비롯한 8명의 민간투자자가 참여하여 도축장을 건설 중임 • Mercy Corps와 USAID가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왔으나 민간투자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주정부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음
기대효과	• 가축 생산성 향상, 가축 생산 환경 개선, 지역사회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가축 value chain 및 시장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

자료) USAID와의 면담자료

3) USAID/Ethiopia 모니터링과 평가

가) 지원성과 모니터링(Performance Monitoring)

USAID/Ethiopia의 모니터링 제도는 개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결정하고 주어진 지표에 따라 상시 성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USAID/Ethiopia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성과관리지표를 예시하면 <표 4-13>과 같다.

<표 4-13> USAID의 사업별 성과관리지표

사업	성과관리 지표
AGP-VCE (가치사슬확대사업)	– 창출된 남여 일자리 수 – 농업·농촌분야 중소기업 대출금액 –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인 기관·단체 수 – 농가나 관련기업의 매출액 – 대상농산물의 지역(주)간 거래비율 변화 – 민간부문의 신규 투자금액
AGP-LGP (축산성장사업)	– 가축두당 총 이익 – 농가나 관련기업의 매출액 – 대상농산물의 지역(주)간 거래비율 변화
PSNP GRAD (PSNP 졸업지원)	– 실제 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변화 – 대상가구 중 금융기관 접근가구 비율 – 농산물시장접근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 비율 – 지속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농자재를 구입한 비율
PRIME (목축농민의 복원력 개선과 시장 확대)	– 농가나 관련기업의 매출액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관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정책 수
CIAFS (농업과 식량안보사업 추진역량)	– 교육 받은 기관·인원 수

자료) USAID, “Ethiopia, Multi-year Strategy/2011~2015”, Feed the Future, 2011.6

나) 성과지표 추적(Tracking of Indicators)

USAID/Ethiopia는 계약을 통해 대부분의 ODA사업 시행을 에티오피아 정부나 전문기관 또는 NGO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렇게 USAID로부터 위임을 받아 ODA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별 파트너는 성과지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는 성과지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담당관(M&E Officer)”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모니터링 및 평가기능을 관련사업의 “추진역량 강화 프로젝트(CIAFS)”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USAID/Ethiopia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기본조사(Baseline Surveys)

이상과 같은 성과지표 추적시스템 외에 USAID/Ethiopia는 이 성과지표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조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기본조사는 USAID 사업뿐 아니라 에티오피아 정부와 다른 ODA공여기관들의 대표적인 사업인 AGP, PSNP, HABP 등에도 대단히 유용한 사업이다. USAID는 현재 AGP사업을 위한 농가단위 기본조사를 위하여 IFPRI 및 에티오피아 통계청(Central Statistics Agency: CSA)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농업생산, 소득수준, 시장효율관련 자료, 영농자재 사용, 영양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라) 효과평가(Impact Assessment)

USAID/Ethiopia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중장기 효과도 평가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몇 년 동안 Tufts 대학의 평가 팀을 활용하여 USAID가 지원한 축산시장건설 사업이 해당지역 농민들의 목축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공공근로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목축지역에 대규모 관개시설을 조성한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평가한 바 있다. 이 평가는 USAID의 현행 ODA 사업과 미래 사업에 대한 건의와 방향수정의 근거로 활용될 뿐 아니라, 에티오피아 정부 및 다른 ODA 기관에게도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나. JICA/일본

1) JICA/Ethiopia 농업분야 지원 전략

JICA는 에티오피아를 자연재해, 질병, 빈곤, 식량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최빈국으로 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식량문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Government of Japan 2008). 따라서 에티오피아에 대한 일본의 원조전략을 담고 있는 CAP(Country Assistance Program)는 식량문제의 취약성 극복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6)]

취약한 식량문제를 초래하는 구조적 인과관계(Chain of Causation)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해의 틀에 따라 에티오피아 ODA전략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첫째, 에티오피아의 식량접근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낮은 농업생산능력을 들고 있다. 이는 토양, 물 등 자연자원의 질적 저하, 시장제도 미비와 구매력 부족에 따른 투입자재 부족, 그리고 농업기술 및 교육과 연계되는 인적자원의 개발지연 등에 기인하며 이들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둘째, 그 다음의 요소는 비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상업농, 소작농 등 많은 국민들이 시장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내외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언재든지 기근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나라 식량문제의 본질은 수요, 공급, 유통과정 전반에 얽힌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에티오피아의 식량 안보 전략의 문제이다. 식량 안보개선을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Productive Safety-net Program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커뮤

6) 2010.3 일본 외무성이 실시한 “에티오피아 지원계획 평가보고서(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of Ethiopia)”는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안하여 현재의 “식량안보 실현” 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목표로 추가할 것을 건의한바 있다.

니티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식량생산과 농가소득증대로 연결되게 하는 전략으로써, 부실한 수요-공급-유통망 구조의 사이클에서 탈피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일본은 이상과 같은 에티오피아 식량문제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자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면서 지원 우선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여국가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이 고립되거나 중복되는 상황을 피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우선지원 분야는 <표 4-14>와 같다.

<표 4-14> 일본의 대 에티오피아 ODA 우선순위

분야	내용
농업·농촌개발	농업기술 R&D, 선진기술과 농법보급, 관개시설개선, 토질보전과 개선
수자원	수자원 관리(음용 수 관리)
교육	오지농촌지역의 교육접근과 교육의 질 개선
보건	전염성 질병의 예방
사회경제적 인프라	시장거래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자료) Government of Japan, “Country Assistance Program for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2008.6

또 일본의 CAP는 에티오피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글상자 4-2] JICA/Ethiopia의 대 에티오피아 지원 시 고려사항

① 에티오피아 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 에티오피아는 원조재원을 활용하여 국가 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긴 하지만 아직 정치적으로 여야당간에 충돌이 심하므로 양정당과 적절한 대화로 소통하면서 ODA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Human security)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이 문제는 교육, 보건과 같은 분야에 국한하여 생각하기 쉬우나 농업·농촌개발 분야에도 적극 활용하여 농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에티오피아 부족제도 네트워크, 행정 시스템 등을 통해 지식과 긍정적인 효과가 최대한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③ 재정/관리(Finance & management) 요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사업관리 요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ODA추진 과정에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토록 하여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와 NGO에 대한 이해: 사업의 현지화차원에서 실제 지역사회와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NGO가 처한 상황과 사업추진 방식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ODA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속가능성, 사후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⑤ 환경(Environment)과 양성평등(Gender) 문제: 이 두 요소는 사업의 착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모든 단계에 고려되어야할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⑥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 Disabled): 환경과 성인지 외에도 빈곤층의 및 소외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하나가 장애인 문제인데 인간의 생존문제라는 큰 관점에서 보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⑦ 모니터링 및 평가: ODA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본은 개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에티오피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평가와 모니터링 매트릭스를 개발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⑧ 주민 재정착프로그램(Resettlement program)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에티오피아 정부는 주민 재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발 파트너들에게 공유되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이주 과정에서 많은 인구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ODA 추진과정에서 이 문제와 연관될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⑨ 장기개발전략: 지금까지 일본의 ODA는 식량안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에티오피아도 농업 외 산업을 통해 소득원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가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꾸려야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출처) JICA/Ethiopia CAP, 2013

이에 더하여, 일본의 CAP는 대 에티오피아 ODA사업 수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식량안보 관련 위험요소,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그리고 중점협력분야와 접근방법을 정리한 협력 매트릭스(Matrix)를 제시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를 지원하는 모든 공여기관에게 참고가 될 수 있어 내용을 요약하면 <표 4-15>와 같다.

<표 4-15> 일본의 ODA사업 협력 매트릭스(Matrix)

식량안보 관련 위험요소	• 낮은 식량생산능력 및 식품구매력 • 국내 수요와 공급의 단절
식량안보 관련 문제점 (ODA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농업기술 R&D 및 보급 활동 부족 • 저 투입-저 생산의 악순환 탈피 곤란 • 토양개량과 관개시설 설치 지연 • 농산물 생산은 가뭄과 같은 자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수자원의 활용지연 •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어려워 위생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을 길어오는 등 가사 노동의 부담을 짊어지게 됨 • 농업용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가뭄으로 인한 재해가 확대됨 • 인적자본형성의 지연 – 교육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취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제한적임 – 부실한 영양 상태로 인해 전염성 질환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짐 • 열악한 농산물유통구조 • 투입농자재와 농산물 가격이 비싸짐
중점 협력분야 및 접근방법	• 농업생산성증대 • 농업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개기술개발, 선진농업기술 연구와 보급, 쌀과 같은 대체작물 추진, 비료사용 촉진 • 기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농가 생산기반강화를 위한 지원협력을 통해 획득한 일본의 지식을 사용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업·농촌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정책 제안 •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농촌지역의 식수공급비율 제고 지원 • 오지 농촌지역에서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 농촌 지역에서 교육기회확대와 지방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감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 • 전염성 질환의 확산에 대응 가능한 체계와 역량구축 지원 • 일본은 영양 지침과 같은 지역의료 활동 지원가능성 검토 예정 • 영농자재와 농산물의 유통촉진 • 간선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능력(재정, 시스템, 기술) 확립 지원 • 농촌도로의 개발·유지에 대한 지원가능성 검토 • 농산품유통시스템 개선 • 농업생산자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가격정보, 품질 향상 및 유통 인프라 개선 • 국내농업에 대한 해외식량지원의 영향을 감안한 식량지원 모델연구

자료) Government of Japan “Country Assistance Program for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2008.6

2) JICA/Ethiopia 농업분야 지원 사업

JICA/Ethiopia가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분야 사업과 관련하여 CAP의 첨부물인 “연동계획(Rolling Plan)”은 사업별로 구체화된 정책기조와 추진개요를 정리해 놓고 있다. 2013년 6월 현재 일본의 대 에티오피아 지원 연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지원정책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에티오피아에서 농업·농촌개발이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은 농업발전의 엔진역할을 하는 생산성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특기가 있는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보급되도록 노력한다.

둘째, 에티오피아 정부가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그리고 관개시설개발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두 분야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정책의 질을 높인다.

셋째, 식생활이 다양화되고 상업농화가 진행 중인 에티오피아에서는 농산물유통개선이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상품거래소(Ethiopian Commodity Exchange)”를 개장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농산물 물류개선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일본이 경험한바 있는 “일촌일품사업(One Village One Product: OVOP)”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SNNP 주정부와 함께 5개 Woreda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Woreda 당국의 관심정도에 따라 추진상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아직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사업기간 종료 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려워 사업기간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이 만난 JICA/Ethiopia 관계자의 전언이다.

넷째, 에티오피아 정부가 일본의 협력을 기대하는 분야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 관련 분야이다. 이는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의 후속조치와도 연계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보존 관련 지원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은 오로미아(Oromia)주, 암하라(Amhara)주, 그리고 SNNP주 고원지대의 곡물주산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 외에 암하라(Amhara)주 동쪽의 식량안보 취약지대에서 농업생산성의 안정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에티오피아에서 시행중인 농업·농촌개발 지원 사업들을 요약하면 <표 4-16>과 같다.

<표 4-16> 일본의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지원 사업현황

(단위: 억Yen)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세부사업	사업종료	지원규모
농업 생산성 향상	곡물산지인 고지대에서 쌀농사 관련기술개발 보급, 관개시설확대, 우량종자보급을 통하여 생산성향상 지원	농업개발 전문가 파견(농업부)	2013	0.4
		농민연구그룹 사업(2단계) -EIAR, 지역연구소, 대학 참여	2015	5.6
		영세농대상 우량종자 보급사업 -농업부, 오로미아(Oromia)/암하라(Amhara)/SNNP	2014	3.6
		농업용수개발역량 강화사업 -오로미아(Oromia)주 OIDA	2014	3.7
농촌 상업화	유통 인프라/정보개선 협동조합지원을 통해 농산물유통 촉진	일촌일품사업(농업부, SNNP주)	2014	3.8
		잔류농약분석제도 강화(농업부)	2015	3.0
		농업분야 봉사단 파견(5인)	2014	-
천연 자원 관리	강우량이 많은 남서 지방의 고지대와 준 건조지대의 산림보존 지원	오로미아(Oromia)주 Rift Valley지역 현지농민학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관리 사업	2016	3.03
		산림지역 내 커피경작 진흥사업	2016	
		산림보존사업(지열개발/육묘센터)	2013	17.0
		기후변화관련 훈련사업(5인)		
재해 위험 관리와 식량 안보	토양보전, 유역관리, 홍수취약지역의 농업 생산안정화 지원	식량안보 관련 전문가 파견 -암하라(Amhara)주 농정국	2014	0.4
		소외농가에 대한 비료 무상지원	-	-
		농촌사회 활력증진: 가뭄취약지역 -농업부, 오로미아(Oromia)주, 소말리(Somali)주	2014	11.09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세부사업	사업 종료	지원 규모
안전 식수 접근과 관리 개선	수자원개발센터 사업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수자원개발센터사업(3단계)	2013	4.9
		SNNP주의 물 공급사업	2014	2.4
		농촌지역 식수개발, 위생과 삶의 질 개선	2016	6.5
		암하라(Amhara)주 남쪽의 소도시 식수 개발사업	2015	6.33
		Jerer Valley와 Shebele 지역의 물 공급개발과 긴급 조치계획 수립사업	2014	5.9
		Middle Awash강 유역의 지하수자원평가	2015	2.5
		물과 보건교육 사업	2013	0.24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s ODA to Ethiopia: Rolling Plan”, 2013.6
(현지 방문 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일부내용 보완)

JICA/Ethiopia는 정부가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관개시설개발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두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표 4-16>의 사업내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ODA를 추진하는 방식측면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JICA/Ethiopia는 AGP, SLMP 등 정부의 핵심농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공여국들의 공동기금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양자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에티오피아에서는 다른 선진국 기관들과 다르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연방정부, 지방정부, 전문기관 등을 시행기관으로 하여 ODA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USAID나 GIZ 등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현지에서 추진되는 JICA/Ethiopia의 농업·농촌분야 ODA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위의 <표 4-16>에 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사례 2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표 4-17> JICA 농업·농촌개발 사업 개요(1)

사업명	• JICA 농민연구그룹 사업(FRG II: Farmers Research Group)
사업기간	• 1단계사업(FRG I: 2005~2010)에 이어 2단계사업(FRG II: 2010~2015) 시행
사업예산	• 5.56백만 달러
사업지	• 1단계: 오로미아주 • 2단계: 연방정부(지역 EIAR 등 농업연구기관 연구 시스템에 반영되게 함)
사업수행 기관	• JICA/Ethiopia, EIAR, 3개 대학
사업의 목적	• FRG 접근법을 국립농업연구시스템 내 정착시켜 농민이 원하는 연구추진
사업 구성 요소	<구성요소 1> FRG접근법의 내부제도화를 위해 3개 연구센터, 3개 대학을 허브로 선정하여, 참여자 500명에게 3년 동안 3단계에 걸친 훈련실시 <구성요소 2> FRG접근법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농민들에게 적합한 기술개발 <구성요소 3> 연구원들이 농민지도교재를 직접 준비하는 훈련을 통해 연구와 지도간 연계성을 높이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계획개선
기대효과	• FRG접근법을 통한 적정기술개발 • 기술적인 정보 준비를 위한 연구원의 역량 강화

자료) JICA와의 면담자료

<표 4-18> JICA 농업·농촌개발 사업 개요(2)

사업명	• JICA 영세농대상 우량종자 보급사업 • (QSPP: Quality Seed Promotion Project for Smallholder Farmers)
사업기간	• 2010.2~2014.8(4.5년)
사업예산	• 4.62백만 달러
사업지	• 암하라(Amhara), 오로미아(Oromia), SNNP주 Woreda • 사업 사무소: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데브레 제이트(Debre Zeit)
사업수행 기관	• 농업부(기술지도국), 암하라(Amhara), 오로미아(Oromia), SNNP 주의 농정국
사업의 목적	• 우량종자 활용을 통한 해당 지역(Woreda) 작물(Teff, 밀)의 생산량 증가
구성요소	<구성요소 1> 고급종자생산기술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의 검증을 진행 <구성요소 2>"구성요소 1"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SFS의 농촌지도사(DA) 교육을 통해 전파하고, DA는 이를 농민들에게 다시 전파 <구성요소 3> SFS 교육을 받고 생산된 우량종자의 품질을 보증하는 역량을 지도하는 단계로서 현지검사(Field inspection)와 실험실 분석(Lab test)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 <구성요소 4> 지속가능한 우량종자 보급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 Seed Farmer's School: SFC: 에티오피아 농민훈련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여 JICA/Ethiopia가 별도로 운영하는 제도로 주 1회 농업생산 전반에 대한 교육실시

자료) JICA와의 면담자료

2014년 1월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지속적인 ODA를 약속하면서 농업·농촌개발을 주요협력분야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JICA의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GIZ/독일

1) GIZ/Ethiopia 농업분야 지원 전략

GIZ/Ethiopia의 ODA전략은 기본적으로 GTP, AGP 등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지원 분야로 선정되어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2대 분야는 "교육과 농업"이며, 농업분야 내에서도 다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여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사업(SLMP)'이다.[7] 따라서 GIZ/Ethiopia는 <표 4-19>와 같이 SLMP사업 각 요소와 관련된 기술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10개년(2005~2014) 사업의 2단계(2012~2014)를 진행하고 있다.

<표 4-19> 에티오피아 SLMP 사업 요소와 지원기관

SLMP사업의 요소	사업요소별 목표	시업요소별 지원기관
유역관리	사업시행지역 증가	WB, KfW, CIDA, IFAD, EU, GIZ
토지관리	Land Certificate 확대를 통한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안정	WB, Finland
사업프레임워크	사업 프레임워크 개선	GIZ
농업자문·지도	SLMP관련 농업자문서비스의 질 개선	GIZ
사업관리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	WB, KfW, CIDA, IFAD, EU, GIZ

자료) Melaku Tadesse, "Sustainable Land Management Program in Ethiopia-Linking Local REDD+ Projects to National REDD+Strategies & Initiatives", 2013.4

7) 에티오피아 토지 황폐화는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여 70%의 국민과 40백만 ha 이상의 국토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농업발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한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SLMP사업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업의 개요는 본보고서 제3장의 에티오피아 "농업·농촌개발 정책과 추진체계"에서 이미 소개한바와 같다.

특히 SLMP와 관련한 농민지도(Extension service)를 위하여 사업대상인 177개 Woreda 사무소까지 독일 전문가를 파견하여 DA(농촌지도사)들을 교육하는 교관을 지도하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 네덜란드가 DA교육을 위해 ATVET를 선정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GIZ는 공식 DA 교육기관인 ATVET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 당국이 개발한 커리큘럼과 교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GIZ/Ethiopia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177개 Woreda 사무소까지 독일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은 에티오피아 ATVET의 운용효율성에 대한 신뢰부족이 더 큰 문제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GIZ/Ethiopia의 주요 지원대상은 오로미아주, 티그레이주 및 암하라주의 영세소농으로써 이 지역의 농민들은 SLMP를 통해 토양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파종법과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원을 관리하면서 농사짓는 법을 익히고 있다. GIZ/Ethiopia는 이를 위해 새로운 작물과 종자를 도입하고 해당지역의 토양에 적합한 경작 방법을 개발하는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 하고 있다. 이미 7만 가구 40만 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은 기존농법에 비해 생산을 35%까지 올리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참고로 독일의 ODA를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GIZ/Ethiopia에는 700여 명의 직원이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Woreda 사무소에 고문/컨설턴트, 훈련교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현지인력 포함: BMZ).[8] 더불어 GIZ/Ethiopia는 BMZ 뿐만 아니라 외교부,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등 독일 연방정부의 다른 부처가 추진하는 현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GIZ/AU(African Union)의 역할도 함께 하는 통합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외에 AU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개발 및 분산화, 기반시설 개선, 신재생에너지 등 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및 NGO의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여 다차원적인 원조체계를 가동시키고 있다.

8) http://www.bmz.de/en/

2) GIZ/Ethiopia의 농업·농촌분야 ODA사업

이상과 같이 GIZ/Ethiopia는 SLMP사업 지원을 주로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농업·농촌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GIZ/Ethiopia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개발지원 사업은 <표 4-20>과 같이 에티오피아 고유사업과 AU의 NEPAD/CAADP차원에서 지역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에티오피아 사업으로 구분된다.

<표 4-20> 독일이 에티오피아에서 시행중인 농업분야 주요사업

지원사업명(사업내용)	사업기간	시행기관
GIZ/Ethiopia 사업(에티오피아 고유사업)		
Sustainable Land Management Program(SLMP)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05~'14	농업부
Support for Ethiopia's seed sector (단수가 높고 현지화 된 밀과 보리품종 개발)	'12~'15	농업부
Ethiopia-German Agricultural Training Center: ATC (곡물과 감자 관련 선진화된 생산기술과 농업기계화 훈련)	'10~'14	농업부
Measures to Combat Drought in the Lowlands of Ethiopia (에티오피아 저지대 가뭄방지 사업)	'13~'18	농업부
Agricultural Dialogue Project with Ethiopia (대 에티오피아 농업대담 프로젝트)	'12~'14	농업 개발기구
GIZ/AU 사업(아프리카지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에티오피아 사업)		
Vocational training in agriculture through NEPAD/CAADP (CAADP 추진과정에 농업가치사슬과 관련된 직업훈련 지원)	'12~'16	AU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agricultural development (영세농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영농활동 지원)	'12~'17	AU
Policy Advice for Strengthening CAADP Implementation (식량안보 및 농업 연관 산업분야의 개혁추진 역량구축)	'12~'16	AU

자료)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http://www.giz.de/en/worldwide/336.html)

<표 4-20>에 제시된 GIZ/Ethiopia 사업 내용 중 특히 눈길을 크는 것은 PPP에 대한 관심이다. 민관협력 및 민간투자는 개도국에서 부족한 정부의 역량을 메꿔주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잘 활용하면 영세소농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낼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표 4-20> 사업내용 중 PPP를 활용

한 독일의 대 에티오피아 농업·농촌 ODA사업으로는 “종자분야지원 사업”과 “에티오피아-독일 농업훈련센터 사업”이 있다.

독일의 식품·농업부가 GIZ/Ethiopia를 통해 시행중인 “종자분야 지원 사업”은 현지 농업환경에 적합한 다수확 종자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에티오피아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자는 생산성이 낮은 자가 채종한 재래종 주를 이룸으로 GIZ/Ethiopia는 15년의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보리와 밀의 다수확 신품종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에티오피아 전문가 간 연구교류, 개발자 및 공학자 연수,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소(EIAR) 현지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종자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독일 민간 종자회사와 함께 독일 식물 유전자은행을 통해 진행된다(GIZ).[9)]

“에티오피아-독일 농업훈련센터 사업”은 GIZ와 7개의 독일 농기계 제조업체가 협력하여 진행 중인 농업기계화 특화 사업으로, 농업훈련센터를 건립하고 곡물과 감자 관련 선진생산기술 및 농업경영기법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사업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농민지도 시스템과는 완전히 별개의 PPP 사업으로, 농민협동조합을 주요대상으로 선진 장비 및 농기계 사용·보수·유지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업은 현지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유사한 형태의 PPP 사업이 에티오피아 외에도 5~6개 정도의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GIZ/Ethiopia는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농업훈련센터 운영사례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9) http://www.giz.de/en/worldwide/18920.html

<표 4-21> GIZ/Ethiopia 농기계 부문 PPP 사업 개요

사업명	• GIZ 에티오피아-독일 농업훈련센터 • (Ethio-German Agricultural Training Center)
주관기관	• 독일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수행기관	• GIZ/Ethiopia
협력기관	• 에티오피아 농업부,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소(EIAR)
협력기업	• AGCO, BAYER, Belinlish, EUROPLANT, Gremme, LEMKEN
사업예산	• 2.72백만 유로(BMELV: 2.143백만 유로/협력기업: 0.577백만 유로)
사업목표	• 효율적인 농기계 사용법 및 지속가능한 선진농법 등의 교육훈련 진행
추진전략	• 수도에서 170km 떨어진 Kulumsa에 교육훈련센터(ATC)를 건립하고 7개의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진행함 – 윤작법, 식물보호, 관개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종합적인 교육방식 도입 – 경제활동, 행정, 마케팅, 가치사슬 등 다양한 농경제 활동 분야 교육 포함 – 곡류 및 감자 관련 선진기술을 활용한 기계화 생산 중심 교육 ※ 에티오피아 농민훈련제도와는 무관하며 별도로 진행함
추진 성과	• 훈련센터 개설 이후 약 2년 동안 1,400여 명이 교육을 수료함(2014년 1월 기준)
기대효과	• 교육 수료생들의 농업생산량 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 기대

자료) GIZ와의 면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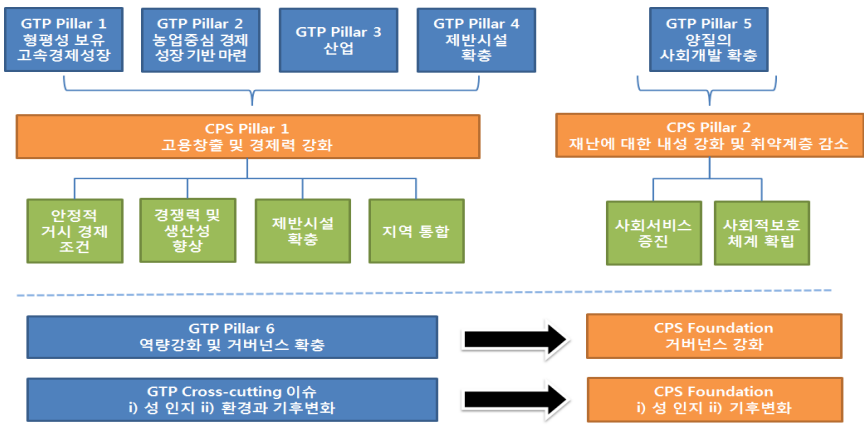
라. World Bank/세계은행 그룹

1) World Bank/Ethiopia의 ODA전략

World Bank와 에티오피아는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CPS는 에티오피아가 시행중인 GTP(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와 확실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전 총리가 갑자기 서거한 후 전환기 동안 국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World Bank가 CPS를 기존의 GTP와 더 강력하게 연계토록 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는 World Bank의 에티오피아 지원전략이 GTP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10)]

10) 에티오피아의 개발 아젠다는 거의 모두 현행 국가개발계획인 GTP에 기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ODA 공여국들은 GTP와 일관성이 있는 ODA정책을 가지고 있다. 정부주도의 개발계획은 지난 20여 년간 많은 성과로 이어졌으나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그림 4-4] GTP와 World Bank의 에티오피아 CPS



자료) World Bank,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2012.8

CPS는 GTP의 “핵심 분야(Key Focal Area)”와 마찬가지로 2개의 Pillar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World Bank 2012).

(a) CPS Pillar 1: 거시 경제적 환경을 안정시킴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력 배양, 생산성 증대, 기반시설 확충, 지역통합 강화 등을 통하여

- 대내외의 균형유지 및 국내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거시경제정책 지원
- 대상지역의 농업생산성과 농산물유통 증진
-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접근 강화
- 전기, 도로, 수자원, 위생시설 등 인프라 시설의 질 제고와 접근 강화
- “Eastern Africa Power Pool Mechanism” 지원과 지역농업기술개발보급에의 적극 참여를 통한 지역통합 증진

(b) CPS Pillar 2: 사회서비스 증진과 사회보호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개발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이나 지역을 감소시킴

- 양질의 보건과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강화
- 취약가구의 식량불안에 대한 복원력 증진

- 재해위험관리제도(DRM)에 대한 적응 촉진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관리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글상자 4-3] World Bank/Ethiopia의 에티오피아 농업에 대한 시각

- 나름의 성과를 이룬 현재의 중간단계에서 World Bank 그룹이 본 에티오피아 경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으며 낮은 저축률, 제한적인 국내자원, 높은 물가상승률, 시설유지 및 보수의 어려움, 체계적인 재정정책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소농임을 감안할 때, 자급자족하는 소농위주의 농업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지닌 농업으로의 전환 없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World Bank 그룹은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전환을 필수요소로 여기고 있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에티오피아 농업발전의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아래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World Bank 2012).

- 농업은 에티오피아 경제의 핵심동력이며, GTP는 소농중심의 영세 농업을 중대규모의 상업농으로 전환하고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발전의 기본인 농업생산성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며, 생산된 식량의 대부분은 자급자족의 형태로 소비되는 실정이다.

- 에티오피아의 농가, 소규모 농업회사들은 낮은 시장접근성, 토지, 자금, 기술문제, 가치사슬의 부재 등 일반중소기업(MSE)이 겪는 것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해요인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소농의 이익과 연관 산업들에게 동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토지는 농업생산의 핵심요소로 토지사용권의 양도 등은 에티오피아와 같이 복잡한 제도를 가진 국가에게는 민감한 이슈일 수 있다. 이는 토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이슈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 협동조합이 종자, 비료 등 영농자재유통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영농자재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혁신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활발한 편인 농촌지역 중개상인들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부실한 편이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농업투입요소나 농업기술혁신의 Uptake를 강화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는 제한적인 편이다.

- 인접국간 국경무역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확대는 식량문제가 심각한 에티오피아 농업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의 회원국임에도 불구, 지역 국가들과의 FTA에 소극적이며 COMESA의 교역제도단순화(Simplified Trade Regime) 협약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이 에티오피아 농업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다.(실례: 국내 옥수수 개량종자 수요의 1/4만 공급 중 → 개량종자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획기적인 증산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옥수수 수입대체도 가능)

2) World Bank/Ethiopia 농업분야 지원 사업

World Bank가 에티오피아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GTP와 일관된 전환적 접근법(Transformational Approach)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CPS와 GTP의 우선 중점 분야, World Bank 그룹의 비교우위, 개발과 빈곤 퇴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강력한 오너십을 가진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World Bank/Ethiopia는 2012년 8월에 지난 5년간의 실적을 감안하면서 에티오피아가 GTP에 따라 구조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3~2016 기간의 CPS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따라서 이 CPS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분야 ODA사업은 새로운 CPS작성 당시에 이미 시행중이던 차관사업, 2013년 이후에 신규로 도입된 차관사업, 그리고 비 차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농업분야 지원 사업을 요약하면 <표 4-22>와 같다.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P, SLMP 등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의 핵심정책들은 거의 모두 World Bank 그룹의 지원대상이며, 그 만큼 World Bank 그룹이 에티오피아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주도하면서 깊고 넓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2> World Bank/Ethiopia의 농업분야 ODA사업

	사 업 명	승인	종료
기존 차관 사업	Agricultural Growth Program – AGP	2011	2016
	Productive Safety Nets III – PSNP	2010	2015
	Sustainable Land Management – SLMP	2008	2014
	Pasto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 PCDP	2008	2014
	Irrigation & Drainage Project	2007	2018
	Eastern African Agricultural Productivity	2009	2015
신규 차관 사업	Agricultural Growth Program – AGP II	2015	2016
	Sustainable Land Management(SLMP) II	2014	-
	Pastoral Community Development(PSDP) III	2013	-
	Regional Drought Response Program	2015	2016
	Rural Infrastructure Support(PforR)	2015	2016
	Eastern Africa Pastoral Livelihoods Recovery and Resilience	2013	-
기술 지원 사업	Land Administration(Technical Assistance)	-	-
	Climate-smart agriculture	-	-

기술지원사업) 현장방문, 에티오피아와 다른 나라간의 지식과 경험공유촉진, 비공식 Brainstorming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됨

자료) World Bank,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2012.8

라. 기타 주요 ODA기관(AfDB, FAO, WFP, CI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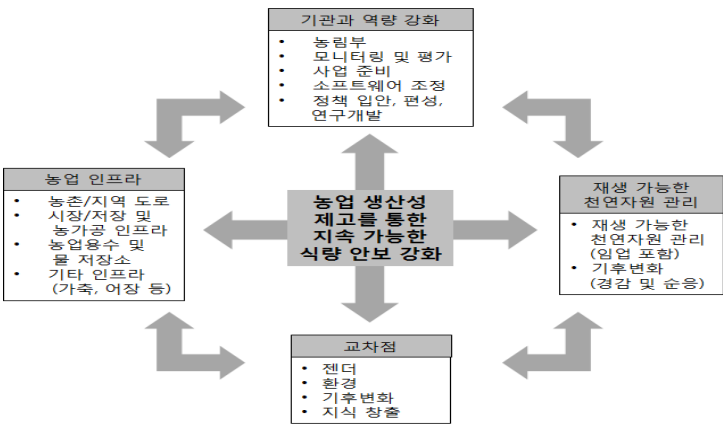
1) AfDB

가) AfDB의 농업분야 지원 전략(AgSS: Agricultural Sector Strategy)

AfDB의 AgSS는 농업생산성, 식량안보, 빈곤 감축 등 비교적 광범위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 인프라 개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농업관련기관의 역량 강화 등을 핵심 요소로 하고 있다(African Development Bank 2010). AfDB는 농업·농촌지원에서 인프라 부문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초국가적인 자원관리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써의 적격성을 발판으로 하고 있다. 또 농업 인프라 투자와 자원관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투자가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 양자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African Development Bank 2011).

[그림 4-5] AfDB의 농업·농촌분야 지원전략



자료) African Development Bank, “Agricultural Sector Strategy 2010~2014,” 2010.01

나) AfDB의 대 에티오피아 ODA전략(Country Strategy Paper)

AfDB는 1975년부터 에티오피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과거의 빈곤완화전략(Poverty Alleviation Strategy)과 현재의 GTP 등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원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빈곤 감소와 빈곤층 친화적 투자(Poverty Reduction and Pro-Poor Type of Investment)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와 2년마다 협의를 통해 전략지원내용 등을 조율하고 있다(African Development Bank 2011).

AfDB의 대 에티오피아 지원전략은 국가전략보고서(CSP)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1~2015년 CPS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있다.

- 인프라 접근성 향상
- 기초 공공사업에 대한 책무성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다) 대 에티오피아 농업·농촌분야 ODA사업

농업부분은 에티오피아 개발을 위한 주요전략부문으로 많은 지원과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농업의 특성상 전체농업을 모두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AfDB의 농업지원은 차관형태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사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AfDB는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평가에 주력하며 현재 시행중인 AfDB 지원 사업은 아래의 <표 4-23>과 같다.

<표 4-23> AfDB의 대 에티오피아 ODA사업 현황

(단위: 천불)

NO	프로그램 개요	지원형태	지원규모
1	작물생산지원	차관	13,974
		무상	11,684
2	동-서아프리카 가축질병(Trypanosomiasis병) 청정화사업 - 에티오피아 해당 분	차관	6,282
		무상	158
3	가뭄복원력과 지속가능한 삶	차관	19,737
4	소규모 관개, 우수저장, 유역관리, 농업마케팅을 통한 농촌생계 및 식량안보개선	차관	39,473

자료) AfDB/Ethiopia 방문면담 자료(14.2.15, Dr.harouna Dosso 등)

2) FAO/식량농업기구

가) FAO의 아프리카 농업 지원 전략

FAO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개선하여 스스로 빈곤상태를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AO의 아프리카지역 사무소가 우선지원 분야로 선정해 놓은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FAO 2009).

① 농업생산성 및 다양성 강화
② 지속가능한 천연자원관리 촉진
③ 시장접근성 및 시장거래방안 개선
④ 지식과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개선

나) FAO/Ethiopia의 농업분야 ODA전략과 지원 사업

FAO Ethiopia사무소는 FAO의 동아프리카지역사무소(Sub-regional Office)를 겸하고 있으며 영농여건이 열악한 건조지대와 목축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최근 FAO 사업평가단은 "농업개발성격의 프로젝트"와 "재해 등 위험을 줄이는 성격의 프로젝트"는 본질적 기능이 다르며, 전자는 장기사업으로 또 후자는 단기사업으로 적합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앞으로 "기능별로 전략을 추진하는 안(Pillar-specific Strategy)"을 제시한 바 있다(FAO, 2011).

이에 FAO/Ethiopia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 중인 GTP, PIF 등 기존정책과의 조화를 감안하면서 향후 FAO의 전략과 중점지원 분야를 정리하여 "Ethiopia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CPF) 2012~2015"를 완성하였다. 이 CPF에 따르면 FAO/Ethiopia의 핵심기능과 에티오피아 3대 우선지원 분야는 아래 <표 4-24>와 같다.

<표 4-24> FAO/Ethiopia의 핵심기능과 우선지원 분야

<table>
<tr><th colspan="3">FAO의 핵심기능</th></tr>
<tr><td colspan="2">① 농업정책형성 및 조정기능
– 농업관련기관의 역량개발
– 농업정책대화 촉진</td><td>② 농업정보와 지식관리기능
– 농업정보시스템 조정
– 지식관리기능 강화</td></tr>
<tr><th colspan="3">FAO의 우선지원 분야</th></tr>
<tr><td>① 농업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 작물생산량과 생산성증대
– 축산생산량과 생산성증대</td><td>② 지속가능한 자원개발·관리
– 지속가능한 토지·유역의 통합관리
– 영세소농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td><td>③식량안보와 영양증진
– 자연재해 복원력 관련 정부와 지역사회의 제도적·기술적 역량
– 농업생산, 영양증진의 연계 개선</td></tr>
</table>

자료) FAO, "FAO Ethiopia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2012~2015", 2011

이상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FAO/Ethiopia는 기술협력에 초점을 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현재 FAO/Ethiopia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사업들을 종합하면 <표 4-25>와 같다.

<표 4-25> FAO/Ethiopia의 농업·농촌 ODA사업

	사업명	사업대상지
1	Improved Food Security, Livelihoods and Resilience of Vulnerable Pastoral Communities in Greater Horn of Africa	소말리(Somali), 오로미아(Oromia, SNNP, 아파(Afar)
2	Regional Initiative in support of Vulnerable Pastoralists and Agro-Pastoralists in the Horn of Africa	Ethiopia/Djibouti 및 Ethiopia/ Somalia 국경
3	Support to capacity development in rangeland management & livestock marketing in Eastern Africa drought prone areas	아디스 아바바 (Addis Ababa)
4	Technical Support for Agricultural Growth Programme	아디스 아바바 (Addis Ababa)
5	Building Resilient Livelihoods in 아파(Afar) Region	아파(Afar)
6	Rural poverty reduction through job creation in small ruminant value chains in Ethiopia Highlands	티그레이(Tigray), 암하라(Amhara)
7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 FMD Control Strategy	전역
8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the Agricultural Statistics	아디스 아바바 (Addis Ababa)
9	Promoting local food purchase for food assistance	SNNP
10	Strengthening of Fruit and Cactus Pear Production in 티그레이(Tigray) and North Wollo	티그레이(Tigray), 암하라(Amhara)
11	Reducing Food losses through Improved Postharvest Management in Ethiopia - Phase 1	티그레이(Tigray), 암하라(Amhara) 오로미아(Oromia), SNNP
12	Seeds and planting materials for resilience building	티그레이(Tigray), 암하라(Amhara) 오로미아(Oromia), SNNP
13	Support to micro-seed enterprise initiative	티그레이(Tigray), 암하라(Amhara)
14	Strengthening Agriculture Sector-Disaster Risk Management and Resilience Building Coordination	전역

	사업명	사업대상지
15	Improved agriculture Solutions: An agriculture disaster risk management initiative	전역
16	South-South Cooperation Programme(SSC)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echnical assistance to Ethiopia	Ambo, hawassa, haramaya
17	Managing the rain: making improved use of one of Ethiopia's most valuable natural resources	SNNP
18	Capacity development for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Master Land Use Plan in Ethiopia	전역
19	Support to Nation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of Ethiopia	전역
20	Capacity Development Support to the Planning and Programming Directorate, Ministry of Agriculture	아디스 아바바 (Addis Ababa)
21	Drought Recovery Response	티그레이(Tigray), 암하라(Amhara), 아파(Afar), 소말리(Somali)

자료) Dr.hassan Ali, Assistant FAO Representative in Ethiopia 면담자료, 2013.2.26.

FAO는 이와 같은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FAO/Ethiopia가 개발한 성과 매트릭스는 <표 4-26>과 같이 요소별 성과물에 해당하는 지표, 지표검증수단, 위험요소 및 가정, 그리고 파트너들의 역할까지를 기재하고 있다.

<표 4-26> FAO/Ethiopia의 CPF 성과 매트릭스

성과지표	검증 수단	위험요소 및 가정	파트너의 역할
우선지원 분야 1: 농업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산출물 1.1 작물생산량과 생산성 증대			
-단위면적당 수확량 -지원받은 농민단체 수 -정책 및 시스템 관련 지원 받은 공공기관 수 -작물 다양화/상업화 기술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의 수	-조사 보고서 -통계청 통계 -농업부 문서 등	<위험요소> -작물 해충 및 질병 <가정> -적절한 정책 및 제도 작동 -농촌금융기관의 서비스제공 -모든 파트너 및	-REDFS 및 CAADP와의 조화 -REDFS 및 ODA공여국 의 기술 및 재정지원 -재경부의 지도 및 자원배분

성과지표	검증 수단	위험요소 및 가정	파트너의 역할
		이해관계자의 충실한 역할수행	
산출물 1.2 축산물생산량과 생산성 증대			
–축산업 정책 및 전략 개선 지원을 받은 축산 가치사슬 관련 민간 및 공공 기관 수 –가축사료 제공량 개선 –가축 사망률 감소율	–농업부 – 무역부, 통계청 문서 등	<가정>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음 –모든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의 충실한 역할수행	–REDFS기구 및 ODA 공여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 –재경부의 지도 및 자원배분 –농촌지도사 및 농가 기술 지원
우선지원 분야 2: 지속가능한 자원개발과 관리			
산출물 2.1 지속가능한 토지와 유역의 통합관리 증진			
–지속가능한 토양관리계획에 여하는 영세농가의 수 –지속가능한 토양/산림관리 술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의 수	– 농림부 보고서 등	<위험요소> –전통적인 방식 및 토지 정책과 반될 수 있는 개입	–REDFS 및 ODA 공여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 –재경부의 지도 및 자원배분 –농촌지도사 및 농가 기술 지원
산출물 2.2 영세소농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받는 기관수 –기후화대응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가의 수	– 재정부, 농림부, EPA 보고서 등	<가정> –기후변화대응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국제사회의 노력	–REDFS 및 ODA 공여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 –재경부의 지도 및 자원배분 –농촌지도사 및 농가 기술 지원
우선지원 분야 3: 식량안보와 영양증진			
산출물 3.1 자연재해 피해 등의 복원력과 관련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개선			
–자연재해조기경보 제도 개선 –긴급사태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의 수 –모범사례 파악 및 전파 수	– 농업부 (DRMFSS) 보고서 등	<위험요소> –자연재해, 분쟁 <가정> –재해관리정책 법제화 –재해가동시스템수립 –인도적 지원 유지	–지원기관의 재정적 지원 –농업부, 기술 및 지식을 농촌지도사와 농가에 전파함 –NGOs의 FAO사업협조
산출물 3.2 농업생산과 영양증진의 연계개선			
–영양보급상태가 개선된 농가 수 –영양보급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의 수	– 보건부 보고서 등	<위험요소> –인구증가에 수반된 식량 수요 증가 <가정> –자연재해 없음	–REDFS 및 ODA공여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 –재경부의 지도 및 자원배분 –농촌지도사 및 농가 기술 지원

자료) FAO, “FAO Ethiopia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2012~2015”, 2011

주) REDFS: Rural Economic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3) WFP/세계식량계획

가) WFP의 에티오피아 지원 전략

WFP는 개도국의 기아해방을 위한 식량 원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UN산하 기구이다. 이 WFP의 2012~2015 지원프로그램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지난 수년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아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고지대의 절반이 이미 황폐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식량문제나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WFP가 설정한 중점 전략목표 3가지와 5가지 프로그램 요소를 요약하면 <표 4-27>과 같다.

<표 4-27> WFP/에티오피아의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요소

전략목표 1.	재난위험관리 및 천연자원관리 (Disaster risk management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프로그램요소 1.	재난위험관리 역량(Disaster risk management capacity)
프로그램요소 2.	MERET을 통한 지역기반 유역개발 등의 천연자원관리 역량 (Natural resource management capacity, including community-based watershed development under MERET)
전략목표 2.	기초 사회복지 서비스(Basic social services)
프로그램요소 3.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식량 (Food for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프로그램요소 4.	도심지역의 HIV 치료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 (Access to HIV care, treatment and support in urban areas)
전략목표 3.	농산물시장 및 농민의 생계(Agricultural market and livelihoods)
프로그램요소 5.	식품마케팅 촉진 및(여성)농민의 생계보장 (Promoting food marketing & rural livelihoods, especially for women)

자료) WFP, Country Programme Ethiopia(2012~2015), 2011

나) 대 에티오피아 농업·농촌 ODA사업 현황

WFP가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장기구호 및 복구 사업(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s: PRRO)"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책(예. 국경지대 난민지원 사업)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특별사업(Special Operations: SO)으로 식량 원조를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개발원조 프로젝트(DP: Development Projects)는 식량안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농촌개발 지원 사업으로 수혜국의 전략적 목표를 고려하여 세운 국가프로그램(Country Programme: CP)에 따라 수행된다(WFP, http://www.wfp.org/countries/ethiopia).

<표 4-28> WFP의 에티오피아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천 명, $m)

프로젝트		기간	대상인원	총 예산
PR\RO	Responding to Humanitarian Crises and Enhancing Resilience to Food Insecurity	'12-'13	5,200	979
	Assistance to Refugees	'12-'15	496	304
DP	Country Programme consisting of five components	'12-'15	1,800	354
SO	Construction of a Logistics Base	'12-'13	n/a	19.4
	Provision of Humanitarian Air Services	'12-'13	n/a	17
총 계			7,496	1,673.40

자료) WFP, "WFP/Ethiopia Operational Brief", 2013.8

다) 에티오피아 시범사업 MERET

WFP 시범사업으로써 에티오피아에서만 시행중인 MERET(Managing Environmental Resources to Enable Transition to more sustainable livelihoods)사업은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토양침식으로 인한 계곡에 테라스 등을 건설하는 유역관리사업(Watershed Management)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WFP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식량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MERET을 통해 환경관련 공공사업에 참여한 주민은 연간 최대 3개월까지 하루 3kg의 밀을 지급받으며, 이는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소외계층 특히 여성의 경제권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2년 22만 3천 명의 농민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참여농가의 70%가 소득이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다른 한편 MERET을 통해 127천 ha의 농지와 8.5만ha의 산림이 복구되었고 약 7,500개의 급수장이 설치되었다.

<표 4-29> WFP MERET 사업 개요

사업명	MERET (Managing Environmental Resources to Enable Transition to more sustainable livelihood)
수행기관	• WFP(World Food Programme)
협력기관	• 에티오피아 농업부(사업대상지역 농업국)
사업예산	• 1천 3백만 달러(2009~2010년)
사업목표	• 농가구와 의사결정권을 가진 지역 기관이 자체적인 공동체기반 참여형 유역개발을 고려토록 장려 • 지역 참가자 및 수행기관의 기술적, 구조적, 관리 역량 강화 • 토지 생산성과 천연자원 재생 및 보호 개선 • 소득증대 기회를 마련하고 개선된 농작법과 통합 • 천연자원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통하여 농촌 주민, 특히 여성 가장 (Women Headed Households) 농가의 생계 및 식량안보 개선
추진전략	• 테라스 건설을 위해 주민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WFP가 임금 혹은 식량을 제공 – 연간 최대 3개월까지 하루 3kg의 밀을 지급받음 장기 공공사업에 참여케 하여 주민들의 소득원 및 식량 제공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며,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 환경자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함
사업 구성 요소	• 유역관리공공사업: 식량 부족 지역 내 토양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계곡에 테라스를 건설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을 위한 고용 및 소득원 창출 • 토양침식 예방을 위한 테라스 건설

자료) WFP와의 면담자료

MERET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여 공동체 주민들이 사업지의 환경조사부터 활동기획, 수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주요과정들을 주도하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현지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책임감을 심어주어 사업이 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것은 MERET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를 SLMP이나 PSNP와 같은 정부 주요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TANGO et al. 2012).

MERET과 PSNP는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MERET은 토양침식 또는 천연자원보호 차원의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노동대가로 식량이나 임금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틀은 PSNP와 동일하나, PSNP는 국가 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이 강한 사업이지만 MERET은 지역커뮤니티와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게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은 MERET 프로그램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MERET가 시작했을 때 베이스라인 자료가 거의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의 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의 규모에 비해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수집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MERET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도 M&E 역량 부족과 부실함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들의 MERET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하면 <표 4-30>과 같다.

<표 4-30> MERET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MERET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정부 의견	• 정부의 MERET에 대한 지원입장은 확고하며 특히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참여적 접근법을 적극 환영 • 재원 및 역량부족 등의 제약요인이 있으며 PSNP 등 다른 사업과 MERET 프로그램 간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공여국 의견	• MERET 프로그램 하에서 완공된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는 칭찬할만한 수준임 • 그러나 다른 자원관리사업(Natural Resource Management)과 연계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원조 조화 구현을 위한 별도의 방안 필요 • 베이스라인 자료부재 및 부실한 모니터링으로 원조효과의 증거자료 부족 • 수혜자의 수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원효율성이 낮음 • 정부는 MERET을 성공사례로 전파하고자함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의 의견은 다양하며 재정지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DFID: WFP의 Fund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직접 지원하는 접근을 선호함 – CIDA: MERET은 기후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듯 보이며, 비용효율성이 낮고, 민간부문의 육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부재함 – USAID: 사유지를 사업대상지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WFP 의견	• MERET이 PSNP, SLMP와 연계될 수 있도록 더 구조적인 통합이 필요함 • MERET 프로그램이 농가와 지역 커뮤니티의 회복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자료) TANGO(Technical Assistance of NGOs) et al., “MERET Impact Evaluation Report”, 2012.11

4) Canada/CIDA

가) 캐나다의 에티오피아 지원전략

캐나다는 에티오피아에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ODA 공여국가이며, 농업분야에서는 최대의 공여주체이다. 캐나다가 에티오피아 농업지원을 주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2007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ODA 실현을 위해 수원국의 “식량안보, 어린이와 젊은이의 미래,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 우선분야로 선정하였다. 특히 식량안보문제를 위한 세부전략으로는 긴급식량지원과 영양증진, 영세농과 여성농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농업 R&D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와 더불어 2009년에는 기본전략에 따라 수원국가의 실질적 원조수요, ODA 수용역량, 그리고 캐나다 외교정책 우선순위와의 일치성을 기준으로 20개 중점지원대상국(Countries of Focus)을 선정하면서 양자지원의 80%를 이 20개국에 집중하기로 하고,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등 7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http://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home). 중점지원대상국을 선정할 당시 AfDB, CGIAR, IFAD, UNDP, World Bank Group, WFP 등이 포함된 18개 중점협력파트너를 동시에 선정한 바 있는데, CIDA가 지원하는 ODA의 1/3 이상은 이 때 선정된 다자기구 등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나) CIDA/Ethiopia의 농업분야 지원내용

CIDA/Ethiopia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4-31>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IDA/Ethiopia는 농업분야 최대의 ODA 공여주체지만 그렇다고 지원내용이 모두 거대한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CIDA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4~6년에 걸쳐 2~3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비교적 소규모 지원사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소규모 사업들까지도 단기성 지원이 아니며, 시행기간이 5~6년인 중기사업이 많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CIDA/Ethiopia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인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은 다른 선진기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표 4-31> CIDA/Ethiopia의 농업분야 주요사업 내용

(단위: 백만$)

지원사업명	지원 한도	사업 기간	시행기관 또는 파트너
에티오피아 고유사업			
Capacity Building for Sustainable Irrigation and Agriculture	15	'13-'17	Netherlands
Food Self-Sufficiency for Farmers	12.5	'13-'18	CARE Canada
Engaging the Private Sector to Support Small holder Farmers	10	'13-'17	UNDP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2013~2017	100	'13-'17	World Bank
Livestock and Irrigation Value Chains for Ethiopian Small holders	19.9	'12-'17	Int'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Improving Livelihoods, Agriculture, and National Development	19.8	'12-'15	GIZ
Nutritious Maize for Ethiopia	11.6	'12-'17	Int'l Maize & Wheat Improvement Center
Agricultural Growth Program - Support to Multi-Donor Trust Fund	18	'11-'15	World Bank
베니산굴-구무즈(베니산굴-구무즈(베니산굴-구무즈(Benishangul-Gumuz))) Regional Food Security Program	20	'10-'15	Save the Children Canada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Component	15.5	'08-'14	Agriteam Canada
Post-Harvest Management to Improve Livelihoods	3	'08-'14	Dalhousie Univ, Int'l Research and Dev.
Ethiopia Food Security Project	19.5	'04-'15	World Bank
아프리카지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			
Enhancing Farmers Access to Markets in East and West Africa	10	'14-'18	Int'l Finance Corporation
Innovation for Rural Prosperity	3.5	'12-'17	IDE Canada
ACORD's Pan African Agriculture Program	2.8	'10-'14	Agency for Coop. & Research in Dev.
Forum for Agr. Research in Africa	10	'09-'14	World Bank
Association for Strengthening Agri. Research in Eastern/Central Africa	3.4	'09-'14	World Bank
Pan Africa Bean Research Alliance	15.3	'09-'14	-
나일 Basin - Trade and Agriculture Production	9.7	'07-'15	World Bank

자료)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http://www.acdi-cida.gc.ca/cidaweb/cpo.nsf/fWebCSAZEn?ReadForm&idx=00&CC=ET

3. 국제사회의 지원 성과와 교훈

가. 국제사회의 지원과 경제성장 성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여건에 놓여 있다. 에티오피아는 이 어려운 여건을 딛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대에 들어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토지면적의 15%(농경지의 42%)만을 활용하여 농업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물과 축산부문에서 매년 증산을 계속하면서 비교적 높은 농업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성장효과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전략대로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어 비록 최빈국(LDCs)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물론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핵심 정책들이 처음부터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수립되고 추진되어온 에티오피아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ODA 관점에서 생각해 필요도 있다. 이 경우 오늘의 성과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ADLI와 GTP로 대표되는 농업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국제사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적극 지원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발전과정을 함께해 온 에티오피아와 국제사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개발협력과정에서 되새겨 볼만한 교훈도 공유하고 있다.

나. 강력한 행정력과 Top-down식 정책추진

에티오피아는 정부가 강한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Top-down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협조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행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계 당국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랫동안 ODA 사업을 추진해온 현지 ODA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따라서 농업·농촌개발사업과 관련한 최초의 접촉은 최상부인 연방정부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의 핵심 농정기관으로는 ① 주무부처인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② 총리실 직속으로 국제협력 파트너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농업구조전환청(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cy: ATA)”, ③ 그리고 포괄적인 자치권한을 가진 주정부를 들 수 있다. 이 세 기관이 농업·농촌개발사업 검토시 일차적으로 접촉해야할 협력파트너들이며, 이들과의 협의를 기초로 기술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 분야(실례: R&D, 종자, 수의 등)를 담당하는 기관(실례: 농업연구원/EIAR, 종자공급소/ESE, 국립가축보건원/NAHI 등)이나 지방정부를 찾아 협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오랜 부족주의 전통으로 인하여 Region, Woreda, Kebele별 특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지역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이며,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정부의 개발정책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협조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우선순위가 있는 정책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적절한 파트너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진행과 사후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이다. 특히 사업대상지역 선정은 지역균형차원의 정치적 논란거리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 ODA사업 추진주체와 지속가능성

다른 개도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농촌분야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여러 나라의 많은 ODA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한 문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사업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원사업의 사후 지속가능성은 해당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같은 ODA사업이라도 시행방식에 따라 사후 지속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지원기간 중 사업 시행주체와 지원기간 종료 후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보다는 동일한 경우, 사후관리 주체가 다수의 주민인 경우보다는 조직화된 기관인 경우, 그리고 사업시행기간 중 정부의 참여가 없는 경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각각 지속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ODA공여기관 입장에서 피해야할 시나리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맥이 닿지 않는 사업을 발굴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업시행기관을 대체할만한 운영주체가 마땅치 않아 독자적인 관리역량을 검증하기 어려운 주민자치조직 등에 사후관리를 맡기는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업현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선진국 ODA기관들이 사업시행기관으로 연방이나 지방정부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우려의 소산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시나리오와 반대로 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정부기관을 ODA사업 시행주체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에 해당기관의 역량배양사업을 포함하여 독자적인 운용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들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해당 정부기관을 앞세우는 것은 지속가능성 문제 외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측면에서의 유리하며 효과 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도 있다.

라. 다양한 농업생태와 지역적 특수성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에티오피아는 지형과 기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지방별로 농업생태계의 이질성이 크고 행정구역도 부족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나라에는 약 80개의 부족이 공존하고 있으며, 종교, 문화, 전통, 생활방식이 각각 다르다. 행정조직체계가 재대로 정립되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고 부족사회의 리더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 결과 지역별로 문화의 다양성 및 편차가 대단히 크며 농민들은 생산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고장의 전통적 농법을 고집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술보급이나 농민훈련이 어려운 것도 이와 관련이 있으며, 정부도 만일에 있을지 모를 기상조건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성공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새로운 농자재나 기술사용을 장려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경우 국가적인 차원의 분석 외에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정부조직에 더하여 해당지역사회의 특성과 전통조직의 유무 등을 파악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이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소통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사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마. 토지제도, 농업용수, 축산의 특수성

(a) 토지제도의 특수성: 에티오피아의 토지제도는 영농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토양관리를 위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 결과적으로 토지의 황폐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개별 농가의 영농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일각에서는 토지제도를 농업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제약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사유화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보면 이는 놀랄 일이 아니며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대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토지제도는 교회 및 특권층으로 구성된 부재지주와 높은 소작료를 지불하면서 평생 힘겨운 생을 이어가던 소작농 구조의 모순을 혁파한 공산혁명 정부의 산물이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토지의 생산성 대신 공평성을 선택한 것이며, 이를 다시 사유화하는 것은 그 반대의 선택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다. 현실적인 산업구조와 넘치는 농촌인력, 그리고 정치적 민감성 등을 감안하면 토지개혁문제는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하여 현 상태에서 배정받은 토지를 경작, 증여, 임대,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농민에게 부여하는 "토지사용증명서(Land Certificate)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향후 ODA사업과 관련하여 이 문제에 직면할 경우 사안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b) 농업용수개발의 특수성: 에티오피아 농업에서 토지만큼이나 중요한 생산요소는 물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생산기반투자는 수자원개발과 이용시설을 갖추는 것이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수자원개발과 같은 농업 인프라 구축은 중장기 대형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형적인 요인도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험악한 지형과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농장입지 등이 대규모 관개시설 투자의 경제성을 제약한 측면도 있다.

에티오피아 농촌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5~10호 정도의 농가들이 작은 마을을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이는 농촌취락이 부족 또는 가족 단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취락에서 한 가족이 소규모 토지를 기초로 자급자족형 영농을 하다가 출산 등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면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취락을 이룬다. 따라서 동아시아와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농촌취락이 형성되지 않으며 농장도 한 곳이 모여 있지 않고 널리 흩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큰 규모의 농업용수원을 개발한 후 험한 지형을 통과하면서 널리 흩어져 있는 농장에 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보다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앞으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ODA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용수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된 용량의 관개시설을 분산 지원하는 전략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c) 축산구조의 특수성: 에티오피아 축산은 토종가축이 대부분이며 사료와 영양부족, 가축질병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축종개량사업, 사료 및 목초지개량사업, 백신 및 동물약품공급 사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 축산은 고지대의 정착농민들이 사육하는 축산과 해발이 낮은 건조지대에서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사육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축산이 병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축산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따라

접근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하며, 후자의 경우 이동목축을 전제로 한 별도의 지원 대안을 모색하거나, 아예 이동목축지대의 축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 사업을 개발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바. 전환기적 체제의 잔재

에티오피아는 20여 년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체제전환 후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군데군데 계획경제의 잔재가 남아 있어 전환기적 체제의 잔재를 느끼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국가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제도, 농자재의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과 국영농장의 관료화된 운영, 시장여건 변동에 따른 위험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농민들의 행태, 아직도 비용·수익 그리고 시장개념이 정착되지 못한 오지농촌과 목축농민 사회 등이 그 실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국제지원을 바탕으로 수립된 연방정부의 의욕적인 정책자체는 빈틈없이 갖추어져 있으나, 의도와 달리 정책시행의 효과가 실제 농촌현장의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에티오피아에서 밀과 옥수수 품종개량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CYMMIT)의 사례를 보면, 이 기구가 정부의 농업연구원(EIAR)과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농촌현장에 보급하는 정부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NGO를 별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수요와 일선 농촌지도기관의 역량 간에 불일치 폭이 큰 농업기술개발 및 대 농민 보급업무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업기술연구결과를 현장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농민훈련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농촌지도사의 역량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ODA 공여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단순히 발전 제약요인으로만 파악하기보다 역사적 배경이 깔린 전환기적인 특성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공직사회의 실적평가와 신규 사업

ODA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자의 협조가 절대적인 요소지만, 사업의 내용에 따라 공직자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즉 고위공직자들은 AGP, SLMP, PSNP 등 본인이 관장하는 정책의 추진성과에 따라 향후 인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해당공직자의 평가대상 업무범위에 해당되거나 추진 중인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례적인 협조에 그쳐 결국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정부 당국자의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감안하는 것이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기조와 무관하여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는 사업 제안이나, 지원국의 과거경험을 통해 제안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재정지원 준비까지 충분히 되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에티오피아 정책기조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접근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능한 한 원조의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제2절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 지원전략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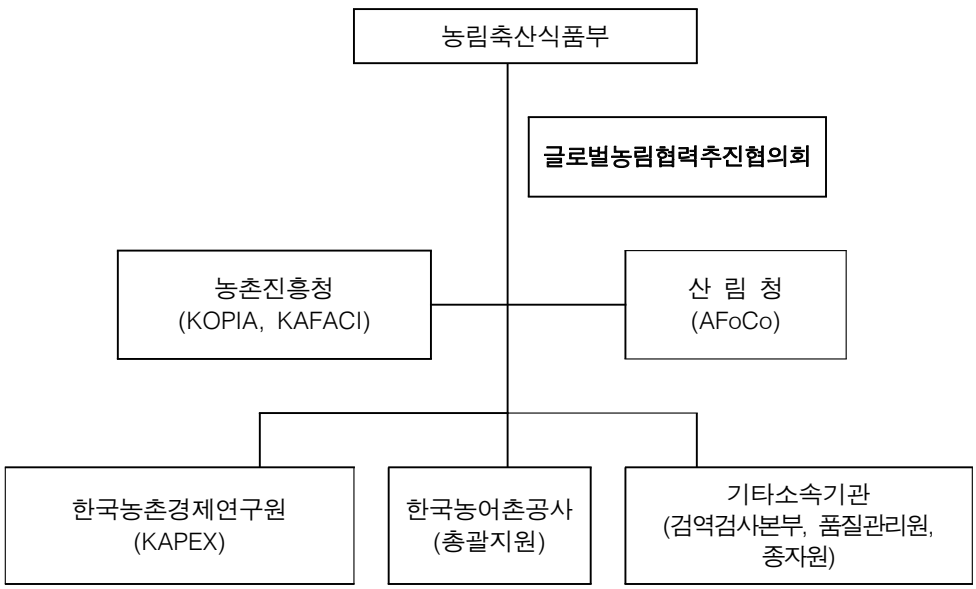
1. 농업・농촌개발지원 추진체계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정부 내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제7조) 개발협력의 기본계획, 연간시행계획, 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법은 개발협력 주관기관으로 기획재정부(유상협력)와 외교부(무상협력)를 지정하고(제9조),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매년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법 제1조) 2011년에 제정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기본적으로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과 연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도상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이와 같은 법체계에 따라 농업·농촌개발 지원사업은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과 외교부(KOICA),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포함), 지자체 등의 연간시행계획에 각각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농업·농촌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국립종자원 등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농식품부차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그림 4-6]과 같다.

[그림 4-6] 농업·농촌개발지원 추진체계



추진기관	담당부서		비 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개발협력과		044~201~2031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KAFACI	031-299-2270
		국외농업기술과, KOPIA	031-229-1080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042-481-41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02-3299-4357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 국제농업협력부		031-420-3088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			지원사업별 관련부서

가. 우리의 대외개발협력 개황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지원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여 2012년에는 1597.5백만 달러(약 179억원))를 기록함으로써 ODA/GNI 비율이 2011년 0.12%에서 0.14%로 상승하였으나 DAC 평균(0.3%)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OECD, http://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KOR.JPG). 지원형태별로 보면, 다자차원의 지원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1~2012년에는 약 75%

가 양자형태로 지원되었으며, 대상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4-32).

<표 4-32> 우리나라의 ODA 대상국가

		1991-1992		2001~2002		2011~2012	
ODA총액(백만 달러)		67		296		1,508	
다자 ODA(%)		42.8		32.6		24.8	
대상지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1.7		2.4		16.9	
	남·중앙아시아	8.9		21.2		22.1	
	기타 아시아·대양주	32.0		53.4		35.6	
	중동·북아프리카	2.7		3.5		5.5	
	중남미	8.6		5.8		6.5	
	유럽	0.4		8.5		1.7	
	미 분류	25.7		5.2		11.7	
합계(%)		100.0		100.0		100.0	
주요 대상국가(%)		인도네시아	7.4	베트남	10.6	베트남	11.7
		필리핀	5.5	중국	7.7	방글라데시	4.3
		나이지리아	2.5	인도네시아	6.4	캄보디아	4.0
		스리랑카	2.4	크로아티아	5.4	아프가니스탄	3.5
		가나	2.2	스리랑카	4.3	스리랑카	3.5
		몽골	1.5	캄보디아	4.0	인도네시아	2.5
		파키스타	0.9	몽골	3.3	탄자니아	2.4
		태국	0.7	우즈베키스탄	3.2	필리핀	2.3
		P.N.G	0.7	카자흐스탄	2.0	몽골	2.2
		에티오피아	0.6	필리핀	2.0	라오스	1.9
		사모아	0.5	파나마	1.9	요르단	1.8
		니제르	0.4	미얀마	1.4	우즈베키스탄	1.5
		바레인	0.4	요르단	1.0	네팔	1.4
		베트남	0.4	P.N.G	0.8	에콰도르	1.4
		케냐	0.4	파키스탄	0.8	세네갈	1.3

자료) OECD: http://www.oecd.org/statistics/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아시아지역 편중현상은 그만큼 완화되었다. 이는 2006년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서울)을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정례협의체가 창설되어 개발협력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나아가 2009년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는 2012년까지 대 아프리카 지원규모를 2008년 대비 2배로 증액하겠다는 서울선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선언에는 식량생산 증진을 위한 농업개발 분야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이 포럼에서 채택된 "한-아프리카 개발협력기본구상 2009~2012"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농업·농촌개발" 분야 지원약속도 담겨져 있다.

그 결과 2012년의 경우에는 양자지원액의 22%인 261백만 달러가 아프리카에 지원되었으며,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19.5%인 230.8백만 달러가 지원되고 에티오피아에는 20.4백만 달러가 지원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지원된 규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2A).

2.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발지원

정부 간의 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정기적으로 추진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역사는 길지 않다. 2006년에 양자차원의 농업협력을 위하여 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운 차원에서 ODA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지원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예산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2010년 42억 → 2013년 133억).

농식품부는 이와 같이 확대되는 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10.2월)하고, "농림수산부문 ODA발전방안"을 마련하여('11.5월) 초청연수 등 일회성 협력에서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최근에는 사업기간이 길고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소위 "기획협력사업"과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11년 7월에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제정하여 별도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렇게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13년 총341억원) 우리나라 농업·농촌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농식품부와 양청(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각 전문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무상협력 추진주체가 농업부문 내에서도 다원화되어있다는 것이다. 식량자급달성의 경험과 기술을 축

적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양자 및 다자차원의 농업기술협력 사업을, 그리고 산림청은 개도국의 조림 등 임업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양청의 예산개요와 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33> 및 <표 4-34>와 같다.

<표 4-33> 농식품부와 양청의 국제개발협력 예산개요

(단위: 백만 원)

	'12년 예산	'13년 예산
총 계	27,707	34,095
○ 농식품부	10,987	13,293
- 본부	10,510	12,816
- 소속기관(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	477	477
○ 농촌진흥청	12,071	13,893
○ 산림청	4,649	6,90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자료(농업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미포함)

<표 4-34> 농식품부와 양청이 추진 중인 국제개발협력 사업개요

	농업·농촌개발협력사업
농식품부	① 기획협력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12개국(아프리카 5개국) 15개 사업 추진 중 ② 농정컨설팅사업(KAPEX: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시행 –2013년 3개국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③ 분야별 기술전수사업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이 부정기적으로 시행 –초청연수,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개도국 기술전수 ④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 –FAO 2개 사업, IFAD 1개 사업 추진 중
농촌진흥청	①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2009년 출범, 20개국 운용(에티오피아 포함) ② 다자기술협력체를 통한 기술전수사업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2010년 출범, 18국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Asi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2009년 출범, 11국 참여
산림청	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사업 ②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관련 다자협력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자료를 재정리

에티오피아는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과 양자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시설채소와 축산협력활동에 중점을 둔 KOPIA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다자간 농업기술전수를 위한 KAFACI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에티오피아에서 추진 중인 사업목록은 <표 4-35>와 같으며, 이하에서는 이 지원 사업들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4-35>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에티오피아에서 추진 중인 사업

(단위: 백만원)

시행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3년 예산
농식품부	하라리주 관개시설개보수사업	'11~'13	2,300	1,150
	오로미아(Oromia)주 농업용수개발사업	'11~'14	2,300	540
	KAPEX 사업	'13~'18	345	345
농진청	KOPIA 사업	'11~	계속	363
	KAFACI 사업	'11~	계속	13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자료

가. 농식품부 기획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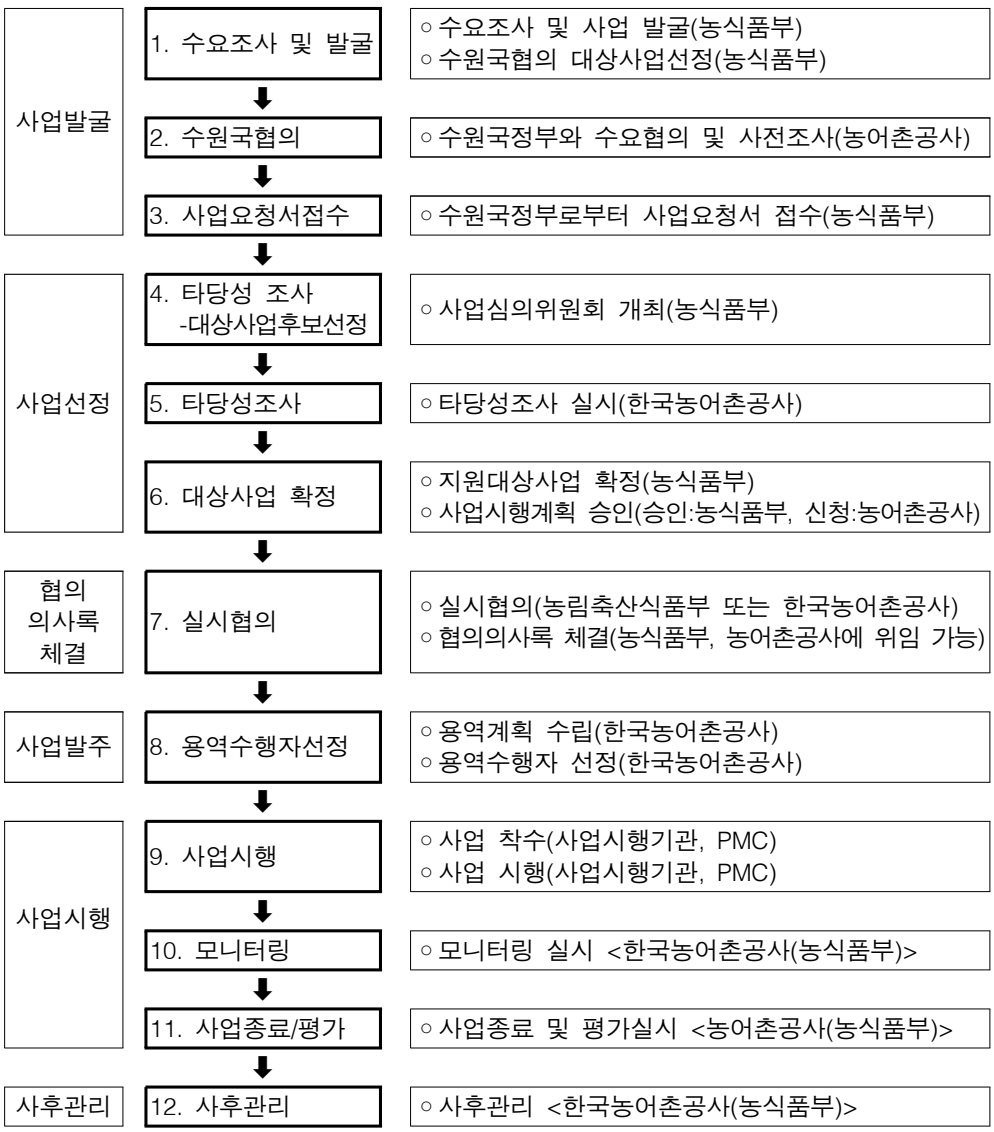
1) 사업선정 및 시행절차

2010년에 시작된 농식품부의 "기획협력사업"은 상대국과 협의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을 포함하여 26건이며, 그 중 11개 사업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사업 2건은 모두 농업용수와 관련된 사업으로 자원외교 등을 염두에 두고 우호적인 여건조성차원에서 농식품부가 대표단을 파견하여(2010.11) 자체 발굴한 사업이다.

농식품부의 기획협력 사업은 이와 같이 ①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발굴되는 경우, ② 외교채널을 통한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 ③ 농업관련기관이 수원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굴되는 경우, ④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후속조치로 시작되는 경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발굴된다. 이렇게 발굴된 기획협력 사업은

[그림 4-7]과 같은 사업선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에티오피아에서 시행중인 사업도 마찬가지이며 각각의 추진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7] 농림축산식품부 기획협력사업 선정 및 시행절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자료

2) 하라리(Harari)주 관개시설 개보수사업

이 사업은 에티오피아 하라리주에 위치한 3개 지역(도도타, 쉐리프하라위, 꼰냐)을 대상으로 유실되고 노후화된 관개시설 개보수와 영농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이며, 사업기간은 3년(2011~2013)으로 되어 있어 현재 마무리 중인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활동으로는 전문가를 파견하고 하라리주 관내 22개 소규모 관개지구 중 시행여건이 양호한 3개 지구를 선정하여 보, 수로, 도로 등을 보수·건설하는 것이며, 영농기술전수를 위하여 현지 농민들이 선호하는 토마토, 양파, 마늘, 고추 전시포장(3ha)을 조성하여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저장창고를 건설해 주는 것이다. 총 2,300백만 원(2011년 450백만 원, 2012년 700백만 원, 2013년 이후 1,150백만 원) 규모의 이 관개시설 개보수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소규모 관개시설 개보수: 꼰야지구(보 1, 수로 8km, 도로 3km), 도도타지구(보 1, 수로 5km, 도로 1km, 팜폰드 2), 쉐리프하르위지구(보 1, 수로 5km, 도로 0.5km, 팜폰드 2)
- 농산물저장창고 신축: 약 240㎡(저장용량 약 100톤)
- 시범포장: 지구별로 1ha씩 총 3ha 조성(육묘장 포함)
- 전문가 파견: PM농업토목(21M/M), 영농지도(12M/M)
- 초청연수: 에티오피아 공무원 연수(10인, 14일, 1회),
- 현지영농교육(3회/년)
- 기자재 지원: 승합차, 책상, 의자, 데스크 탑, 노트북 등 7종

3) 오로미아(Oromia) 주 농업용수개발사업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즈웨이에서 지하수개발 및 9개의 소규모 관개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3개년(11.12~14.12)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하수를 이용한 소규모 관개시설을 구축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하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농업용수의 효과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기와 건기에 관계없이 연중 균일하게 농업용수

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2,300백만 원 규모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지하수개발조사: 물리탐사 1식, 지하수 영향조사 1식, 지하수 개발 9공
- 소규모 관개시설구축: 9개소(전동펌프)
- 전문가 파견: 지질 분야 2명(PM 1인 13개월, 전문가 1인 8개월)
- 기자재 제공: 시추장비(1대), 운반트럭(5톤, 1대), 사무용품(노트북, 복사기 등)
- 현지교육: 지하수 개발 및 이용관리(1회), 기자재(시추장비) 운영(1회)

나. 농정컨설팅(KAPEX)사업

KAPEX사업은 ① 식량문제와 빈곤 탈피를 위해 개도국 스스로 농업·농촌정책을 입안·추진할 수 있는 역량지원, ② 상대국 수요에 부응하면서 우리의 농업·농촌분야 전문지식과 발전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 ③ 그리고 우리 농정성과의 체계적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3년에 3개국(에티오피아, 라오스, 캄보디아)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사업의 구도는 맞춤형 정책 컨설팅이다. 즉 우리의 농업·농촌발전경험을 기초로 국제적 우위가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상대국이 선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컨설팅을 추진한다.

<표 4-36> KAPEX 농정컨설팅사업 대상 분야

△ 농촌종합개발, △ 식량작물생산성향상, △ 농업생산기반구축, △ 관·배수시스템개발, △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농업인력 육성, △농산물유통체계구축, △ 농업협동조합, △ 가축사육 및 관리, △ 농지제도 및 관리, △ 영농기계화, △ 친환경 농업, △산림녹화, △ 임산자원 개발, △ 농촌특화사업 개발, △ 가축질병 관리 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업무자료

KAPEX사업은 농업·농촌개발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ODA 중점협력대상국가의 협력전략(CPS)에 농업·농촌개발이 중점협력대상으로 명시되어 있

는 국가, 해외농업개발 또는 농산업 해외진출 등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 그리고 정부 간에 농업·농촌개발협력이 합의된 국가를 중심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공동조사 및 연구: 상대국 수요에 근거하여 개발 잠재력이 있고 식량안보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하여 공동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중심으로 조사 및 연구 활동
- 초청 및 현지연수: 공동조사 및 연구에 참여하는 상대국 정부 관계자 등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상대국 내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농정 경험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 국내와 현지 정책워크숍: 공동조사 및 연구팀은 핵심 이슈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우리의 정책경험 및 공동조사결과 등을 발표·협의하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농업·농촌개발 지원모델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축적

에티오피아에 대한 정책컨설팅 과제는 “농업기술연구개발 및 보급체계(R&D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Extension System)”로 합의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 정책협의: ’13. 1.31/’13. 5.2(2회)
- 대상기관: 에티오피아 농업부 기획관실 및 농업기술지도국
- 초청연수: ’13. 9(2주), 10명 내외
- 공동조사실시: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원(EIAR)과 한국 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

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사업

1)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

농촌진흥청은 단편적인 농업기술지원을 탈피하고 대상 국가별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개국에 KOPIA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KOPIA센터에는 현지에 상주하는 소장과 6개월간 파견되는 연구보조원이 근

무하며 주재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무실, 시험포장, 현지 인력 등과 같이 활동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수시로 파견되기도 한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6개국에 설치되어 있던 KOPIA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2년에는 15개국, 현재는 20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는 에티오피아 외에 DR콩고, 케냐, 알제리에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는 각국의 KOPIA 센터별로 소수 핵심 사업을 선정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현지에 확산시킨다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방침이다(농촌진흥청 업무자료).

2011년에 설치된 에티오피아 KOPIA 센터는 농업연구원(EIAR)에 자리하고 있으며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원칙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① 고랭지적응 사과품종선발 및 재배법개선, ② 토마토의 다양한 품종 및 생산성증대기술, ③ 마늘 품종선발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2)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공동개발, 농업자원보전 및 이용기술개발,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노력 등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제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축해오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KAFACI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 사무국을 두고 24억원(13년 기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국가별지원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농경지 물 관리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물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국가별지원 사업이란 대상국가가 원하는 기술을 한국연수를 통해 습득케 한 후 자국으로 돌아가 그 경험을 재현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2013년 현재 아프리카 15개국 43명이 농진청에서 3개월간 필요한 분야의 훈련을 받았다.

KAFACI는 이와 같은 국가별 지원사업 외에 “권역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식량증산 또는 가축개량 등을 위하여 여러 회원국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KAFACI는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공동으로 회원국의 농업전문가를

에티오피아로 초청하여(2회) 실습위주의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인공수정과 수정란이식 등 가축개량 기술을 전파한 바 있고, DR콩고 등에서 우리나라 통일벼품종 적응성을 검정하기도 하였다.

3) 산림협력사업

산림청은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sean-Korean Forest Corporation: AFoCO)를 운영하면서 황폐화된 지역의 산림복원사업을 위한 양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에 대응한 황사방지를 위해 몽골에 그린벨트 조림사업 및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지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산림기술지원, 한-인니 우호의 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에 대하여는 UNEP와 MOU를 체결하고 2012년부터 2년간 가나, 튀니지, 모로코에서 정화된 오수를 활용한 사막화방지 조림시범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에티오피아와 베냉(Benin)을 대상으로 제2차 사막화방지 시범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KOICA의 농업·농촌개발지원

가. 농림수산 분야 사업개황

프로젝트사업, 국내초청연수, 해외봉사단파견, 해외재난긴급구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되는 KOICA의 무상원조사업 총액 중 농림수산분야 사업은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18.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원총액 기준으로 아프리카지역이 20.4%로 아시아지역(46.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농림수산분야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높은 28.9%가 되어 아프리카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지원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4-37).

<표 4-37> 무상원조의 분야별 지역별 배분현황

(단위: %)

분야별 배분(2012년 기준)			지역별 배분(2012년 기준)		
분 야	비율		지 역	비율	
	전 체	아프리카지역		전 체	농림수산 분야
교육	26.6	30.4	아시아	46.9	48.2
보건	16.1	17.6	아프리카	20.4	28.9
공공행정	15.0	20.0	중남미	11.0	8.3
산업에너지	13.1	9.4	동구 및 CIS	4.5	5.7
농림수산	13.0	18.4	중동	3.6	0.5
기타	16.2	4.2	기타	13.6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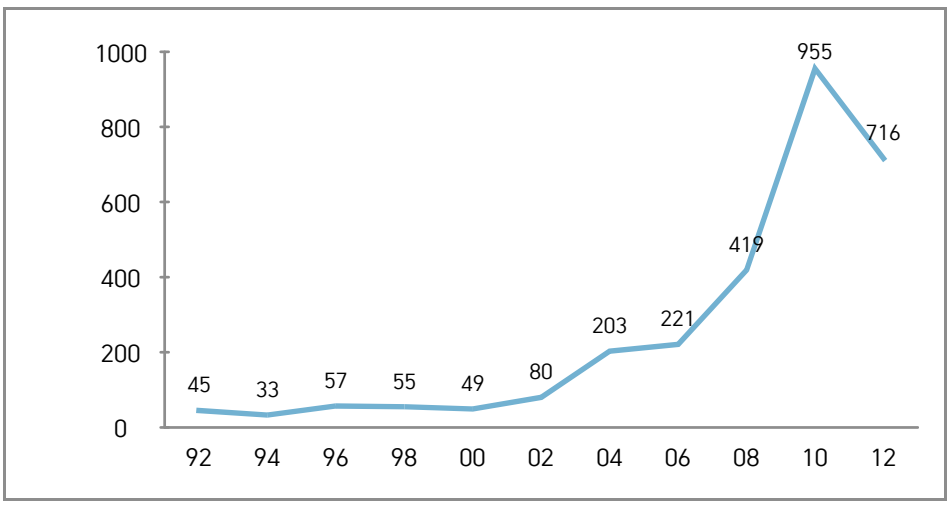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12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KOICA는 정부의 무상원조 기본계획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지역을 우선시 하는 기조를 유지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체 ODA의 70% 이상을 집중지원하기 위하여 선정한 26개 중점협력대상국 중 12개국이 아시아국가로 되어 있는 구조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하여 8개 나라가 중점협력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KOICA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규모는 [그림 4-8]과 같이 최근 들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아프리카 포럼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게 바뀌지 않고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남아 있는 한 이 나라에 대한 KOICA의 지원규모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KOICA의 에티오피아 지원개황

(단위: 만 달러)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국별 지원현황(에티오피아)"

KOICA 지원을 내용별로 보면 5대 중점분야(보건,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 분야가 여기에 포함된 것은 협력대상국들의 원조수요가 많고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사업 등 지역협력프로그램은 정부의 국가별 협력전략(CPS)을 기초로 하여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나. 농업·농촌지원 전략

KOICA가 설립된 1991년 농림수산 분야 지원은 전체의 6%를 구성하였으나 2012년에는 대폭 증가한 13%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후 전체규모가 팽창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도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KOICA는 이 분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 가고 있다. 우선 기존전략을 세분화하여 <표 4-38>과 같이 농림수산 분야의 5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개발협력사업 발굴 등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세 가지 접근전략을 설정해 놓고 시행 중이다.

<표 4-38> KOICA의 농림수산 분야 지원전략

5대 전략목표	ⓐ 농어촌 인프라구축 –농업생산인프라 확충, 전력과 통신설비 확충, 농촌주거환경 개선 ⓑ 농어업생산성 향상 –생산자조직육성지원, 농업기술지원, 농업정책수립 역량 강화 ⓒ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수확 후 가공, 유통망개선, 마케팅활성화, 수출역량 강화 ⓓ 농어가 소득원 다양화 –농촌금융활성화, 직업훈련지원, 농공단지조성, 농촌관광 상품개발 ⓔ 농어촌 종합개발
선택과집중 차원의 접근전략	ⓐ 국가협력전략(CPS) 중심의 사업지원 –수원국의 국가발전전략과 농업·농촌개발전략에 부합하는 지원전략을 반영하여 CPS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조 일치(Alignment)와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영세소농과 농촌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영농과정의 리스크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실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 고리 단절 ⓒ 비교우위 프로그램개발 및 실행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농림수산 분야의 경험과 지식 중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전수함으로써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기타 접근전략	ⓐ 원조의 효과성증진: 프로그램 형 지원모델개발, 수원국의 발전 단계별 프로그램 적용,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강화 ⓑ 파트너십 강화: 국내 농업·농촌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 수원국가 현지의 원조 조화(Harmonization) 강화, 국제원조 네트워크 강화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농림수산 분야 전략(2013~2015)”

다.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지원현황

농업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는 전항의 <표 4-37>와 같이 이 분야 에 대한 KOICA 지원총액의 28.9%를 차지하고 있어 아시아와 함께 농림수산 분야 무상원조의 주요대상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 사업은 “농업관개역량 강화사업”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590만 달러로 시행하기로 한 당초계획과 달리 아직까지 사업 확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 외에 최근 종료된 사업으로 “아르시(Arsi) 지역(오로미아주) 농촌개발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축산과 경종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약 3,300여 주민들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1단계(사업착수 후 25개월: 2010.7~2012.3) 사업과 2단계(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8개월: 2012.3~2012.11) 사업이 모두 종료된 상태이며 총 1,863천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사업이 실시된 지역은 오로미아(Oromia)주 아르시(Arsi) 지역, 헥스토사(Hextosa) Woreda, 케노 리만(Kedo Leman) Kebele의 불차나(Bulchana) 마을과 갈로(Galo)마을이다.

KOICA가 오로미아주 농업개발국(Agriculture Development Bureau)과 함께 이 지역에서 추진한 사업은 <표 4-39>와 같은 세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9> 에티오피아 아르시(Arsi) 지역 농촌개발사업 세부내역

축산개량사업	◦ 재래종 번식우 입식 및 사양관리 ◦ 공동 축사 건축 ◦ 개량 초지 및 사료작물 시범포 운영 ◦ 인공수정센터 운영
영농개선사업	◦ 농기계 창고 건립 ◦ 제분소 건축 및 운영 ◦ 트랙터 운용
주거환경개선	◦ 시범주택 건립 ◦ 시범주택 부속동(창고, 화장실, 부엌) 건립 ◦ 전통 주택 창문설치를 통한 주택개량 ◦ 바이오 가스 설비 설치 ◦ 공동 화장실 건립 ◦ 마을 앰프시설 설치
주민조직형성	◦ 사업 분야별 주민조직 형성과 운영
인프라구축	◦ 마을 진입도로 개선
전문가파견	◦ PM 21월(총괄 3월, 공동 18월) ◦ 축산 전문가: 5월 ◦ 축산 시설: 4월 ◦ 추가: 지역개발 및 축산 전문가: 8월
초청연수	◦ 에티오피아 사업관련 공무원 10명 대상 2주
기자재지원	◦ 인공수정용 오토바이, 컴퓨터 등 사무집기, 트랙터 등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에티오피아 아르시 존 농촌개발사업 종료평가 결과보고”, 2012.11

KOICA가 실시한 본 사업의 종료평가결과에 따르면, 종합개발사업을 구성한 세부활동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된 세부목표 달성에 기여한 요인으로써는 우량 소 선발을 위한 위원회구성, 자부담을 통한 주인의식 고취, 지역요구에 대한 전문가적 여과,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조, 핵심인력에 대한 훈련 등이 있다. 특히 전통주택에 대한 창문설치 사업은 농가주택개량의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고, 제분소 운영, 바이오가스 설비지원 사업과 함께 여성들의 편의와 위

생, 그리고 쾌적성을 높여 성 주류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주민자립에 의한 사업지속 가능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주민조직(번식 우 관리위원회, 제분소 운영위원회, 농기계 관리위원회의) 활동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4. 재정경제부의 농업·농촌개발지원

가. 개발협력사업 추진개황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KDI가 시행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이다. KSP는 수원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책컨설팅 사업으로 농정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KAPEX와 유사하며 이하에서는 EDCF를 중심으로 농업·농촌개발 지원현황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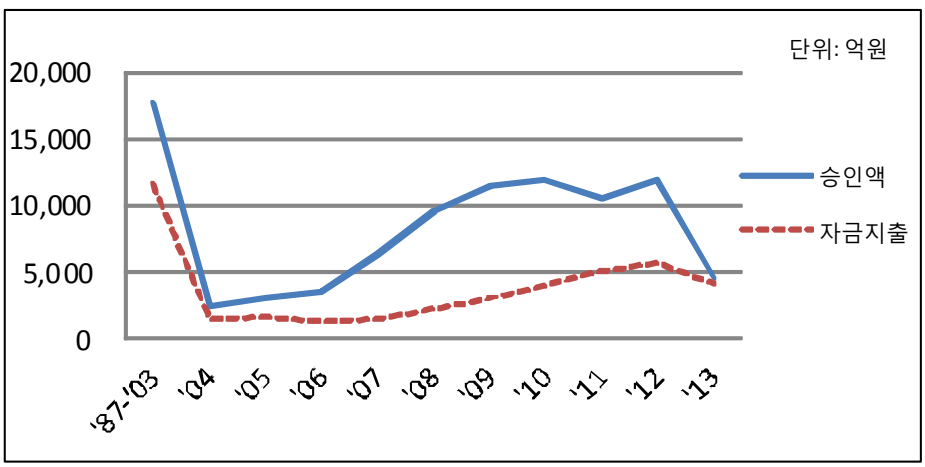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와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에 설치되었다. EDCF는 주로 저개발국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지원하며 상업차관에 비하여 유리한 원리금상환조건을 전제로 하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사업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분야별 기본계획(2011~2015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양자 유상협력은 2011~2015년간 약 4조 2천억원 규모이며, 대상을 중점협력국가, MDB와의 협조융자[11], 기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4년 1월까지 306개 사업에 대해 총 9조 3,543억원의 EDCF 자금이 지원되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2012년에는 18개 사업에 대해 1조 1,951억원이 지원되었다(그림 4-9). 대부분 교통, 수자원개발, 에너지 등 대형 프로젝트와 보건 및 교육 등 비농업부문의 사업에 많이 지원되었다. 이는 유

11)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협조융자(co-financing)란, ADB, IDB, WB, AfDB, EBRD 등 MDB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MDB와의 협조융자는 통상적으로 양국 간 협의에 의한 사업발굴방식 보완, 시간·노력·비용 측면에서 용이성 증대, EDCF 단독지원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MDB 협조융자사업은 국제원조사회에서의 가시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EDCF와 MDB간 인적교류 확대 등을 통해 국제원조사회에서의 EDCF 위상을 제고할 수도 있다.

상원조의 특성 상 협력대상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투자수익률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4-9] EDCF의 연도별 지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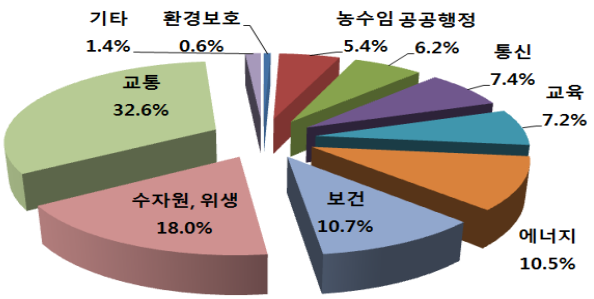


자료)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fo/statis/year.jsp

이에 더하여 과거 EDCF 사업발굴은 정부 간 협력이 아닌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가시적 효과를 내기 어렵고 사업발굴도 쉽지 않은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1996년 중국 농업부의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자재 차관을 시작으로 EDCF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농림수산부문을 다 합해도 전체지원액 대비 5.4%에 불과하다(그림 4-10).

[그림 4-10] EDCF의 분야별 지원 실적

(1987~2013년 총 누계 기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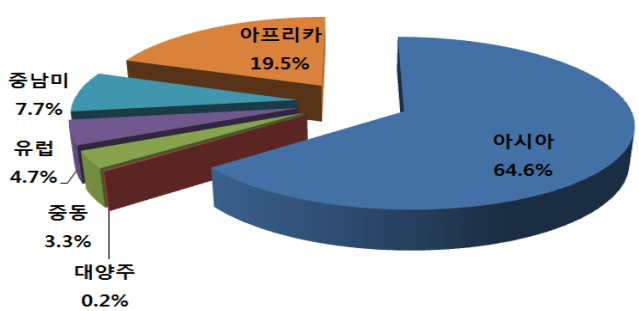


자료)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fo/statis/year.jsp

EDCF는 무상원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아시아 중심의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대상지역을 다원화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협력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그림 4-11). 2010년 한-아프리카 경제장관회의에서 2010~2014년 간 10.9억 달러의 지원승인을 공약한 바 있는 우리 정부는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AfDB 등의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1] EDCF의 지역별 지원 실적

(1987~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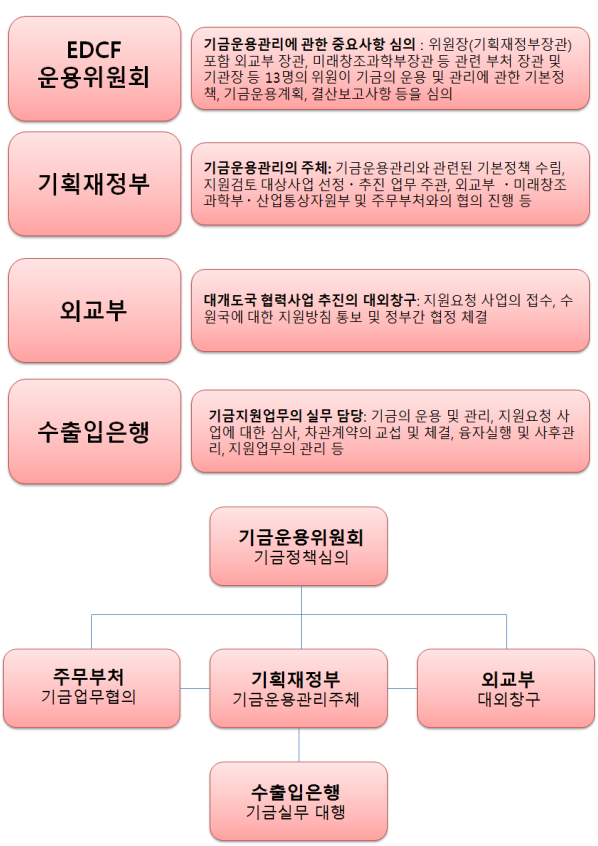
자료)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fo/statis/year.jsp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2011년에 술루티-게브레구라차 전력망 구축사업이 승인되었으나 아직 농업·농촌부문의 사업추진 실적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EDCF 사업 추진체계

"EDCF 운용위원회"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외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EDCF 사업의 추진창구 역할은 외교부가 담당한다. 또 수출입은행은 정부로부터의 수탁사업 형식으로 EDCF의 운용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EDCF 사업의 추진체계와 기관별 역할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그림 4-12]와 같다.

[그림 4-12] EDCF 사업 운용체계와 기관별 역할



자료) EDCF, http://www.edcfkorea.go.kr

다. 사업추진절차

EDCF 사업은 크게 사업 발굴 및 선정, 사업시행,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발굴과 승인 과정은 대부분 수출입은행의 현지 사무소가 수원국가 정부와 협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협의를 마치면 해당사업에 관한 지원요청서가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제출된다. 그 다음 해당사업은 심사와 승인을 거쳐 수원국가에 통보되고, 수원국가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 본격적으로 양국 차관계약이 이루어진다. 사후관리는 사업에 대한 당초계획과 비교하면서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완공 2년 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결과는 향후 정책결정, 유사분야 사업의 심사 및 관리,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된다.

<표 4-40> EDCF 사업 추진절차

발굴·선정	사업준비	사업심사	차관협의	사업실시	사후관리
사업 발굴 → 조사 (한국정부· 수원국 EDCF)	F/S와 I/P작성 (수원국) 차관요청 (수원국)	심사의뢰 (한국정부) OECD 통보 심사·승인의뢰 (EDCF) 차관승인 (기재부 등 관련부처)	시행약정 또는 F/A 체결 (한국정부·수원국) 차관계약 체결 (EDCF·수원국)	구매입찰 (수원국) 구매계약 (수원국·공급자) 계약이행 (공급자) 자금지출 (EDCF)	완공평가 (수원국) 사후평가 (EDCF)

자료) EDCF, http://www.edcfkorea.go.kr

5. 경상북도의 농업・농촌개발지원

가. 새마을사업 추진개황

경상북도는 2005년에 새마을운동을 세계빈곤퇴치의 실천모델로 확산·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새마을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5년이 지난 2010년에 이루어졌으며 그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아프리카(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카메룬)와 아시아(인도, 필리핀) 6개국에 봉사단을 파견하여 새

마을사업의 세계화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에 더하여 2012년에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설립하여 새마을사업의 세계화 추진기반을 강화하였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의 활동은 우리의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발전과 빈곤 퇴치에 기여함으로써 인류공동번영을 구현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또 새로운 국제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의 세계화는 기존의 원조방식과 달리 현지 주민의 주인의식과 자립역량제고 등을 통하여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청연수(주민 주도) → 시범새마을조성(경험 공유) → 인근지역 확산” 형식의 모델에 따른 접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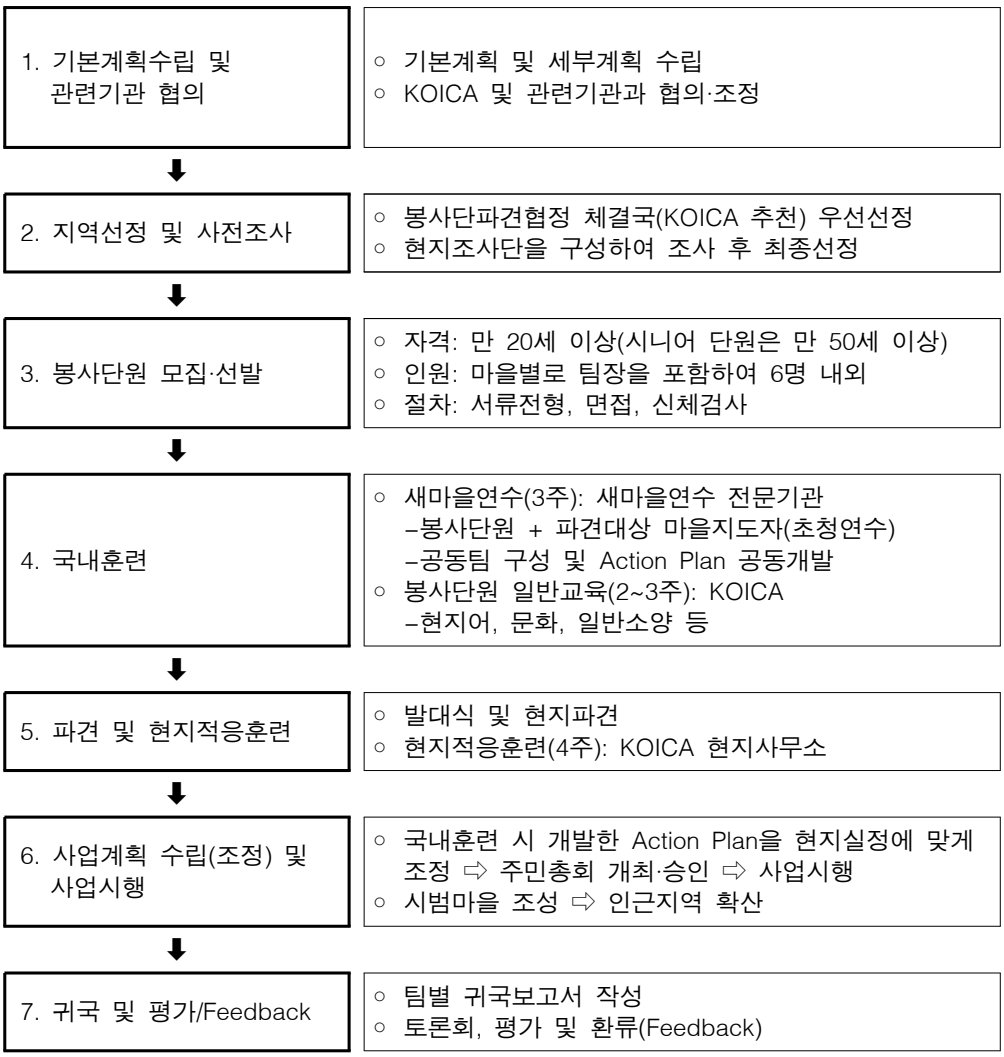
나. 사업추진절차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경상북도와 KOIC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KOICA는 봉사단원의 훈련과 파견을 담당하고 경상북도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전에 마련된 계획에 따라 요원을 선발하여 봉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활동에 필요한 훈련을 시켜 파견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국내훈련과정에 봉사단원에 대한 일반훈련 외에 파견대상국의 현지 지도자를 연수생으로 초청하여 봉사단원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양측이 함께하는 팀을 이루어 현지의 Action Plan을 개발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포함한 사업추진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4-13]과 같다.

다. 에티오피아 사업

에티오피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마을사업은 2010년에 최초로 2개 마을(데베스, 한도네)이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한 개의 마을(아틀랄라)이 추가되었으며 2013년에 또 다시 2개 마을(아디스알렘과 마이멕딘)을 더하여 현재 모두 5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말까지의 성과로는 3년간에 총 1,601백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52명의 봉사단원이 현지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에티오피아에서 추진 중인 대상지역의 위치와 사업 개요를 정리하면 <표 4-41>과 같다.

[그림 4-13]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절차



자료) 새마을세계화재단, “새마을리더 봉사단파견-시범마을조성 모델”, 2013년

<표 4-41> 에티오피아 내의 새마을사업 대상지역과 사업개요



마을명 (사업기간)	구분	2010	2011	2012	계
데베소 (2010~2014)	봉사단(명)	6	5	5	16
	사업비(백만원)	148	150	160	458
한도네 (2010~2014)	봉사단(명)	6	4	5	15
	사업비(백만원)	143	130	150	423
아틀랄라 (2011~2015)	봉사단(명)		5	5	10
	사업비(백만원)		150	150	300
아디스알렘 (2012~2016)	봉사단(명)			5	5
	사업비(백만원)			210	210
마이멕딘 (2012~2016)	봉사단(명)			6	6
	사업비(백만원)			210	210
총계	봉사단(명)	12	14	26	52
	사업비(백만원)	291	430	880	1,601

자료) 새마을세계화재단, http://www.saemaulgf.or.kr/kor/biz/nation_ethiopia.html

봉사단의 주요활동 내용은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표 4-42>와 같이 새마을회관을 건립하여 마을조직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저수지

보수, 마을진입로 보수, 화장실개량 등이 있으며, 소득증대사업으로는 가축은행제도 설치운영, 생산기반시설 정비, 시범농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마을교육, 부녀자 기술전도, 부녀회활동, 유치원설립 교육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표 4-41> 에티오피아 시범새마을의 활동내역

마을명	2010	2011	2012
데베소	–새마을회관신축 –저수지보수, 안길보수 –가축은행, 축산기술전수 –유치원보수, 학습과정 –새마을 조직육성, 교육	–새마을조직 활성화 –마을회관보수, 조경 –저수지정비, 안길보수 –소득증대사업 –새마을유치원, 도서관	–조직 활성화, 교육 –저수지보강, 안길포장 –가축소득, 특용작물 –물탱크, 전기 설치 –새마을유치원, 도서관 –재봉기술 보급
한도네	–새마을회관, 확성기설치 –화장실개량, 외양간건축 –새마을교육, 저축교육 –가축은행운영 –영어, 태권도교육 –부녀자기술전수	–새마을조직 활성화,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 –소득증대 –보건, 주거환경개선	–조직 활성화, 교육 –생활환경개선 –시범농장 –기반시설개선 –부녀회 농외소득개발 –소득증대, 유치원건축
아틀 랄라		–새마을회관 건립 –마을진입로개선 –새마을조직육성 –부녀회사업 –가축은행운영 –주민보건, 환경개선	–상수도사업 –어린이교육 –새마을회관 정비 –부녀회사업 –가축은행운영 –환경개선
아디스 알렘			–새마을조직결성, 교육 –새마을회관건립 –여성가사환경개선 –상수도개선 –부녀자기술교육
마이 멕딘			–새마을회관건축 –생활용수개선 –마을진입로 정비

자료) 새마을세계화재단, http://www.saemaulgf.or.kr/kor/biz/nation

6. 농업・농촌지원제도의 평가와 과제

이상과 같이 여러 기관이 농업·농촌분야 ODA에 관여하고 있으나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두 축은 KOICA와 농림축산식품부(외청 및 소속기관 포함)이다. KOICA는 상대적으로 많은 ODA사업 경험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지원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과 조직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의미가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DA수원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전환된 역사가 길지 않아 아직 충분한 개발지원 사업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도가 다를 뿐 모두 유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KOIC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지원 사업경험이 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농업·농촌개발지원 사업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또는 외부평가를 통해 인식하게 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최근까지 대상국별로 준비된 지원전략이 없는 상태에서(최근에 국가별 CPS 등장) 관련기관, 수원국가, 학계, 해외농업개발업계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목표성이 부족한 단기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성과의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제도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ODA사업추진 기관이 각각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어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나 협력을 통한 사업기획과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유·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를 운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사업계획 조정 등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농업·농촌지원사업도 종료되는 프로젝트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사후관리 체계가 재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사업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발전시스템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수원국가 정부기관 등 책임있는 사후관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자치조직 등에 사후관리를 맡기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당초의 지원의도와 달리 시설이나 장비가 방치되어 확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다행히 관계기관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촌개발원조 추진기관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농림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이 농업·농촌개발 ODA지원전략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인 논의와 조정을 거쳐 농업·농촌분야 ODA 사업의 기본지침으로 발전시키고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구속력 있는 CPS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초기형태의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목표지향적인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사업 단계별로 농정기관 뿐 아니라 관련부처, KOICA 그리고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관별로 적절한 여건이 갖추어지면 관련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전문성과 네트워크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접목하는 공동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수원국가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지향형 사업추진을 강화하면서 우리 지원사업을 수원국가 정부의 농업·농촌개발정책의 한 부분으로 편입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사업추진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수원국가 정부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수원국가 정부의 농업·농촌개발 시범사업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원조 일치를 확보하는 사업추진체계를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사업 종료 후의 사업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부터 현지에서 확보 가능한 기자재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독자적인 운용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농업·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지침’을 준비하고, 사업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업평가 과정에 수원국가 및 국내 관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에티오피아

제5장
지원방안 및 기대효과

제1절 KOICA의 지원적합분야

1. KOICA의 기본전략

1991년 KOICA출범 첫해의 농림수산 분야 지원은 전체의 6%에 불과했으나 그 후 20여 년 사이에 이 비율은 13%까지(2012년 기준) 확대되었다. 또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ODA규모 자체가 증가하면서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KOICA는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이 분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접근전략을 개발해가고 있으며 우선 종전의 전략목표를 세분화하여 농림수산 분야 지원목표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정해 놓고 있다.

① 농어촌 인프라구축: 농업생산인프라, 전력과 통신설비, 농촌주거환경 개선
② 농어업생산성 향상: 농업기술지원, 농업정책역량 강화, 생산자조직육성지원
③ 농수산물 시장접근개선: 수확 후 가공 및 유통 개선과 활성화, 수출역량 강화
④ 농어가 소득원 다양화: 농촌금융, 직업훈련지원, 농공단지조성, 농촌관광개발
⑤ 농어촌 종합개발

이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KOICA 농림수산분야 전략”은 세 가지의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데, “효과성 증진전략(프로그램형 지원모델,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강화, 발전단계별 프로그램)”, “파트너십 강화전략(참여형 개발협력, 현지의 원조 조화, 해외기관과의 협력)”과 함께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 “선택과 집중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세부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 첫째, 국가협력전략(CPS) 중심의 사업추진이다. 즉 수원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정책과 농정기조에 부합하는 CPS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조일치(Alignment)와 수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 둘째, 우리 나름의 비교우위가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추진이다. 그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농정경험과 지식 중에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별하여 전수함으로써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 셋째, 영세소농과 농촌여성 등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추진이다. 이는 영농과정의 리스크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실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인프라 구축, 농업생산성 향상 등 5가지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KOICA 농림수산 분야 전략"을 에티오피아 지원과 관련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글상자 5-1] KOICA의 에티오피아 농림수산 분야 전략 - 선택과 집중

첫째, 현행 에티오피아 지원 CPS내용에 맞는 분야의 사업으로써,
둘째, 에티오피아의 농정기조 및 지원수요(정부요청)에 부합하고,
셋째, 우리 나름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넷째, 영세소농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것

따라서 "KOICA 농림수산 분야 전략"에 의한 에티오피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에티오피아 지원 CPS"내용, "에티오피아 현지의 지원수요", "우리의 비교우위", 그리고 "실제 지원 사업실적"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식량부족 최빈국의 경우에는 "농업생산증대"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한다. 물론 일정수준의 소득이 달성된 이후에는 "농산물가공과 유통 등 농가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농업 외에 농촌문제가 부각되면서 농촌생활여건과 복지개선 등이 주요과제로 등장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식량부족 최빈개 도국"인 에티오피아 경우에는 "농업생산성증가"가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라는 인식을 전제로 구체적인 지원 분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재의 소득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 분야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원종료와 함께 사업성과가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에티오피아 지원 CPS

가. 기본방향

CPS 중 농업·농촌개발부문의 전략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접근의 일환으로

① 일정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여,
② 그 지역주민 대상의 영농교육을 통한 기술전수와 농업용수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성공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되,
③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택개선사업, 기초교육 및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 등도 실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CPS는 대 농민 농업기술훈련과 농업용수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여 이 나라 식량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모양은 일종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CPS는 농가소득증대라는 가시적 성과도출에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실행계획

- 통합개발계획 마련: ① 지역적 차원에서 식량증산을 목표로 하는 영농·축산시범농장 개발, 관개시설개발과 영농기술훈련, 주거환경개선(주택, 도로, 공공시설 등), 보건 위생개선(부엌, 화장실 개량, 식수공급 등), 교육환경개선(학교신축, 기자재공급 등) 등을 지원하고, ②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식량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영농훈련센터 건립 및 전문가육성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 마련
- 역량 강화: 전문가 파견을 통한 영농·축산기술교육 및 연수생 초청훈련을 통하여 영농기술을 전수하되 기술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습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지도자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인식개선 및 사업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정에서 양성평등 실현촉진을 위하여 여성참여를 최대한 고려

- 기반시설구축: 관개시설 등 농축산 관련 기반시설 구축과 영농기술훈련센터 건립 등
- 기자재지원: 농기계, 차량, 영농기술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등
- 주민자치활동지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독려 및 지역사회에 기반 한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조직 형성 및 운영 지원, 여성참여확대 고려
- 주거·교육·보건위생 개선: 주택개량, 마을도로, 공공시설 건립 등 주거환경개선, 식수공급 및 화장실개량 등 보건위생개선, 학교신축 및 기자재 공급 등 교육환경개선 등을 측면 지원
- 원조 일치/원조 조화: GTP 및 AGP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현지의 농업분야 ODA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보공유, 정책대화 및 지원전략 마련에 동참

3. 에티오피아 요구내용

에티오피아에서 국가발전의 기본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는 GTP(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는 농업부문을 성장엔진으로 하는 소위 ADLI(Agricultural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전략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정부는 다른 부문을 포함한 경제성장이 농업부문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에티오피아에서 농업성장은 단순히 농업부문 자체의 성장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국민의 83%가 농촌에 거주하고 하고 있고 GDP의 46%와 외화획득의 80%가 농업부문에서 만들어지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전략에 맞추어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일정수준의 농업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에티오피아 농업개발이 모두 순조롭게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양한 형태의 제약요인들이 농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팀은 농업부(MOA), 재정경제개발부(MOFED), 농업구조전환청(ATA), 주정부 등 연방 및 지방정부를 방문하여 면담한 바 있다. 이 면담과정을 통하여 현행 농정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거나 에티오피아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순조로운 추진이 어려워 외부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현재 ODA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포함).

① 농업연구와 농민지도 등을 통하여 영농현장의 농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②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
③ 종자 또는 종축개량 등을 포함한 농업자재 개선 사업,
④ 상대적으로 농업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

위 분야 중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현재 크고 작은 규모의 관개시설이 개발되고 있고, 지방단위에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소규모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강우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우기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가두었다가 다시 농장에 돌려주기 위해 웅덩이를 파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가뭄 등 기상변화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실정이다.

한편 연방 농업부, 오로미아(Oromia) 주정부, 농업연구원(EIAR) 등이 농업발전을 위해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제시한 과제는 농민훈련을 통해 농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농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민역량 강화사업"이다. 다른 농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연방정부의 정책과 추진계획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또 성과 면에서 지역 간에 많은 편차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책이 일선에 도달하여 계획대로 시행되고 영농현장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국제적인 도움이 요청된다는 것이 면담기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농민역량 강화사업>

사실 에티오피아 농업발전을 결정짓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의 영세소농들이다. 이들이 전체 농업생산의 95%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GTP 농업정책은 절대다수의 영세소농들이 자본집약도가 낮으면서도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체득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성장의 기본 축이 되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전략으로 규정하여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 영세소농들에게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에티오피아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체는 정부뿐이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발전전략에 따르면, 농업발전의 성공여부는 이를 이끌만한 역량이 있는 영세소농을 얼마나 배출하느냐의 여부에

달여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 되어 농민역량 강화 사업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는 셈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는 영농현장에서 토양개량, 영농방법개선, 농업기술확산, 유통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관과 전문요원들로 이루어진 농민지도시스템구축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교육대학(ATVET)을 통하여 작물, 축산, 천연자원관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6만 명 이상의 농촌지도사(DA)를 이미 양성하여 그 중 45천명이 DA로 활동하고 있고, 전국의 모든 Kebele에 농민훈련센터(FTC)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위 세계최대의 농민지도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작물, 축산, 자원관리에 관한 기술과 선진자재 활용이 늘고 농업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DA인력의 미충원, 인센티브 부족,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취약에 따른 훈련기자재 및 시설부족 문제 등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정책적인 의도와 달리 일선에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농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차질을 빚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민역량 강화와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은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이며, 이를 위해서는 R&D기능의 활성화가 핵심이다. 에티오피아 농업 R&D의 주축인 농업연구원(EIAR)은 밀, 옥수수, 수수 등 일부 식량작물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축산 등 다른 분야 연구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농업기술보급 시스템이 R&D기관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여, 수년간의 R&D 투자와 노력의 결실이 생산성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4.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 농업·농촌개발을 위해 어떠한 분야를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는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일이다. 즉 아직 현지에서 검증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전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성과 중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찾아내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제조업 등 비농업부문에 식량과 원료 그리고 질 높은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압축적인 성장과정을 뒷받침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경제발전에 성공하였으나 농업·농촌의 위상이 바뀌면서 비농업부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어, 이제는 부분적으로 정부의 보조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과연 우리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이 다른 나라에 전수될 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며 국제적으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은 나라에 속하는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의 농경지(초지포함)보다도 더 작은 180만ha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좁은 농경지를 활동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농업의 생산성은 농업선진국인 이들보다 월등히 높다. 즉 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곡물, 채소 과일 생산량은 이들 국가보다 2배~10배가 많으며 육류생산량도 뉴질랜드보다 많고 네덜란드의 70%를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표 5-1). 이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며, 한국의 농업·농촌이 다른 나라에 전수할만한 가치 있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표 5-1> 한국,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농업생산 관련지표

	단위	한국 (A)	뉴질랜드 (B)	네덜란드 (C)	A/B (%)	A/C (%)
농지면적	천ha	1,800	3,821	2,190	47.1	82.2
ha당 농업생산액	US$	9,090	2,420	8,880	375.6	102.4
곡물생산량	천 톤	6,817	899	1,861	758.3	366.3
채소생산량	천 톤	9,994	960	3,616	1,041.0	276.4
과일생산량	천 톤	2,504	982	612	255.0	409.2
육류생산량(지육)	천 톤	1,742	1,430	2,423	121.8	71.9

자료) 이정환, “한국농업, 주눅들 이유 없다”, GS&J 시선집중 제 142호, 2012.8(재편집)

물론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과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1970년대까지는 농촌빈곤과 식량부족 해소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가 핵심과제였다. 1980년대에는 도시·농촌간의 소득불균형 극복에,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농촌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적지 않은 오류와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이제는 농업·농촌의 기본 패러다임까지도 변화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가 걸어온 이 험난한 과정을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에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이기도 하다(박영호 외 2009).

- 첫째, 1950년 농지개혁을 통해 비록 작은 규모지만(3ha 상한) 많은 소작농을 농지소유권이 보장된 자작농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생산과 농가소득증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둘째, 1975년을 기점으로 쌀 자급을 달성함으로써 기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농업 R&D기반과 기술보급체계 정비, 선진 영농기술 보급, 생산기반정비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며, 그 결과 우리의 농업생산성(특히 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와있다.
- 셋째,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극심한 농촌빈곤을 극복하였고, 1980년대 이후의 농촌종합개발로 농촌의 생활환경과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를 찾아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사한 목적을 가진 선행연구결과들이 있으며, 그중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분야와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1(정기환 외, 2011)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이룩한 농업·농촌개발의 성공요인을 정부주도형 개발, 실천가능한 농업기술보급,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발, 지역사회조직을 통한 주민 참여형 개발 등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 농업·농촌개발협력 모형의 틀을 <표 5-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5-2>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 선행연구(1)

비교우위분야	개발협력 세부내용
식량작물 분야	• 녹색혁명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다수확 쌀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 쌀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운용을 통한 자급달성 경험 • 쌀 과잉재고 관리과정에서 개발·활용된 수확후관리 기술과 경험 • WTO체제 출범이후의 쌀 시장기능 활성화와 쌀 브랜드화 사업 경험
원예 분야	• 백색혁명을 이끌어온 시설원예와 신선한 채소의 주년재배기술 • 과수묘목의 바이러스진단기술과 감염되지 않은 무독 묘 생산기술 • 볏짚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기술과 버섯재배의 산업화 경험 • 비 가림 시설원예 기술과 텃밭 조성을 통한 식량문제해결 경험
축산 분야	• 가축능력개량기술과 수정란 이식을 통한 종축개량기술 • 가축 질병예방과 조기진단기술 및 효율적 가축방역제도 구축·운용 경험 • 소규모 유가공 시설 및 유제품 가공기술
농촌지역 개발	• 새마을운동 방법론을 적용한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 시범사업 • 새마을운동을 적용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광역화 경우 정책 컨설팅 • 농촌지역의 소도시를 개발하는 21세기형 농촌지역종합개발 프로그램
농촌인프라	•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개발 기술과 경험 •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과 경지정리 기술 • 간척 또는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기술 및 경험 • 농촌지역의 도로와 농로 개설

자료) 정기환 외, “농촌개발협력 프로그램 연구”, KOICA 연구자료, 2011.3(연구자 편집)

2) 선행연구 2(송유철 외, 2012)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개도국들의 농업환경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중급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곡자급을 달성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소유상한이 3ha로 묶인 소농중심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험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와 경험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개도국들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표 5-3>과 같은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표 5-3>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 선행연구(2)

비교우위분야	개발협력 세부내용
개별농가 경쟁력강화	• 백색혁명을 이끌던 비닐하우스 보급 및 현지화 • 종자개량을 통한 생산성과 소득증대 및 토양비옥도 향상 • 식량작물 지원으로 수출작물의 다양화 및 농산물 품질개선 • 농업연구인력 양성 및 기술보급시스템 구축 지원 • 교통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농민들의 시장접근성 강화 • 농협결성과 경험전수 등을 통하여 생산자조합의 활성화 유도
소농을 위한 지원	• 텃밭의 식량작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식량문제해결 • 종자, 비료 등 농자재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농업기술연구와 대 농민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작물 생산성향상
지역시장 활성화	• 농산물유통체계구축을 위한 시장운영자 및 공무원 교육 • 지역의 도소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시설 개선
수확후관리 기술	• 지역단위의 소규모 가공시설을 설립하여 부가가치 제고 • 중규모 가공공장의 경우 관계자교육을 통한 성공적 운용 유도
축산분야 지원	• 마을단위의 간단한 우유생산시설 및 냉장보관시설 보급 • 냉장보관과 유통이 가능한 도축시설과 정육유통시설 • 유제품 가공기술보급 및 시설제공을 통한 농가소득증진

자료) 송유철 외,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KIEP ODA정책연구, 2012.12 연구자 편집)

3) 선행연구 3(허장 외, 2012)

이 연구는 1차적으로 문헌검토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 발전과정에서 개발·활용된 기술과 경험 가운데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2차적으로 이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통해 검증된 내용을 보완하여 소위 국제농업협력 기본모델로 다음과 같이 7가지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표 5-4>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 선행연구(3)

비교우위분야	개발협력 세부내용
쌀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 벼 종자개량과 투입자재 사용 확대 등을 통한 토지생산성 제고 • 농경지정비와 쌀 농업의 기계화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 가공, 저장 등 수확후관리와 유통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원예작물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 품종개량을 비롯하여 집약적 재배를 위한 시설 및 자재 공급 • 가공, 포장 등 수확후관리와 유통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축산업 발전체계	• 인공수정 등을 통한 축산물 생산성과 품질제고 기술과 경험

비교우위분야	개발협력 세부내용
구축	• 생산·판매 전 과정에 걸친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위생관리
농업 인프라 구축	• 현지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농업용수개발과 효율적 활용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지도	• 품종개량 등 새로운 농업기술연구와 개발 • 대 농민교육과 선진농업기술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촌지역종합개발	•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을 조직화하고 스스로 농가소득 증대, 농촌인프라 확충,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추진 지원
농업정책 종합컨설팅	• 세부 분야별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우리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공유

자료) 허장 외, “우리나라 국제농업·농촌협력 기본모델구축 연구”,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012(연구자 편집)

“농업·농촌 부문에서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은 다소 산만해 보일 수 있지만, 모두 우리의 농업·농촌 발전성과와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그 결과도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찾기 힘들다.

즉 각 연구결과들이 외형상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대상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아 큰 틀에서 이들의 공통점을 도출해내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작목: 쌀, 원예, 축산 분야의 생산 및 유통관련 기술과 경험
② 기능: 농업용수 등 농촌인프라 개발,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③ 기타: 새마을운동형 농촌지역종합개발

5. 실제 에티오피아 지원 실적

앞으로 KOICA의 에티오피아 지원에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또 다른 요소는 우리가 실제로 지원한 실적이 있는 분야를 점검해보는 것이다. 이는 이미 4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

축산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관개시설 개보수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 개발사업 같은 “농업용수개발사업” 경험이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제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농업연구 및 기술교육사업”으로 여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관련 정책컨설팅(KAPEX) 사업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현지의 농업기술센터(KOPIA)와 최소한의 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물 관리기술 지원 사업(KAPACI)이 있다. 세 번째는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KOICA의 아르시(Arsi) 지역종합개발사업, 경상북도가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시범마을사업, 그리고 LG그룹이 지원하고 있는 LG Hope Village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6. 지원적합분야 검토종합

“KOICA 농림수산부문 전략”에 의한 에티오피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① 정부의 에티오피아 지원 CPS내용, ② 에티오피아 현지의 지원요구, ③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그리고 ④ 우리의 실제 지원 실적이 있는 분야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KOICA의 전략목표와 중점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이 네 가지 검토결과를 한 표로 정리하면 <표 5-5>와 같다.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의 네 가지 요건과 모두 합치하는 분야는 “농업용수 개발”과 “농업연구 및 기술교육”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 외에 우리 측의 지원전략, 비교우위, 실제지원 실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에티오피아 측의 우선순위와 관심이 높지 않은 분야로는 “농촌지역종합개발”이 있다. 그런데 우리 CPS는 지역종합개발 형태의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새마을경험 등과 관련하여 나름의 비교우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우리가 적극성을 보이며 지원에 나선 분야이긴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사정은 다르다. 우선 농정을 추진하는 방식이 이와 다르고 현재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농업용수 개발과 같은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과 농업기술훈련을 통한 “농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에티오피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 CPS 전략과 에티오피아의 지원수요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 CPS가 제시한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외형상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종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부대적인 성격의 사업인 주거·교육·보건위생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제외하면 핵심적인 내용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이며 그 수단은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영농기술전수사업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정확하게 에티오피아가 요청하는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교우위와 실제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측의 차이를 보완하고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청과 우리 CPS를 동시에 수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모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보완을 전제로 하여 KOICA의 지원이 적합한 분야로 첫째 “농업연구 및 기술교육”, 둘째 “농업용수 개발”, 셋째 “농촌지역종합개발” 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표 5-5>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지원 분야 비교검토

KOICA 전략목표	KOICA 중점 프로그램	에티오피아지원 CPS	에티오피아의 요구내용	우리의 비교우위	실제지원 실적
농촌인프라 구축	농업생산인프라 확충	(시범지역에 관개시설 등 생산인프라 구축)	지역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농업용수개발	농업용수 등 농업생산인프라 개발	-관개시설개보수/농식품부 -소규모 관개시설개발/농식품부
	전력과 통신시설 확충	x	x	x	x
	농촌주거환경개선	(주택, 보건, 교육 사업)	x	x	x
농업생산성 향상	생산자조직육성 지원	(지역주민 자치조직 지원)	x	x	x
	농업기술지원	(시범지역에 영농훈련 센터건립 및 기술교육)	-농업연구와 기술교육을 통한 농민역량 강화 -종자 등 농업자재개선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쌀·원예·축산 기술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관련 정책컨설팅(KAPEX)/농식품부 -농업기술센터(KOPIA)/농진청 -물 관리기술(KAPACI)/농진청
	농업정책역량 강화	x	x	x	x
농산물시장 접근성개선	농산물 가공처리	x	일부지역 농업을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	x	x
	농산물 유통망개선	x	x	x	x
	농산물 마케팅활성화	x	x	x	x
	농산물 수출역량 강화	x	x	x	x
농가소득원 다양화	농촌금융 활성화	x	x	x	x
	직업훈련 지원	x	x	x	x
	농공단지개발 지원	x	x	x	x
	관광상품개발 지원	x	x	x	x
농촌지역종합개발 (시범지역 선정)		시범농촌지역종합개발	x	새마을 형태의 농촌지역종합개발	-아르시 지역 농촌개발/KOICA -새마을운동시범마을/경상북도 -LG Hope Village/LG그룹

제2절 KOICA의 사업시행방법

1. 원조 일치 및 원조 조화

에티오피아 지원 CPS 농업·농촌부문의 핵심내용인 농업기술훈련과 농업용수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전략은 GTP, AGP 등 에티오피아가 추진 중인 농정과 기조를 같이 하고 있으며 다른 공여국의 전략과 다르지 않아 원조일치 및 원조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접근방법 측면에서 우리 CPS는 농업기술훈련 또는 농업용수개발 등 정책의 기능적 요소를 따라 접근하지 않고 지역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 에티오피아 정부의 정책이나 선진 ODA공여국의 전략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기술훈련, 농업용수개발 등 정책의 기능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연방정부에서 Kebele까지 Top-down 방식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 ODA기관들은 이러한 농정의 세부시책 중 특정단계나 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함으로써 에티오피아 정책과의 원조일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CPS는 특정 정책이 아닌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중심에 놓고 그 지역의 농업생산성증대 사업들을 주거·교육·보건위생 사업들과 같이 추진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접근방법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전략과 대상정책의 일부요소를 선정하여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 ODA기관 및 에티오피아 정부의 전략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CPS 실행계획이 외형상 원조일치와 원조조화를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외형상의 기준과 달리 내용상으로는 에티오피아 정책이나 선진 ODA기관들과는 다른 전략을 택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소한 에티오피아 농업부문에 관한 한 CPS가 형식상으로 원조일치와 원조조화 기준을 명시해 놓고서도 내용면에서는 스스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CPS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KOICA로서는 원조일치와 원조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 모순을 보완해야하는 과제를 마주한 셈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PS가 제시한 지역종합개발 방식을 추진하되 프로그램의 외양을 에티오피아 정책기조 및 요소와 연계시켜 일치시키는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정부의 책임감과 협조

우리 CPS 전략은 기술훈련과 관개시설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농업부의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협조할 수도 있는 요소를 갖춘 전략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이나 사업이 정부의 어떤 정책 어느 단계 사업인지에 대한 색깔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 정책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정부의 담당부서가 분명해지고 책임감을 갖고 일상적인 업무에 협조하여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CPS는 정책 대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종합 개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훈련,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성 향상정책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들이 시범마을의 주거·교육·보건·위생 환경개선 등 지역적 요소들과 희석되어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본래의 색깔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정책과 관련한 사업의 분명한 컬러가 없어 정부의 무슨 정책, 어느 단계 사업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정부 내에서 소유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협조할 부서가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거나 형식적인 협조에 그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만일 이처럼 정책적 접근대신 지역적 접근을 택하여 정부의 책임감과 협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사업이 고립되어 시범지역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Bottom-up 방식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처럼 힘들고 효율성 낮은 시나리오에 접근하는 상황을 피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정책기능을 부각시켜 이를 현행 정부 관련부서의 정책에 편입시켜 추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3. 사업의 지속가능성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종합개발 유형의 접근을 하는 방법은 성질상 정부기관 등이 사업운영주체가 되기 어려우며 KOICA가 육성하는 주민자치조직 등이 운영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주민을 상대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에는 여러 형태의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접근방법은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지원기관이 떠나고 지원활동이 종료되면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전적으로 주민자치조직의 역량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사업내용에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많은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에티오피아 북쪽의 티그레이(Tigray)주 코라로(Koraro) 마을에서 시행중인 Millennium Village Project(이하 MVP)는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MVP는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가 소속된 컬럼비아 대학의 The Earth Institute, 그가 주도하는 Millennium Promise라는 NGO, 이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UNDP, 지역사회와 주민 등 세계적으로 여러 주체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형 다자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CPS가 제시하고 있는 단순한 구조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모가 다를 뿐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이라는 본질에서는 우리 CPS 전략과 별 차이가 없는 개념이다.

MDG 달성을 목표로 2005년에 시작된 코라로 마을의 MVP는 새로운 ODA사업 추진방식으로 주목받으면서 5년간 많은 지원과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계획대로라면 이 지원을 바탕으로 5년 후에는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이 늘어나 자립 가능한 상업농마을로 전환되었어야 하나 2010년 당시의 현실은 달랐다. MDG 달성이 불확실하고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업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코라로 마을의 MVP가 1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성공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기간 연장 후 추가지원을 위한 국제적 기부가 여의치 않고 자생적인 지속가능성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후 주민자치에 의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그만큼 어려움을 짐작하게 하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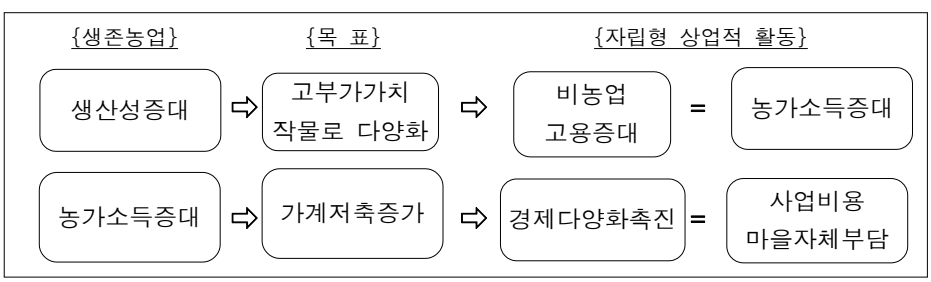
따라서 사업지속가능성을 주민자치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부분적으로 사업의 기능을 분리하여 정부정책과 연계시키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기관이 시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기간 종료 후의 관리주체가 종료 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사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현장사업의 시행을 정부기관에 위임할 할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 외에 KOICA로서는 원조 일치와 원조 조화, 수원국정부의 책임감과 협조, 지원사업의 파급효과, 관리비용 절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KOICA와 현장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급 감독기관 등에 관계자를 파견하고 현장상황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등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글상자 5-2] Millennium Village Project(MVP) - 코라로 마을

o MVP 목적: MDG 달성
- (a) 기아해소를 위한 식량증산, (b) 말라리아 예방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c) 안전한 식수공급, (d) 보편적 초등교육실현, (e) 교통통신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한 교류기반 구축 등

-MVP가 MDG 달성으로 가는 경로(Sachs 2008)



o MVP 대상지역: 티그레이(Tigray)주 코라로 마을
- 강우량이 500mm 밖에 안 되는 건조지대에서 가뭄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척박하고 고립된 지역으로 11개 마을, 17천 가구, 68천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o MVP 성과
- 관개면적확대, 비료와 개량종자 투입, 작목다양화 등을 통해 평균 72%의 소득증가
- 양봉업을 도입하여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양봉시설과 양봉협동조합 설립
- 5개의 보건지소와 6개의 초등학교 신축
- 모든 학교에 여학생 클럽을 조직, 중퇴예방과 진학 등을 통해 양성평등 기반강화
- 식수를 위해 매일 두 시간 이상을 걷던 6,000명에게 안전한 식수공급
- 20km 이상의 도로건설로 마을과 외부세계를 연결(Millennium Villages,

http://millenniumvillages.org/the-villages/koraro-ethiopia/)

o 사업비와 재원
- 소요예산: 1인당 110 달러 x 68천명 = 7,480천 달러(매년 같은 규모의 재원투입)
- 110 달러: 국제기부자 50+ 에티오피아 정부 30+ 파트너 기구 20+ 주민 10
- 사업비배분(%): 보건의료 30, 교육 20, 인프라 20, 농업/영양 15, 식수/환경 15

o 코라로 MVP 현황
- New York Times(2010.1.15.) 기사: "Millennium Promise"의 CEO가 사업기간 연장 후 국제적인 기부가 여의치 않아 지방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걱정

4. 사업대상지역 선정

CPS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지원 사업이 농업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4개 주(암하라(Amhara), 오로미아(Oromia), SNNP, 티그레이(Tigray))의 80개 Woreda를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CPS의 이러한 전략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AGP에 중점을 둔 결과로 보이며,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고 한정된 기간 내에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AGP를 지나치게 중시한 결과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정책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하고 대상지역을 무리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KOICA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상지역선정을 AGP 전략에 따라 이미 국제적인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4개 주를 선택함으로써 빠른 효과성을 추구할 것인지, 반대로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을 선정하여 “열악한 여건-낮은 발전 잠재력-정부지원 소외-빈곤의 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인지는 지원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참고로 지원 사업범위를 AGP 외에 PCDP, SLMP, PSNP 등 다른 정책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CPS와 달리 자연스럽게 사업대상지역이 넓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사업시행방법 검토종합

KOICA의 사업시행방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CPS 상의 영농훈련센터건립을 포함한 농업기술교육 기능을 개념상으로 분리해서 에티오피아 정부의 우선순위가 높은 농민역량 강화사업의 일부로 편입하여 추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CPS 사업은 핵심사업인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외형을 전환하여 정부의 관련정책과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지역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현지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개념상 별개인 농업기술교육사업과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지역적으로 연계시켜 같은 대상지역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CPS가 의도한 시범현장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고 정부기관 중심의 사업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별로 더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제3절 KOICA의 지원방안

1. 농민 역량 강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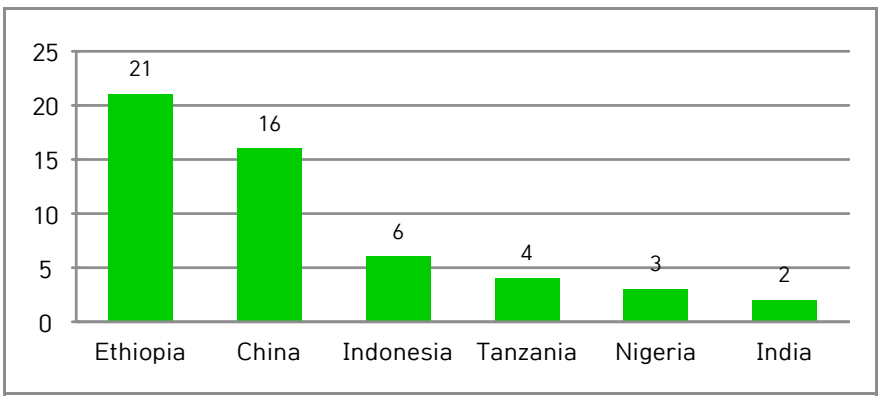
가. 농민 역량 강화와 농민교육

에티오피아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발전전략의 기본 축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발전주도형 산업화전략(ADLI)"을 실제로 구현하여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할 주체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영세농민들이다. 이들이 정부계획대로 농업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에티오피아가 소위 "농민의 역량 강화"에 그토록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을 중시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농민들로 하여금 선진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농민교육을 핵심정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농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는 연방농업부이다. 농업부는 기술보급정책을 수립하고, 주정부에 농민교육과 관련된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농업부 산하의 준 독립기관인 농업연구원(EIAR)은 농업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과 주정부의 분권화된 연구소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농업·농촌개발국이 관내 Woreda와 Kebele에서 이루어지는 농민교육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각 Woreda에는 30명 내외가 근무하는 농촌지도소(Offices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OARD)가 있으며, 농촌지도소는 지원부서 외에 5개의 핵심과(농업개발과, 천연자원과, 자원보호/토지관리과, 농업용수/도로과, 농업자재/협동조합과)가 있고, 농업개발과가 농민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개발과는 다시 분야에 따라 작물생산, 축산, 자원관리, 농민교육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사(이하 DA)의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10명 내외의 분야별 전문 인력인 소위 SMS(Subject Matter Specialists)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를 갖춘 정부의 노력으로 DA와 농민훈련센터(이하 FTC), 그리고 농업기술 교육대학(이하 ATVET)으로 이어지는 농민교육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면서 매년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지금까지 6만명이 넘는 DA 후보자가 양성되었고 그중 4만 5천여 명이 FTC에서 DA로 활동 중인데, 앞으로 모든 Kebele에 FTC가 설치되어 가동되면 6만명의 DA가 활동할 예정이다. Kebele에 설치되어 있는 FTC 숫자가 이미 1만 2천 개에 달하며 전 Kebele를 대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 규모면에서 보면 소위 "세계 최대수준의 농민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림 5-1] 주요 개도국의 농민 1만 명당 농촌지도사(DA) 수



자료) Kristin Davis et al.,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the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in Ethiopia",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2009.8

그러나 아직도 도입단계인 농민교육시스템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분권화된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지역편차가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수한 기술이 개발되었는데도 기술보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실제 농민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연방정부가 공공부문의 많은 에너지를 모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역량 강화사업과 현장의 농민교육시스템 간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의 간극이 존재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응하여 KOICA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 이룬 성과와 제약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민교육시스템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을 통해 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하나는 Bill & Melinda Gates 재단이 실시한 연구로 에티오피아 농민교육시스템을 Kebele, Woreda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 그리고

ATVET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지금까지의 성과와 제약요인을 정리하였다(Davis et al. 2009). 다른 하나는 2014년도에 민간전문기관이 AGP정책 대상지역인 4개 주의 농민교육활동을 평가한 보고서다(Dynamic Development Studies and Capacity Building Consult PLC 2014). 이 두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현행제도의 성과와 제약요인

1) Kebele 단계의 성과와 제약요인

Kebele는 농민교육활동의 중심인 FTC가 있는 곳이며, FTC는 지역농민들이 정보, 강의, 실습,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종합영농지원센터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Kebele가 1.0~2.5ha의 토지를 FTC 부지로 배정하고, FTC 사무실과 교실이 있는 건물, DA숙소, 축사, 식수공급시설,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 창고, 그리고 시범포장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FTC에는 작물, 축산, 자원관리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3명의 DA가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DA들은 자기 전문분야 보다는 훨씬 넓은 영역의 업무, 즉 ① 농민교육훈련, ② 선진농업기술 보급, ③ 영농과 시장관련 정보의 수집·분산, 그리고 ④ 개별농가의 농업경영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FTC의 시설비와 인건비 등은 Woreda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특히 운영경비지원이 거의 없어 시범농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여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그동안 이룩한 Kebele단계의 농민교육 관련 성과와 제약요인을 정리하면 <표 5-6>과 같다.

<표 5-6> Kebele 단계 농민교육 성과와 제약요인

	성 과	제약요인
기초 시설과 재원	• 2004년 이후 약 12천개의 FTC 건립 • 지방정부 재정여건, 주민참여, 외부지원 여부에 따라 각 FTC의 운용상황이 다양함	• FTC가 설립되었으나 여건미비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여건이 양호한 AGP 4개주의 경우 가동률 29%) • FTC 건물, 시설, 기자재의 질과 량에 많은 편차가 있고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 및 음료수 공급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시간 교육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음 • 시범포장용 토지가 배정되었으나 미개발상태가 많고 개발된 경우에도 이를 활용한 FTC 수익창출 개념이 희박 • DA의 숙소 및 적절한 교통 통신수단이 없고 FTC 운용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 문맹자들이 많은데도 시청각기자재 등 별도교재가 없고 있더라도 FTC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DA의 지식과 역량 (인력 개발)	• 63천명의 DA 교육 완료(3년의 Diploma 과정) • 일부에서 근무 인센티브로 우수 DA선발 보상제 시행(대학장학금, 봉급인상 등)	• DA역량: 좁은 기술지식, 기술교육중심 사고로 농업경영마인드 부재, 농민참여확대에 대응역량 부족 ⇨ 다양하고 광범한 농민요구에 효과적 대응미흡 • DA입장에서는 근무 인센티브가 낮고 장래진로가 불투명하여 업무만족도가 낮고 이직이 잦음 • DA가 모두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 중인 FTC가 많고, DA가 충원되었더라도 교육, 승진, 잦은 이직, 성격이 다른 잡무 겸임 등으로 교육에 전념 곤란 • DA들 외에 연구소, 대학의 외부강사 활용실적 미미
FTC 운용 시스템	• 농민중심의 FTC를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농가, 여성, 청년단체 대표 포함(일부)	• FTC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에 선임 • DA 중심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고 농민들의 요구와 무관한 교육주제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시행 • 1회성 단기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 시기가 농번기와 겹치거나 교육주제와 실제 영농활동이 계절적으로 맞지 않아 현장실습이 어려운 사례가 많음 • 여성농민의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연료나 식수공급 등 여성의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은 미흡 • 교육수준, 연령, 작업능력 등이 서로 다른 농민들을 같은 교실에 수용하여 교육효과가 제한되는 사례가 허다

2) Kebele 이상 단계의 성과와 제약요인

실제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자문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FTC가 위치한 Kebele 단계지만 농민교육정책의 성과와 제약요인이 Kebele 단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FTC의 상급기관인 Woreda에는 DA 감독관과 전문가가 배치되어 FTC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DA와 FTC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Woreda, 주정부,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이룩한 농민교육 관련 성과와 의도된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을 정리하면 <표 5-7>과 같다.

<표 5-7> 행정단계별 농민교육 성과와 제약요인

	성 과	제약요인
Woreda 단계	• 7천명의 SMS를 Woreda에 배치해 DA훈련을 추진하고, DA, ATVET, 연구소를 연계하는 기능 수행 • 4천명의 DA 감독관을 Woreda에 배치해 DA활동을 지도감독	• SMS의 경우 교통통신이 여의치 못하여 기술지원이 어렵고, 학사학위 취득 후 바로 채용된 신임 SMS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실무교육 필요 • 현장의 우수 영농사례 등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SMS와 DA간의 Networking이 필요하나 그러한 모임이 없고 모두 한자리에 모일만한 사무실 공간도 부족 • Woreda 단위 행정에서 농민훈련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 교육이 정치적인 행사 등에 밀리는 경우도 많음 • Woreda 감독관이 DA 활동상황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절한 이동장비가 부족하여 이행이 미흡
주정부 및 연방 정부 단계	• 연방의 분권화된 농민교육 시스템은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에 효과적 • 주정부는 농민교육현장 관계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상벌조치	• 농가와 DA 등의 현장의견이 연방과 주정부 연구소의 연구과정에 반영되지 못하여 연구와 지도가 분리됨 • 농민훈련 기관과 연구소, 대학, 농민단체, NGO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미흡 • 많은 주에서 농민중심의 새로운 교육대신 식량작물의 표준화된 생산방식 등 일률적인 교육방침이 하달됨

3) ATVET 단계의 DA교육 성과와 제약요인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민들의 교육훈련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FTC 근무요원인 DA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ATVET를 설립하였다. ATVET의 등장은 종자, 비

료, 농업금융 등 대량생산자재 공급에 치중해온 종전의 기술보급정책이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다. 사실 ATVET 등장 이전에 시행되던 공급위주의 농민교육정책은 영농여건이 양호한 지역 이외의 가난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지역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기관의 정책을 피동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기술보급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3년제 Diploma 코스인(2년 학교교육, 1년 실무수습교육) ATVET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하나는 연방 농업부 소속의 7개 ATVET이고, 나머지는 주정부 또는 교육부 소속의 ATVET이다. 작물, 축산, 천연자원 과정은 모든 ATVET에 설치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일부 ATVET는 수의와 협동조합 과정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학기 16~17학점을 수강하며 Diploma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규정대로 최소한 7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ATVET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학사운영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농업부에서 하달된 운용규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직 역사가 일천하지만 그동안 이룩한 ATVET 단계의 DA교육 관련 성과와 제약요인을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표 5-8> ATVET 단계의 DA교육 성과와 제약요인

성 과	제약요인
• 강의실, 도서관, 실험시설 등을 갖춘 25개의 ATVET를 설립하여 6만 명 이상의 DA후보자배출 • DA양성 기본과정 외에 일부 ATVET는 재직자 과정, 분야별 단기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 • 일부 ATVET는 실습 및 수익목적의 시범농장운영 일부 ATVET는 지역의 DA, NGO,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업기술 Workshop 등의 지역 활동	• 재원부족으로 인한 교육기자재 부족(Internet 연결 불가사례)과 대체수단 확충노력부재 • 실용성이 부족한 교과과정: ⓐ기술교육 이외에 의사소통, 주민동원 등과 관련된 과목부재, ⓑ실험실습여건 부족으로 강의위주 교육, ⓒ시장 지향적인 교육부족으로 현장수요 미반영, ⓓDA가 기술적으로 너무 특화되어 있어 현장 의 종합적인 요구에 대응 미흡 • 농산물 비출하기에 실무수습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부족했던 시장경험 보완기회 상실 • 대부분 ATVET는 DA, FTC, 연구기관과의 체계적 연계가 미흡하여 교육결과 환류기능부재

다. KOICA의 지원방안

1). 농민역량 강화사업

가) 농민교육사업 기획

에티오피아 농정의 핵심인 대규모 농민교육 사업은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가고 있으나, 계획과 달리 현장의 시스템이 재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지원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는 FTC 기능을 활성화하고 농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현장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KOICA가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 가지의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상향식 접근(Bottom up-Approach)으로 기존 FTC 중 여건미비로 농민들의 역량 강화 기능을 재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곳을 선정하여 시설장비, 교육기자재, 전문인력, 운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Kebele 단위의 FTC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활동의 구심점으로 정착시키고 성공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구하는 농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략이다.

둘째는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ATVET를 선정하여 상향식 접근과 마찬가지로 시설장비, 교육기자재,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지원하여 이 기관의 설립목적인 DA 교육역량을 보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질 높은 농민교육을 실현하여 농민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접근을 결합한 통합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특정지역의 DA-FTC-ATVET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을 통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제약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접근은 각각의 특성이 있으며 상호 대립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개념인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이 사업은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농민역량 강화사업의 일부이지만, KOICA 입장에서는 CPS가 제시한 지원방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새로운 사업은 우리 CPS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종합개발 방식과 같은 상향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순조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 단계적 접근을 위해서는 특정 Woreda 내에서 우선 몇 개의 FTC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험을 쌓고 KOICA 나름의 자신감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기초로 다른 FTC와 차별화되는 성공모델을 이끌어내고 정부당국과 협의하여 이 모델을 동일한 Woreda 내의 인접 FTC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접근이다.

이와 같이 Kebele 단계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FTC 시각으로 파악되는 다양한 형태의 ATVET 지원수요를 축적·정리하였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해당 FTC와 같은 지역에 있는 ATVET를 대상으로 하는 하향식 지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FTC와 ATVET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DA-FTC-ATVET로 이어지는 해당지역의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농민역량 강화 사업의 일부인 만큼 ① 사업형성과 대상지역은 반드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중기발전구상을 염두에 두고 관내에 ATVET가 있고, ③ 후술하는 KOICA의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중심의 종합개발사업 대상 적지가 있는 Woreda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대상 Woreda와 FTC가 선정된 다음에는 FTC의 현황과 지원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성공으로 이끌어 확산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FTC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FTC 운용정상화 단계”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농민교육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FTC 운용활성화 단계”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활성화 되어 있는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FTC 성공모델 확산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FTC 외에 “ATVET를 같이 지원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단계별로 추진할 과제와 현행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약요인들을 감안하여 각 단계별로 추진해야할 주요과제들을 정리한다.

나) FTC운용 정상화 단계

FTC가 농민교육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초 인프라를 갖추고 3명의 DA가 이끄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기초 시설로는 정부(Kebele)로부터 토지를 배정받아 그 위에 적절한 시설을 갖춘 건물(사무실, 교실, DA숙소, 축사, 식수공급시설,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 등)과 시범포장을 갖추어야 한다. 또 교육계획과 함께 FTC 관리규정을 구비해야하고 이에 따라 FTC 관리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개시 전에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FTC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첫 단계의 과제이다. FTC의 정상가동을 위한 최초단계에서 추진해야할 주요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추진과제>

- 현재의 FTC건물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해당 Kebele 단위의 지역사회 교육센터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내구성 있는 건물, DA집무용 책상과 의자, 교육생용 책상과 의자, 칠판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되, 교육기자재 확보 문제는 전기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그 상황에 적합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농민들이 필요할 때 DA를 만날 수 있도록 FTC 내 또는 인근에 기본생활용구가 비치된 DA용 숙소를 마련해야 하고 DA는 정해진 시간에 FTC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또 DA가 방문지도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운송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Kebele의 도로교통 사정을 감안하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말, 당나귀, 낙타 등 적절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통신의 경우에는 공무에 한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되 일정액의 사용료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 FT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인 “FTC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여성농민, 목축농민, 청소년농민, 농민협동조합, DA 등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행정기관인 Kebele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선임 DA가 총무역할을 하면서 안건준비와 후

속조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FTC 관리위원회”는 Kebele로 하여금 소유의식을 갖게 하여 협조와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다) FTC운용 활성화 단계

FTC가 기본적인 모양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현장의 농민교육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검토 시행되어야 한다. 영농교육과 전시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시설장비, 교육기자재, 교육과정운용 매뉴얼을 갖추어, 일정한 수의 교육훈련이 원활하게 계속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시범포장의 전시와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 이 단계에서는 Woreda의 농촌지도소와 협조하여 DA와 SMS의 보직관리 경로를 개발하고, FTC가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FTC의 운용활성화 단계에서 추진해야할 주요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추진과제>

- 지역농민의 수요와 일치하는 FTC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농가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주제를 파악하고 교육을 통해 보충해야할 현실과 목표 사이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농번기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양한 농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주제를 정하되 그들이 필요로 하는 패키지 형태로 준비되어야 한다. 교육 모드는 철저하게 농민들의 관심, 문화, 교육배경, 경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다양해진 농민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DA 재직자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Woreda가 주관하거나 ATVET와 협조하여 DA가 지역농업에 적합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농민 위주의 교육시스템 운영, 지역농민들과의 소통방법, 시장지향적인 경영마인드, 조직적인 정보공유 촉진방법 등을 체득하게 하는 방안으로 관련 토론회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농민교육은 일종의 성인교육이기 때문에 경운, 파종 등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론과 실습이 합리적으로 연계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 농가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기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문맹여부와 관계없이 피교육자들은 단순하고 잘 준비된 시청각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습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여성농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기술과 발전을 동시에 유도해야하며, 그와 같은 발전으로는 연료절약형 스토브 개발보급, 식수 접근성 제고, 기타 경제사회 발전 등이 있다.
- 농민교육 강사진에 농업연구기관, 대학, 민간부문 전문가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유관기관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반편성은 대상농가들의 관심사항, 강의내용의 수용 및 이해능력 등을 감안하여 동질성이 있는 농가들이 교육 클래스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FTC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면서 활성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성과를 이끌어온 DA의 실적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소위 “DA보직경로” 같은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근무의욕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정부(농업부, 주정부, Woreda)와의 협조를 전제로 가능한 일이지만, “DA보직경로”의 실례로 “초임 DA-선임 DA-농한기를 활용한 대학교육 장학생 선발-학사학위 취득-SMS 또는 DA감독관으로 승진-상위직위 승진”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FTC 성공모델 확산단계

FTC가 활성화되어 성공적인 모델이 가시화 되면 그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FTC가 운영하는 시범농장 등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해당 FTC와 ATVET, 협동조합, 미소금융, 연구기관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농민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성과관리제도와 DA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작업반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추진과제>

- FTC 시범농장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부족한 운용재원을 보충하여 FTC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수입원으로써의 의미가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시범농장이 시장과 연계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직접 보여주는 소위 시장지향적인 교육과정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FTC의 시범농장은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수익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 유관기관간의 교류활성화와 관련하여 Woreda 차원의 "농민교육연계센터(Woreda Extension Linkage Center: WELC)"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WELC는 DA와 SMS를 위한 정보·지식센터로서 서적, 연구보고서, 그리고 컴퓨터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다. 그뿐 아니라 SMS가 DA나 선도농가들을 교육시키거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교실/회의실도 갖추어져 있다.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이는 앞으로 KOICA 사업에 참고할 가치가 있으며 SMS와 DA가 정기적으로 만나 교육 또는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Woreda 차원의 연계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상자 5-3] FTC 시범농장운영 성공사례

o 해당 FTC: 티그레이(Tigray) 주 Atsibi Woreda에 위치한 시장지향형 FTC

o 주요활동: FTC가 젖소, 양, 닭, 꿀벌, 채소 생산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시범농장을 상업농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그 과정을 지역농민들에게 시현하여 시장접근방법 체득유도
  - 우유, 양, 달걀, 채소 등을 사고팔아 발생한 수익을 FTC의 교육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 수익의 기초 위에 주민들의 노력과 건축자재 기부가 더해져 FTC 건물과 시설보강

o FTC 시범농장운영의 수익모델 실례:
  - 8,000 Birr를 대출받아 젖 소 한 마리를 구입하여 2년여 동안 10,000 Birr의 우유 판매수입
  - 시험농장의 토마토와 닭 20마리가 낳은 달걀을 판매하여 연간 10,000 Birr의 수익 실현
  - 사육중인 15마리의 양이 낳은 새끼를 지역농민에게 외상판매 후 사후 정산(현금 또는 새끼 양)
  - 100개의 벌꿀 통을 구입하여 지역농가에 공급하고 이를 미소금융과 연계하여 상환토록 조치

~2008년 수지: 총수입 24,000 Birr, 총 비용 16,000 Birr(전액 미소금융기관 대출), 8,000 Birr의 순수익 실현(FTC의 선임DA는 순수익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현재 이 FTC는 시범농장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사례로 알려져 Atsibi Woreda내 다른 Kebele뿐만 아니라 티그레이(Tigray)주 내 다른 Woreda DA의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마) ATVET 지원 단계

FTC 지원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FTC 차원을 넘어서는 더 넓은 접근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ATVET 지원을 시작하여 DA-FTC-ATVET로 이어지는 패키지사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ATVET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추진과제>

KOICA가 ATVET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ATVET에 대한 정부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설립된 25개의 ATVET는 이미 6만 3천여 명의 DA교육 이수자를 배출함으로써 앞으로 DA양성을 위한 교육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DA양성 임무가 마무리되어 가는 ATVET의 향후 역할과 정책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TVET의 향후 역할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연구차원에서 ATVET를 퇴직자 충원을 위한 신임 DA 교육과 농업기술격차를 따라 잡기위한 DA 재직자교육 등에 활용하는 안, DA교육 외에 농민교육기능을 추가하는 안, 일부 ATVET는 전자와 같이 DA교육기관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후자와 같이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 되고 있다. 따라서 KOICA가 지원에 앞서 대상 ATVET의 장래향방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대상 ATVET의 계속존속과 수행해야할 역할을 확인한 후 이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우선적인 지원대상은 인터넷 접속시설, 실험기자재, 가축질병진단 및 치료시설, 온실, 농기계 등 시설장비가 될 것이며 정부입장에서 보면 DA 후보자교육 축소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을 이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Kebele 단계에서 농민들이 농업기술 전문가인 DA에 기대하는 역할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 DA외에 Woreda에도 SMS라는 이름의 분야별 농업기술지도 인력만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DA가 광범한 농민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ATVET 교육과정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DA교육 목적이 작물, 축산, 자원 분야의 전문가양성이 아닌 농정 최일선의 종합지도사 양성으로 바뀌고 FTC에서의 DA 역할도 그렇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 그러기 위해서는 ATVET의 교과과정이 농장경영, 농산물유통, 가치체계개발 등을 포함한 해당지역의 영농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도록 다시 설계되어야 하고, 재직 중인 DA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기과정을 운용하여 바뀐 역할을 이해시키고 상응하는 지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KOICA가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농민들에게 FTC는 각각의 전문지식을 갖춘 세 명의 종합지도사가 있는 곳으로 거듭나는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2. 농촌종합개발사업(소규모 관개시설사업)

가. 관개시설과 FTC중심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촌종합개발"이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가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한 가지 형태로 정형화된 모델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ODA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란 특정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외부지원을 활용하여 소득증대라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일상생활의 다양한 여건개선, 즉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농촌종합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요소가 농업뿐만 아니라 소득증대, 주민생활, 교육, 보건위생 등 다양하고,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전제로 하는 시범사업 성격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업뿐 아니라 제반여건이 취약하여 만성적으로 빈곤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촌빈곤은 어느 한 분야의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분야의 문제가 서로 얽혀있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지원하는 소위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 국제 NGO활동이나 MVP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그러한 실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에티오피아 종합개발사업의 특성과 KOICA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정책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동시에 통합적인 접근형태의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정부협조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바 있다. 이제 KOICA가 추진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기획되어야 한다.

- CPS가 제시한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주요 요소를 구성하고 있던 농민기술교육은 이제 별도의 농민역량 강화사업으로 분리되어 추진된다.
- 나머지 요소 중 에티오피아 농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가능한 요소는 소규모 관개시설사업(농업생산인프라 구축사업)이다.
- 이제 별도의 사업이 된 농민역량 강화사업과 농촌종합개발사업(관개시설사업)을 상호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유도하면서 사업의 성공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야하는 KOICA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축적될 때까지는 통합적 접근보다 소규모 관개시설사업부터 시작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KOICA가 추진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안을 제시한다.

- 초기에는 “소규모 관개시설사업”으로 외형을 갖추어 정부의 농업생산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된 “관개시설사업” 또는 “관개시설 중심의 종합개발사업”으로 출범
- 농민역량 강화사업과 농촌종합개발사업(관개시설사업)을 각각 추진하여 일정한 형체가 갖추어지면 같은 지역 내의 관개시설과 FTC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
- 이렇게 두 사업이 연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대상지역의 생활여건개선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FTC가 지역 활동의 중심이 되는 종합개발사업으로 마무리

나. KOICA의 지원방안

1) 1단계: 소규모 관개시설사업 추진

<대상지역 선정>

모든 ODA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고려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이 다소 복잡해 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사업의 외형인 관개시설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인 만큼 대상지 선정도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KOICA가 검토할 이 사업은 종합개발사업의 일부라는 점에서 단순한 관개시설사업과 다르며 대상지역선정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감안하여 사업기획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선정기준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관개시설사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기준: 가뭄과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이지만 농업용수개발 잠재력과 농업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 저수지 양수장/보 등의 건설입지에 적합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 용지매입 보상비용이 많지 않아 사업의 경제성이 큰 지역, 자재확보와 운반 등 공사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
- 종합개발사업에 요구되는 추가적 기준: KOICA가 지원하는 농민역량 강화사업추진대상 FTC가 있는 Kebele에 속하고 Woreda 농촌지도소와 거리가 멀지 않아 두 사업의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역, 대상지역의 주민과 지방정부의 개발의지가 강하고 참여가능성이 높은 지역, 사후에 FTC를 중심으로 지역 활동이 용이하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 등
- 여기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은 아니지만 쌀농사 중심의 종합개발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쌀농사에 필요한 관개시설이 갖추어지는 점, 우리의 비교우위가 확실한 분야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종합개발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쌀농사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기준에 추가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한편 에

티오피아 관점에서 보면 농업이 커피, 참깨 등 소수의 수출작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가뭄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거나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할 때는 국내식품가격이 치솟는 Agflation과 기근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과도한 수출작물 편중을 완화하고 동시에 국내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쌀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에티오피아 당국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Millennium Crop”이라 부르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관개시설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른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야하는바 미미하지만 현재 쌀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쌀이 이 나라에 도입된 것은 20~30여 년밖에 안되어 아직 익숙한 작물이 아니고 현지여건에 맞는 품종개발노력이나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암하라(Amhara)와 SNNP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표 5-9).

<표 5-9> 지역별 쌀 재배현황

2009년 실적기준

	재배면적(ha)				생산량	
	고지대 천수답	저지대 천수답	관개시설 지역	합 계	물량 (톤)	구성비 (%)
암하라	38,430	30,000	-	68,430	199,761	40.1
오로미아	-	12,940	-	12,940	41,408	8.3
SNNP	1,475	27,681	-	29,156	92,562	18.6
티그레이	3,950	1,200	-	5,150	14,505	2.9
감벨라	-	3,350	10,000	13,350	50,720	10.2
베니산굴-구무즈	-	10,080	-	10,080	32,256	6.5
소말리	-	-	16,780	16,780	67,120	13.4
합 계	43,855	85,251	26,780	155,886	498,332	100.0

자료) Teshome Negussie et al., “An Overview of the National Ri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Rice in Ethiopian Agricultural Development, 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2011

<주요 추진과제>

소규모 관개시설 개발활동으로는 농업용 저수지개발, 지하수개발, 농수로 및 관배수시설의 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등이 있으며 이의 부대활동으로 농업용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 및 자재지원, 수리조합 육성 및 교육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사업처럼 종합개발의 일부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개발된 용수시설을 활용하여 영농활동과 생산성향상으로 연계되는 과정까지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초기의 농업용수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지하수개발을 실례로 추진과제를 예시하면 농업용수개발조사(물리탐사, 지하수 영향조사 등), 소규모 관개시설구축(전동펌프 등), 지질분야 등 전문가 파견, 시추장비, 운송장비 등 투입,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관련 현지교육활동 등이 있다. 물론 관개시설 사업내용이 지하수가 아니고 저수지나 농수로라면 그에 상응하는 추진과제가 뒤따른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이 농업개발을 위해 절대적인 요소이고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시급한 일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용수개발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농업용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과도한 지하수개발이 그 지역의 지하수 수위저하 또는 고갈을 초래하거나 지하수 오염문제를 야기하여서는 안 되며, 하천수를 과도하게 취수하여 하천유지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즉 농업용수개발계획에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단계: 관개시설과 FTC의 연계운영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업은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농업개발이다. 이를 위해 우리 CPS는 영농·축산시범농장 개발, 소규모 관개시설, 영농기술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개시설 사업이 기본적인 모양을 갖추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민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FTC가 정상화되는 단계가 되면 관개시설관리와 FTC운영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두 사업의 연계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추진과제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주요 추진과제>

• FTC 중심의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관개시설관리와 영농기술훈련 등 교육활동을 FTC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
- FTC의 시범농장을 지역여건에 적합한 영농·축산 시범농장으로 활용
- 종합개발사업을 이끄는 주민조직의 지도그룹에 DA를 포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FTC와 마을 간의 협조를 유지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주민자치조직 구성과정에서는 빈곤취약계층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이 사업의 직접수혜자에 포함되도록 배려
- FTC를 주민활동의 중심으로 활용하여 FTC형 종합개발사업이 되도록 유도
- FT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유도
- 항상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되 일선행정기관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 KOICA의 사업주도가 현지 DA 등이 변화촉진 주체로서의 역할기회를 차단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필요시 이들을 초청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FTC의 농촌종합개발사업 활용
- DA가 종합개발사업지역의 주민조직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민자치조직과 FTC운영이사회를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하여 FTC의 활성화와 성공모델 확산의 기초형성
- 지원 대상 FTC와 마을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시설장비 등을 상호융통 활용
- FTC에서 교육받은 주민의 실제 농장을 FTC 시범농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
- 필요시 한국의 전문가 파견 또는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여성참여를 최대한 고려

3) 3단계: 생활여건개선사업 추가

소규모 관개시설사업과 농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농업생산성증대를 위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이상의 지원 사업들이 실제 농가소득증대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인프라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차원에서 필요한 주거환경, 보건위생여건, 교육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소위 "FTC 중심의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다소 독특한 형태의 시범 농촌마을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주요 추진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추진과제>

- 농가소득증대 관련 인프라 구축: 본 사업의 경우 농가소득증대와 직접 관련된 인프라구축 과제 중 관개시설은 1단계에서, 교육시설과 주민조직 등은 2단계에서 FTC 연계와 관련하여 이미 검토하였다. 그 외에 농가소득과 관련하여 추가되어야 할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마을진입로, 운송수단, 농기계 및 창고, 공동축사, 인공수정센터 건립 등이 있을 수 있다.
- 주거, 보건위생, 교육 관련사업: 주거환경 및 보건위생 사업으로는 오로미아(Oromia) 주 아르시(Arsi) 지역개발사업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식수공급시설, 시범주택 및 부속건물 건립, 부엌과 화장실을 포함한 전통주택의 부분적 개량, 바이오가스 설비, 공동화장실과 마을 앰프시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는 학교신개축, 기자재공급사업 등이 있다.

다. 새로운 형태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모델

이상과 같이 세 단계에 걸친 활동이 마무리되면 종전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모델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 모델의 사업현장과 정책적인 모습, 그리고 기대효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현장의 모습: 적절한 수준의 관개시설이 구축된 농지 + 지역의 FTC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주민활동과 영농교육 + 쌀농사(또는 다른 작목)를 중심으로 한 고소득 농가 + 개선된 인프라와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 정책적 구도: KOICA가 지원하는 두 개의 사업이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는 "농민역량 강화사업(농민교육)"과 "농업생산인프라 보강사업(소규모 관개시설)"의 일부로 각각 편입되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
- 전략적 효과: KOICA가 에티오피아 정부의 농업정책을 지원하는 효과 + 활성화된 FTC의 성공모델 확산효과 + 그 "FTC를 중심으로 한 농촌종합개발"의 성공모델 확산효과 동시추구

따라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KOICA의 지원방안은 ① "농민훈련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농민역량 강화사업"과 ② "소규모 관개시설사업으로 시작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되 각각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가.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

에티오피아에서 농업·농촌분야 지원경험이 일천한 후발주자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KOICA가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ODA주체간의 역할분담과 협조를 통하여 에티오피아 현지의 ODA조화에 기여할 수 있고, 상호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역량을 결합하여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선진원조기관의 오랜 경험과 농업·농촌지원 노하우를 공유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ODA공여국간의 협력 플랫폼이 잘 갖추어진 시범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국제협력 파트너들의 지원을 배경으로 입안·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책패키지별 공동기금이 운영되면서 정부와 지원주체간의 대화와 협의제제가 잘 가동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에티오피아에서 농업·농촌지원을 위하여 KOICA가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과 협력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책패키지별 공동기금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공통관심 대상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와 양자차원에서 협력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ODA기관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1) 다수국가와 국제기구의 공동기금사업 참여

여러 ODA주체의 공동기금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AGP, PSNP, SLMP 등 핵심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부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는 접근이다. 지원주체가 정부의 집행상황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협력 사업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는 일반화된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원조의 일치성과 조화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되는 형태로 비교적 지원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긴 특징이 있으며 에티오피아에서 ODA 경험이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주도하고 있는 협력형태이다.

그러나 지원기관 입장에서 보면 양자차원의 사업에 비해 자국의 지원활동이나 성과를 가시화하기가 곤란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본국의 정치적 지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KOICA처럼 아직 양자차원에서조차 정부의 농정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적은 경우 “공동기금사업 참여”는 유사한 경험축적이 선행되어야 할 중기목표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2)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양자협력

특정분야나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양자차원에서 협력을 시도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즉 앞의 공동기금사업과 유사하게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와 자금, 물자, 인력 등의 활용을 공동기획하고 시행하는 형태, 큰 틀에서 협력하되 세부사업은 분야별로 나누어 각각 책임지고 추진하면서 공동연구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는 형태,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자금, 기술, 인력 등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해 KOICA가 현재 WFP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으로는 MERET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WFP가 에티오피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 식량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PSNP와 달리 지역 커뮤니티와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적 접근방법에 큰 의미가 있고, 이미 완공된 사업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 에티오피아 정부도 환영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KOICA와 WFP가 협력하는 것은 이 나라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고 WFP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그러한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지의 비판적인 시각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혜자 수에 비해 투자규모가 너무 크고 기간이 길어 지원효율성이 낮다는 일부 지원국들의 시각이 있다. 둘째, 이처럼 공여국들의 시각이 다양하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자 WFP가 재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PSNP 등 식량지원 사업이나 SLMP 등 자원관리 사업과 정보공유를 통한 원조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다른 사업으로 에티오피아 농업지원 협력과 관련하여 KOICA와 JICA간에 거론된 적이 있으나,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쌀 관련 협력프로젝트가 있다. JICA/Ethiopia는 오래전부터 농업잠재력이 있는 고지대의 곡물산지에서 관개시설확충과 우량종자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쌀농사를 소개하고 생산성향상 지원활동을 계속해 왔다. 만일 KOICA가 에티오피아에서 쌀 농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JICA가 축적한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양자협력 프로그램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 기관간의 협력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만큼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보다는 대일 접촉에 앞서 KOICA 나름의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의 범위 내에서 JICA와의 공통영역을 찾아가는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3) 현지의 ODA기관협의체 활동

현재 에티오피아에서는 ODA공여국과 연방농업부가 “농촌경제개발/식량안보 작업반(RED/FS WG)”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현안들을 협의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ODA공여주체 입장에서 보면, 이 협의체는 연방정부의 강한 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정부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집행기관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대단히 효율적인 기회로서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적절한 시기에 “RED/FS WG”에 가입하여 협의체 활동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에티오피아 농업·농촌분야를 지원하는 활동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 협의체 가입은 KOICA의 농업·농촌지원규모 확대와 함께 검토될 사안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할 요인은 현재의 이 협의체 운용방식이 에티오피아 정부를 통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 국내기관과의 협력

KOICA와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에티오피아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기관들 간의 협력과 본부 차원의 협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현지협력은 대사관이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진국들의 경우 단순히 원조체계 분절화로 인한 현장에서의 비효율 예방차원을 넘어 개도국 현지상황에 맞는 ODA정책과 우선지원 분야를 구체화하는 CAP 형성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기능수행을 위해 자국의 관련자들로 구성된 ODA/TF같은 작업팀을 가동하기도 하며, 그 활동상황을 정리하여 대사관 웹페이지에 소개하기도 한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우리나라도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농업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ODA 추진상황을 협의하는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본 연구팀의 현지 출장기간에도 대사관과 KOICA가 주관하는 “농업분야 지원방안연구 세미나”가(2014.2.27,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Yellily 호텔) 개최된바 있으며, 이 자리에는 KOPIA와 농어촌공사 관계자, 에티오피아 산림청 자문관, 새마을 시범마을 봉사단원, 그리고 농과대학

(Adama) 학장과 농업관련 국제기구(CYMMIT)의 현지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본부차원의 협력은 KOICA와 농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EDCF 원조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간의 협력이 핵심이며, 협력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유·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의 농림분과위원회”,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아직은 더 발전시켜야할 여지가 있다.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농촌 사업촉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틀을 활성화 시키고,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국가별 농업·농촌지원 CPS를 더 정밀하게 구체화 시켜 모든 ODA 수행기관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ODA정책규범으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제4절 기대효과

정부 관련부처들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협력전략(CPS)”은 해당국에 대한 ODA사업의 기본지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지원방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원칙적인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는 CPS의 내용을 실행지침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현지의 관련동향을 추가로 반영하여 전략을 보완하였다. 이는 향후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지원방안 협력사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티오피아는 농업발전을 국가발전의 기본 축으로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FTC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지와 FTC 현장 간의 괴리가 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한 단계적 FTC 활성화방안은 정책의지를 현장에 구현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염원하는 “농민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종전방식대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기능별 요소(CPS 내용)를 분석하고, 다른 선진국 기관들과 같이 수원국정부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정책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조 일치”와 “원조 조화”를 촉진하고 사업이 현지정부의 관심권 밖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신, 당초 의도를 살리기 위해 이 사업들의 대상지역을 집중시켜 시범사업 효과를 확산시키는 한편 정부의 체계적인 개입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유형의 농촌개발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에티오피아 농업·농촌개발”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험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성격의 과제다. 이 과제와 관련하여 현지여건과 국제사회의 지원동향이 충분히 반영된 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원성과를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 농업·농촌발전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에티오피아

제6장
결 론



제1절 농업·농촌개발 현황

에티오피아는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국토와 93.8백만의 인구, 고원지대에서부터 저지대까지 다양한 농업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이 나라는 1980년대 말까지 유지되던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바 있어 체제전환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배경이 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10%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구조는 아직까지 농업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동인력의 85%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이 GDP의 46.4%를 담당하면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고도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농업기후대가 형성되어 각 지역의 기후대에 맞는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농가들은 해발 1,500~3,000m 고지대에 살면서 소규모 영농(평균 1.2ha)을 이어가고 있다. 건조한 저지대에 남아있는 광활한 토지자원은 물 부족, 접근성 부족, 해충문제 등이 얽혀 있어 특별히 관개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한 정착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유목형태의 목축업이 일반화 되어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테프(Teff), 인세트(Ensete), 옥수수, 수수, 밀, 커피 등의 작물과 우유, 쇠고기, 양고기와 같은 축산물을 에티오피아의 주요 농산물로 꼽을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관개면적은 전체농경지 면적의 0.5% 수준이며 이는 경작가능 면적의 2% 이하에 머물러 있어, 거의 전 지역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상변화에 대단히 민감할 뿐 아니라 가뭄이 계속될 경우 대규모 기근으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 농업발전의 전제가 되는 선진 농업기술과 영농자재 등이 정상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어, 농업생산성이 대단히 낮고 농민들의 기본적인 역량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발전주도형 산업화전략(ADLI)과 이를 기초로 한 국가발전 5개년계획(GTP)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의 농업발전전략은 선진기술과 투입자재 공급을 늘려 영세소농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농업투자를 촉진하여 상업농을 확장함으로써 수출농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본전략을 기반으로 지원방안별로 실행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에는 농업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AGP),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영농기술보급 정책(SLMP), 만성적인 식량부족지역에 식량을 지원하는 정책(PSNP), 농가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식량지원 수혜자대상에서 졸업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HABP) 등이 있다.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농정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22개 연방정부 부처 중 하나인 농업부(MOA)이다. 농업부와 함께 농정추진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농업·농촌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농업구조전환청(ATA), 재정지원과 대외협력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경제개발부(MOFED), 정책을 집행하는 각 주의 "농업·지원방안국"이 있다. 그 외에 이 나라 농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개발협력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농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에티오피아 농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

첫째, 토지와 물 등 부존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다한 방목 등으로 자원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빠른 인구증가(2.9%)와 생산성이 낮은 전통자재나 농법에 집착하면서 도전을 기피하는 농민들의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 전기,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 인프라와 산지와 시장을 연결하는 교통·통신 등 유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 계획경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토지 국유제도, 비효율적인 농업기술과 자재보급 시스템 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인력의 규모, 전문성, 경력, 인센티브 부족 등 인적자원의 역량부족이 심각하다.

제2절 농업·지원방안 지원현황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로 분류되며,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소위 “개발협력파트너”로서 이 나라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2001년에 현지에서 “개발지원그룹(DAG)”이라는 이름의 원조기관 협의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대정부협력 및 원조 조화 등을 촉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ODA공여국과 에티오피아정부가 “농촌경제개발 및 식량안보작업반(RED/FS WG)”이라는 이름의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네 명의 농업부 차관업무에 대칭되는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단히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개발원조 정책방향을 MDG달성 지원, 수원국주도의 성장지원 등으로 제시함으로써, 과거 식량원조 중심의 전략을 수정하여 시행 중이며 에티오피아에서는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과 식량안보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USAID는 에티오피아의 최대 ODA공여기관으로써 가장 큰 규모의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핵심정책을 다른 공여국과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집행은 정부기관이나 NGO 등에게 위임하여 USAID가 현장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사례는 없다.

일본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관개시설 개발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두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유통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5개 Woreda를 대상으로 일본의 “일촌일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 및 인프라 부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JICA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AGP 등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이끄는 공동기금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여러 가지 형태의 양자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주정부, 지방정부 및 NGO 등을 집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방식은 다른 선진국과 다르지 않다.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산하 GTZ를 종전의 Inwent 및 DED와 통합하여 GIZ라는 새로운 기구로 출범시킨 독일은 에티오피아에서 교육과 농업(특히 SLMP)에 특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LMP의 경우 관련기술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과 주정

부의 Advisor 외에 Woreda 사무소까지 교관요원으로 독일전문가를 파견하여 DA들을 교육시키는 등 에티오피아에서 700여 명의 대규모 인력(현지인력 600명)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 농업부와 농기계업계가 지원하는 PPP사업으로 'Ethiopian- German Training Institute(ATC)'사업이 있는데, 이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훈련 시스템과는 별개로 농업기계화에 특화된 농민훈련기관이다.

에티오피아 농업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로 World Bank가 있으며, 그 외에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차관 전문기구로 AfDB, 세계농업전문기구로 FAO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차관공여(World Bank와 AfDB), Trust Fund 사업관리, 연구 분석 및 정책자문 활동을 통하여 연방과 주정부의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AGP, PSNP 등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정의 핵심정책 대부분은 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수립·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에티오피아는 아직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지만, 다른 개도국들과 달리 2000년대에 들어 대단히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수원국정부가 농업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국제사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적극 지원한 결과일 것이다. 그동안 이 과정을 함께한 ODA공여주체들이 앞으로 에티오피아 지원에 참고가 될 만한 교훈으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한 개발의지를 가지고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ODA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최초의 과제는 정부협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우선순위가 있는 정책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적절한 파트너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진행과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AGP, SLMP, PSNP 등 정부정책은 각각 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와 책임자가 있다. 해당 공직자들은 소관 사업이나 정책의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를 받기 때문에 담당업무에 대한 외부지원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즉 ODA사업이 자기소관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지만, 소관업무의 틀을 벗어난 경우에는 별 관심이 없다.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종합개발사업은 다양한 기능별 정책이 혼합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부의 관심권 밖에서 사업이 고립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사업을 외형적으로 연계시키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ODA공여기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특히 지원기간 중 독자적 운용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협의체에 사후관리를 맡기고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이 가장 취약해진다. 이 문제와 관련한 선진국들의 교훈은 가능하면 운영기관이 확실한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기관을 시행주체로 지정하여 ODA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자적인 운용역량을 배양하게 하여, 사업종료를 전후해서 관리주체의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국제지원을 바탕으로 수립된 연방정부의 의욕적인 정책들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그 효과가 실제 농촌현장의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전술한 바와 같이, 농민들은 생산성이 낮은 전통농법을 고집하며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기술보급이나 농민훈련과정에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농촌의 보수적인 성향과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제3절 농업·지원방안 지원방안

KOICA의 지원방안 도출에 앞서 KOICA 사업으로 적합한 분야를 모색하기 위하여 ① 정부의 에티오피아 지원 CPS 내용, ② 연구팀이 출장면담을 통해 파악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구내용, ③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선행연구 결과, 그리고 ④ 실제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농업·농촌지원 실적이 있는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KOICA 지원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분야는 ① 농업연구와 농민교육, ② 농업용수개발, ③ 그리고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발굴된 분야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일치와 조화, 에티오피아 정부의 책임감과 협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검토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CPS 상의 영농훈련센터건립을 포함한 농민교육기능을 개념상으로 분리해서 에티오피아 정부의 우선순위가 높은 농민역량 강화사업의 일부로 편입하여 추진하고, 둘째, 이를 제외한 나머지 CPS 사업은 핵심기능인 소규모 관개시설 구축사업으로 외형을 전환하여 관련 정부정책과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지역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정부와 협의하되 개념상 별개인 농민교육사업과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지역적으로 연계시켜 같은 지역이 중복되도록 추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책임감과 협조 그리고 사업지속성을 확보하면서 CPS가 의도한 시범현장의 성공모델 창출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1. 농민역량 강화사업

7천만이 넘는 농민이 정부계획대로 농업발전을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역량 강화 정책은 농촌지도사(DA)와 농민훈련센터(FTC), 그리고 농업기술교육대학(ATVET)으로 이어지는 교육시스템이며, 벌써 12천개의 FTC가 설립되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입단계인 이 시스템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분권화된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지역편차가 크고, 사실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요인들이 많아 외부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농민교육 시스템 상의 제약요인을 단계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Kebele 단계의 FTC에는 3명의 DA, 교실과 기자재,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 식수공급 등 FTC의 기본시설이 미비하여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적절한 수준의 DA 숙소와 교통·통신수단이 없어 정상적인 활동을 어려운 경우가 많다. DA가 기술적으로 너무 특화되어 있어 다양한 농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FTC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선임 DA 중심으로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Woreda 단계에는 7천명의 DA기술지원요원(SMS)과 4천명의 DA 감독관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동장비가 부족하여 실제 활동이 어렵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농업연구소가 있으나 현장의 농가나 DA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어, 농업연구 활동과 농민교육활동이 각각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률적인 농민교육방침이 하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25개의 ATVET가 설립되어 DA후보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교육시설이나 기자재가 부족하여 실습이 적고 현장의 종합적인 요구와 무관하게 작물, 축산, 자원 등 기술에 특화되어 실용성이 부족한 교과과정만을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지원이 요청되는 과제는 FTC기능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KOICA가 FTC를 활성화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① FTC운용 정상화 단계: FTC운용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는 현 건물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Kebele 단위의 지역사회센터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교육시설 외에 FTC 인근에 DA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시간에 FTC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 하고, 방문지도에 대비하여 적절한 운송과 통신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FT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인 FTC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의 모든 집단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 단계의 과제이다.

② FTC 운용활성화 단계: FTC운용이 정상화되면 농가들의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강사진에 농업연구기관과 대학교수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FTC활동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또 해당 Woreda나 ATVET와 협조하여 DA가 농민들과의 소통방법, 시장 지향적 경영마인드 등을 체득하는 토론회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FTC가 활성화단계에 이르게 되면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DA보직경로” 같은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근무의욕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DA보직경로의 실례로 “초임DA-선임DA-농한기 대학교육장학생 선발-학사학위 취득-SMS 또는 DA감독관으로 승진-상위직위 승진”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FTC 성공모델 확산단계: FTC활성화와 성공모델이 가시화 되면 그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FTC 시범농장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농장과 시장이 연계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FTC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FTC와 Woreda, ATVET, 연구기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히 SMS와 DA가 정기적으로 만나 Woreda 차원의 연계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ATVET를 지원하는 단계: FTC 지원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ATVET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DA-FTC-ATVET로 이어지는 패키지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ATVET에 대한 정부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63천여 명의 DA 후보 배출 후 ATVET의 역할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KOICA가 지원에 앞서 대상 ATVET의 장래향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해당 ATVET의 존속과 역할을 확인 후 이를 지원하는 경우 우선적인 지원 대상은 인터넷 접속시설, 실험기자재 등 시설장비가 될 것이다. DA가 광범한 농민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ATVET 교육과정의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DA교육목적이 전문가양성이 아닌 농정 최일선의 종합지도사 양성으로 바뀌고 FTC에서의 DA 역할도 그렇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소규모 관개시설사업)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형태의 종합개발사업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직 에티오피아 농업분야지원 경험과 재원이 일천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형태의 종합개발사업을 건의한다. 즉 초기에는 “소규모 관개시설사업”으로 외형을 갖추어 정부의 농업생산인프라 구축사업에 편입하여 출범하고, 농민역량 강화사업과 관개시설사업이 일정한 형체를 갖추게 되면 같은 지역 내의 관개시설과 FTC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다가, 두 사업이 연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대상지역의 생활여건개선사업을 추가하고 FTC가 지역 활동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개발사업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① (1단계) 소규모 관개시설사업 추진: 우선 가뭄에 취약하지만 농업용수개발 잠재력과 농업발전 가능성이 크고 소규모 관개시설 사업입지에 적합한 지역으로, 농민역량 강화사업 추진대상 FTC가 있어 두 사업의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에 적합한 소규모 관개시설사업(저수지, 지하수, 관배수시설 등)의 신규설치 또는 개보수사업과 부대활동으로 용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 및 자재지원, 수리조합 육성 및 교육활동 그리고 개발된 용수시설을 활용한 영농활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1단계의 과제이다.

② (2단계) 관개시설과 FTC의 연계운영: 농촌종합개발사업의 핵심은 농가소득을 높이는 농업개발이다. 관개시설사업이 기본적인 모양을 갖추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민역량 강화사업의 FTC가 정상화되는 단계가 되면 관개시설관리와 FTC운영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두 사업의 연계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추진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반 교육활동을 FTC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 FTC시범농장을 지역의 영농·축산시범농장으로 활용, 주민조직의 지도그룹에 DA를 포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제고, FTC를 주민활동의 중심으로 활용하여 FTC형 종합개발사업이 되도록 유도

③ (3단계) 생활여건개선사업 추가: 관개시설사업과 농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농업생산성증대를 위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실제 농가소득증대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인프라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생산인프라 사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차원에서 필요한 주거환경, 보건위생여건, 교육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소위 “FTC형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다소 독특한 형태의 시범 농촌마을을 완성한다.

④ (4단계) 새로운 형태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모델: 이상과 같이 세 단계에 걸친 활동이 마무리되면, 종전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모델이 탄생한다. 이 모델의 현장은 관개시설이 구축된 상태에서 지역작목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농가, FTC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주민활동,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마을로 묘사될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KOICA가 지원하는 두 개의 사업이 현지정부가 추진하는 “농민역량 강화사업”과 “농업생산인프라 보강사업”의 일부로 각각 편입되어 추진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략적으로는 현지정부의 협조를 받으면서 활성화된 FTC의 성공모델과 그 FTC를 중심으로 한 농촌종합개발의 성공모델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에티오피아 국가협력전략 2012-2015」.

글로벌발전연구원. 2013. 『타 해외원조기관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체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 농업ㆍ농가공업, 인프라, 직물ㆍ의류』.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새마을세계화재단. 2013. 『새마을리더 봉사단파견-시범마을조성 모델』.

시장경제연구원. 2012.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정환. 2012. 「한국농업, 주눅들 이유 없다」. 『시선집중 GSnJ』 제 142호. 서울: GS&J Institute.

장형수 외. 2008.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서울: 통일연구원.

장형수. 2012. 「에티오피아 경제의 특성과 경제발전전략」.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티오피아』. 과천: 기획재정부.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2013. 에티오피아 개황. http://eth.mofa.go.kr/korean/af/eth/policy/overview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국별 지원현황(에티오피아)」

_____. 「KOICA 농림수산 분야 전략(2013-2015)」

_____. 2009.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KOICA 지원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1. 『농촌개발협력 프로그램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2. 『에티오피아 아르시 존 농촌개발사업 종료평가 결과보고』.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3. 『2012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0. 에티오피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2010.4). http://www.koreaexim.go.kr

허장 외. 2012. 「우리나라 국제농업·농촌협력 기본모델구축」.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4권 2호. 수원: 국제농업개발학회.

나. 국외문헌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s Strategy for 2013-2022”. Tunis: AfDB

_____. 2010. “Agricultural Sector Strategy 2010-2014”. Tunis: AfDB

_____. 2011. “Ethiopia Country Strategy Paper: 2011-2015”. Tunis: AfDB

_____. 2013. “AfDB Financial Overview”. Tunis: AfDB

_____. 2013. “AfDB in Brief”. Tunis: AfDB

Alemu, Getnet. 2012.“Rural land policy, rural transformation and recent trends in arge-scale land acquisitions in Ethiopia”. European Report on Development.

AU/EU. 2007.“Africa-EU Strategic Partnership; A Joint Africa-EU Strategy”.

Bechere, Efrem. 2007.“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thiopi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 Development Strategy of Horn of Africa*. Lubbock: Texas Tech University.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2010.“Accelerating Ethiopian Agriculture Development for Growth, Food Security, and Equity”. Ethiopia Agriculture Dignostic Integrated Report.

Chang, Felicia. 2010.“A Profile of Development Partners in Ethiopi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ddis Ababa: DAG Ethiopia.

Davis, Kristin, et al, 2009.“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the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in Ethiopia”.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Deininger, Klaus, et al. 2007.“Rural land certification in Ethiopia: Process, impact, and implications for other African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6:1786-1812.

Development Assistance Group(DAG) Ethiopia. 2012.“Annual Report 2011”. Addis Ababa: DAG Ethiopia.

Diao, Xinshen. 2010.“Economic Importance of Agri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The Case Study of Ethiopia”.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Paris: OECD.

Dynamic Development Studies and Capacity Building Consult PLC. 2014. "Assessment of Effectiveness of AGP Training Activities in four Regions of Ethiopia". *Technical Report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ddis Ababa: Ministry of Agriculture/Ethiopia.

FAO. 2009."FAO Regional Strategic Framework for Africa(2010-2015)". Rome: FAO.

_____. 2011."FAO Ethiopia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2012-2015". Rome: FAO.

_____. 2012."Guide to the Project Cycle – Quality for Results". Rome: FAO.

Feed the Future. 2011."Ethiopia, Multi-year Strategy(2011-2015)". Addis Ababa: USAID-Ethiopia.

Foreign Office of Germany(AA). 2011."Germany and Africa: A Strategy Paper by the German Government". Berlin: Federal Foreign Office.

Gebre-Selasie, Atsbaha, et al. 2012."A Review of Ethiopian Agriculture: Roles, Policy and Small-scale Farming Systems". *Global Growing Casebook: Insight into African Agriculture*. Global Growing Campaign.

Geda, Alemayehu Geda, Kibrom Tafere. 2011."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Aid) and its effectiveness in Ethiopia". Addis Ababa: Institute of African Economic Studies.

German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 2013.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 Policy Strategy*. Berlin: BMZ.

Government of Japan. 2008. "Country Assistance Program for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Tokyo: Government of Japa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Ethiopia. 2010."Agricultural Sector Policy and Investment Framework(PIF)". Addis Ababa: Government of Ethiopia.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Ethiopia. 2002."Ethiopia: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 Addis Ababa: Government of Ethiopia.

_____. 2010.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Addis Ababa: Government of Ethiopia.

_____. 2012."Assess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ddis Ababa: Government of Ethiopia.

_____. 2013."Annual Progress Report for FY 2011/12-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Addis Ababa: Government of Ethiop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Japan. 2010."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of Ethiopia". Tokyo: Government of Japan.

_____. 2013. “Japan’s ODA to Ethiopia: Rolling Plan”. Tokyo: Government of Japan.

National Bank of Ethiopia. 2012.“Annual report 2010-2011”. Addis Ababa.

Negussie, Teshome, Dawit Alemu. 2011.“An Overview of the National Ri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Rice in Ethiopian Agricultural Development*. Addis Ababa: 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Netherlands-African Business Council. 2010.“Fact Sheet; Livestock Ethiopia”.

Ohno, Izumi. 2013.“Japan’s Development Cooperation—Characteristics, Policies, and Future Prospects”. Tokyo: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GRIPS).

Ohno, Kenichi. 2009.“ADLI and Future Direction for Industrial Development”. Tokyo: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GRIPS).

Sachs, Sonia Ehrlich. 2008.“MVP- A Demonstration of Reaching the MDG”. New York: The Earth Institute of Columbia University.

Shitarek, Tenna. 2012.“Ethiopia Country Report”. London: DfID.

Spielman, David J., et al. 2011.“Seed, fertilizer, and agricultural extension in Ethiopia”.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Tadesse, Melaku. 2013.“Sustainable Land Management Program in Ethiopia-Linking Local REDD+ Projects to National REDD+ Strategies & Initiatives”.hawassa: Workshop on Linking Local REDD+ Projects to National REDD+ Strategies.

Taffesse, Alemayehu Seyoum, et al. 2012.“Crop Production in Ethiopia: Regional Patterns and Trends”. Addis Ababa: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and Ethiopia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EDRI).

TANGO(Technical Assistance of NGOs) et al. 2012. “MERET Impact Evaluation Report”. Addis Ababa: WFP Ethiopia.

Turnbull, Paul, Mario Musa. 2011.“From Food Aid to Food Assistance-The Programme Cycle”. Rome: WFP.

USAID. 2012. “Ethiopia,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Addis Ababa: USAID-Ethiopia.

_____. 2014. “Annual Performance Plan for FY 2014 and the Annual Performance Report for FY 2012, 2014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USAID.

U.S. Department of State, USAID. 2010.“Leading Through Civilian Power-The First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WFP. 2011. “Country Programme Ethiopia/2012-2015”. Rome: WFP.
_____. 2013. “WFP/Ethiopia Operational Brief”. Rome: WFP.
World Bank. 2007.“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Agricultur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10.“Ethiopia-Agricultural Growth Program Project”.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12.“Ethiopia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FY2013-FY2016)”.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13.“World Bank Group Agriculture Action Plan; 2013–2015”.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14.“Annual Report 2013”. Washington, DC: World Bank.

다. 인터넷 웹페이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www.customs.go.kr
대외경제협력기금. http://www.edcfkorea.go.kr
새마을세계화재단. http://www.saemaulgf.or.kr/kor/index.html#
한국국제협력단.http://www.koica.go.kr/
AfDB. www.afdb.org/
ATA/Ethiopia: 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cy. http://www.ata.gov.et/
BMZ. http://www.bmz.de/en/
Development Assistance Group(DAG)/Ethiopia. http://www.dagethiopia.org
Donor Tracker, “Country Profile Germany”. http://donortracker.org/germany/germany-country-profile
EDCF. http://www.edcfkorea.go.kr/edcf/info/statis/year.jsp
FAO. http://www.fao.org
FAO, AQUASTAT. http://www.fao.org/nr/water/aquastat
FAO, FAOSTAT. http://faostat.fao.org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http://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home
GIZ. http://www.giz.de/en/worldwide/18920.html

IFPRI. The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ASTI). http://www.asti.cgiar.org/ethiopia/agencies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AGWATER Solutions. http://awm-solutions.iwmi.org/ethiopia-1.aspx

JICA. http://www.jica.go.jp/english/about/oda/index.html

JICA.“Annual reports 2013”. http://www.jica.go.jp/english/publications/reports/annual/2013/index.html

JICA.“New JICA”. http://www.jica.go.jp/english/publications/jica_archive/brochures/pdf/newjica2009.pdf

Millennium Villages. http://millenniumvillages.org/the-villages/koraro-ethiopia

Ministry of Agriculture/Ethiopia. http://www.moa.gov.et

OECD. http://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

OECD, Statistic.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

OECD, Peer reviews of DAC members. http://www.oecd.org/dac/peer-reviews

U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http://comtrade.un.org

UN Emergencies Unit for Ethiopia. “Major Constraints Impeding Sustainable Agricultural Growth”. http://www.africa.upenn.edu/eue_web/agricgrw.htm

USAID. http://www.usaid.gov/

USAID.“U.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atabase”. http://usoda.eads.usaidallnet.gov/data/

U.S.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

World Bank, Aid flows. http://www.aidflows.org/

WFP. http://www.wfp.org/countries/ethiopia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에티오피아

첨부

[별첨 1]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1

아프리카 중점 협력 3개국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2014. 5. 26 (월)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KDS)

KDS 한국개발전략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

I. 총론

II. 모잠비크

III. 에티오피아

IV. 콩고민주공화국

I. 총론

1. 아프리카 중점협력 3국의 특수성

- **농업의 절대적인 중요성**
  - 세계 최빈대륙으로 높은 빈곤률 및 기아인구 유지
  - 극히 취약한 산업 발전 기반
  - 이를 반영, 국가개발전략 상 농업 및 농촌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 높은 인구증가율에 밑도는 농업생산 증가율
    - 예) DR콩고 - 인구증가율 3% vs 농업생산 증가율 2%
- **농업개발에 상당히 양호한 자연적 조건 보유**
  - DR콩고 : 광대한 경지가능면적
  - 에티오피아 : 다양한 농업생산활동이 가능한 기후여건
  - 모잠비크 : 방대한 수자원
- **낮은 농업 정체성의 지속**
  -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 농업성장률은 지난 20년간 정체
  - 최빈 상황에서 식량 순 수입 상태 지속

對 **아프리카 개발 원조에 있어서 농촌 개발 분야는 절대적 중요성을 가짐**

2. 농업·농촌개발 정체의 요인

농민의식 및 행태	- 식민지배의 역사에서 동기부여 결여 - 농민으로서 개발을 위한 수단이 결핍
토지제도	- 토지의 국유화 혹은 부족장이 관리하는 전통적 토지 제도 유지 - 주요 기득권층이 양호한 조건의 토지 선점
농업생산 투입요소	- 농업투입요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농기계, 비료, 농업 기자재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
농가공산업 및 유통체계	- 농산품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반 부재
농업인프라 (관개 등)	- 관개시설, 전기 공급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미비

농업·농촌개발 전반 총체적인 결핍 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

3. 국제사회 및 한국의 지원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국제적 지원**
  - 수원국의 농업·농촌개발 정책 기조와 긴밀히 연계
    - 예) 모잠비크 : PASDEP, 에티오피아 : GTP, DR콩고 : PRGSP
  - 사업규모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다년도 사업
  - 사업의 현지화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도모
  - 국제사회의 원조조화에 대한 적극 고려
  - 공여국 지사의 관심 및 비교우위 분야 우선

- **한국의 지원**
  - 우리나라의 지원은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
  - 수원국의 정책기조 및 타공여국과의 원조조화 미흡
  - CPS하에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원조 사업의 분절화·영세화

아프리카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협력방식 정립 필요

4. 우리나라의 3국 농업·농촌개발 분야 협력 방안

- **농업·농촌개발 분야 비중**
  -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은 농업·농촌 분야 협력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함

- **사업 선정**
  - 수원국 정책 기조와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사업
  -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년도 사업
  - 분절화를 지양하고 CPS 하에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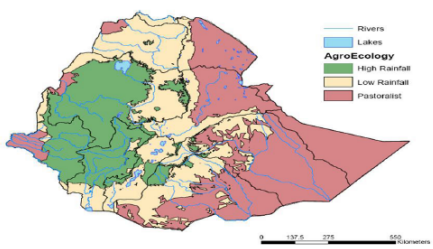
- **사업수행방법**
  -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지화를 적극 수용
  - 후속 또는 연계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지원

전략적 목표 하에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 현지화, 체계화 지향

III. 에티오피아

1. 농업·농촌개발 현황

- **영농여건**



	Productive Region	Hungry Region	Pastoral Region
기상조건	• 예측 가능한 기상 • 강우량 많음	• 불규칙한 기상 • 강우량 적음	• 불규칙한 기상 • 강우량 아주 적음
토양/경작규모	• 비옥한 토양 • 평균이상 영농규모	• 토양침식 심함 • 영세한 영농규모	• 대단히 넓은 초지 • 작물경작 어려움
영농/식량상황	• 경종축산 복합영농 • 시장접근이 가능	• 경종축산 복합영농 • 자급자족/식량부족	• 목축 중심(유목형태) • 만성적인 식량부족

1. 농업·농촌개발 현황(계속)

- **농정개요**

▫ **ADLI(Agr.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 국가발전기본전략으로 채택(1994)

- 절대다수인 영세농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 개발·보급과 투입자재 개선
- 민간의 농업투자 확대를 통한 상업농육성과 농산물 수출확대기반 구축
- 농업-제조업의 접점에 있는 식품가공업, 가죽가공업, 섬유산업 등을 적극 육성

▫ **GTP(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0년부터 시행중인 국가발전 5개년 계획으로 영세소농의 역량강화와 상업농 확장 등 ADLI 기조를 그대로 유지

▫ **농업생태를 고려한 지역별 농업정책 추진**

- **AGP** (Agricultural Growth Program): 경작여건이 좋은 Productive 지역
- **SLMP** (Sustainable Land Management Program): 토양침식방지, Hungry 지역
- **PSNP**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식량이 부족한 Hungry 지역
- **PCDP** (Pastoral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목축(Pastoral)지역

200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10%대 고성장 – 아직 식량이 부족한 최빈국

2. 농업·농촌개발 지원현황

- **주요 ODA 공여기관의 지원전략**

USAID	• 과거 식량원조 중심 전략을 MDG달성 및 성장지원 전략으로 부분수정 여건이 양호한 지역 집중지원(AGP)과 식량안보지원(PSNP) 전략 병행 • 다른 공여국과 공동기금을 설치하여 연방과 주 정부 핵심정책 지원 • 집행기능은 정부기관이나 NGO 등에 위임, 모니터링과 평가기능 수행
JICA	• 에티오피아 정부 방침대로 농업기술과 관개시설개발 분야에 많은 지원 • AGP 등 정부의 대표적 정책을 이끄는 공동기금사업 참여에 소극적 • 현장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시행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은 타국과 같음
GIZ	•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을 농업(특히 SLMP)과 교육분야에 특화해 추진 SLMP 실례: 연방·주정부의 Advisor 외에 Woreda까지 고관요원 파견 • PPP사업으로 농기계에 특화된 훈련기관운영(정부 농민훈련시스템과 별개)
World Bank	• 차관공여·Trust Fund 사업관리·자문활동을 통하여 정부 정책 지원 • 농정의 핵심정책 대부분은 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수립·시행
RED/FS WG	• 농업분야 21개 지원기관협의체, 농업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2. 농업·농촌개발 지원현황(계속)

- **국제사회의 지원 관련 교훈**
  -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력한 개발의지를 가지고 Top-down방식으로 정책운영**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ODA사업 발굴과 정부 협조 확보가 중요
  - **정책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고위공직자들은 소관분야의 외부지원에 민감**
    ⇨ODA사업이 자기 소관업무의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에만 적극 협조
    종합개발사업처럼 담당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심권 밖으로 고립 위험
  - **연방정부 정책들은 잘 갖춰져 있으나 그 효과가 현장의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농민들은 새로운 것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
  - **ODA공여기관들의 공통관심사는 사업종료 이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유관기관을 시행주체로 지정하여 ODA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자적 운용역량을 배양하고, 사업종료를 전후해 관리주체의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

- **KOICA의 지원분야**

  ① 농업기술지원/농민역량강화 ② 농업용수/인프라개발 ③농촌지역종합개발

KOICA 전략목표	KOICA 중점 프로그램	에티오피아지원 CPS	에티오피아 요구	우리의 비교우위	실제지원 실적
농촌 인프라 구축	농업인프라 확충	관개시설 등 생산 인프라 구축	지역여건에 적합한 농업용수개발	농업용수 등 생산 인프라 개발	관개시설개보수/농식품부 관개시설개발/농식품부
	전력과통신시설확충	x	x	x	x
	농촌주거환경개선	주택·보건·교육 사업	x	x	x
농업 생산성 향상	생산자조직육성지원	주민 자치조직 지원	x	x	x
	농업기술지원	영농훈련센터 건립 및 농민교육	농민교육/역량강화 및 자 등 농자재개선	농업연구와 보급 (쌀원예축산 기술)	기술정책(KAPEX)/농식부 기술센터(KOPIA)/농진청
	농업정책역량 강화	x	x	x	x
농산물 시장 접근개선	농산물 가공처리	x	고부가가치 농업전환	x	x
	농산물 유통망개선	x	x	x	x
	농산물 마케팅활성화	x	x	x	x
농가 소득원 다양화	농촌금융 활성화	x	x	x	x
	농공단지개발 지원	x	x	x	x
	관광상품개발 지원	x	x	x	x
농촌지역종합개발 (시범지역 선정)		농촌지역종합개발	x	새마을 형태의 농촌종합개발	Arsi 농촌개발/KOICA 새마을/경북 LG Village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 **KOICA의 사업시행방법**

  ▫ **원조 일치 및 원조조화**

  - 한국의 CPS는 지역중심 종합개발사업의 형태로 수원국 정부정책이나 선진 공여국의 기능 중심 전략과는 다른 형태

  ⇨ 프로그램의 외양을 에티오피아 정책과 연계시켜 일치시키는 보완 작업 필요

  ▫ **정부의 책임감과 협조**

  - 종합개발사업은 정부 담당부서가 불분명하여 고립 위험

  ⇨ 농업기술교육 기능을 분리해 '농민역량강화사업' 일부로 편입, 나머지 사업은 '관개시설 등 인프라사업'으로 전환하여 정부정책과 연계

  ▫ **사업의 지속가능성**

  - 사후관리를 주민자치에 맡기는 경우 지속가능성 취약

  ⇨ 사업을 정부정책과 연계시키고 정부기관이 시행토록 함으로써 사업종료를 전후하여 관리주체 변동이 없도록 하여 사후 지속가능성 확보

  ▫ **사업대상지역 선정**

  - '농업기술교육사업'과 '용수개발사업'을 지역적으로 연계

  ⇨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CPS가 의도한 시범현장의 성공모델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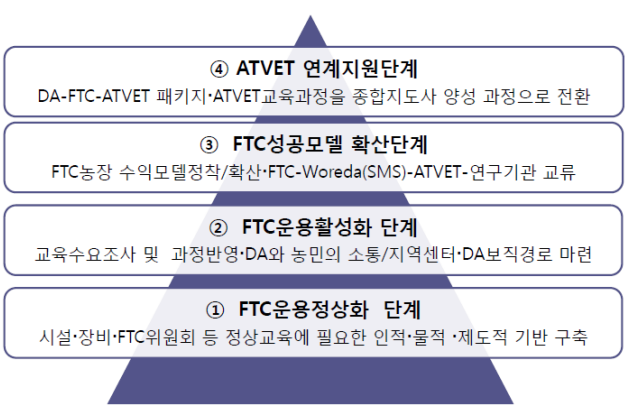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 **농민역량강화사업 – 농민교육현황과 제약요인**
  - **농민교육시스템**(세계 최대수준): **농민**(약 7천만 명)➡농촌지도사(**DA**, 4만 5천 명)
    ➡ 농민훈련센터(**FTC**, 1만 2천개 소)/Kebele ➡ 농업기술교육대학(**ATVET**, 25개)

Kebele 단계	• DA, 교실, 남녀 구분 화장실, 식수 등 FTC의 기본시설 미비 • 적절한 수준의 DA숙소와 교통통신수단이 없어 정상활동 곤란 • DA가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다양한 농민들의 요구에 대응 곤란 • FTC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해 선임DA 중심으로 운영
Woreda 단계	• 7천명의 DA기술지원요원(SMS)과 4천명의 DA감독관 배치 • 이동수단이나 통신장비가 부족하여 현장활동이 곤란
주/연방 정부 단계	• 농업연구소가 농가 및 DA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어 연구와 농민교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일률적 농민교육방침 하달
ATVET 단계	• 시설과 기자재가 부족하여 실습이 적고 현장의 요구와 무관하게 기술에 특화되어 실용성이 부족한 교과과정만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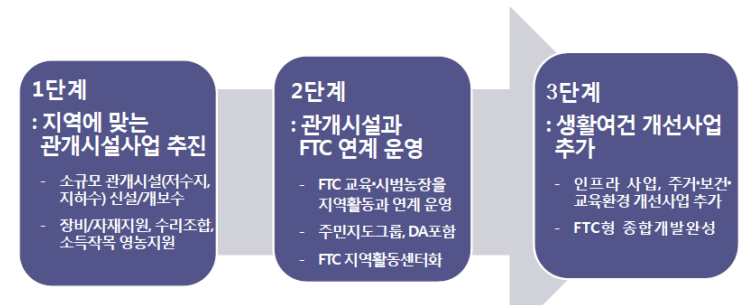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 **농민역량강화사업 – 일정지역 FTC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지원**



3. 농업·농촌개발 지원방안(계속)

-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관개시설사업) – 특정지역 선정 후 단계별 지원**



새로운 형태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모델

- **현장** : 관개시설과 고소득 농업 + FTC중심 주민활동+ 생활여건이 잘 갖춰진 마을
- **정책** : 정부의 '농민교육사업'과 '관개시설사업'의 일부로 각각 편입돼 추진
- **효과** : 'FTC 성공모델'과 그 'FTC 형 농촌종합개발의 성공모델' 동시 실현

감사합니다.

[별첨 2] 에티오피아 기관면담 회의록

에티오피아 기관 면담 회의록

<방문기관 목록>

에티오피아팀 현지출장 면담기관	
1. KOICA 에티오피아 사무소	11. EIAR(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e Research)
2. 연방정부 농업부	12. GIZ
3. 연방정부 재정경제개발부	13. JICA
4. World Bank	14. AfDB
5. USAID	15. WFP
6. RED/FS Working Group	16. FAO
7. 오로미아주 농업국	17. LG Hope Village
8. FTC 관리 담당자 및 DA	18. Adama University
9.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대학	19. Mercy Corps
10. ATA(Agriculture Transformation Agency)	

1. KOICA 착수회의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18일 16:30~17:00

○ 장소: KOICA Ethiopia office

○ 면담자:

- 면담대상: 이병화(KOICA 에티오피아 사무소 소장), 동상진(KOICA 에티오피아 사무소 부소장), 이봉훈(KOICA 에티오피아 농업 전문가)
- 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2) 회의내용

○ 농업·농촌개발 관련 KOICA사업

- 아르시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후속사업이 준비 중에 있음

- 도도타 관개수로 사업은 예정되어 있으나 PMC선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준비 중임(KOICA 기후변화실에서 관리 중이였으나 아프리카부로 이관 예정)
- 이제까지 많은 농업, 농촌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수원국 정부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임

○ 타공여국 및 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와의 협력관계

- 에티오피아에서 활성화되어있는 DAG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며 KOICA는 Observer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 KOICA는 직접 field 사업을 개발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에티오피아 정부나 타 공여국들은 funding만 제공하고 사업 수행은 정부나 현지 NGO, 지역 커뮤니티, 지방 정부 등이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JICA와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WFP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사업이 있음. 최근 협의 중인 쌀 산업에 관련하여 최초에는 KOICA는 하드웨어를, JICA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식으로 협의가 진행중이였지만, KOICA 전문 인력도 포함하자고 제안하여, 현재 JICA에서 한국의 수확후관리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상태로 협의 진행중임

○ 에티오피아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 에티오피아로 유입되는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농업은 인도, 터키, 도로 등 제반시설 건설 등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들어오고 있음

○ 한국민간기관 사업 및 PPP

- 현재 에티오피아에서는 LG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성격을 가진 LG Hope Village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이는 시범포, 교육장, 마을회관, 실습실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종합개발 성격을 지닌 새마을모델 마을과 비슷한 형식임. 계속 진행 중이며 최근 시범포를 완공하여 완공 행사 예정임

- LG와 KOICA는 직업훈련원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LG는 CSR/홍보 차원으로 사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기술교육을 통해 향후 요구될지 모르는 현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KOICA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사업 성공 모델을 만들고자함

○ 에티오피아 쌀 산업

- 에티오피아의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고, 특히 물과 관개시설을 요구로 하는 작물이므로 에티오피아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쌀 산업과 관련된 ODA사업은 JICA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종자개발과 관련된 R&D사업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티오피아 쌀 생산량이 증대된다면 국제시장의 쌀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고, 쌀 시장가격이 안정화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는 도움이 될 것임

○ 사업대상지 선정

- 에티오피아 정부의 개발 정책과 우리나라 CPS는 오로미아, 암하라, 티그라이, SNNP 4개 주에 집중하여 개발이 진행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ODA 사업이 해당 4개 주에 집중하여 있음
- 그 외의 주에도 다른 공여국들이나 NGO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주에 사업을 한다면 차별화함으로써 희소적인 가치는 있을 수 있으나, 관리자 입장에서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음.(예. 지역 주민의 보수적 성향 및 부족적 전통특색, 거리 상 관리의 어려움, 열악한 제반시설 수준 등)
- 다른 공여국들이 그 외의 주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철저히 현지에 기반을 둔 국립기관, NGO,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수행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사업들은 국제기구와 공여국들이 협력하는 공동수행사업도 있으며, 현지 NGO, 국제기구 등의 사업 수행 보고서는 국제사회와 공유되고 있음

- 아디스 아바바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NGOs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현재 KOICA의 수행 및 관리 시스템 및 platform, 재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임

2. 연방정부 농업부(MoA)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19일 08:00~09:00

○ 장소: 에티오피아 농업부

○ 면담자:

- 면담 대상: Mr Zenahabtewolde(Director, Planning and Programming Directorate)
- 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에티오피아 농업부의 원조 수요 분요

- GTP, AGP에 기반한 농업분야의 '저생산성 - 고생산성 - 농업의 산업화'에 이르는 transformation을 위해서 농업전반을 아우르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 지원이 필요함.
  - 농업 교육 및 기술보급(extension services): 현재로서는 FTC(Farmers Training Center) 및 DA(Development Agents)를 활용해 기술보급을 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음.
  - 농업의 가치사슬
  - 축산업(how to enhance dairy productivity)
  - 수산업(small scale in-land fisheries production)
  - 고급 종자보급 및 토양분석, 농업투입요소
  - 소규모 관개시설
  - 기후변화 대응

○ 한국 지원 가능 분야

- 이미 농업 역량 강화, 기자재 보급,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의 분야에 한국이 지원하고 있음
- 이들 중 농업기술보급, 농업 교육 분야를 지원할 시 아래와 같은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extension services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bottom-up/top-down 접근법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동시에 활용하는 접근법이 가능할 것임
  - Bottom-up approach: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중앙정부 단위 및 주 정부 단위의 FTC(Farmers Training Centers)가 있으며, FTC에서 DA(Development Agents)들이 연구, 개발, 농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 현재는 FTC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커리큘럼, 기술, 기자재 등이 부족하여 충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임.
  - Top-down approach: 농민교육을 담당하는 DA들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DA 교육 및 대학의 R&D 역량을 강화하여, 농촌 지역에서 농민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한국이 지원가능한 부분임.
  - Integrated approach: 지역단위의 FTC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 편, 종자개발, 종자 multiplication 등을 담당하는 농업 R&D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쌀 생산

- 쌀 생산은 40년 전에 암하라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모타 주에서도 생산량이 있음. 그러나 아직 생산량이 미미한 수준이라 산업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
- 에티오피아 쌀 산업과 관련하여 일본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그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임

○ 지역(주/state)별 사업 개발 및 수행

- AGP(Agricultural Growth Plan)는 오로미아, 티그레이, 암하라, SNNP 주에 해당하는 농림부 프로그램으로, 특정주에 집중하는 이유는 농업 사업을 한다면 기후 등이 적당하여 농업생산이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 또한 큰 Productive Ethiopia 지역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농업부의 정책은 이들 주에서 농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검증이 되면 그 모델을 타 지역에 전파하고자 함.그 외 지역인 pastoral area 등 에서도 ODA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아디스아바바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 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ebele, woreda, district, state level에 이르는 일종의 행정관리체계를 개발하여 remote area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관리를 하고 있음.
- 지역의 NGO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USAID 등의 공여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와 ODA

- 우선 정부는 ODA와 FDI를 전혀 별개의 이슈로 생각하고 있음
- 현재 에티오피아는 FDI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로 FDI는 성장하고 있음. 농업분야에 있어 FDI를 담당하는 Agricultural Investment Support Agency가 있음
- 현재까지는 농업분야에 FDI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민간 부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와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관계

- 전체적인 정책 문건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전달하여 이행하게 하는 시스템이나, 인사, 예산 집행 등은 지방정부가 맡아서 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함

3. CIMMYT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19일 10:30~ 11:30

○ 장소: ILRI campus

○ 면담자:

- 면담대상: CIMMYT 김혜구 박사(Global Conservative Agriculture Program, Crop Physiologist)
- 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CIMMYT의 에티오피아 내 활동

- 기본적으로 CIMMYT는 전 세계 15개 국가에 연구소를 가진 국제연구기구임. 에티오피아에서는 다른 연구소와 더불어 국가농업연구기관인 EIAR과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를 통해 개발된 종자 등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효율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EIAR의 연구실 및 EIAR연구원 활용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에티오피아의 농업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연구결과물 중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종자, 기술 등은 보급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에 각지에 전파하고자 함. 이를 위해 에티오피아 국가 extension services system인 FTC(Farmers Training Center) 와 DA(Development Agents)를 활용함. 이들의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하던지, 성과가 좋은 품종 등을 더 효과적으로 파급하기 위하여 지역 NGOs 등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기도 함.

※ DA는 3분야로 나뉘어져 있음(i. 기술분야, ii. 가축분야, iii. 천연자원분야)

※ EIAR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관리되는 연구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는 kebele, woreda, district, region, state 단위로 쪼개지는 에티오피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계획임.

※ NGO 파트너: so~2000, World Vision 등

○ 에티오피아의 특성

- 기술보급 및 교육이 어려운 편인데 이는 에티오피아 국민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정부 또한 충분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특정 종자 사용을 장려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임

- 또한 에티오피아는 기후, 인종, 지리적 조건 등이 아주 다양하며, 기후의 경우 3~4년을 주기로 바뀌며 그 해 기후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국가 GDP도 달라짐. 따라서 특정 종자가 금년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더라고, 다음 해에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종자개발을 한다면 최소한 4~5년은 투자해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에티오피아의 경우 seed enterprise에서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 우수 종자를 보급하게 하기도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처음 1~2해 동안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용하게끔 하고, 종자 판매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자체적인 운영가능한 경제시스템이 갖추어 지도록 해야 함

- 에티오피아는 지역적 특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 하든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함.

-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내 대표적 big government로 강력한 통제능력이 있음. 이와 더불어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DP(Development Partners)들이 강압적으로 하게 하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이 있음. 따라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들과 파트너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최근 추세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자체적이 경제 system이 갖추어지게 하게해야함.

○ 한국의 고려사항

-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 사업이라면 최소한 4~5년은 정도를 보는 중·장기적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 시 적절한(정부 혹은 사업대상지역)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사업 내용, 목적 및 목표, 대상자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찾고 함께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단기 체류 인력보다, 최소한 4~5년 정도를 바라보는 중장기적 인력육성, 안정된 개발 프레임워크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파트너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특정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는 것이 사전에 필요함. 그 후 지역특성에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사업하기 좋은 조건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1. 연방정부 재정경제개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19일 14:00~15:30

○ 장소: 에티오피아 재정경제개발부

○ 면담자:

- 면담 대상: Mr. Kokeb Misrak(Bilateral Cooperation Director), Mr. Dereje Girma(Head of Asia-Pacific), Mr. Meserbt Abebe(Expert in Asia, Middle East, Australia ODA project)
- 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농업의 중요성

- GDP의 40%, 수출의 대부분에 기여하는 농업부문의 중요성은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바, 정부의 정책도 농업생산증대를 시작으로 농가공, 농산업(agricultural industry)으로 발전시켜 국가발전을 이끌고자 함.
-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 원조 조화,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 교육(primary education), 보건, ICT,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지원을 요청함
- 이는 한국의 CPS(~2015)에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임.
- 한국과 협의 중이던 'oil seed processing project'의 진행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구됨

○ 사업 대상 지역 선정

-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국가개발의 'equity'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임. 사업대상지는 당연히 사업의 규모, 목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state의 district 내 woreda 단위까지 선정이 됨.
- 한국과의 CPS에는 productive regions(4개 주) 이 선정되어 있음. 에티오피아는 이러한 approach를 유지할 것임. 하나의 지역, 사업을 선정하여, 성공케이스를 만들어 이를 타 지역으로 전파하는 것이 목표임

○ 타공여국 및 기관 간 협력

- 협력 사업 성공사례는 큰 규모의 사업들로 대표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가 있음
  - AGP(Agricultural Growth Plan): World Bank, USAID 등에 의해 관리된 대표적 성공사례임
  - Sustainable Land Management(SLM): World Bank, GTZ, CIDA 등 총 4~5 양자 및 다자 기구가 협력하는 사업이며, 성공사례로 꼽힘.

- 각 기구들은 기구별 절차를 유지하되, 많은 협의를 통하여 사업/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는 한국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음. 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한국이 DAG에 가입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임

○ FDI & ODA

- FDI는 에티오피아 농업분야에 필요한 요소임. FDI를 통하여 농업의 기계화, 상업농 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부문을 성장케 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단계임
- FDI와 ODA는 국가 발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궁극적으로는 FDI를 통하여 민간부문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여,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임. ODA는 민간부문이 성숙할 동안 민간부문이 기반을 둘 수 있는 사회제반시설을 건설하고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부문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타공여국 및 기관 간 협력

- 한국과 MOFED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KOICA 사업 외에도 도로, 에너지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EXIM사업이 진행될 예정
- 그러나 한국이 타공여국들에 비해선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며 아직 에티오피아 ODA에서 visibility가 높지 않고 에티오피아 정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는 것은 사실임. 이를 향상하기 위하여, DAG 가입 등을 통하여 타공여국, 다자기구 등과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협력하고 자주 소통함으로써 ODA분야에 visibility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많은 공여기구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은 착수, 개발, 진행 중인 사업을 monitoring & reporting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수행중인 사업과 종료된 사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에티오피아 중앙 정부 및 타기구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
-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교우위를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특정지역 및 특정 분야에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에티오피아의 ODA에서 visibility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4. 세계은행(World Bank)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0일 09:00~10:00

○ 장소: World Bank office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 면담자:

- 면담 대상: Teklu Tesfaye(Senior Agricultural Specialist)
- 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에티오피아 농업의 특색

- GDP의 40%,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주요한 부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small holder farmers, subsistence farming, low technology 등 어려운 농업여건을 지니고 있음

○ 에티오피아와 World Bank

- 에티오피아와 World Bank는 60년대 이후부터 오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World Bank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함 ① lending programme.(loans + grants), ② Trust fund management(도너들이 fund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World Bank는 이를 leverage하는 기능을 함), ③ Research & analysis
  - World Bank는 에티오피아 정부에 lending의 형태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world bank를 포함하는 DAG working group은 정부가 AGP, SLM, DM 등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활동을 supervise하고 자문함
- 농업과 관련하여서 World Bank는 RED/FS(rural economic development /food security) working group을 운영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함

- RED/FS working group은 AGP(agricultural growth plan), SLM(sustainable land management), DM(disaster management) 등의 사업을 정부가 운영하는데 자문함

※ 한국이 World Bank와 연계하여 사업을 하고자한다면 trust fund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타공여국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World Bank 사업

- 다양한 사업을 에티오피아 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음
- 그중 대표적인 AGP(Agricultural Growth Programme) 사업의 경우 캐내다,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와 함께 수행을 하며 크게 2 Pillar로 구성되어 있음
  - pillar 1: agro production & commercialisation
  - pillar 2: small scale irrigation, market supports, extension services(FTC)

○ Extension services 와 training of trainers

- FTC는 농민교육을 위해 AGP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FTC에서 DA를 통하여 농민을 교육시키고자 함. 궁극적으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kebele 단위의 FTC를 만들어 농민에게 지역별로 특화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자 함
-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FTC의 경우 성공모델화하여 이를 전파하고자 함
-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한 FTC의 경우도 있으며, 이는 결국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DA,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역량 등이 될 것이며, 더불어 농민들이 동기화가 되어있지 않고 incentivising mechanism이 없는 것도 실패의 원인임
- DA를 교육시키는 교육과정도 지식이나 기술도 충분치 못한 상황임

○ 관개시설

- 엔지니어나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임.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개시설이 충분히 보급이 되어야할 것임
- 네덜란드의 경우, 관개시설사업을 위해 수로를 위한 엔진을 네덜란드에서 직접 공수해온 사례가 있음

○ 부족주의

- 에티오피아는 강한 부족주의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 안의 region, woreda, kebele, village 각자의 캐릭터가 강하며,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함
- 이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equity 이슈임. 사업대상지는 사업의 성격,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많은 협의 후 정부에 의해 최종 결정됨
- 각 주마다 부족적 특색이 있고 부족의 장(chief)가 있지만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임. 에티오피아는 개발의지를 강력한 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지방의 부족주의는 사회적인 측면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임. 예를 들어 주 정부 단위의 농민교육(e.g. extension services, FTC run by DA와 같은 것은 전적으로 주 정부와 논의해야할 사항임)
-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비해서 아주 강한 top-down, authoritative 한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에너지, 통신, 도로 등)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예. 케냐의 경우 종자의 90% 정도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나, 에티오피아는 98%의 종자가 정부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이는 과거 공산주의 체제와 연관이 있음

○ 에티오피아 사업 수행의 주요 사항

- 강한 정부: 중앙정부의 개발 정책이 주 단위로 전달되어 그 이하 단위로 이행이 되어지며, 정부는 개발에 대한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국가를 관리하고자 함. 어떠한 개발 사업, 정책이더라고 정부차원에서 인식되고 인정받지 않으면 수행될 수가 없음. 원조기관들도 에티오피아 정부의 이러한 캐릭터를 이해하고 파트너 적인 입장에서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수적인 국민성

○ 에티오피아 농업 개발을 위한 주요 사항

- 물: 에티오피아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이고, 농업발전에는 물이 필수적인 요소임. 에티오피아는 특히 기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관개시설의 개발이 에티오피아 농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요소일 것임
- 인력 개발: 교육시설, 농민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님. 농업개발을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이 필수적일 것이므로 농업 R&D, 농민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대부분의 농업이 여전히 수작업으로 되고 있고 수확후관리 단계에서 손실률은 30% 정도로 높음. 농업의 기계화는 농업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에티오피아 식량 소비 패턴

- 테프가 주요 작물로 생산 및 소비되고 있고 옥수수, 밀 등이 생산되고 있음
- 쌀의 경우 그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도시의 사람들은 쌀을 이미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기 힘든 경우였음. 아직까지도 농촌지역이나 지방거주자들에게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쌀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고 소비량 또한 늘어날 것임.

○ AGP(Agricultural Growth Plan)

- AGP Phase 1은 2015년에 끝날 예정이며 2015~2020을 위한 Phase 2가 개발 중에 있음. World Bank는 향 후 20년 정도까지는 AGP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5. USAID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0일 13:30~15:00

○ 장소: USAID

○ 면담자:

- 면담대상: Gary Robbins(Office Chief, Economic Growth and Transformation Agency), Adam Silagyi(Feed the Future Team Leader), Tewodrow Yeshiwork (Agricultural Productivity Advisor), Daniel Swift(Economist)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USAID의 에티오피아 지원

- USAID는 에티오피아에서 5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원조 기관으로, 대사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미국 국적의 스텝들과 에티오피아 현지 스텝들을 고용하여 에티오피아에 내 양자 원조 기관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음
-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량과 관련하여서는 'Feed the Future'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9개의 농업 가치 사슬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사업임
- USAID는 에티오피아 정부와 오랜 기간 동안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정부와의 파트너/협력관계 유지는 강한 정부를 가진 에티오피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특히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잘 활용하면 공여기관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됨.
- 다른 양자, 다자 기구들과 함께 AGP(Agricultural Growth Programme)와 같은 규모 있는 농업발전에 관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Feed the Future(FtF)

- 5천만불 규모의 사업으로 빈곤 퇴치, 영양 균형 향상이라는 2개의 축을 가지고 있음. FtF는 4개 주 72,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으로 매년 서베이를 통해 이들의 상태와 향상 정도를 측정하여 측정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형성과정

- 사업대상지에 대한 연구 분석을 기초로 하여, 대상지에서 측정 및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후, tender를 통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함
- USAID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사업수행자의 경우 local NGO, international NGO 등이 될 수 있을 것임(미국 본국에서 파견된 PMC, CM 등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음)
- USAID는 사업 수행에 대하여 연방정부와도 agreement를 작성하며, 사업대상 주정부와도 agreement를 작성함.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기관 또한 USAID에 등록됨
- 사업대상지 선정은 equity issue등을 고려하여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됨

○ 사업시행

- USAID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선정된 local 사업수행자가 있으며, USAID는 이들의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이들을 수퍼바이즈하는 정도의 기능을 함.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USAID는 70~80년대에 그 규모를 축소시켜야 했음 – 인력 축소 요구 대응
  - 비용 절감
  - 현지 기관 및 로컬 스텝의 engagement 향상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유연성 확보

○ 에티오피아에 대한 접근법

- USAID는 에티오피아를 크게 3개의 존으로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함(Productive Ethiopia, Hungry Ethiopia, Pastoral Ethiopia)
- 강한 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력관계 유지가 아주 중요하며, 사업의 진행상황과 사후관리 상황을 monitoring하고 정부와 reporting하는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기타 의견

- 농업보다는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경제 정책 등에 대해 자문하는 등의 사업이 easy starting point가 될 수도 있음.

- ATA(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cy)는 현재 다자 및 양자기구들과 다양한 농업 사업을 수행 중이므로 ATA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임

※ USAID는 본 연구 수행팀이 USAID와 협력관계인 NGO와 면담할 수 있도록 지원함.

6. RED/FS Working Group(Rural Economic Development/Food Security Working Group)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0일 15:30~16:30

○ 장소: World Bank 내 RED/FS Working Group office

○ 면담자:

- 면담 대상: Gary Wallace(Donor coordinator)
- 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RED/FS(Rural Economic Development/Food Security) working group

- RED/FW Working group는 에티오피아에 원조하는 양자, 다자 기관들 및 civil society들이 에티오피아 정부와 한자리에 모여 원조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정부의 원조수요를 파악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음
- RED/FS Working group 내에는 4개의 전문분야 협의회가 있으며, 이는 에티오피아 농업부 조직도와 동일한 구조로 짜여서 해당분야의 농업부 차관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각 협의회별로 담당 분야의 차관이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상황이나 개발수요가 수시로 전달되게 하며,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이 개발될 수 있게 함. 특히 강한 정부를 지닌 에티오피아의 경우 정부와 연계하여 이들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힘듦. 따라서 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큰 장점으로 여겨짐 (차관의 참여는 authority,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를 가진다는 면에서 의미가 큼). 차관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directorate level의 공무원이 협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함. 각 협의회는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task force와 working group이 있는데, 예를 들어 Technical Committee Agricultural Growth의 경우 extension services task force, research & technology task fore, agricultural inputs and credits task force가 있음.
- 각 협의회는 flagship 프로그램이 있는데 Technical Committee 'Agricultural Growth'의 경우 AGP(Agricultural Growth Plan)가 있음.
- 이 모든 협의회를 아우라는 RED/FS executive committee는 각 협의회의 chair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바로 아래에는 M&E task force, Broad RED&FS platform 등이 있음. Broad RED&FS platform의 경우 1년에 1~2회 열리는데 working group의 멤버뿐만 아니라 NGOs 등의 civil society가 참여하여 협의하는 자리임.
- 현재로는 22~24개 정도의 멤버가 있고, 이중 활발히 활동하는 멤버는 12개 정도임
- 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와 WG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원조기관들에 의해 그들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은 그들이 해야 함.

○ 고려사항

- RED/FS 가입 장점: 원조 조화, 원조의 효율성, 네트워크, 원조수요 파악, 경험 및 지식 공유 등
- RED/FS 가입 단점: 시간, 인력 투입이 요구되므로 이는 멤버의 기회비용의 문제임, 그 외의 기술적인 단점은 이제까지 제기되지 않았음.

- 멤버들은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뿐이며, 각자의 사업수행방식은 존중받음
- 이와 같은 시스템은 에티오피아에서 유일하며, 르완다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케이스는 공여국 협력 플랫폼의 성공사례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벤치마크 하고자 함.
- 에티오피아의 경우, 정부의 농업 개발에 대한 의지가 크므로 다른 섹터의working group보다도 RED/FS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7. 오로미아 주정부 농업부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1일 09:00~10:30

○ 장소: 오로미아 주정부 건물

○ 면담자:

- 면담대상: Dr Dejere Gudeta(Deputy Director of Livestock Development and Health Agency), Yohannes Geleta(Process Owner for Irrigation Service), Takele Kurunde(Expert of Coffee Industry from Bureau of Agriculture)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오로미아주의 쌀 산업

- 쌀은 에티오피아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농민들에게 그리 익숙한 작물은 아님. 따라서 특정 지역의 농가 식량 확보 차원에서 재배되고 있음. 쌀은 암하라주에서 재배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오로미아주로 이주해온 농민들에 의하여 최초로 소개되었음.

- 특히 오로미아의 서쪽지방(Highly rain-fed) 등에서 마을 단위의 쌀 생산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생산하여 자가소비하는데 그치고 있고, 상업화되어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현지 조건에 적합한 품종의 부재
  - 쌀 생산에 대한 농민의 지식 및 기술 부족
  - 오로미아 주의 서쪽 지방은 정부에서 지정한 커피 생산 지역으로 커피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현재로서는 수확후관리를 위한 기술 및 장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쌀 생산을 위한 교육도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아르시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 2 kebele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으로 PM의 commitment가 아주 높았으며, 지역 농가들과 Oownership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좋은 예로 들 수 있을 것임
- 보급된 기기(e.g. tractor)를 통해 가축을 농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음.
- 좋은 예로 생각되어지며 사업은 scale up 될 예정임

○ 농민역량강화 & Extension ervices system - Outcome/Challenges

- 산출물: 각 kebele 마다 하나의 FTC가 있으며, 1개의 FTC에는 3명의 DA가 있음 FTC를 통해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기술 활용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livelihood를 강화하고자 함.
- 문제점: 1) FTC 장비와 설비 부족 2) DA's commitment - 낮은 보수 등으로 DA등이 꾸준히 활동하기 힘든 구조임
- 현재 오로미아주에는 34개 Woredas가 있으며, 이 Woreda 중 중앙정부의 AGP의 지원을 받는 Woreda에 있는 FTC는 그렇지 않은 Woreda에 있는 FTC만큼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함. 이는 AGP에 해당하지 않는 FTC는 기술교육 지원,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기 때문임

- AGP의 지원을 받는 FTC와 그렇지 못한 FTC 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 갭(gap)을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함.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의 농업국(Bureau of Agriculture)과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음. 현재 FTC 분야에 직접적인 국제협력사업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Extension services system - FTC/DA

- 오로미아주는 6400개 이상의 kebe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kebele 단위의 FTC가 운영 중에 있음. 각 FTC에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농업생산, 가축, 천연자원관리)를 가진 3명의 DA가 배정되어 있음

※ Administrative hierarchy: Federal/Region/Zone/District(woreda)/Peasants Association (kebele)

※ 유목민들은 등록된 주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이동하며, AGP와는 별개로 World Bank에서 지원하는 유목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음(예. PCDP(Pastoral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me)

○ 토지 제도 및 토양 보존

- land certificate 시스템: land certificate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같다고 할 수 있음. 땅을 경작하거나, 가족에서 증여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그러나 땅을 팔수 있는 권리는 갖지 못함.
- 농민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토양 손실이나 토양 보존에 대해 관리하는 편이며, 그렇지 못한 땅이 있다면 공동소유의 토지인 경우가 많음
- 정부가 관개시설을 구축한 한 토지의 경우, 인근 농부에게 재분배됨. 소농은 이 인근 땅의 0.25ha ~ 최고 0.75ha를 평생 가질 수 있으며, 해당 토지는 가족에게 증여가 가능함. 혹은 다른 지역에 살 고 있는 농가에 임대하거나 그들과 토지를 교환할 수 있음
- 에티오피아 농민들의 대부분은 소농이며 이들은 대개 0.25ha이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 관개시설

- 대규모 소규모 관개시설이 있고, 주 단위에서는 micro 단위의 관개시설이 존재함

- 대체적으로 소규모 관개시설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편임. 그 이유는 소규모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수자원관리협회 나 농민조합 등이 공동으로 관개시설을 관리하여, mis-use가 있을 시 지역 커뮤니티의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등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관리하기 때문임

○ 사업 수행 연결 지점(contact point)

- 최초 contact point는 정부가 되어야할 것임. 그 후 사업수행 차원에서는 오로미아주의 지역 정부, NGOs, 전통적 개념의 부족단위의 리더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은 정부와 대체적으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전통부족, 지방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 등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일단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꾸준한 협의를 통해 공통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8. 오로미아주 아르시 존 히토사 Woreda 농업국(Bureau of Agriculture)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1일 14:00~17:30

○ 장소: 오로미아주 아르시 존 Woreda office

○ 면담자:

- 면담대상: Melese Roba(Head of Livesock Development and Health Office), Birdituan Horsa(Development Agent), Dadefo Jeldo(Process Owner of Agricultural Extensions)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현재 해당 Woreda에는 23개의 Kebele가 있으며 19개의 FTC가 있음
- 각 FTC에는 1~3명의 DA가 교육 및 농민지도를 진행 중임
- FTC는 DA사무소와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재는 정부에서 제공하며, 이 내용은 각 주 및 Woreda별 언어로 번역되어 DA들에게 제공됨. DA들은 교재 외에도 주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하여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음.
- 보통의 DA들은 농번기에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음. 농번기 외 기간에는 주 2~3회 강의를 진행하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이들을 지도함
- DA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외 다른 직업을 가질 수는 없음
- DA는 ATVET에서 Diploma를 수료해야하며, 정부는 평가가 좋은 DA를 1년에 8명의 선정하여 대학에서 정식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함. 학위 기간 동안 임금은 물론 생활비가 지원이 됨. 그러나 해당 대상자로 선정이 된 DA는 학위 수료 후 FTC로 돌아와 최소한 5년 이상 DA로 활동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이를 지키지 못하는 DA는 교육기간동안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환불해야함

○ Woreda FTC 시스템의 현실

- DA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고, 학위 수료 후 DA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음
- 해당 Woreda의 경우 1명의 DA가 800개의 가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업무 부담이 상당함
- 피교육자인 농민의 경우, 전체적으로 강의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DA로부터 지도를 받고자 하나 DA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 농민들은 첫 해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에 대한 흥미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함
- 방문한 FTC의 경우, 농업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음. 책걸상 등 아주 간단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나마도 없는FTC가 있음. 또한 시범포를 조성하여 농민에게 선진농업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보수적인 에티오피아 농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시범포를 조성할 수 있는 토지조차 없는 FTC가 많음

※ DA는 Process owner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DA아래로는 Kebele leader, 그 아래로는 25가구 정도를 책임지는 Agri leader가 있음

9. 아디스아바바 대학 개발연구소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2일(토) 11:00~12:00

○ 장소: 아디스 아바바 대학교

○ 면담자:

- 면담대상: 아디스아바바 대학 개발연구소 농촌경제학과 Dr. Workneh Negatu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 전문가)

(2) 회의내용

○ 에티오피아 농업 환경 및 농촌지도시스템

- 에티오피아는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진 국가로서 엄청난 농업생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 환경이 다양한 만큼 지역별 접근법이 요구되며, 자연 환경, 전통적인 관습, 부족주의 등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에 대해 차별화된 전문 연구가 요구됨
- 농촌지도사(DA)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이 있고 우수한 농촌지도사를 선별하여 전문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농촌지도 환경이 열악하여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에티오피아 농촌종합개발사업

- 다양한 공여국들이 농촌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국가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를 꼽기는 힘들며, 이러한 사업일수록 현지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10. ATA(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cy)

(1) 방문개요

○ 일시: 2014년 2월 24일 10:00~11:00

○ 장소: ATA office

○ 면담자:

- 면담대상: Irish Shim(International Consultant), Mefthe Tilahun(Project Analyst)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조사내용

○ ATA 소개

- GTP의 목표를 달성하여 2025년까지 중소득국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국가적 농업전환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년 전 설립되었음
- ATA는 에티오피아 농업의 현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의 문제점 및 전략적 bottleneck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농업 생산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디자인하여 실행에 옮김
- ATA는 농업부, 재정경제부, 교통부, EIAR 등이 멤버인 'agricultural transformation council'이 지휘체제(governing body)로서 ATA의 업무를 관장하며,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UNDP, World Bank, USAID, CIDA, DFID 등의 원조 기관이 지원함
- ATA 크게 이하의 3가지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산품 및 가축 가치 사슬(옥수수, 테프, 밀, 보리 등[12])

12) 쌀, 커피, 가축, 수수 등의 가치사슬 부문 예정임

- 시스템(종자, 협동조합, 토양 등)
- cross-cutting initiatives(성인지, 기후변화 등)

– ATA는 이상의 분야를 크게 두 레벨로 접근함
- 전략 수립
- 전략 수행 지원

○ 기타

– ATA는 농업분야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연관되어 있지 않음

11. EIAR(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4일 14:00~17:30

○ 장소: EIAR Head office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 면담자:

– 면담대상: Dr. Fisseha Zegeye(Associate Research), Dr. Adugna Wakigira (DDG of EIAR), Dr. Amha Kassahun(Agro-economist specialised in gender), Dr. Abebe Atlaw, Dr. Kidane G(Livestock), Dr. Endale Gebre(Deputy Director of Crop Research)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EIAR 소개

– EIAR은 에티오피아에 전역에 15개의 연구 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전체 3,000명 정도의 연구 및 연구지원 인력이 있음. 아디스 아바바 EIAR 본부에는 250명 정도의 연구원이 있음

- EIAR은 연방정부 소속의 연구기관이며, 7개의 지역연구센터가 있음

○ EIAR 발표

- Overview of Agricultural R&D and Extension system in Ethiopia
- Research and Development in Pastoral and Agro-Pastoral Areas of Ethiopia: Challenges, Achievements and Future Outlook
- Status and potential of Rice Production in Ethiopia
- Enset Production in Ethiopia: Challenges and Potential

○ Q&A

- Extension system
  - 전국에 25개의 ATVET가 있으며, 연방부터 지방농업국까지 연결되어 있음
  - EIAR은 ATVET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지 않으나, 농림부의 요청이 있을 시 DA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의 지원을 함
  - FTC는 농민기술교육을 위한 entry point임
  - 현재 농민지도 시스템은 체계적이나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쌀 생산 관련
  - 쌀 생산지: 18 upland rice varieties, 17 irrigated rice varieties, 30,000ha-rice production land
  - 에티오피아는 18개의 high land종, 17개의 irrigated rice varieties와 더불어 low land 쌀 품종도 개발 중이며, 쌀은 큰 잠재력을 가진 품종으로 정부에서 쌀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R&D 부문 또한 성장하고 있음
- 기타 및 ODA 관련
  - 농업 및 농촌 관련 사업의 경우 효과를 단기간에 보기 힘들며, 장기사업인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글을 읽을 수 없는 농민들의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 시범을 보여주어야 농민들에게 효과를 볼 수 있음
  - CIMMYT 등의 국제연구기관과 농업 관련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Gender: gender issue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성 인지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진행 중임. 여성의 empowerment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gender sensitive technology – e.g. 야채, 과일 등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관리되었고 이는 더욱 더 장려되고 있음

12. GIZ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5일 10:00~11:30

○ 장소: GIZ office,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 면담자:

- 면담대상: Dr.hans Schoeneberger(SLM Programme Manager)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GIZ 소개

- 에티오피아는 독일의 원조 대상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원조를 받음 (에티오피아에서는 USAID가 가장 큼)
- 현재 GIZ 에티오피아 사무소는 총 700명 정도의 스텝이 있으며, 600명 정도가 현지 인력임. 아디스아바바 사무소 직원 외 주정부사무소, woreda 사무소에 advisor, trainer 등으로 파견되어 있음
- 독일은 교육, 농업분야를 대 에티오피아 중점 지원 대상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함 1) 기술지원(technical cooperation - advisory, training, coaching), 2) 재정적 지원[13)]

○ GIZ 지원 전략

- 기술 지원 파트는 주로 에티오피아 정부 농업부의 정책을 지원함.
- 에티오피아 농업부는 4개의 부처를 가지고 있으며, 각 부처마다 flagship 프로그램이 있음.(e.g. AGP, SLM, PNSP). GIZ는 이 중에서도 natural resources department의 Sustainable Land Management(SLM) 사업을 집중 지원함. SLM 사업은 GIZ를 포함하여 World Bank, 캐나다, EU 등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13) 두 지원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merged하여 큰 규모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음

- SLM 분야의 extension service를 지원하기 위해서 woreda 사무소에 독일 전문가(advisor, expert)를 파견하여, DAs를 교육하는 트레이너를 지도함. 이들은 SLM사업대상인 177개의 woreda를 대상으로 파견되어 있음
- 독일은 정부의 DA교육 시스템인 ATVET를 지원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이들이 개발한 커리큘럼, 교재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기여하지 않기로 함[14)]
- GIZ은 SLM 지원을 주로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독일 농업부에서 지원하는 'Ethiopian-German Training Institute(ATC)'가 있음
- 독일의 ATC 사업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지도 시스템과는 완전 별개의 사업인 PPP 사업으로 농업의 기계화에 초점을 두어 지역 농민 협동조합을 지원함. 독일의 민간 농기계 기업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기 보다는 기기의 홍보 및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PPP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본 사업은 현지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그 수요가 증가하여 인근 지역에도 효과가 퍼지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PPP 사업은 에티오피아 외 5~6개 정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음
-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사업 수행 형태 또한 바뀌고 있음. 15년 전 즈음에는 GIZ도 field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정부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고 있으며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사업의 효과 확산의 효과성 향상
  - 비용 절감

○ 기타 고려 사항

-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표적인 강한 top-down 정부로서 정부의 개발 정책 및 전략과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스코프 외 분야는 중점분야로 보지 않음

14) 이 분야에는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ATVET를 선정하여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고위 관료들조차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부 관료들은 담당 프로그램이 아니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음. 따라서 그 외 분야는 필요한 지원을 받기가 힘듦[15)]
- GIZ는 ATA, EIAR 등의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는 다른 공여국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13. JICA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5일 14:00~15:30

○ 장소: JICA office,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 면담자:

- 면담대상: Ms. Miki Motomura, Mr. Fumiaki Saso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 전문가)

(2) 회의내용

○ JICA의 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

- JICA는 다양한 농업 및 농촌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대개 기술 협력,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육 등으로 일본 및 국제 NGOs 등과도 협력함
- 농민지도에 관한 사업으로 SFS(Seed Farmer's School)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현 에티오피아가 가진 농민지도시스템과는 별개의 사업임

15) 에티오피아의 경우, 농업 중심의 개발 정책 및 전략이 잘 짜여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에티오피아를 상대하는 여러 공여국들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음

- 에티오피아 정부가 가진 농민지도시스템을 활용하려 했으나, 기존의 FTC, DA 등은 잘 운영되지 않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바, 자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로 함
- 현재 QSPP 사업은 마지막 단계이며, JICA는 본 사업은 정부의 extension service을 보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에티오피아 내부 정책화하기 위해 협의 중임
- JICA는 본 사업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렇듯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사업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임

○ FRG(Farmers Reseach Group)

- 컨셉은 SFS은 유사함. 에티오피아 농업 R&D는 발전하고 있으나, R&D 결과(e.g. 기술, 종자) 등이 농민에게 전달되지 않음. JICA는 그 이유가 R&D의 내용이 실지로 농민들이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농민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이들의 needs/demands가 연구에 반영되어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 R&D 결과가 나오도록 장려함
- FRG는 크게 두 phase로 되어 있음
  - Phase 1: 오로미아 주 시행
  - Phase 2: 연방정부 전파(지역 EIAR 등 농업연구기관의 연구 시스템에 반영되게 함)
- 사업 기간: 보통 JICA의 사업 기간은 3~4년, FRG(10년 사업 - phase 1(5년), phase 2(5년))

○ OVOP(One Village One Product)

- OVOP 사업의 경우, 지역 정부, 일본 전문가 등과 함께 수행되고 있으나, 재원,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OVOP의 컨셉이 아직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JICA와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의 연장을 고려하고 있음
- OVOP의 경우, 사업 대상 주인 SNNPR 농업국 내 OVOP 사업 및 농촌개발을 담당하는 Agency가 설립되었음

- OVOP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며, 그 후 다른 지역으로 파급이 가능할 것임
- OVOP는 5개의 woreda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강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woreda는 성공스토리를 보이고 있음

○ 쌀

- 에티오피아의 쌀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JICA는 아직 착수된 쌀 특화 사업은 없으나 KOICA와 협의 중임
- FRG사업과 OVOP 사업 중 쌀 연구를 하는 사업이 있음. 현재 JICA & international NGOs가 협력하여 티그라이에서 연구 사업을 하고 있음

○ 기타

- 타공여국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는 사업은 없으나, FAO 등 기관의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으며, DAG, working group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타 공여국과 교류함
- 정리하자면 JICA는 에티오피아의 AGP, SLM 등의 common basket funding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다른 공여국들과는 달리 bottom-up approach/on the ground technical assistance/grassroots approach를 취한다고 할 수 있음[16)]

14.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5일 16:30~17:30

○ 장소: AfDB office,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16) 타아프리카 JICA 사업은 common basket funding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에티오피아는 그렇지 않으며, 그 이유는 불명확함

○ 면담자:

- 면담대상: Harouna Dosso(Senior Agronomist), Admit Zerihun(Senior Macroeconomist)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AfDB 사업 및 협력방안 소개

- AfDB는 최근 한국과 MOU를 맺었으며, 한국은 AfDB는 trust fund의 멤버임
- AfDB는 에티오피아정부의 'Poverty Alleviation Strategy'에 기반을 둔 전략을 수립하며, 특히 'Poverty reduction & Pro-poor type of investment' 초점을 두고 있음
- 에티오피아 정부와 2년에 한번 씩 전략 지원 부분 등을 협의함

○ 농업부문 사업

- 농업부문은 에티오피아 개발을 위한 주요 전략 부문으로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로 함. 그러나 에티오피아 농업의 특성 상 국가전체 농업을 개발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대면하고 있음
- 농업지원은 차관(loan)의 형태로 제공되며, 자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농업국에 의해 집행되며 AfDB는 이를 supervise하고 있음, 현재 AfDB는 주요 사업으로는 아래의 세 가지가 있음
  1) Crop sector project: $52m(agriculture sector support investment)
  2) Livestock sector: $30m(livestock health)
  3) Drought resilience project: $100m(2014 - 2019) for pastoral/agro pastoral areas(e.g. 아파(Afar), 소말리(Somali), SNNP etc)
- 이 외에도 G20 국가들이 지원하는 $800,000 상당의 Agricultural trust fund가 있으며 이는 농산업 부문(agri-business) 성장을 지원함: Promote, give, emerging e.g. bamboo project

○ 시사점 및 고려사항

- 에티오피아에서 농업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수행자의 사업관리 능력, 인적 역량 부족에 기인함.
- 더불어 에티오피아는 다양한 자연환경 및 사회적 조건을 가진 국가로 이에 맞춤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함
- AfDB의 정책은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을 개발하고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이는 AfDB뿐만 아니라 최근 공여국 국제사회의 트렌드이기도 함

15. WFP(World Food Programme)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6일 09:30~10:45

○ 장소: WFP office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 면담자:

- 면담대상: Hakan Tongul(Head of Programme), Arega Yirga(Programme Officer), Kiyori Ueno(Donor Relations Officer)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WFP 소개

- WFP는 기본적으로 Humanitarian aid를 제공하는 UN산하 국제기구이며, 에티오피아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인 PSNP(Productive Safety Net Programme)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Pastoral 지역(아파(Afar)m 소말리(Somali))을 대상으로 함

- PSNP의 기본적인 틀은 전통적으로 만성적인 기근을 겪고 있는 지역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식량을 제공 받는 주민들은 WFP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임

○ 그 외 사업

- WFP 에티오피아에서 시범으로 수행중인 MERET 사업
  - MERET은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진 않지만 식량이 부족하여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지역의 농가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 WFP에서 계곡, 테라스 등을 건설하는 Watershed management 사업을 개발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노동력을 제공하게끔 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거나 식량을 제공하는 구조임
  - WFP 에티오피아 사무소는 Land degradation이 에티오피아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데 Key bottleneck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에티오피아에 450개의 Watershed management 사업이 있음
  - 해당 사업을 25년간 수행 중이며, 자금이 부족하여 지원이 끊긴 지역에서도 지역커뮤니티가 자주적으로 Watershed management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지역이 있음 - 궁극적으로 Community owned project가 되게끔 함
- Purchase for food
  - WFP는 예전에는 미국, 인도 등에서 수입해온 쌀을 Humanitarian aid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였음
  - 최근 영국 등 공여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금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잉여 식량을 협동조합, 농민 조합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 지원함
- School Feeding Project(소말리 지역)

○ PSNP 와 MERET 비교

- 토양 관리, 천연 자원 관리 차원의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에 저수지 등을 개발하고, 노동의 대가로 식량, 임금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틀은 동일함

- 차이점은 PSNP는 국가 정책의 하나로 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한다는 점이고, MERET은 지역커뮤니티와 농민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게 한다는 점임
- MERET 은 WFP시범사업으로 에티오피아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타 수원국 WFP 사무소에서도 벤치마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사업임

○ 기타

- 에티오피아의 농업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시장연결성과 가치사슬의 개발이 부재하다는 것임. 이와 더불어 기계화와 기술전문 인력 부족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지원을 받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지역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시장으로 운송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도로, 차량 등)이 없어 잉여의 농산품을 생산하게 되더라고 이로 인해 수입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구조임
- 에티오피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면 연방정부 농업부, 주정부 농업부, 농업국 등 이들과 연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임

1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6일 11:30~12:30

○ 장소: FAO office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 면담자:

- 면담대상: Dr. Hassen Ali(Assistant FAO Representative in Ethiopia)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FAO 사업 소개

- FAO 에티오피아 국가 사무소 및 동아프리카 사무소가 아디스아바바에 있으며 그 외 지방사무소들이 있음
- FAO는 로마, 아크라 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에티오피아 정부가 요청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함

○ FAO의 활동

- FAO는 에티오피아 정부 개발 정책인 GTP에 기반을 둔 지원전략을 설계함(예. Policy investment framework in agriculture – revised version of CAADP)
- 일반적인 사업 형성 절차로는 FAO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 자체적으로 사업을 형성하고, 그 외 개발협력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함
- 그 외로 FAO 사업으로 pest control 의 지방 사업이나, 정부의 정책 설계 자문 지원 등이 있음
- 농민지도와 관련하여 Farmers Field School, Farmers Business School, Pastoral Field School 등의 운영하고 있으면 정부의 FTC 시스템과 연계되기도 함
- FTC를 선정하여 종자, 기술, 기기 지원 등을 제공함

○ ODA 사업 관련

- 이 분야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각 나라별로 다른 행정, 조달 시스템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17. LG Hope Village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6일 13:30~16:30

○ 장소: LG Hope Village 사업지

(2) 방문내용

○ LG Hope Village 소개

- LG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으로 농민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통해 농촌마을이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함.
-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덕데데라(Dugdedera Village)에 모델마을을 건설 중이며, KOICA와 함께 직업훈련원 건설을 계획 중임
- 모델 마을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 게스트 하우스
  - 마을회관(community training center)
  - 창고 2개(horticulture, animal husbandry)
  - 양계장(1,000마리)
  - 온실
  - 태양광발전시설:20KW, 80ea panel
  - 물탱크
  - 저수지(50m * 20m * 3m)
  - 시범포

18. 아다마 대학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6일 17:30~18:30

○ 장소: 아디스아바바 레인보우식당

○ 면담자:

- 면담대상: 이무하(아다마 대학 학장), 박찬홍(World Friends advisor, 임업전문가)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에티오피아 농업

- 에티오피아 농업의 대부분은 소농임을 충분히 감안해함
- 주별로 토양, 기후 등 매우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차이가 있음
- 큰 문제는 산림의 유실, 토양 악화며 이들이 궁극적으로 물 부족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음
- 산림유실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이를 머금고 있을 수 있는 나무들이 없고, 약간의 비에도 토양이 쓸러 내려감

○ 기타 고려사항

- 에티오피아의 연방정부 체제는 유지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주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며, 또 각 주마다 그 특색이 있고 하부단위인 kebele-woreda-zone의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부차원에서 협의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힘들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성공한 시범목장, 시범모델 등을 만들어 성공리에 운영하게하고 이것을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19. 주 에티오피아 대한민국 대사관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세미나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7일 09:30~15:00

○ 장소: 엘릴리 호텔,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2) 회의내용

○ 주요 발표

- 김후경(KDS/기획관): 중점협력 3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사업 현지조사 결과 보고
- 이무하(아다마 대학/학장): 에티오피아 축산 발전 전략
- 김혜구(CIMMYT/연구원): 국제농업연구센터 관점에서 접하는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thiopia
- 김상현(새마을봉사단/단원): 새마을봉사단 사업지 소득증대 사업 현황
- 유윤희(새마을봉사단/관리요원): 새마을봉사단 성공사례 발표
- 최종학(한국농어촌공사/에티오피아 농업용수개발 사업단 용역단장): Agricultural Water Development Project in Ethiopia
- 조현묵(KOPIA 에티오피아 센터/소장):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13 추진 사업 성과 및 '14 계획
-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향후 주재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 연구사업 관련 주요 고려사항

-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
- 공무원의 부패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집행 및 공무원 평가
- 연방정부 체제: 주정부, 연방정부, 농업국 등 행정구조
- 타공여국의(숨겨진) 사업 수행 방식: Top down/Bottom up
- 농업용수 확보가 최우선 - 관개시설

※ 여러 서방 국가들이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음.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개발모델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개발모델은 이들과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나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Mind-Reset'과 새마을운동 정신이 핵심

※ USAID 성공사례: 에티오피아 등 잉여농산품이 있더라고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임. 미국의 성공사례로 오렌지 종자를 공급하여 재배토록 한 후, 생산된 오렌지를 다시 구매하여 학교 등에 무료 보급하여 판로를 개척하여 지속가능한 Economic System을 설계하고, 학생의 영양균형도 관리한 사례가 있음

※ KOICA 사무소 의견: 예산에 적절하며 현실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20. Mercy Corps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8일 11:00~12:30

○ 장소: Mercy Corps office,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 면담자:

- 면담대상: Karri Goeldner Byrne(PRIME Chief of Party)
- 참여연구진: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Mercy Corps-USAID partnership project - PRIME 소개

- pastoral region의 지역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 가축 생산성 향상, 2) 가축 생산 환경 개선, 3) 지역사회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가축 Value Chain 및 시장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USAID외 민간 기업 및 투자자도 참여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지는 소말리 지역과 아파 지역임

- 사업 구조
  - USAID를 포함한 8명의 개인 및 민간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해당 지역에 도살장을 건설하여 지역 주민들이 가축을 도살장으로 합법적인 루트를 통하여 팔고 합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자 하며, 인근 지역의 60,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현재 지역 농민들은 살아있는 가축(live animal)을 불법적으로 소말리아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상태이며, 가축들을 영양 상태나 도살장의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 지역 정부의 역할은 토지, 전기, 도로 등 $600,000 상당의 제반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처음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지금은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PRIME은 개발단계부터 GTP가 제시하는 방향과 조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방정부, 지방정부와 agreement를 사인하였음

○ Mercy Corps의 에티오피아 활동

- Mercy Corps는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HQ와 더불어 전역에 지역 사무소를 투고 있으며, 현재 PRIME사업을 관리하는 지역에는 약 20명 정도의 요원이 있음

- Mercy Corps가 수행하고, USAID는 사업에 투자한 이해관계자로서 사업지를 방문·점검 하는 정도임

- USAID 요원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잠재적인 security issue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USAID 소속 요원은 지방에 머물려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들이 Mercy Corps와 같은 NGO에게는 상대적인 장점이 될 수가 있음

  ※ Key to the security: 지역 주민, 지역사회 대표(chief) 등과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기타 의견

- Mercy Corps와 USAID는 mutual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유지함

- 보통 사업 형성 구조는 USAID가 concept을 제시하면 여러 NGO 등 기관들이 해당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을 확정지음

- 보통 공여국 사무소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정도와 협의를 하며, 그 이하 단위로 내려가서 협력관계를 구축하지는 않음. 그 이하의 Woreda, Kebele 단위는 NGO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을 함
- 여러 지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에티오피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kebele 단위까지 내려가야 하며, 에티오피아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Local politics, Local personalities, Network, Kebele level knowledge)가 필수적임
- 공여국 사무소/정부는 Bureaucracy 등 그 성질상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파악하기는 힘듦

21. KOICA 보고

(1) 회의내용

○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2월 28일 15:30~16:30

○ 장소: KOICA Ethiopia office

○ 참석자: 이병화(KOICA 소장), 동상진(KOICA 부소장),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전문가)

(2) 회의내용

○ 현지조사 내용 중간 결론 보고

- 에티오피아에서는 농업분야가 국가개발의 초석을 다질 중점 분야로서 많은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 그 중에서도 농업지도 및 기술 전파 부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요청이 큰 상황이며, 이는 한국의 비교우위와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에티오피아정부 측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으로 이를 추진하되 보수적인 에티오피아 국민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고 단계적인 장기적 접근법이 필요함
-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정책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공여국과 협력체제로 운영하는 만큼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대화하고 타공여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다지는 것이 필요함
- 타공여국의 lesson learned를 이해하여 시행착오를 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점을 내세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것임. 이에 대한 방법론적인 연구와 더불어 지역적인 in-depth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고려사항 및 기타 의견

- 에티오피아는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토양을 가지고 있고 또 기후 및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농업분야에서 국제협력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KOICA 향후 사업 또한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고 또한 현재 KOICA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재원, 관리 시스템 및 플랫폼 등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서방 주요공여국들이 예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국제기구(UNDP 등)에서 우리나라와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KOICA 또한 여러 방면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22. 아디스아바바 대학 개발연구소

(1) 회의개요

○ 일시: 2014년 3월 1일(토) 17:00~18:00

○ 장소: 볼레엠버서더호텔 라운지

○ 참석자: Dr. Daniel Belay(아디스아바바 대학 개발연구소 농촌경제학 강사), 이명수(주연구원), 김후경(부연구원), 이봉훈(KOICA 농업 전문가)

(2) 회의내용

○ 현지컨설턴트 과제에 대한 논의

- 농촌지도시스템: 현재 에티오피아 농촌지도시스템을 에티오피아 농민과 농촌지도사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요약하며, 이들을 보완하여 현재 농촌지도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할 때 농민의 역량개발차원에서 요구되어질 고려사항들과 프레임워크(desirable framework)를 제시함
- 농촌종합개발사업: 타공여국이 에티오피아에 시행했던 혹은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의 케이스스터디를 2개 정도 정리하여 성공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요약정리하고, 새로운 사업 개발, 착수, 수행 시 고려사항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별첨 3] 주요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	이름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에티오피아 정부	연방정부 농업부	Zenahabtewolde	Director	zenabiru@yahoo.com	251-11-646-1806/ 251-91-142-3975
	연방정부 재정경제개발부	Kokeb Misrak	Director	multilateral-medac@ethionet.et	251-11-155-5075
		Dereje Girma	Head of Asia-Pacific	dejere_girma@yahoo.com	251-911-177-826
		Meserbt Abebe	ODA전문가	messiabebe@gmail.com	251-933-739-978
	오로미아주 농업국	Dr. Dejere Gudeta	Deputy Director	–	251-11-369-0001
		Yohannes Geleta	Process Owner for Irrigation Service	yohketi@gmail.com	251-911-198-1665
		Takele Kurunde	Expert, Agriculture Bur.	tekele.kurunde@gmail.com	251-925-832-455
		Melese Roba	Office Head	–	–
		Birdituan Horsa	Development Agent	–	–
		Dadefo Jeldo	Process Owner of Agricultural Extensions	–	–
타공여국	JICA	Miki Motomura	Representative	Motomura.Miki@jica.go.jp	251-11-550-4755/ 251-91-120-3462
		Fumiaki Saso	Prj. Formulation Advisor	saso.fumiaki@jica.go.jp	251-11-550-4755/ 521-91-123-3887
	GIZ	Dr. hans Schoeneberger	Programme Manager	hans.schoeneberger@giz.de	251-11-662-9982/ 251-91-011-3853
		Dr. Heinz Loos		heinz.loos@giz.de	251-92-071-8505
		Boris Buechler	Senior Advisor	boris.buechler@giz.de	251-11-662-9982/2 51-91-083-9350

구분	기관	이름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USAID	Gary Robbins	Office Chief	grobbins@usaid.gov	251-11-130-6329/2 51-91-151-1756
		Adam Silagyu	FTF Team Leader	asilagyi@usaid.gov	251-11-130-6586/ 251-91-125-2714
		Tewodrow Yeshiwork	Advisor	tyeshiwork@usaid.gov	251-11-130-6386/ 251-91-125-3541
		Daniel Swift	Mission Economist	dswift@usaid.gov	251-11-130-6055/ 251-91-121-8178
국제기구, NGO	AfDB	Dr. harouna Dosso	Senior Agronomist	h.dosso@afdb.org	251-11-554-6336/ 251-91-227-2079
		Ngure Josephine	Resident Representative	j.ngure@afdb.org	–
		Chidozie Emenuga	Country Economist	c.emenuga@afdb.org	–
		Admit Zerihun	Sr. Macroeconomist	a.zerihun@afdb.org	251-11-554-6336/ 251-91-120-2362
	World Bank	Teklu Tesfaye	Sr. Agriculture Specialist	ttesfay@worldbank.org	251-11-517-6042/ 251-91-176-0003
		Andrew Goodland		agoodland@worldbank.org	86-10-5861-7658
		Gary Wallace	Donor Coordinator	gwallace@worldbank.org	251-11-517-6144/ 251-91-385-7888
	WFP	Hakan Tongul	Head of Programmes	hakan.tongul@wfp.org	251-11-551-5188/ 251-91-150-2264
		Arega Yirga	Programme Officer	arega.yirga@wfp.org	251-11-551-5188/ 251-91-167-1494

구분	기관	이름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Kiyori Ueno	Donor Relations Officer	kiyori.ueno@wfp.org	251-11-551-5188/ 251-91-271-0864
	FAO	Dr. hassen Ali	Assistant Representative	Hassen.ali@fao.org	251-11-647-8888/ 251-91-140-2420
	MercyCorps	Karri Goeldner Byrne	PRIME Chief of Party	kbyrne@et.mercycorps.org	251-11-111-0777/ 251-92-065-6911
현지 전문가	아디스 아바바 (Addis Ababa) University	Prof. Tegenge Gebre-Egziabher	교수	tegegneg@yahoo.com	251-911-896-400
		Dr. Workneh Negatu	교수	wnegatu@yahoo.com	–
		Dr. Daniel Belay	강사	danbelay@gmail.com	251-911-856-311
	Adama U niversity	이무하	학장	michael81348@gmail.com	251-22-331-4835/ 251-91-959-3985
	CIMMYT	김혜구	박사	hk.kim@cgiar.org	251-11-646-2324/ 251-93-554-4328
	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cy	Irish Shim	Program Manager	iris.shim@ata.gov.et	251-11-557-0640/ 251-91-262-7947
		Mefthe Tilahun	Project Analyst	Mefthe.Tilahun@ata.gov.et	–
	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Dr. Fisseha Zegeye	Associate Researcher	f_zegeye@yahoo.com	251-911-939-616
		Dr. Adugna Wakigira	Deputy Director General	abdiWG1960@yahoo.com	251-11-646-2270/ 251-91-781-2190
		Dr. Amha Kassahun	Agro-Economist	–	–
		Dr. Abebe Atlaw		–	–
		Dr. Kidane G	Livestock	–	–

구분	기관	이름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Dr. Endale Gebre	Deputy Director	–	–
	KOPIA 에티오피아 센터	조현묵	소장	mookcho@korea.kr	251-92-212-1894

[별첨 4] RED/FS WG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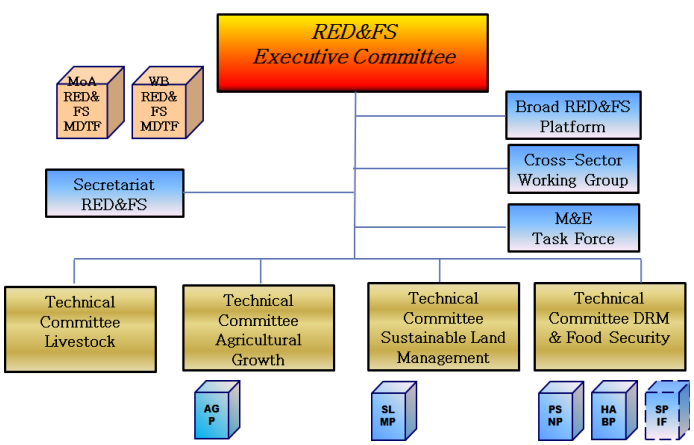
1) Rural Economic Development/Food Security Working Group: RED FS Working Group

- 농업분야 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위해 ODA공여국과 에티오피아 농업부는 2008년 “농촌경제개발/식량안보작업반(RED/FS WG)이라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적인 사안뿐아니라 기술적인 현안까지 협의하는 체제를 갖추어 운용
- RED/FW Working group는 에티오피아에 원조하는 양자, 다자 기관들 및 civil society가 에티오피아 정부와 한자리에 모여 원조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정부의 원조수요를 파악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

2) RED/FS WG의 운영

- RED/FS Working group 내에는 4개의 전문분야 협의회가 있음
- RED/FS Working group의 조직도는 에티오피아 농업부 조직도와 동일한 구조로 짜여져 해당분야의 농업부 차관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그림 RED/FS WG 조직도]



자료)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Ethiopia(DAG): http://www.dagethiop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Itemid=4

- 각 협의회별로 담당 분야의 차관이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상황이나 개발수요가 수시로 전달되게 하며,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이 개발되게 함
- 각 협의회에는 2명의 의장국가가 있으며,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task force와 working group이 있음
- 예를 들어 Technical Committee Agricultural Growth의 경우 extension services task force, research & technology task fore, agricultural inputs and credits task force가 있음
- 각 협의회는 또한 각각의 flagship 프로그램이 있는데 Technical Committee 'Agricultural Growth'의 경우 AGP(Agricultural Growth Plan)가 있음
- 이 모든 협의회를 아우라는 RED/FS executive committee는 각 협의회의 의장들로 구성되어 RED/FS Working Group 전반에 대해 책임짐
- 이들의 바로 아래에는 M&E task force, Broad RED&FS platform 등이 있음
- Broad RED&FS platform의 경우 1년에 1~2회 열리는데 working group의 멤버뿐만 아니라 NGOs 등의 civil society가 참여하여 협의하는 자리임
- 현재로는 22~24개 정도의 멤버가 있고, 이중 활발히 활동하는 멤버는 12개 정도임

<표> RED/FS Working Group 소속 양자 및 다자 기구

양자기구(14개)		다자기구(7개)
Austria	Japan	African Development Bank
Canada	Netherlands	FAO
Finland	Norway	European Union
France	Spain	IFAD
Germany	Sweden	UNDP
Ireland	United Kingdom	World Bank
Italy	United States	World Food Program(WFP)

자료) RED FW Working Group(RED FS WG)
http://www.moa-redfs.gov.et/node/2

[별첨 4-1] 주요 공여국의 에티오피아 현지 활동개요

ODA기관/국가	미션/목적	우선분야/에티오피아 지원	현지사무소
1. USAID/US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ttp://www.usaid	o 미션: 기아와 빈곤 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땅 실현 o 목적: -재난예측 및 관리역량 강화 -인력개발과 사회적인 복원력 -Good Governance 역량제고 -시장중심의 경제성장	o 우선분야: -농업, 경제성장, 교육, 보건, 인도적 지원, Good Governance -농업(CAADP 연장선): 생산성, 유통, 전직, 영양, 양성평등과 환경문제 o 에티오피아지원: -772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에티오피아 사무소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5-510851 o 책임자: Mission Director
2. DFID/UK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o 미션: 정부의 빈곤 감축 전략 지원 MDG 고려) o 목적: -영국지원의 예측가능성제고를 위해 DFID와 에티오피아 정부 간 신뢰구축 -정부요구에 부응한 재정지원, 원조 조화 -식량안보, 교육, 정부역량, 시민사회 지원	o 우선분야: -농업과 식량안보, 교육, 보건, Good Governance, 환경 o 에티오피아지원: -460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영국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6-180601 o 책임자: Head of DFID
3. CIDA/Cana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http://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home	o 미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제적 노력 주도 o 목적: -빈곤감축노력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유도	o 우선분야: -식량안보와 농업성장 -어린이와 젊은이들 지원 o 에티오피아지원: -128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캐나다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3-713022 o 책임자: Head of Dev. Cooperation

ODA기관/국가	미션/목적	우선분야/에티오피아 지원	현지사무소
4. JICA/Japan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ttp://www.jica.go.jp/english/	o 미션: –경제성장 촉진 –MDG와 관련 인간생존보장 –환경과 기후변화문제 대응 o 목적: –중기적인 차원의 식량안보 실현을 통한 빈곤감축 지원	o 우선분야: –농업과 식량안보, 교육, 보건, 인프라, 물, 산업발전 o 에티오피아지원: –107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일본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5-511088 o 책임자: Head of Dev. Cooperation
5. German Embassy: http://www.addis-abeba.diplo.de/ –Representing German Implementing Agencies(GIZ, KfW, and others)	o 미션: 지속가능한 발전지원 o 목적: 경제성장과 빈곤완화	o 우선분야: –도시개발,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와 경제발전 o 에티오피아지원: –105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독일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1-235139 o 책임자: Head of Bilateral Dev. Cooperation
6. Netherlands Embassy: http://ethiopia.nlembassy.org/	o 미션: MDG달성지원, 공평한 경제 성장 촉진, 양성평등, 자연환경보존 등을 통하여 빈곤감축 노력지원 o 목적: –빈곤감축과 공평한 경제성장 –정부의 역량제고	o 우선분야: –정부역량제고(인권문제 포함)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HIV & AIDS o 에티오피아지원: –67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Netherlands 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3-711100 o 책임자: Head of Dev. Cooperation
7. Irish Aid/Ireland: http://www.dci.gov.ie/	o 미션: –인간개발과 생존권실현 촉진 –민주주의 정착과 신장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o 목적: 취약점을 축소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o 우선분야: –식량안보, 정부역량 강화, 양성평등, 보건(HIV/AIDS 포함) o 에티오피아지원: –47백만 달러(10-12년 평	o Ireland 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4-665005 o 책임자: Head f Dev.

ODA기관/국가	미션/목적	우선분야/에티오피아 지원	현지사무소
	형태의 빈곤감축		Cooperation
8. SIDA/Sweden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http://www.sida.se/English/	o 미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과 제도개선 o 목적: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여건개선	o 우선분야: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과 보건, 경제개발 o 에티오피아지원: –36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Sweden 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1)115-180018 o 책임자: Head of Dev. Cooperation
9. NORAD/Norway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http://www.norad.no/en/front-page	o 미션: 정부의 발전전략을 존중하며 비교우위가 있는 자연자원관리와 청정에너지분야 지원 o 목적: 자연의 생명보호기능 유지를 통한 생존여건개선 및 다양화, 그리고 Good Governance 역량제고	o 우선분야: –환경과 청정에너지 –Good Governance o 에티오피아지원: –34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Norway 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3-710799 o 책임자: Head of Dev. Cooperation
10. AECID/Spain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ttp://www.aecid.es	o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o 빈곤 퇴치 o 평화정착과 인권신장	o 우선분야: –농업과 식량안보 –보건과 양성평등 o 에티오피아지원: –31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Spain 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6-185365 o 책임자: Head of Dev. Cooperation
11. Finland Embassy: http://www.finland.org.et/	o 미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감축 o 목적: –빈곤 타파 –세계적인 환경재앙 예방 –평등, 인건, 민주주의 증진	o 우선분야: –교육과 물 o 에티오피아지원: –27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Finland 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3~205920 o 책임자: Head of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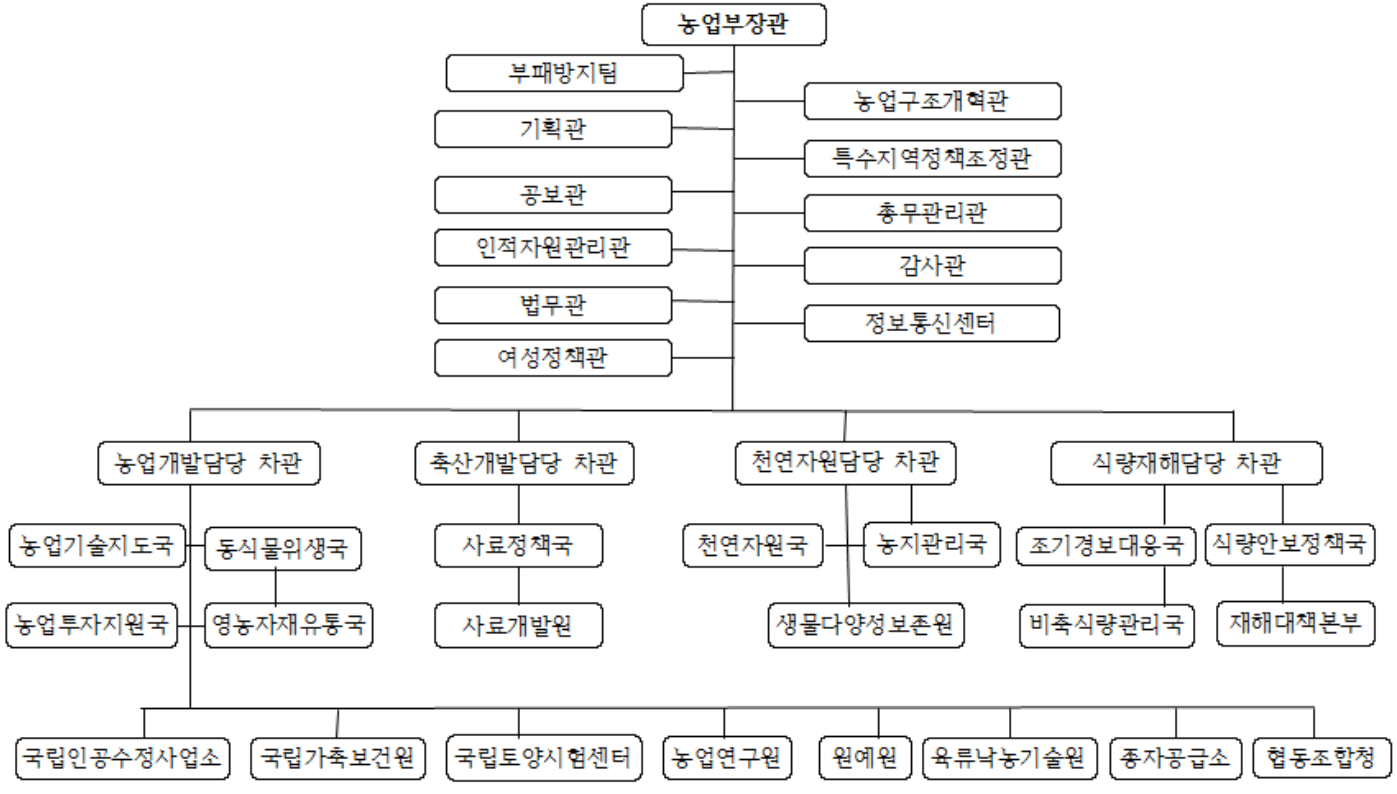
ODA기관/국가	미션/목적	우선분야/에티오피아 지원	현지사무소
12. IDC/Italy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http://www.cooperazioneallosviluppo.esteri.it/pdgcs/inglese/intro.html	o 미션: –빈곤 타파 관련 국제규약 준수 –인권과 생존권 실현추구 o 목적: –에티오피아 정부의 정책존중 –다른 DAG 회원국과의 협조	o 우선분야: –농촌개발과 식량안보 –교육, 보건, 물 o 에티오피아지원: –23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Italy 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1-239600 o 책임자: Head of Agency
13. AFD/France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http://www.afd.fr/lang/en/home	o 미션: –빈곤과 불평등 타파 –글로벌 공공재보호 –Good Governance 등 o 목적: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분야 우선지원	o 우선분야: –MDG관련분야로 물, 위생, 도시기반 –전 분야 공통이슈로 Governance, 대학 간 연구협력, 문화다양성 o 에티오피아지원: –16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France 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1-400000 o 책임자: Head of Cooperation Representing AFD
14. DANIDA/Denmark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http://um.dk/en/danida-en/	o 미션: 빈곤 감축 o 목적: –세계화에 동참지원 –EU와 아프리카의 관계강화 –청년고용과 양성평등 강조	o 우선분야: –고용, 청년, 양성평등 o 에티오피아지원: –13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Denmark 대사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6-187075 o 책임자: Head of Agency

[별첨 4-2] 주요 국제기구의 에티오피아 현지 활동개요

국제기구	미션/목적	우선분야/에티오피아 지원	현지사무소
1.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en/country/ethiopia	o 미션: 빈곤 타파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구노력지원 o 목적: 정부정책의 연상선상에서 인적 물적 자원과 제도개선 등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지속되도록 지원	o 우선분야: -식량안보, 인프라 -기본서비스와 Governance o 에티오피아지원(IDA): -712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에티오피아 사무소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5-176000 o 책임자: Country Director for Ethiopia and Sudan
2. European Union: http://eeas.europa.eu/delegations/ethiopia/index_en.htm	o 미션: 빈곤 감축 및 타파 o 목적: 세계적인 주요과제의 도전에 동참함으로써 유럽의 부가적인 가치를 증명	o 우선분야: -농촌개발. 식량안보, 지역통합과 교통, 거시경제지원, Governance o 에티오피아지원: -230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에티오피아 사무소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6-612511 o 책임자: Head of Cooperation
3. African Development Bank: http://www.afdb.org/en/countries/east-africa/ethiopia/	o 미션: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감축 o 목적: 정부의 국가발전정책에 따른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 지원	o 우선분야: 농업구조전환, 인프라, 지역통합과 Governance o 에티오피아지원: -161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에티오피아 사무소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5-546336 o 책임자: Representative
4. IMF: http://www.imf.org/external/country/eth/rr/index.htm	o 미션: 거시 경제적 재정적 안정지원 o 목적: -성장촉진 및 거시경제안정 -정부의 빈곤 감축노력 지원	o 우선분야: -재정, 금융, 외환 관련 정책 o 에티오피아지원(IDA): -41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에티오피아 사무소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6-627800 o 책임자: Resident Representative

국제기구	미션/목적	우선분야/에티오피아 지원	현지사무소
5. FAO: http://coin.fao.org/cms/world/ethiopia/Home.html	o 미션: 능동적이고 건강한 삶이 가능한 식량안보 실현 o 목적: –기아와 영양실조 근절 –빈곤 감축과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o 우선분야: 추진 중인 사업 –영세농의 상업화와 가치체계 –자연재해대비와 비상대응 –농민교육 등 o 에티오피아지원: –농업기술지원 전문기구	o 에티오피아 사무소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5-513049 o 책임자: Representative in Ethiopia, AU, ECA
6. IFAD: http://operations.ifad.org/web/ifad/operations/country/home/tags/ethiopia	o 미션: –기아와 농촌빈곤감축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 증대 o 목적: –정부의 GTP 전략과 일치 –식량안보와 농가소득증대	o 우선분야: 추진 중인 사업 –목축지대의 농촌개발 –농촌자연자원의 종합관리 –주민참여형 소규모 관개시설 o 에티오피아지원: –18백만 달러(10-12년 평균)	o 에티오피아 사무소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Tel(0)115-443122 o 책임자: Field Support Manager

[별첨 5] 에티오피아 농업부 조직도



[별첨 6]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농업·농촌개발 분야 개발협력 사업

1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No	Project Code	Project Title	Fund in USD	End Date	Donor	Implemented By
1	USAID 39 AAIFP	African Alliance for improved Food Processing	3,000,000	2015-01-28	USAID	NGO
2	UNDP 02 DRRE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Early Recovery Project	17,000,000	2014-06-30	UNDP	GoE
3	CIDA 16 MED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245,000	2016-03-29	Local	NGO
4	CIDA 16 MED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0,000,000	2016-03-29	CIDA	NGO
5	CIDA 16 MED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134,392	2016-03-29	MEDA	NGO
6	CIDA 04 SRVC	Strengthening Rural Value Chains in Ethiopi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0,000,000	2014-08-31	CIDA	NGO

2 아파(Afar)

No	Project Code	Project Title	Fund in USD	End Date	Donor	Implemented By
1	DFID 13 ARUN	Acclerating Reductions in Under Nutrition	54,823,890	2017-08-29	DFID	Multi
2	MoA 01 ATVET	ATVET Project	9,705,882	2015-12-31	GoE	GoE
3	UNDP 02 DRRE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Early Recovery Project	17,000,000	2014-06-30	UNDP	GoE
4	EC 19 LVCPPD	Improving and Integrating Animal Health Services in the Livestock Value Chain through Public Private Dialogue in Ethiopia(LVC/P)	12,546,000	2015-11-08	EC	GoE
5	SPAN 10 IASBS	Improving the Access to Social Basic Services Food Security and Access to Water 티그레이(Tigray)	5,289,000	2014-12-31	SPAN	NGO
6	USAID 40 PRIME	Pastoralist Resiliency Improvement through Market Expansion	50,000,000	2017-10-14	USAID	NGO
7	SPAN 15 SLCSS	Strengthening Local Capacities to Develop Sustainable Systems to access water and basic sanitation in 아파(Afar)	549,026	2015-04-01	SPAN	NGO
8	GDC 10 SRPAL	Strengthening resilience of Pastoral and Agro-Pastoral Livelihoods in 아파(Afar)	5,400,000	2019-09-01	GDC	GoE

3 암하라(Amhara)

No	Project Code	Project Title	Fund in USD	End Date	Donor	Implemented By
1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20,800,000	2015-09-29	Local	GoE
2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USAID	GoE
3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Bi-Lateral	GoE
4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7,000,000	2015-09-29	GoE	GoE
5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370,670	2015-09-29	SPAN	GoE
6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GAFSP	GoE
7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8,400,000	2015-09-29	NETH	GoE
8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50,000,000	2015-09-29	WB	GoE
9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8,000,000	2015-09-29	CIDA	GoE
10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74,300,000	2015-06-30	IREAID	GoE
11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530,900,000	2015-06-30	USAID	GoE
12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360,000,000	2015-06-30	EC	GoE
13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23,000,000	2015-06-30	SWED	GoE
14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50,000,000	2015-06-30	WFP	GoE
15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282,300,000	2015-06-30	DFID	GoE
16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71,300,000	2015-06-30	NETH	GoE
17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462,500,000	2015-06-30	WB	GoE
18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81,800,000	2015-06-30	CIDA	GoE
19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0,000,000	2015-03-29	GoE	GoE
20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41,800,000	2015-03-29	DFID	GoE
21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7,500,000	2015-03-29	WB	GoE
22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6,300,000	2015-03-29	IREAID	GoE
23	GDC 03 ESSI	Enhancing Small Scale Irrigation Project	1,400,000	2015-02-07	MASHAV	NGO
24	GDC 03 ESSI	Enhancing Small Scale Irrigation Project	2,100,000	2015-02-07	GTZ	NGO
25	FIN 04 LAP	Land Administration Project	15,744,000	2016-06-01	FIN	GoE

26	DFID 13 ARUN	Acclerating Reductions in Under Nutrition	54,823,890	2017-08-29	DFID	Multi
27	ITAL 06 SUPHORT	Capacity Building of Agricultural Services for Supporting Horticultural Sector Development	4,080,000	2014-06-07	ITAL	GoE
28	US 30 CIAFS	Capacity to Improv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7,500,000	2015-02-27	USAID	NGO
29	CIDA 14 FSF	Food Sufficiency for Farmers	12,000,000	2017-06-29	CIDA	NGO
30	CIDA 14 FSF	Food Sufficiency for Farmers	1,050,000	2017-06-29	CARE CAN	NGO
31	EC 49 GCCA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 for Ethiopia	16,851,000	2017-01-29	EC	GoE
32	EC 19 LVCPPD	Improving and Integrating Animal Health Services in the Livestock Value Chain through Public Private Dialogue in Ethiopia(LVC/P)	12,546,000	2015-11-08	EC	GoE
33	WB 02 IDP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WB# P092353	15,000,000	2017-10-31	GoE	GoE
34	WB 02 IDP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WB# P092353	160,000,000	2017-10-31	WB	GoE
35	DFID 11 LIFT	Land Investment for Transformation	45,309,000	2018-04-02	DFID	GoE
36	CIDA 16 MED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0,000,000	2016-03-29	CIDA	NGO
37	CIDA 16 MED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134,392	2016-03-29	MEDA	NGO
38	CIDA 16 MED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245,000	2016-03-29	Local	NGO
39	CIDA 18 MLIL	Market Led Improved Livlihoods	5,580,000	2017-10-29	CIDA	NGO
40	MoA 11 PASDIP	Participatory Small Scale 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	40,000,000	2015-03-29	IFAD	GoE
41	MoA 11 PASDIP	Participatory Small Scale 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	17,800,000	2015-03-29	GoE	GoE
42	US 34 MYAP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MYAP	5,000,000	2016-09-28	USAID	GoE
43	MoA 13 SUPFM	Scaling Up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2,100,000	2015-01-29	GoE	GoE
44	MoA 13 SUPFM	Scaling Up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8,400,000	2015-01-29	EC	GoE
45	USAID 36 SHH	Small Holder Horticulture	543,704	2015-04-29	MASHAV	NGO
46	USAID 36 SHH	Small Holder Horticulture	1,631,111	2015-04-29	USAID	NGO
47	ITAL 04 SFCPP	Strengthening of Fruit and Cactus Pear Production in 티그레이(Tigray) and North Wollo	3,050,000	2010-12-31	ITAL	Multi
48	CIDA 04 SRVC	Strengthening Rural Value Chains in Ethiopi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0,000,000	2014-08-31	CIDA	NGO

49	EC 13 SSLFME	Strengthening Sustainable Livelihoods and Forest Management in Ethiopia	3,788,180	2014-12-31	EC	NGO
50	CIDA 13 UNICEF	UNICEF Nutrition Project	35,000,000	2016-12-29	UNICEF	GoE
51	CIDA 13 UNICEF	UNICEF Nutrition Project	50,000,000	2016-12-29	CIDA	GoE

4 BENISHANGUL GUMUZ

No	Project Code	Project Title	Fund in USD	End Date	Donor	Implemented By
1	FIN 04 LAP	Land Administration Project	15,744,000	2016-06-01	FIN	GoE
2	DFID 13 ARUN	Acclerating Reductions in Under Nutrition	54,823,890	2017-08-29	DFID	Multi
3	MoA 01 ATVET	ATVET Project	9,705,882	2015-12-31	GoE	GoE
4	CIDA 01 BSGFS	Beneshangul-Gumuz Food Security Program	21,000,000	2015-12-31	CIDA	NGO
5	CIDA 09 CPAR	CPAR-PROGRAM 2009~2014	2,613,494	2014-09-29	CIDA	NGO
6	MoA 13 SUPFM	Scaling Up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2,100,000	2015-01-29	GoE	GoE
7	MoA 13 SUPFM	Scaling Up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8,400,000	2015-01-29	EC	GoE
8	EC 13 SSLFME	Strengthening Sustainable Livelihoods and Forest Management in Ethiopia	3,788,180	2014-12-31	EC	NGO

4 디레 디와(Dire Dawa)

No	Project Code	Project Title	Fund in USD	End Date	Donor	Implemented By
1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41,800,000	2015-03-29	DFID	GoE
2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7,500,000	2015-03-29	WB	GoE
3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6,300,000	2015-03-29	IREAID	GoE
4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0,000,000	2015-03-29	GoE	GoE

5 GAMBELLA

No	Project Code	Project Title	Fund in USD	End Date	Donor	Implemented By
1	UNDP 02 DRRE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Early Recovery Project	17,000,000	2014-06-30	UNDP	GoE

6 HARARI

No	Project Code	Project Title	Fund in USD	End Date	Donor	Implemented By
1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41,800,000	2015-03-29	DFID	GoE
2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7,500,000	2015-03-29	WB	GoE
3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6,300,000	2015-03-29	IREAID	GoE
4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0,000,000	2015-03-29	GoE	GoE

7 OROMIYA

No	Project Code	Project Title	Fund in USD	End Date	Donor	Implemented By
1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GAFSP	GoE
2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8,400,000	2015-09-29	NETH	GoE
3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50,000,000	2015-09-29	WB	GoE
4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8,000,000	2015-09-29	CIDA	GoE
5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20,800,000	2015-09-29	Local	GoE
6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USAID	GoE
7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Bi-Lateral	GoE
8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7,000,000	2015-09-29	GoE	GoE
9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370,670	2015-09-29	SPAN	GoE
10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360,000,000	2015-06-30	EC	GoE
11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23,000,000	2015-06-30	SWED	GoE

12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50,000,000	2015-06-30	WFP	GoE
13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282,300,000	2015-06-30	DFID	GoE
14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71,300,000	2015-06-30	NETH	GoE
15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462,500,000	2015-06-30	WB	GoE
16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81,800,000	2015-06-30	CIDA	GoE
17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74,300,000	2015-06-30	IREAID	GoE
18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530,900,000	2015-06-30	USAID	GoE
19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41,800,000	2015-03-29	DFID	GoE
20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7,500,000	2015-03-29	WB	GoE
21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6,300,000	2015-03-29	IREAID	GoE
22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0,000,000	2015-03-29	GoE	GoE
23	GDC 03 ESSI	Enhancing Small Scale Irrigation Project	2,100,000	2015-02-07	GTZ	NGO
24	GDC 03 ESSI	Enhancing Small Scale Irrigation Project	1,400,000	2015-02-07	MASHAV	NGO
25	USAID 39 AAIFP	African Alliance for improved Food Processing	3,000,000	2015-01-28	USAID	NGO
26	GDC 04 ATC	Agricultural Training Center	2,380,000	2014-04-30	GTZ	NGO
27	ITAL 05 AVCO	Agricultural Value Chains in 오로미아(Oromia)	2,312,000	2012-05-12	ITAL	GoE
28	MoA 01 ATVET	ATVET Project	9,705,882	2015-12-31	GoE	GoE
29	ITAL 06 SUPHORT	Capacity Building of Agricultural Services for Supporting Horticultural Sector Development	4,080,000	2014-06-07	ITAL	GoE
30	US 30 CIAFS	Capacity to Improv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7,500,000	2015-02-27	USAID	NGO
31	CIDA 09 CPAR	CPAR-PROGRAM2 009~2014	2,613,494	2014-09-29	CIDA	NGO
32	UNDP 02 DRRE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Early Recovery Project	17,000,000	2014-06-30	UNDP	GoE
33	USAID 43 ECFSP	Ethiopia Commercial Farm Service Program	1,963,265	2014-08-29	USAID	NGO
34	SPAN 11 FSRDO	F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 in Orimiya	2,460,000	2014-12-31	SPAN	NGO
35	CIDA 14 FSF	Food Sufficiency for Farmers	12,000,000	2017-06-29	CIDA	NGO
36	CIDA 14 FSF	Food Sufficiency for Farmers	1,050,000	2017-06-29	CARE CAN	NGO
37	EC 49 GCCA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 for Ethiopia	16,851,000	2017-01-29	EC	GoE

38	EC 19 LVCPPD	Improving and Integrating Animal Health Services in the Livestock Value Chain through Public Private Dialogue in Ethiopia(LVC/P	12,546,000	2015-11-08	EC	GoE
39	CIDA 15 IRP	Innovation for Rural Prosperity	1,166,063	2017-08-29	CIDA	GoE
40	JICA 01 IDCBP	Irrigation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Project	5,770,000	2014-05-31	JICA	GoE
41	DFID 11 LIFT	Land Investment for Transformation	45,309,000	2018-04-02	DFID	GoE
42	MoA 11 PASDIP	Participatory Small Scale 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	17,800,000	2015-03-29	GoE	GoE
43	MoA 11 PASDIP	Participatory Small Scale 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	40,000,000	2015-03-29	IFAD	GoE
44	USAID 40 PRIME	Pastoralist Resiliency Improvement through Market Expansion	50,000,000	2017-10-14	USAID	NGO
45	CIDA 08 NSAC	Post-Harvest Management to Improve Food Security	3,000,000	2014-08-29	CIDA	NGO
46	US 34 MYAP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MYAP	5,000,000	2016-09-28	USAID	GoE
47	JICA 04 FRG	Projecton Strengthening Technology Development, Verification, Transfer and Adoption through Farmer Research Groups(FRGs)	5,560,000	2015-03-28	JICA	GoE
48	SPAN 12 PRDO	Promoting Rural Development Improving the Livelihood and Reducing Vulnerability in Oromiya	3,444,000	2014-12-31	SPAN	NGO
49	JICA 08 RREP	Rural Resilience Enhancement Project	14,165,538	2015-01-29	JICA	GoE
50	MoA 13 SUPFM	Scaling Up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2,100,000	2015-01-29	GoE	GoE
51	MoA 13 SUPFM	Scaling Up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8,400,000	2015-01-29	EC	GoE
52	USAID 36 SHH	Small Holder Horticulture	1,631,111	2015-04-29	USAID	NGO
53	USAID 36 SHH	Small Holder Horticulture	543,704	2015-04-29	MASHAV	NGO
54	EC 51 SMART	Small Holder Markets and Agricultural resilience Transformation	5,500,000	2014-10-23	EC	NGO
55	EC 13 SSLFME	Strengthening Sustainable Livelihoods and Forest Management in Ethiopia	3,788,180	2014-12-31	EC	NGO
56	JICA 07 FFS	Sustainabl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through FFS in Rift Valley of Orimia	3,200,000	2016-11-29	JICA	GoE
57	CIDA 13 UNICEF	UNICEF Nutrition Project	35,000,000	2016-12-29	UNICEF	GoE
58	CIDA 13 UNICEF	UNICEF Nutrition Project	50,000,000	2016-12-29	CIDA	GoE

8 SNNPR

No	Project Code	Project Title	Fund in USD	End Date	Donor	Implemented By
1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50,000,000	2015-09-29	WB	GoE
2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8,000,000	2015-09-29	CIDA	GoE
3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20,800,000	2015-09-29	Local	GoE
4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USAID	GoE
5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Bi-Lateral	GoE
6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7,000,000	2015-09-29	GoE	GoE
7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370,670	2015-09-29	SPAN	GoE
8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GAFSP	GoE
9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8,400,000	2015-09-29	NETH	GoE
10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530,900,000	2015-06-30	USAID	GoE
11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360,000,000	2015-06-30	EC	GoE
12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23,000,000	2015-06-30	SWED	GoE
13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50,000,000	2015-06-30	WFP	GoE
14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282,300,000	2015-06-30	DFID	GoE
15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71,300,000	2015-06-30	NETH	GoE
16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462,500,000	2015-06-30	WB	GoE
17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81,800,000	2015-06-30	CIDA	GoE
18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74,300,000	2015-06-30	IREAID	GoE
19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6,300,000	2015-03-29	IREAID	GoE
20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0,000,000	2015-03-29	GoE	GoE
21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41,800,000	2015-03-29	DFID	GoE
22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7,500,000	2015-03-29	WB	GoE
23	GDC 03 ESSI	Enhancing Small Scale Irrigation Project	1,400,000	2015-02-07	MASHAV	NGO
24	GDC 03 ESSI	Enhancing Small Scale Irrigation Project	2,100,000	2015-02-07	GTZ	NGO
25	MoA 01 ATVET	ATVET Project	9,705,882	2015-12-31	GoE	GoE

26	US 30 CIAFS	Capacity to Improv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7,500,000	2015-02-27	USAID	NGO
27	EC 49 GCCA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 for Ethiopia	16,851,000	2017-01-29	EC	GoE
28	DFID 11 LIFT	Land Investment for Transformation	45,309,000	2018-04-02	DFID	GoE
29	CIDA 16 MED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134,392	2016-03-29	MEDA	NGO
30	CIDA 16 MED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245,000	2016-03-29	Local	NGO
31	CIDA 16 MED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0,000,000	2016-03-29	CIDA	NGO
32	MoA 11 PASDIP	Participatory Small Scale 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	40,000,000	2015-03-29	IFAD	GoE
33	MoA 11 PASDIP	Participatory Small Scale 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	17,800,000	2015-03-29	GoE	GoE
34	MoA 13 SUPFM	Scaling Up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8,400,000	2015-01-29	EC	GoE
35	MoA 13 SUPFM	Scaling Up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2,100,000	2015-01-29	GoE	GoE
36	USAID 36 SHH	Small Holder Horticulture	1,631,111	2015-04-29	USAID	NGO
37	USAID 36 SHH	Small Holder Horticulture	543,704	2015-04-29	MASHAV	NGO
38	EC 51 SMART	Small Holder Markets and Agricultural resilience Transformation	5,500,000	2014-10-23	EC	NGO
39	CIDA 04 SRVC	Strengthening Rural Value Chains in Ethiopia: Market Based Solutions for Improved Livelihoods	10,000,000	2014-08-31	CIDA	NGO
40	EC 13 SSLFME	Strengthening Sustainable Livelihoods and Forest Management in Ethiopia	3,788,180	2014-12-31	EC	NGO
41	CIDA 13 UNICEF	UNICEF Nutrition Project	50,000,000	2016-12-29	CIDA	GoE
42	CIDA 13 UNICEF	UNICEF Nutrition Project	35,000,000	2016-12-29	UNICEF	GoE

9 소말리(Somali)

No	Project Code	Project Title	Fund in USD	End Date	Donor	Implemented By
1	SPAN 09 APWFS	Access to Potable Water and Food Security for Population Vulnerable to Chronic Drought	5,535,000	2014-12-01	SPAN	NGO
2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360,000,000	2015-06-30	EC	GoE
3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23,000,000	2015-06-30	SWED	GoE
4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50,000,000	2015-06-30	WFP	GoE

5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282,300,000	2015-06-30	DFID	GoE
6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71,300,000	2015-06-30	NETH	GoE
7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462,500,000	2015-06-30	WB	GoE
8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81,800,000	2015-06-30	CIDA	GoE
9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74,300,000	2015-06-30	IREAID	GoE
10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530,900,000	2015-06-30	USAID	GoE
11	MoA 01 ATVET	ATVET Project	9,705,882	2015-12-31	GoE	GoE
12	USAID 42 CAMEL	Camel Value Chain Development Somali	1,965,837	2116-12-23	USAID	NGO
13	UNDP 02 DRRE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Early Recovery Project	17,000,000	2014-06-30	UNDP	GoE
14	EC 19 LVCPPD	Improving and Integrating Animal Health Services in the Livestock Value Chain through Public Private Dialogue in Ethiopia(LVC/P	12,546,000	2015-11-08	EC	GoE
15	SPAN 16 IESS	Improving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in Somali Region	540,295	2015-04-01	SPAN	NGO
16	USAID 40 PRIME	Pastoralist Resiliency Improvement through Market Expansion	50,000,000	2017-10-14	USAID	NGO
17	JICA 08 RREP	Rural Resilience Enhancement Project	14,165,538	2015-01-29	JICA	GoE

10 티그레이(Tigray)

No	Project Code	Project Title	Fund in USD	End Date	Donor	Implemented By
1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50,000,000	2015-09-29	WB	GoE
2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8,000,000	2015-09-29	CIDA	GoE
3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20,800,000	2015-09-29	Local	GoE
4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USAID	GoE
5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Bi-Lateral	GoE
6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7,000,000	2015-09-29	GoE	GoE
7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1,370,670	2015-09-29	SPAN	GoE
8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50,000,000	2015-09-29	GAFSP	GoE
9	Multi 10 AGP	Agricultural Growth	8,400,000	2015-09-29	NETH	GoE
10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530,900,000	2015-06-30	USAID	GoE

11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360,000,000	2015-06-30	EC	GoE
12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23,000,000	2015-06-30	SWED	GoE
13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50,000,000	2015-06-30	WFP	GoE
14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282,300,000	2015-06-30	DFID	GoE
15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71,300,000	2015-06-30	NETH	GoE
16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462,500,000	2015-06-30	WB	GoE
17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81,800,000	2015-06-30	CIDA	GoE
18	Multi 07 PSNPAPLIII	Ethiopia Productive Safety Net APLIII Project(P113220)	74,300,000	2015-06-30	IREAID	GoE
19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0,000,000	2015-03-29	GoE	GoE
20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41,800,000	2015-03-29	DFID	GoE
21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17,500,000	2015-03-29	WB	GoE
22	Multi 10 HABP	Household Asset Building Program	6,300,000	2015-03-29	IREAID	GoE
23	GDC 03 ESSI	Enhancing Small Scale Irrigation Project	1,400,000	2015-02-07	MASHAV	NGO
24	GDC 03 ESSI	Enhancing Small Scale Irrigation Project	2,100,000	2015-02-07	GTZ	NGO
25	DFID 13 ARUN	Acclerating Reductions in Under Nutrition	54,823,890	2017-08-29	DFID	Multi
26	US 30 CIAFS	Capacity to Improv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7,500,000	2015-02-27	USAID	NGO
27	USAID 38 EE	Environmental Entrepreneurship	1,903,797	2018-07-04	USAID	NGO
28	EC 49 GCCA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 for Ethiopia	16,851,000	2017-01-29	EC	GoE
29	EC 19 LVCPPD	Improving and Integrating Animal Health Services in the Livestock Value Chain through Public Private Dialogue in Ethiopia(LVC/P	12,546,000	2015-11-08	EC	GoE
30	SPAN 10 IASBS	Improving the Access to Social Basic Services Food Security and Access to Water 티그레이(Tigray)	5,289,000	2014-12-31	SPAN	NGO
31	DFID 11 LIFT	Land Investment for Transformation	45,309,000	2018-04-02	DFID	GoE
32	MoA 11 PASDIP	Participatory Small Scale 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	40,000,000	2015-03-29	IFAD	GoE
33	MoA 11 PASDIP	Participatory Small Scale 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	17,800,000	2015-03-29	GoE	GoE
34	US 34 MYAP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MYAP	5,000,000	2016-09-28	USAID	GoE
35	USAID 36 SHH	Small Holder Horticulture	1,631,111	2015-04-29	USAID	NGO
36	USAID 36 SHH	Small Holder Horticulture	543,704	2015-04-29	MASHAV	NGO

37	ITAL	04	SFCPP	Strengthening of Fruit and Cactus Pear Production in Tigray and North Wollo	3,050,000	2010-12-31	ITAL	Multi
38	CIDA	13	UNICEF	UNICEF Nutrition Project	35,000,000	2016-12-29	UNICEF	GoE
39	CIDA	13	UNICEF	UNICEF Nutrition Project	50,000,000	2016-12-29	CIDA	GoE

연구자료 서아프리카 2014-07-126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3개국(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에티오피아

발 행 2014년 6월
발 행 인 김 영 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서아프리카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이프리넷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물 등록번호 11-B260003-000410-01